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 방안 연구

이윤주 · 김형주 · 오해섭 · 박대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모형 구축 방안 연구

저 자 이윤주, 김형주, 오해섭, 박대승

연구진 연구책임자_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대승(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속의 한국. 청년 국제교류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 국제교류는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서 대학 소속이 없는 청년의 경우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더라도 해외 기관 및 시설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등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국제교류 특성 상 국가 관계 등 외부 변수가 많이 작용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유지하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활동 범위는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 확장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교류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갔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제1차 청년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어 청년정책으로서도 국제교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제교류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4년 기준, 코로나19 상황이 전환됨에 따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는 청년 친화적인 형태의 모델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의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방안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Erasmus+ 프로그램을 대표로 선정한 이유는 청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목표, 과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EU Erasmus+ 모델 분석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이 이루어진 EU Erasmus+ 모델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해당 모델의 개념 및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한국형 Erasmus+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주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분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운영 주체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시행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형 Erasmus+ 모델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년층에게 필요한 국제교류 모델 구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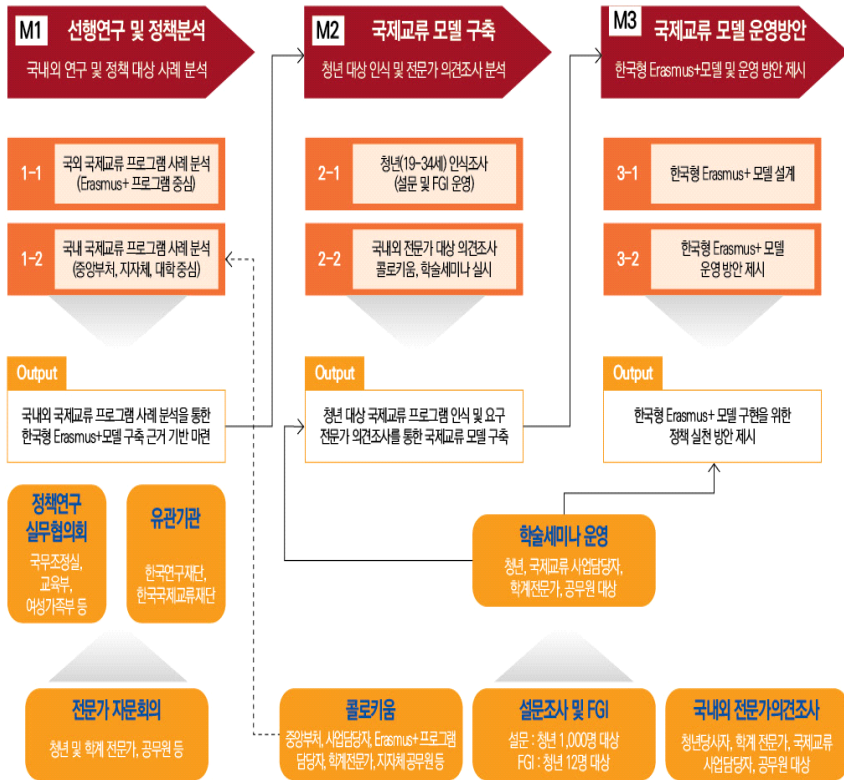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담(FGI)으로 살펴본 청년들의 국제교류 인식과 경험, 정책적 요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전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 지원에 따른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당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 및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는데 실증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및 실현방안 모색

청년당사자, 국제교류 관련 학계 전문가, 국내외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Erasmus+ 모델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연구 추진체계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방안 연구 추진도

■ 연구결과

주요 연구 결과

(1) 기존 청년대상 국제교류 사업 분석

- EU Erasmus+ 분석 → 지속가능한 청년 국제교류 모델 목표, 방향, 운영방식을 토대로 한국형 Erasmus+ 토대 제공 → 정책과제 도출 위한 근거 마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학, 해외국가(일본) 운영 사례 분석 → 청년층 설문조사 및 FGI 문항 개발 및 전문가의견조사 근거자료 활용 → 정책과제 도출 위한 근거 마련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 1,000명 대상 국제교류 필요성 및 인식조사 → 청년층의 국제교류 인식, 경험, 정책요구 조사 → 정책과제 도출의 실증 근거 마련

(3) FGI(초점집단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 대상 FGI 실시 →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 청년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 청년 당사자, 국내외 국제교류 학계 전문가, 현장 사업 담당자, 공무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국제교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도출

(5) 정책세미나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청년,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온오프라인 정책세미나를 실시 → 한국형 Erasmus+ 모델 타당성 확보 → 모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검토를 통해 실증근거 마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형 Erasmus+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3대 정책과제와 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추진 방향	3대 정책과제	6대 세부실천 과제	추진 목표
도전하는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촉촉하고 강한 네트워크망 구축 청년 개인의 삶 및 공공외교 주체로서 청년 참여 확대	1.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3. 청년 주도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청년 국제교류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유기적 국제교류의 장 마련 참여 주체 간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 운영 청년 국제교류의 중장기 공동 목표 수립 및 국내외 참여자 대상 웹/앱 확보 생애주기를 반영한 청년정책으로서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계 참여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청년 주도의 한국형 Erasmus+ 네트워크 구성 운영	도전하는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공외교 실현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발판 마련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운영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 과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모형 구축 방안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추진체계	8
3. 연구내용	10
4. 연구방법	13
5. 기대효과	18

II. 유럽연합(EU)의 Erasmus+모델 소개 및 분석

1. Erasmus+ 개요	21
2. 운영 구조	25
3. 프로그램 참여 범위와 비유럽권 국가 참여 방안	34
4. 프로그램 운영 사례	39
5. 요약 및 시사점	46

Ⅲ. 국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현황 분석

1. 중앙정부 국제교류 프로그램	55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	65
3.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73
4. 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본)	88
5. 요약 및 시사점	96

Ⅳ. 청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인식 및 정책요구 분석

1. 설문조사	103
2. 초점집단면담조사(FGI)	182
3.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5

Ⅴ. 한국형 Erasmus+모델 구축 및 정책제언

1. 한국형 Erasmus+ 모델 도출 과정 및 정책 방향목표 설정	215
2. 한국형 Erasmus+ 설계 방향 및 목적	219
3. 한국형 Erasmus+모형 구성 및 운영방안	220
4. 한국형 Erasmus+의 청년정책 연계 운영 방안	244
5.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57
6.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264

참고문헌	281
------------	-----

부 록	287
-----------	-----

표 목차

표 Ⅰ-1.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요	11
표 Ⅰ-2. 전문가 자문 개요	14
표 Ⅰ-3. 설문조사 개요	14
표 Ⅰ-4.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15
표 Ⅰ-5.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6
표 Ⅰ-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16
표 Ⅰ-7. 콜로키움 개최 결과	17
표 Ⅰ-8.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18
표 Ⅱ-1. Erasmus+ 영역(domain)	25
표 Ⅱ-2. Erasmus+ 키 액션의 내용	26
표 Ⅱ-3. 키 액션 1의 하위 액션 유형	29
표 Ⅱ-4. 키 액션 2의 하위 액션 유형	31
표 Ⅱ-5. 키 액션 3 하위 액션 유형	32
표 Ⅱ-6. 장 모네 액션 하위 액션 유형	33
표 Ⅱ-7. 스포츠 하위 액션 유형	33
표 Ⅱ-8. 유로필로조피 컨소시엄 변화	43
표 Ⅲ-1. 청년 대상 국제교류 주요 프로그램	56
표 Ⅲ-2. 여성가족부 청(소)년 주요 국제교류 사업	63
표 Ⅲ-3.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부처 단위 비교	64
표 Ⅲ-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66
표 Ⅲ-5. 경기도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69
표 Ⅲ-6.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지자체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71
표 Ⅲ-7.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지자체 단위 비교	72
표 Ⅲ-8. '22 기준년도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76
표 Ⅲ-9. '22 기준년도 학술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77
표 Ⅲ-10. 고려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현황	78
표 Ⅲ-11. '22 기준년도 인하대학교 학점교류를 위한 외국대학 교류 현황	79
표 Ⅲ-12. '22 기준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81

표 III-13. '22 기준년도 한양대학교 해외 협력교 숫자 및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83
표 III-14. '22 기준년도 서울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MOU) 총괄 현황	84
표 III-15. '22 SNU in the World Program(SWP)	86
표 III-16. 전북대학교 대학정보공시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류현황(2022년도 현황)	87
표 IV-1. 문항 구성	103
표 IV-2. 조사 응답자 특성	104
표 IV-3.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105
표 IV-4.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106
표 IV-5.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107
표 IV-6.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108
표 IV-7.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	109
표 IV-8.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110
표 IV-9.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111
표 IV-10.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112
표 IV-11.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13
표 IV-12.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114
표 IV-13.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115
표 IV-1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116
표 IV-15.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117
표 IV-16.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118
표 IV-1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119
표 IV-18.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120
표 IV-19.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121
표 IV-20.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	122
표 IV-2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123
표 IV-22.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124
표 IV-23.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 이유	125
표 IV-2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126

표 IV-25.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127
표 IV-2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128
표 IV-27.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129
표 IV-28.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130
표 IV-29.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131
표 IV-30.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32
표 IV-31.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133
표 IV-32.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134
표 IV-33.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35
표 IV-34.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136
표 IV-35.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137
표 IV-36.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38
표 IV-37.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139
표 IV-38.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140
표 IV-39.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141
표 IV-40.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142
표 IV-41.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143
표 IV-42.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144
표 IV-4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여부	145
표 IV-4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146
표 IV-4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147
표 IV-4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148
표 IV-4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149
표 IV-4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150
표 IV-49.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151
표 IV-5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52
표 IV-5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153

표 IV-52.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154
표 IV-53.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55
표 IV-5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156
표 IV-5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157
표 IV-5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158
표 IV-57.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	159
표 IV-58.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	160
표 IV-59.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161
표 IV-60.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162
표 IV-61.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163
표 IV-62.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64
표 IV-63.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165
표 IV-64.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166
표 IV-65.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67
표 IV-66.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168
표 IV-67.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169
표 IV-68.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70
표 IV-69.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171
표 IV-70.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172
표 IV-71.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173
표 IV-72.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174
표 IV-73.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175
표 IV-74.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176
표 IV-7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177
표 IV-7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178

표 IV-77. 한국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들간의 청년 교류사업으로 일명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179
표 IV-78.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180
표 IV-79.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181
표 IV-80. FGI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	183
표 IV-81. FGI 참여자 명단 및 특성	184
표 IV-82. FGI 주요 내용 구성	186
표 V-1.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요	217
표 V-2. 한국형 Erasmus+ 설계 요약	219
표 V-3. 유럽연합(EU)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내용	223
표 V-4. EU Erasmus+ 과 한국형 Erasmus+ 의 연계 방안	226
표 V-5.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교육 분야 프로그램	230
표 V-6.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일자리 분야 프로그램	231
표 V-7.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240
표 V-8.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3. 운영 주체 및 방안 예시	241
표 V-9.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1~3.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243
표 V-10. 2024년 국제교류(해외진출)관련 정부 부처 단위 청년정책 사업	245
표 V-11. 한국형 Erasmus+ 구축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258
표 V-12. 한국형 Erasmus+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근거 및 운영방식	259
표 V-13. 국정과제와 본 연구 정책과제의 연계성	260
표 V-1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 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안)	262
표 V-15. 청년기본법 개정(안)	266
표 V-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268
표 V-1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시된 국제교류 관련 사업	277

그림 목차

그림 I-1. 세계 한국학 현황 지도(2024년 기준)	6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9
그림 II-1. Erasmus+ 연간 프로젝트 건수	23
그림 II-2. Erasmus+ 연간 참여 조직 수	24
그림 II-3. Erasmus+ 누적 참가자 수	24
그림 II-4. Erasmus+ 예산 배분 (2022년 기준)	28
그림 II-5.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 추진 절차	46
그림 II-6. Erasmus+ 청년 국제교류 추진 절차	49
그림 III-1.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추진 절차	59
그림 III-2. KF 글로벌 챌린저 추진 운영 절차	61
그림 III-3. 시흥시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추진 일정(2023)	68
그림 III-4. 2023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대학유형별 재적학생 수	75
그림 III-5. 고려대학교 2019년 ~ 2021학년도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현황	85
그림 IV-1.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105
그림 IV-2.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106
그림 IV-3.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107
그림 IV-4.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108
그림 IV-5.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	109
그림 IV-6.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110
그림 IV-7.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	111
그림 IV-8.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112
그림 IV-9.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13
그림 IV-10.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114
그림 IV-1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115
그림 IV-12.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116
그림 IV-13.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117

그림 IV-1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118
그림 IV-15.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119
그림 IV-16.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120
그림 IV-1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121
그림 IV-18.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 ..	122
그림 IV-19.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123
그림 IV-20.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124
그림 IV-2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 이유	125
그림 IV-2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126
그림 IV-23.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	127
그림 IV-24.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	128
그림 IV-25.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129
그림 IV-26.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130
그림 IV-27.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131
그림 IV-28.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32
그림 IV-29.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 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	133
그림 IV-30.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134
그림 IV-31.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35
그림 IV-32.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	136
그림 IV-33.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137
그림 IV-34.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138
그림 IV-35.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139
그림 IV-36.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140
그림 IV-37.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141

그림 IV-38.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142
그림 IV-39.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143
그림 IV-40.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144
그림 IV-4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여부	145
그림 IV-4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	146
그림 IV-4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147
그림 IV-4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148
그림 IV-4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149
그림 IV-4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150
그림 IV-4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151
그림 IV-4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52
그림 IV-49.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153
그림 IV-50.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	154
그림 IV-51.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155
그림 IV-5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	156
그림 IV-5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157
그림 IV-5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158
그림 IV-55.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	159
그림 IV-5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160
그림 IV-57.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161
그림 IV-58.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162
그림 IV-59.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163
그림 IV-60.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64
그림 IV-61.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 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165
그림 IV-62.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166
그림 IV-63.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67
그림 IV-64.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	168
그림 IV-65.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169
그림 IV-66.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170

그림 IV-67.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171
그림 IV-68.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172
그림 IV-69.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173
그림 IV-70.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174
그림 IV-71.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175
그림 IV-72.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176
그림 IV-7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177
그림 IV-7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178
그림 IV-75. 한국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들간의 청년 교류사업으로 일명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179
그림 IV-76.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180
그림 IV-77.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181
그림 IV-78. 여러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도	198
그림 V-1.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	216
그림 V-2.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운영	218
그림 V-3. 한국형 Erasmus+ 운영 (안)	220
그림 V-4. 한국형 Erasmus+ 모형 참여 국가 네트워크	225
그림 V-5.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1. EU Erasmus+ 연계(안)	226
그림 V-6. 향후 한국형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참여 의향 및 정부 지원 필요성	228
그림 V-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	229
그림 V-8. 한국형 Erasmus+ Key Action2.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안)	233
그림 V-9. 청년이 인식하는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236
그림 V-10. 한국학 강좌 지역별 운영 현황	237

그림 V-11. 한국학 강의 설치 주요 국가	238
그림 V-12. 한국학 및 문화 전파 확산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 절차	239
그림 V-13. 한국형 Erasmus+ Key Action3.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안)	241
그림 V-14. 한국형 Erasmus+모형 구축 로드맵	243
그림 V-15. 한국형 Erasmus+ 추진 방향	257
그림 V-16. 청년·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운영 체계(안)	272
그림 V-17. 한국형 Erasmus+ 을 적용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안) ..	27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속의 한국. 청년 국제교류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 국제교류는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서 대학 소속이 없는 청년의 경우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도 해외 기관 및 시설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등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국제교류 특성 상 국가 관계 등 외부 변수가 많이 작용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유지하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활동 범위는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 확장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교류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갔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제1차 청년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어 청년정책으로서도 국제교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제교류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4년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전환됨에 따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는 청년 친화적인 형태의 모델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의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중심으로 정책

1) 이 장은 이윤주 선임연구원이 작성함

방향과 목표, 과제를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다음 세 가지 목적에 맞춰 청년 대상의 국제교류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청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이나 규모 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청년 교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 해외자원봉사단, 국제청소년포럼, 국제청소년캠페스트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청년의 세계시민의식 제고를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추구한다.

청년 국제교류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 다소 침체되었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부처 상황에 따라 국제교류 사업 예산 집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고, 일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국가 관계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획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중앙정부 단위의 청년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던 국제교류의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한국형 국제교류 네트워크 모델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에라스무스 플러스(이하 Erasmus+)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내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연계형 추진체계를 갖추고 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 분야에 따라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Erasmus+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은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제를 통해 끊임없는 교류를 이끌어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한국형 Erasmus+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외사례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온 국제교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국가 연계를 통한 탄탄한 추진체계와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청년 국제교류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문화노동 자원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유연하게 교류할 수 있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간 상생이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2) 내실있는 콘텐츠 중심의 국제교류의 필요성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청년 대상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따라 교류 활동에서의 주제나 목표가 시시각각 변동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의 내용을 보면 주로 상호 문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청년 대상으로 개인 차원에서 국가 이동 기회가 많아지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상호 문화이해 단계를 넘어 국가 단위를 넘어 연대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가 다수 등장함에 따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의 다자 혁신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청년 대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²⁾. 따라서 이제는 문화교류 및 청년 참여의 확장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넘어서 글로벌 사회 이슈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활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lkg SDG's) 주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SDGs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감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황세영, 강경균, 2017). 이는 최근 국제교류 프로그램 주제에서 환경 이슈 등을 통해 국가 간 청소년·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층 더 나아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한국형 청년

2) 2021년에 실시한 2030 국제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있어서도 사전행사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운영된 사례가 있음. 이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미래세대 특별세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35여개국 100여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하였음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해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K-CUklture로 불리는 한류 문화 뿐 아니라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 뿐 아니라 교육, 스포츠, 노동 등 영역을 확장하여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학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국제교류 사업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정부차원에서 한국학을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학 전공 또는 강좌를 운영하는 국가와의 네트워크 교류는 전문가, 학자에 그치고 있어 실제 학생들인 청년 대상으로의 국제교류 사업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 연계한 국제교류는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로도 작용될 수 있다. 한국학, 한류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허브로 하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애주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교육, 문화, 스포츠,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 함으로써 한국형 Erasmus+ 프로그램 모델 구성에 포함할 것이다.

3)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한국형 Erasmus+ 국제교류 모델 구축의 필요성³⁾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내 청년과제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가 있다. 국제교류는 청년들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국정과제 실현과 연관되어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한다면 교육, 일자리, 문화·스포츠 참여와 연결하여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종합평가 분야 중 VIII. 참여·권리 4. 청년 권익 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가 지정된 만큼 이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청년단체와의 교류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필요하다.

또한 국정과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중심의 한-아세안,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국가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를 실현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발전시켜갈 수 있다.

3) 본 절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뿐만 아니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서 Ⅰ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내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가운데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교류 연계 사업으로 기존 여성가족부에서는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청년포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예산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기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9~24세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왔다. 프로그램 대상인 청소년(9~24세) 연령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19~34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서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을 토대로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과거에 비해 해외로의 진출과 국제교류 기회가 많아진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자리 영역에 있어서도 청년 수요를 반영한 일경험, 청년창업 활성화, 내실화 과정에서 해외로의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경험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대학 비진학 청년, 고졸 취업 청년, 지역 청년 등 국제교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교육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Erasmus+는 1987년부터 청년 대상으로 시행된 국제교류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고 우리나라 청년정책에서도 참여 모델 사례로 많이 제시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Erasmus+ 모형을 토대로 한국 청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년 진화적인 정책을 통해 다수 일반 청년들의 삶을 향상하고 청년 간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모델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속가능하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교류 모델의 대상을 청년에 초점을 맞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토대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특징점,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다수 진행함으로써 한국 실정에 적합하고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모델로서의 성격을 추구하기 위해 목적과 방향 설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청년 대상으로 인식조사(설문 및 FGI)를 시행하여 청년층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하였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정책세미나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과 실현을 위해 정교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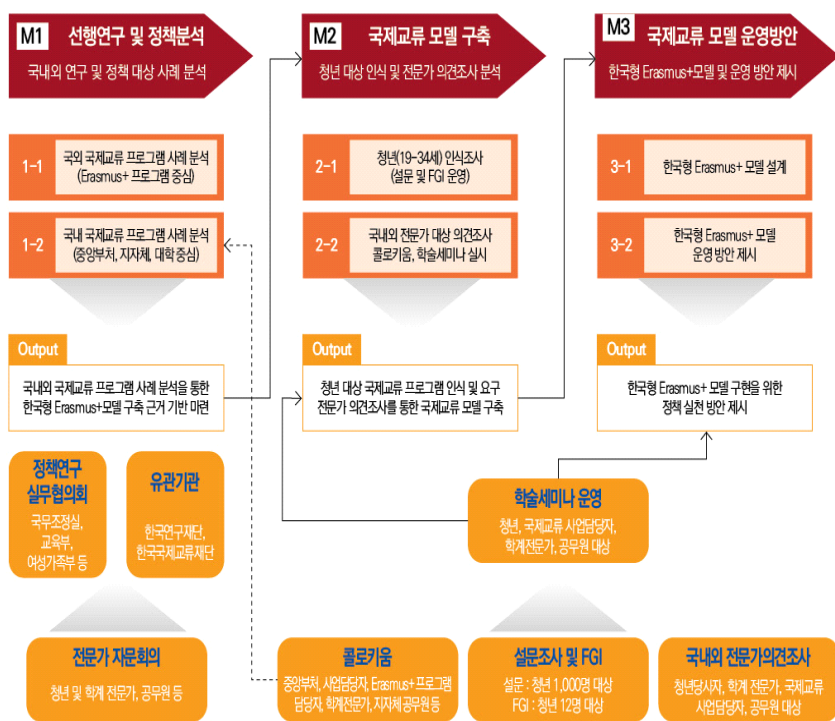


그림 1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국제교류 프로그램 현황 및 동향 분석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거시적인 범위에서 국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외 청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 및 아세안(ASEA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주도하는 경우와 개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청(소)년국제교류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와 같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제기구와 민간 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사업 등이 있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활동과 상호교류 위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코로나 기간에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온라인 가상공간을 개발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코로나 기간에 구축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과 현지 방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동향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사업은 각 운영 주체별로 교류 목적과 방법에 있어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동향 분석은 주관기관, 사업명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유형별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청년 대상 국제교류프로그램 분석 방식은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현황으로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성을 포함하여 운영 방식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 특색 사업의 운영 모형과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I-1〉과 같으며, 연구 추진 과정에서 내용 보완 및 영역별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1.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요

구분(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중앙 부처	여가부	국가 간 청소년교류	상호교류활동, 기관방문, 홈스테이
		국제회의 및 행사파견	국제행사 참석, 토론 및 발표, 강연
		해외자원봉사단	교육 및 노력 봉사, 교류활동, 문화체험
		국제청소년포럼	국가별 사례발표, 분임토론, 문화행사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야영 및 다양한 과정활동
	외교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공관에 청년(19~29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 주기구, 유엔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등 10여개 중남미 지역기구 6개월 근무 인턴 파견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청년 대상 해외 우수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의 실무연수 기회, 국제 경험 등 제공
	교육부	CAMPUS Asia	한일중 및 ASEAN 국가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취득, 교환학생 등 학생교류 지원
		대학생 해외연수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한일 대학생연수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	한미정상회담(23.4) 계기 한미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여 첨단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공고화
		한미(일)청년 한국첨단기업 탐방 프로그램	한·미·일 청년에게 한국 첨단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첨단기업 이해도 제고, 진로탐색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
		ASEAM DUO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로 양 지역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자방 자치 단체	서울시	서울형 청년인턴 국제캠프 인턴십	18세~34세이하 서울거주 청년 대상으로 국제기구, 국제협력 유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일경험을 지원
	경기도 (시흥시)	2023청소년국제교류사업 '다시 잇다 세상과 나'	글로벌 특강, 시스템스쿨, 헬로시흥스테이, 해외견학체험단, 청소년모의유엔(UN) 등을 시행

구분(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제주도	제주 국제청년포럼 운영	제주 청년 및 제주 해외 교류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문제 패넬토론 및 문화 체험 등의 교류 행사 개최 포럼 기획단계에서 준비위원회를 선발해 청년들이 직접 포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대학	다수 대학	대학 간 국제교류 및 협력 대학의 교환학생	문화 체험 및 교류 활동, 홈스테이, 어학연수, 학점교류

* 출처: 양계민, 김민 (2021).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연구 P.39-59 내용 재구성.

2) 국제교류에 대한 청년 대상 인식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추진방식 및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정책요구에 관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담조사(FGI)를 시행하였다.

전국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조사 구축하여 총 1,000명 내외의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에 있어 성별, 연령별 균등할당, 지역별 비례할당하여 표본추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제교류의 필요성,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안, 효과성 등을 큰 틀로 설정하고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한국형 모델로서의 적용 요소,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실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 효과 및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목적 및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모집, 운영, 활동 이후 등 일련의 과정에 걸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국제교류 사업 프로그램 상황을 토대로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형 Erasmus+ 모델 마련에 근거 기반을 마련하였다.

3) 한국형 Erasmus+ 모델(안) 구축을 위한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국내외 국제교류 사례 분석과 참여자 대상 설문·FGI 조사를 거쳐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과 더불어 내실있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운영되어 온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식 및 수요조사, 끝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 각 4-5인으로 구성된 모델 구성 팀을 구축하여 연구 세팅부터 각 조사단위 결과분석을 공유하면서 후반부에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차는 서면조사, 2차는 온라인 화상회의, 3차는 서면 의견 조사 및 정책세미나 참여 등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진과의 수시회의를 거쳐 모델 구성을 논의하였다.

4. 연구방법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FGI, 전문가 의견 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콜로키움과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국제교류 운영현황을 토대로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처, 지자체, 대학 단위로 시행해 온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Erasmus+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동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 대상의 한국형 Erasmus+ 모델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의 도출을 위해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추진 전반에 걸친 추진방향과 세부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분석,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FGI문항 개발,

체계적인 전문가의견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하였다.

표 1-2. 전문가 자문 개요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비고
1차	연구추진 방향 설정 자문	○ 유관 학계 전문가 ○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2차	청년(19~34세) 대상 국제교류프로그램 진단 자문		
3차	설문조사 및 FGI 문항 도구개발 자문 (조사내용 타당성 검토 등)		
4차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한 자문		
5차	정책제언을 위한 자문		

3) 양적 연구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년(19~34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여부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설문을 시행하면서 국제교류 모델 구축 과정에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 진행에서 또한 연구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절차를 밟기 위해 IRB 심의를 신청하고 그에 충족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거쳤다.

표 1-3.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만 19세~34세 청년	
표집틀	성별, 연령별 균등할당, 지역별 비례할당	
표본수	총 1,000명 내외	
표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조사 구축 후 설문 URL 활용	
조사시기	2024년 6월 ~ 9월	

4) 질적 연구 (초점집단심층면담: FGI)

국제교류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초점집단심층면담(이하 FGI) 형태의 면담을 시행하면서 국제교류 모델 구축 과정에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FGI 진행에서 또한 연구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절차를 밟기 위해 IRB 심의를 신청하고 그에 충족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거쳤다.

표 1-4.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중앙부처, 지자체 및 대학 주관·청년(대학생) 국제교류 참여자 및 미참여자(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여부 기준 포함)										
면담참여자 수	15명 내외(4인 기준, 4개 그룹) 선정 <table><tr><td></td><td>면담 그룹 특성</td></tr><tr><td>1</td><td>중앙부처 국제교류 참여자</td></tr><tr><td>2</td><td>지자체 국제교류 참여자</td></tr><tr><td>3</td><td>대학 국제교류 참여자</td></tr><tr><td>4</td><td>국제교류 미참여자</td></tr></table>		면담 그룹 특성	1	중앙부처 국제교류 참여자	2	지자체 국제교류 참여자	3	대학 국제교류 참여자	4	국제교류 미참여자
	면담 그룹 특성										
1	중앙부처 국제교류 참여자										
2	지자체 국제교류 참여자										
3	대학 국제교류 참여자										
4	국제교류 미참여자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성별, 연령별, 참여 프로그램 유형 등 고려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집단면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청년(대학생) 대상 FGI 집단 면담 형태로 구성										
면담 시간 및 횟수	60~90분 기준, 1~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담 참여자 대상 동의에 기반하여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면담자	연구진										
조사시기	6~9월										

* 출처: 배규한 (2007). 청소년학연구방법론. pp. 97-106 참조

5)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당사자와 국내외 청년국제교류 담당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을 구성하고 1차는 서면 질문을 통해 국제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과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사업이 갖춰야 할 요인 등을 다루었다. 2차 온라인 세미나 때는 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재그룹화 하여 각 주제 단위로 한국형 Erasmus+ 모델 설계 방향과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정책세미나를 거치면서 각 영역별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 공무원 대상으로 연구진이 제작한 한국형 Erasmus+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Erasmus+ 모델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1-5.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	청년 당사자, 국내외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담당자, 학계 전문가, 공무원 대상 14명
선정방법	국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자, 연구자 및 Erasmus+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담당자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의견조사 실시
조사방법	1차 서면조사 → 2차 온라인 세미나 → 3차 정책세미나 참여
조사시기	8월 ~ 9월

6)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표 1-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공유, 기존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 성격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1월
2차	EU Erasmus+관련 한-EU간 교육 협력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정책 논의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	4월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3차	2025 청소년-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한국형 Erasmus+모델 구상에 대한 정책 협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5월
4차	중앙부처 단위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 현황 공유 및 한국형 청년 국제교류 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 과제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5월
5차	Erasmus+ 프로그램 구조 및 내용 이해, 지자체 청년활동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 참여 모델 구축 방향 논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7월
6차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국제프로그램 사업 현황 공유 및 Erasmus+ 모델안 관련 정책방향 논의	제주도청	10월
7차	한국형 Erasmus+모델 구축 운영관련 청년정책 연계방안 협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10월
8차	정책제언에 따른 청소년국제교류 정책관련 협의	여성가족부	11월

○ 콜로키움

표 1-7. 콜로키움 개최 결과

횟수	주요내용	개최시기	발표자
1회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사업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현황 공유	4월	중앙부처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2회	EU-Erasmus+ 운영 취지, 현황 및 동향 분석 - 참여국가 단위 영역별 프로그램 분석 포함 -	5월	EU Erasmus+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지닌 전문가
3회	세계로 향하는 교육: 한국형 Erasmus+의 비전과 실행전략	9월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전문가
4회	청년 대상 국제교류 경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모색	9월	청년연구 전문가
5회	제주도 청년 국제교류(참여활동, 교육분야) 사례 현황 및 분석	9월	지자체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

○ 정책세미나

표 1-8.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국내외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동 사례 공유, 국제교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논의	청년 당사자, 학계 및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공무원 등	8월
2회	기존의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단을 통한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및 운영 방안	청년 당사자, 학계 및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공무원 등	9월

5.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국제교류의 목적, 목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개념 정립에 기여
- 국내외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을 주체로 운영되는 청년 국제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정책적 기대효과

-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청소년·청년 중심의 한국형 국제교류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제교류 허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 교육, 노동, 문화, 환경 등 생애주기에 따른 글로벌 공동의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 차원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모델 마련을 통해 청소년·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장

○ — 제2장 유럽연합(EU)의 Erasmus+모델 소개 및 분석

- 1. Erasmus+ 개요
- 2. 운영 구조
- 3. 프로그램 참여 범위와 비유럽권
국가 참여 방안
- 4. 프로그램 운영 사례
- 5. 요약 및 시사점

1. Erasmus+ 개요

1) 역사와 목적

에라스무스(이하 Erasmus)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1987년에 시작한 인적 교류와 이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Erasmus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15세기 신학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odamus, 1466~1536)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만,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의 약자이기도 하다.⁴⁾

Erasmus는 1987년에 6년 단위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처음 출범하였고, 이후에 여러 차례 확장과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최근 Erasmus는 7년 단위로 실행된다. 2014~2020년 사업부터 Erasmus+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2024년 현재 2021~2027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Zver, 2023).

Erasmus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동’(mobility)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가 간 인적 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 및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외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이동 강화에 있지만,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의 이동 지원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유럽연합은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조직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단일 통화를 기초로 한 경제 공동체이자, 초국가적 법-정치 체제다. Erasmus는 유럽연합이라는 복잡한 연합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인적 인프라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초국가적 교류는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 중 하나다.

4)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b). Erasmus to Erasmus+. <https://erasmus-plus.ec.europa.eu/about-erasmus/history-funding-and-future> 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2) 관리 기관

유럽연합 차원에서 Erasmus+를 총괄하는 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육 및 문화 실행국’(European Commission’s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이하 EACEA)이다. 이곳에서 프로젝트들의 시작과 진행 관리, 모니터링, 결과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하지만 EACEA가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 단위의 관리 기관(National Agencies)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Erasmus+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Erasmus+ 청년과 스포츠 실행 기관’(Agence Erasmus+ Jeunesse et Sport)을 운영하고, 독일은 ‘독일 아카데미 교류 서비스’(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DAAD) 산하에 Erasmus+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3) 프로젝트 진행 방식

Erasmus+에 참여하는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 혹은 조직이다. 예컨대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Erasmus+ 온라인 시스템⁵⁾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하면, EACEA에서 전문가 평가 후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기획서를 제출한 조직들과 Erasmus+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성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상당수는 개인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학위’(Erasmus Mundus Joint Master, 이하 EMJM)의 프로젝트들은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석사 과정 이수를 위해 참여한다. 비유럽 국적의 개인과 조직은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유형이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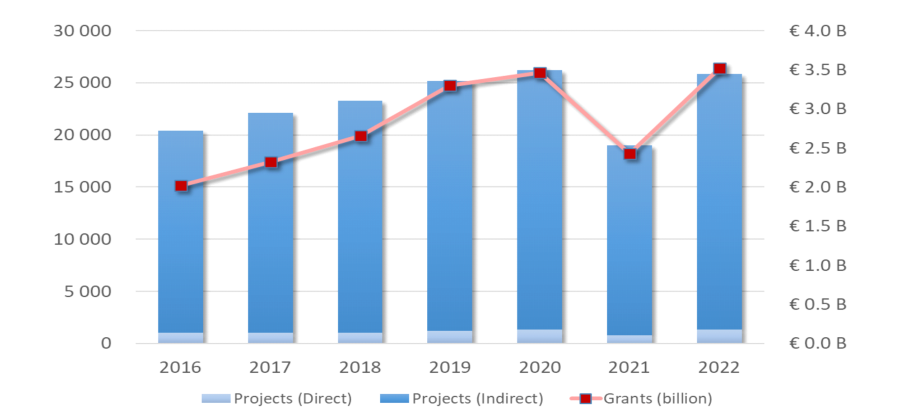
5) European Commission (2024c).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portal (FTOP).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home> 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4d). Organisation Registration system. <https://webgate.ec.europa.eu/erasmus-esc/index/>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4) 사업 규모

Erasmus+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방대한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2021~2027년 사업 전체 예산은 약 38.5조 원(262억 유로)이며, 이는 2014~2020년 예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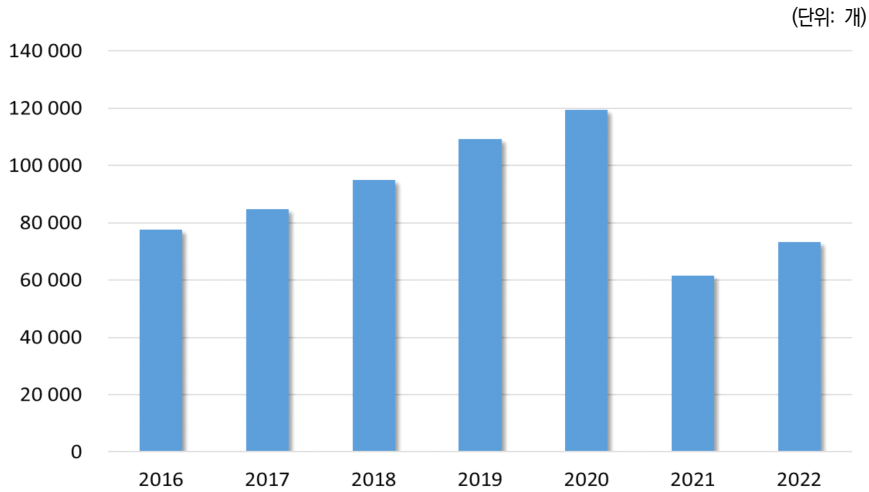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년 Erasmus+ 프로그램 예산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2024년 업무 계획’(2024 annual work programme “Erasmus+”: the Union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에 따르면 2024년 예산은 약 6조 4천 7백억 원(44억 유로)다. 이 중 ① ‘교육과 훈련’(Education & Training) 영역의 간접 관리 예산이 약 4조 1천억 원(28억 유로), ② 직접 관리 예산이 약 1조 원(6억 9천만 유로), ③ 청년 영역 예산이 약 6천억 원(4억 2천만 유로), ④ 스포츠 영역 예산이 약 1천억 원(7천 6백만 유로)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Erasmus+ 주제 영역에 따른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표 II-1> 참고).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이후 매년 20,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약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로젝트 수가 급감했지만, 2022년에는 원래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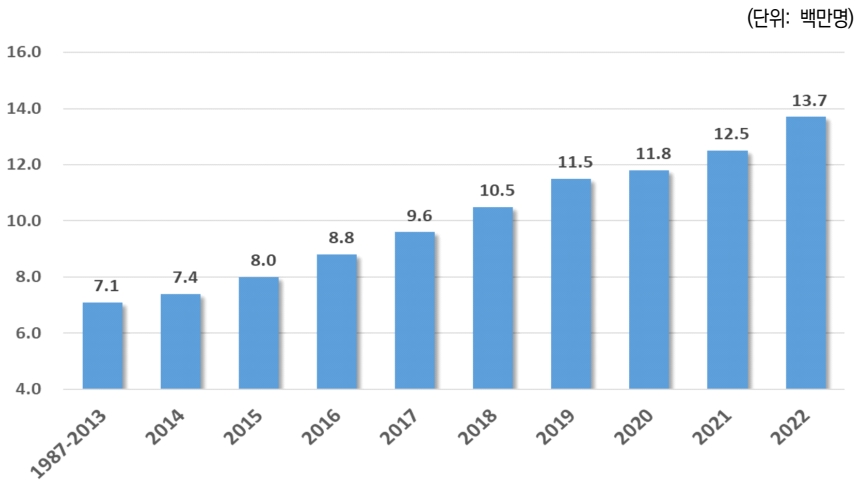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Erasmus+ Annual Report 2022. p.24

그림 II-1. Erasmus+ 연간 프로젝트 건수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Erasmus+ Annual Report 2022. p.24

그림 II-2. Erasmus+ 연간 참여 조직 수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Erasmus+ Annual Report 2022. p.23

그림 II-3. Erasmus+ 누적 참가자 수

2. 운영 구조

1) 주제 영역

Erasmus+가 다루는 주제의 영역은 ① 교육과 훈련, ② 스포츠, ③ 청년이라는 세 가지로 구별된다. ‘교육과 훈련’은 다시 ① 고등 교육, ② 직업 교육과 훈련, ③ 학교 교육, ④ 성인 교육이라는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영역 구별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 예산이 편성된다.

표 II-1. Erasmus+ 영역(domain)

교육과 훈련(Education & Training)				스포츠 (Sport)	청년 (Youth)
대학 교육 (Higher Education)	직업 교육과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학교 교육 (School Education)	성인 교육 (Adult Education)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Programme Guide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2) 키 액션

2022년 Erasmus+의 전체 프로젝트는 25,000개 이상이다.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네 개의 ‘키 액션’(Key Action)을 분류 범주로 사용한다. ① 키 액션 1: 개인의 이동 (Key Action 1: Mobility of Individuals) ② 키 액션 2: 조직 및 기관들의 협업 (Key Action 2: Cooperation among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③ 키 액션 3: 정책 발전과 협업을 위한 지원 (Key action 3: Support to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④ 장 모네 액션 (Jean Monnet Actions). 각 액션이 포괄하는 구체적인 액션과 지원 내용은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Erasmus+ 키 액션의 내용

키 액션 1. 개인의 이동 (Key Action 1: Mobility of Individuals)

- 학습자와 스태프의 이동: 학생, 성인 학습자, 훈련자, 청년, 교사, 훈련 제공자, 청년 노동자, 스포츠 스태프, 교육 기관과 시민 사회 조직 스태프 등이 다른 나라에서 학습이나 직업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함.
- 청년의 참여 활동: 민주주의의 삶에 참여하고,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공동 가치와 기초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들의 초국가적 활동을 지원함.
- 스포츠 스태프의 이동: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스포츠 영역의 다양한 스태프가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 기본 지원 대상은 시민 참여 스포츠(grassroots sports).
- EU발견 프로그램(DiscoverEU): 18세 청년들에게 유럽을 단기 여행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언어 학습 기회 제공: Erasmus+ 온라인 언어 지원(Online Language Support, OLS) 도구를 통해 개인이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대학 교육과 청년들의 온라인 교류 지원: 유럽연합 회원국, Erasmus+ 연계(associated) 국가, 비연계(not-associated) 국가의 개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지원함.

키 액션 2. 조직 및 기관들의 협업 (Key Action 2: Cooperation among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 협력 파트너십: 다양한 조직들이 초국가적 수준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파트너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함.
- 소규모 파트너십: 학교 교육, 성인 교육, 직업 훈련, 청년, 스포츠 영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 행위 그룹과 개인들이 Erasmu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뛰어남(for excellence)을 위한 파트너십

- 유럽 대학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려는 대학 교육 기관들 사이의 초국경적 연합을 지원함. 이러한 연합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됨(bottom-up alliances).
- 직업적 뛰어남을 위한 센터들(Centres of Vocational Excellence, CoVE): 직업 교육과 훈련 기관들이 다른 나라의 CoVE를 통해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수립하도록 지원함.
- Erasmus+ 교사 아카데미: 교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임. 이는 교사 교육에 대한 전망을 유럽 혹은 국제적 범위에서 발전시킴.
- Erasmus 문두스 액션: 대학 교육 기관들이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석사 학위 수준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함. 비유럽 지역의 기관도 참여 가능.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 혁신을 위한 연합: 미래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는 기술과 지식을 위한 전략적 협력.
- 미래 지향 프로젝트(Forward-looking projects): 교육과 훈련 분야의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원함.
- 역량 수립 프로젝트들: 유럽연합 회원국, Erasmus+ 연계 국가, 비연계 국가 기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 비연계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 대학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 청년, 스포츠 영역을 다룸.
- 비영리 스포츠 이벤트(Not-for-profit European Sport Events) 지원.
- 온라인 협업 플랫폼 지원.

키 액션 3. 정책 발전과 협업을 위한 지원 (Key action 3: Support to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유러피언 유스 투게더(European Youth Together) 액션: 지역 차원의 청년 조직들 및 대규모 청년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초국경적 파트너십을 지원함. 청년 조직들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조직 외부에 있는 청년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협업을 위한 오픈 메소드(Open Methods of Coordination)를 통해 유럽연합의 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 정책의 실행을 지원함.
- 고위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유럽 정책 실험을 진행함. 몇몇 국가의 현장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함. 유럽연합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과 연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함.
- 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 시스템에 관한 증거와 지식을 수집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함.
- 직업 능력과 자질에 관한 명확한 인정 체계를 수립함.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차원에서도 실행됨.
- 유럽연합 내부와 외부에 포함해, 정책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강화함. 이를 위해 OECD를 비롯한 국제 조직과 협업함.

장 모네 액션 (Jean Monnet Actions)

- 대학 교육 영역의 장 모네 액션: 유럽 통합에 관한 지식과 연구를 지원함. 여기에는 단기 및 장기 티칭 프로그램, 유럽 연구에 관한 여러 학문 분야 지원 액션이 포함됨.
- 교육과 훈련 영역의 장 모네 액션: 직업 교육과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및 학교 영역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 모네 정책 토론: 대학 교육 영역의 장 모네 네트워크가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 내용, 경험, 생산물을 수집, 토론, 공유함.
- 지정 기관 지원: 유럽의 정책 필요에 대응하는 연구 기관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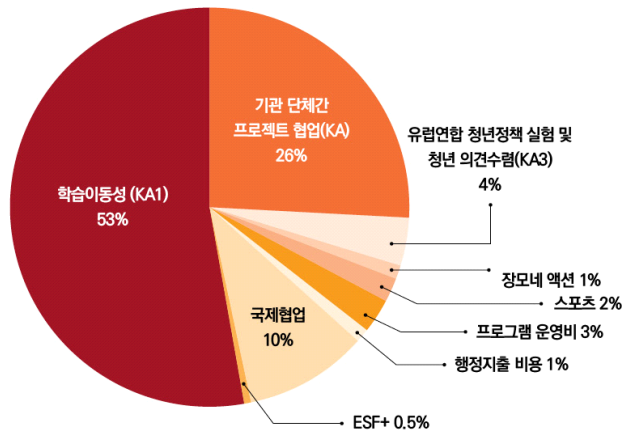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Programme Guide에서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rasmus+ 전체를 소개하는 ‘Erasmus+ 프로그램 가이드’(Erasmus+ Programme Guide, 이하 ‘프로그램 가이드’)를 발간한다.⁶⁾ 위의 <표 II-2>는 키 액션의 세부 내용 제목과 간단한 소개를 나열한 것뿐이며, 프로그램 가이드에는 각 항목마다 별도의 챕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키 액션 2 ‘비영리 스포츠 이벤트’를 다룬 여섯 페이지 분량의 챕터에 해당 액션의 목적, 지원 자격, 프로젝트 작성 방법, 사업비 사용 규칙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⁷⁾

6) 프로그램 가이드 2024년 버전의 분량은 463쪽이고(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사이트에는 온라인 버전도 공개되어 있다. <https://erasmus-plus.ec.europa.eu/erasmus-programme-guide>

7) European Commission(2024b), *Erasmus+ programme Guide*. pp. 368-373.

네 가지 키 액션에 할당된 예산 비율은 아래 [그림 II-4]와 같다. 키 액션 1, 키 액션 2, 키 액션 3, 장 모네 액션에 차례대로 53%, 26%, 4%, 1%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2023).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Erasmus+ Annual Report 2022. p.26

그림 II-4. Erasmus+ 예산 배분 (2022년 기준)

3) 키 액션 1: 개인의 이동

키 액션 1은 제목 그대로 개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괄한다. 이 액션은 영역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액션 유형(Action Type)으로 나누어진다. 키 액션 1의 하위 액션 유형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키 액션 1의 하위 액션 유형

식별 기호	액션 유형(Action Type)	프로젝트 수
KA111	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134
KA120-ADU	Erasmus accreditation in adult education	840
KA120-SCH	Erasmus accreditation in school education	7,814
KA120-VET	Erasmus accredit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s	4,955
KA121-ADU	Accredited projects for mobility of staff in adult education	870
KA121-SCH	Accredited projects for mobility of learners and staff in school education	8,596
KA121-VET	Accredited projects for mobility of learners and staff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6,063
KA122-ADU	Short-term projects for mobility of staff in adult education	702
KA122-SCH	Short-term projects for mobility of learners and staff in school education	3,037
KA122-VET	Short-term projects for mobility of learners and staff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340
KA130-HED	Erasmus accreditation for higher education mobility consortia	260
KA151-YOU	Mobility of young people for accredited organisations	635
KA152-YOU	Mobility of young people	1,545
KA153-YOU	Mobility of youth workers	767
KA154-YOU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837
KA155-YOU	Discover EU inclusion action	160
KA171-HED	Mobility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and staff supported by external policy funds	1,960
KA182-SPO	Mobility of Sport Coaches and Staff	280
KA183	Virtual Ex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Youth	30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에
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표 II-3〉 오른쪽 열의 숫자는 2024년 5월 기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개수다. 키 액션 1에만 총 4만 개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매년 2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므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식별 기호의 영문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ADU(성인 교육), SCH(학교 교육), VET(직업 교육과 훈련), HED(대학 교육), YOU(청년), SPO(스포츠).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KA111: 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액션 유형에는 134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대학들이 전기 자동차 관련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Electric Vehicle Propulsion & Control, E-PiCo), 헝가리, 조지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학들이 운영하는 지역학 연구 석사 과정도 있다(Central and East European, Russian and Eurasian Studies, CEERES). 프로젝트 기간은 둘 다 6년이고, 예산은 각각 약 45억 원(3백만 유로)과 64억 원(4.3백만 유로)이다(European Commission(2023)).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다수의 연합 석사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은 액션 유형은 ‘학교 교육 영역의 학습자와 스태프를 위한 공인 프로젝트들’(KA121-SCH: Accredited projects for mobility of learners and staff in school education)이다. Erasmus+가 공인한 학교나 교육 기관이 학생과 스태프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의 이동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직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참여 인원수도 대부분 50명을 넘지 않는다. 국가 간 파트너십 없이, 한 국가의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4) 키 액션 2: 조직 및 기관들의 협업

키 액션 1의 목표가 개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키 액션 2는 조직과 기관들의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키 액션 2의 하위 액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키 액션 2의 경우에도 소규모 액션 유형일수록 프로젝트 수가 많아진다. 성인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VET), 청년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대응하는 네 가지 ‘소규모 파트너십’(Small-scale partnerships) 액션 유형이 있다. 여러 국가의 조직과 기관들이 국제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역의 소규모 조직과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액션 유형이다. 지원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표 II-4. 키 액션 2의 하위 액션 유형

식별 기호	액션 유형(Action Type)	프로젝트 수
KA206	Knowledge Alliances for higher education	4
KA207	Sector Skills Alliance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9
KA210-ADU	Small-scale partnerships in adult education	691
KA210-SCH	Small-scale partnerships in school education	920
KA210-VET	Small-scale partnership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505
KA210-YOU	Small-scale partnerships in youth	682
KA211	Capacity Building in higher education	398
KA220-ADU	Cooperation partnerships in adult education	582
KA220-HED	Cooperation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959
KA220-SCH	Cooperation partnerships in school education	924
KA220-VET	Cooperation partnership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857
KA220-YOU	Cooperation partnerships in youth	790
KA226	Partnerships for Digital Education Readiness	1
KA227	Partnerships for Creativity	1
KA231	Erasmus Mundus Joint Master	91
KA232	Teacher Academies	27
KA233	Capacity Building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26
KA234-LOT1	Alliances for Education and Enterprises	83
KA234-LOT2	Alliances for Sectoral Cooperation on Skills (implementing the 'Blueprint')	19
KA236	Cooperation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raining – European NGOs	38
KA236	Cooperation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Youth – European NGOs	12
KA237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Youth	74
KA238	Centers of Vocational Excellence	26
KA239	Forward-Looking Projects	71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
에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성인 교육 영역의 소규모 파트너십’(KA210-ADU: Small-scale partnerships in adult education) 액션 유형에 속하는 ‘에우페메’(Euphémé) 프로젝트는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기관들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이민자를 위한 다국어 웹사이트를 제작한다. 프로젝트 기간은 약 2년, 지원 예산은 약 8천 9백만 원(6만 유로)이다. ‘청년 영역의 소규모 파트너십’(KA210-YOU, Small-scale partnerships in youth) 액션 유형에는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언어 사용을 통해, 국제 청년 업무에서 젠더 평등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프로젝트(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youth work

through the use of gender-sensitive language)가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기관들이 운영하고, 기간은 1년 4개월, 예산은 약 8천 9백만 원(6만 유로)이다(European Commission, 2024a).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하나의 액션 유형이 반드시 하나의 키 액션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키 액션 1과 2 모두에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액션 유형이 있다(식별기호 KA111과 KA231). 프로젝트의 목표가 개인의 이동인지, 대학의 파트너십 형성인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가 구별된다.

5) 키 액션 3: 정책 발전과 협업을 위한 지원

키 액션 3은 유럽연합의 정책 수립을 위한 액션 유형을 포함한다. 세부 목록은 아래 <표 II-5>에 나열되어 있다. European Youth Together를 제외하면 이 목록은 프로그램 가이드에 공식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온라인 검색을 위해 분류된 것이다. “정책 발전과 협업을 위한 지원”이라는 키 액션 범주만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하위 액션 유형은 시기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5. 키 액션 3 하위 액션 유형

식별 기호	액션 유형(Action Type)	프로젝트 수
KA308	Collection of evidence – Studies	15
KA314	Policy experimentations	1
KA349	Civil Societ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FPA	82
KA349	Civil Society Co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FPA	30
KA357	Dedicated VET Tools	7
KA366	Social inclusion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5
KA369	European Youth Together	30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 에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6) 장 모네 액션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기업인이었던 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는 유럽연합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며, ‘유럽연합 설립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고 불린다. Erasmus+의

장 모네 액션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며, 주로 연구와 지식 생산 분야를 포괄한다.

표 II-6. 장 모네 액션 하위 액션 유형

액션 유형(Action Type)	프로젝트 수
Jean Monnet Actions in Other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 Learning EU initiatives	66
Jean Monnet Actions in Other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 Networks for Schools	2
Jean Monnet Actions in Other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 – Teacher Training	37
Jean Monnet Centres of Excellence	107
Jean Monnet Chairs	224
Jean Monnet Modules	630
Jean Monnet Networks	5
Jean Monnet Policy Debates – Thematic Networks in Higher Education	9
Jean Monnet Projects	2
Jean Monnet Support to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3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 에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7) 스포츠

‘스포츠’는 별도의 키 액션이 아니고, 스포츠에 관련된 액션 유형은 키 액션 2에 속한다. 하지만 Erasmus+ 전체 프로젝트 검색 시스템은 스포츠 관련 액션 유형을 액션 2와 분리해 별도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앞의 표들과 구별된 <표 II-7>에 스포츠 하위 액션 유형을 정리하였다.

표 II-7. 스포츠 하위 액션 유형

액션 유형(Action Type)	프로젝트 수
Capacity building in Sport	11
Collaborative Partnerships	600
Large Scale Not-for-profit European Sport Events	1
Not-for-profit European sport events	27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 에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3. 프로그램 참여 범위와 비유럽권 국가 참여 방안

1) 참여 가능 나라 분류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개별 조직이나 기관이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조직과 기관이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 자격에 따라 세 가지 그룹이 구별된다.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한 조직은 Erasmus+ 프로그램 전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룹 3]은 일부 액션 유형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룹 1] 유럽연합 회원국

[그룹 2]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된 비회원국(third countries associated to the Programme):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튀르키예)

[그룹 3]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은 비회원국(third countries not associated to the Programme).

[그룹 3]에는 국제법에 의해 영토가 인정되고,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비유럽 나라가 속한다. 아시아 나라 대부분도 여기에 속하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일본,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의 고소득 나라로 재분류된다. 비유럽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은 실제 아시아 국가 참여 가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 [그룹 3]에서 참여 가능한 액션 유형

Erasmus+ 하위 액션 유형 중 [그룹 3]의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키 액션 1] 직업 교육과 훈련 영역의 학습자와 스태프를 위한 이동(Mobility for learners and staff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목표 및 개요 : <표 II-1>에 나열되어 있듯이, “직업 교육과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은 Erasmus+의 주제 영역 중 하나다. VET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액션의 목적이다. 국제적 차원의 직업 탐색, 스텔프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참여 자격 : 모든 활동은 [그룹 1]과 [그룹 2]의 나라들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에라스무스 공인 조직(Erasmus accreditation)들은 프로젝트 참여자를 [그룹 3]의 나라들로 보내 직업 탐색과 학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키 액션 1] 대학 교육과 청년 영역의 온라인 교류(Virtual Ex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youth)

목표 및 개요: 유럽과 [그룹 3] 대학생 및 청년의 온라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액션이다. 주요 목표는 온라인 대면 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익히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며,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액션에 참여하려는 조직은 네 가지 주제(포괄과 다양성, 디지털 전환, 환경과 기후 변화, 민주주의적 참여)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참여 자격: 이 액션에는 대학 교육과 청년 영역의 조직, 협회, 공공 기관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단,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룹 1], [그룹 2]와 [그룹 3]의 서부 발칸반도, 유럽 동부 인근, 남지중해, 사하라 남부 나라들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지원 불가능함).

③ [키 액션 2] 협업 파트너십(Cooperation partnerships)

목표 및 개요: 다양한 영역의 조직들이 다른 나라의 조직들과 초국가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구체적 목표는 참여 조직의 활동 수준을 높이고, 국경과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 역량을 키우고, 분야별 공통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조직·영역의 수준에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조직 중 주관 조직은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해야 한다. [그룹 3]의 조직도 참여 가능하지만, 주관 조직을 맡지는 못한다 (단,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모든 형태의 참여가 불가능함). 또한 프로젝트 지원 시점 2년 이전에 법적 지위를 취득한 조직만 참여가능하다. 주제 영역이나 참여 조직의 성격에 따른 제한은 없다. 교육, 직업훈련, 청년, 스포츠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 조직, 공공기

관, NGO 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주관 조직 및 참여 조직과 구별되는 연계(associated) 조직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프로젝트 파트너로 인정되지 않고,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지만, 프로젝트 실행과 지속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다.

하위 분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조직이 의무적으로 특정 주제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통계에서는 편의상 성인 교육, 대학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 청년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 분류를 사용한다(표 II-4)의 식별 기호 KA220-ADU, KA220-HED, KA220-SCH, KA220-VET, KA220-YOU 참고).

사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하는 커리어 관리”(Youth work for career management with different abilities' youngsters)는 독일,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세르비아의 민간 조직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다. 총예산은 178,551유로(한화 약 2억6천만원)이고, 주관 조직은 독일의 비영리 민간 단체 Outreach Hannover다(Outreach Hannover, 2024).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커리어를 관리할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청년 구직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조직하고, 커리어 관리를 위한 핸드북을 발간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것이 구체적 활동이다.⁸⁾

④ [키 액션 2] 직업적 탁월함을 위한 센터들(Centres of Vocational Excellence)

목표 및 개요: 유럽연합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산업 부분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액션 유형이다.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참여 자격과 활동도 구체적·체계적으로 규정된다.

참여 자격: 직업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공·민간 조직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룹 1]과 [그룹 2]의 조직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룹 3]에 속하는 조직은 참여 가능하지만 주관 조직이 될 수는 없다.

컨소시엄 구성: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면 최소한 8개 조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이 중 [그룹 1]과 [그룹 2]의 조직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국가 별로 기업이나 산업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 1개,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조직 1개 이상이 포

8) Outreach Hannover (2024). Youth work for career management with different abilities' youngsters. <https://outreach-hannover.de/youth-work-for-career-management-with-different-abilities-youngsters/> 에서 2024년 8월 5일에 인출

함되어야 한다.

활동 규정: 프로젝트의 활동 종류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총 20종의 활동이 있고, “가르침과 학습”(9종), “협업과 파트너십”(6종), “거버넌스와 재정”(5종)이라는 세 가지 “클러스터”로 묶인다. 모든 프로젝트는 첫 번째 클러스터의 활동 중 4가지, 두 번째 중 3가지, 세 번째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사례: “감당 가능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유럽 에너지를 위한 연료전지와 그린 수소 센터들”(H2Excellence: Fuel Cells and Green Hydrogen Centers of Vocational Excellence towards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for Europe)은 2023년에 시작되어 2027년에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다. 총예산은 3,996,343 유로(약 59억원)이며, 10개국 23개 조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4). [그룹 3]에 속하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que Montréal)도 참여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연료전지와 수소 산업 분야에서 스킬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 기관, 산업 부문, 정부 부처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청년, 성인,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활동을 제공한다.

⑤ [키 액션 2]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action)

에라스무스 문두스는 [그룹 3]의 나라에서 참여가능한 대표적인 액션 유형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⑥ [키 액션 2] 혁신을 위한 동맹(Alliances for innovation)

목표 및 개요: 지식 협업을 통해 유럽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 사회경제 영역 일반, 연구 단위의 협업을 추구한다. 특정 섹터 내 또는 섹터 간 지식 교류가 핵심 활동이다. 이 액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누어진다. [하위 분류 1] 교육과 기업의 동맹(Alliances for Education and Enterprises) [하위 분류 2] 스킬 관련 섹터 협업을 위한 동맹 - 청사진 실행하기(Alliances for Sectoral Cooperation on Skills - implementing the ‘Blueprint’).

[하위 분류 1] 참여 자격: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유형은 20여 개가 넘는데, 여기에는

대학 교육 기관, 직업교육과 훈련(VET) 제공자, 기업, 연구소 등 거의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된다. [그룹 3]의 조직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관 조직이 되지는 못한다.

[하위 분류 1] 컨소시엄 구성: 최소한 8개 조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그중 4개 이상이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한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관련 조직(노동조합이나 기업) 3개 이상, 교육과 훈련 제공 조직 3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 3개 중에는 대학 교육 기관 1개와 직업교육과 훈련(VET) 제공 조직 1개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24개월 혹은 36개월간 운영된다.

[하위 분류 2] 참여 자격: 유럽연합 “스킬을 위한 협약”(Pact for Skills) 멤버 조직만 참여할 수 있다.⁹⁾ 참여 가능한 조직의 유형은 [하위 분류 1]과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룹 3]의 조직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관 조직이 되지는 못한다.

[하위 분류 2] 컨소시엄 구성: 기본 형태는 [하위 분류 1]과 같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다르다. 최소한 12개 조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그중 8개 이상이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해야 한다. 노동시장 관련 조직 5개 이상, 교육과 훈련 제공 조직 5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 중에는 대학 교육 기관 1개와 직업교육과 훈련(VET)제공 조직 1개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48개월간 진행된다.

[하위 분류 2] 산업 영역: 모빌리티, 섬유, 재생에너지, 건축, 우주 항공 등 14가지 산업 영역이 다루어진다.

⑦ [키 액션 2]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목표 및 개요: 네 가지 역량 구축 액션 타입이 존재한다(Capacity building in Higher Education,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youth,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Sport). 액션의 대상은 유럽이 아니라 [그룹 3]의 나라들이며, 대학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 청년, 스포츠 영역에서 저발전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네 가지 액션 타입 모두에 참여 자격이 없다.

9) “스킬을 위한 협약”(Pact for Skills)은 유럽연합 “스킬 아젠다”(European Skills Agenda)의 핵심 액션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4a).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23> 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⑧ [장 모네 액션] 대학 교육 영역(Jean Monnet action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목표 및 개요: 유럽연합 연구(European Union studies)를 전 세계적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 액션 유형의 목표다. 유럽연합에 관해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는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다.

참여 자격: 대학 교육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그룹 1]과 [그룹 2]는 물론 [그룹 3]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럽연합 연구를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그룹 3]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⑨ [장 모네 액션] 정책 토론(Jean Monnet policy debate)

목표 및 개요: 미리 정해진 주제에 관한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의 주제는 세 가지다. 유럽 내부 정책 주제는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이고, 대외 정책 주제는 유럽-라틴아메리카 관계와 유럽-아프리카 관계다.

참여 자격: 내부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그룹 1]과 [그룹 2]의 대학 교육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대외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그룹 3]의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참여 가능하다. 2023년 주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유럽-동아시아 관계가 주제로 선정된다면, 한국의 대학 교육 기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에라스무스 문두스 디자인 메저스

에라스무스 문두스 액션에는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첫째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Erasmus Mundus Joint Masters, 이하 ‘연합 석사’)이고, 둘째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디자인 메저스(Erasmus Mundus Design Measures, 이하 ‘디자인 메저스’)다.

연합 석사와 디자인 메저스 모두 석사 과정 프로그램이지만, 목표와 프로젝트 구성 방식에서는 두 가지가 명확히 구별된다. 디자인 메저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특정 주제 분야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원 단위는 컨소시엄이 아니라 개별 기관이고, 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파트너 기관과 협의해 석사 과정을 운영한다. 반면, 연합 석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통적인 주제를 다룬다. 지원 단계부터 최소 3개국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지원 확정 후에는 컨소시엄의 모든 기관이 공동 협정서를 작성해 서명해야 한다.

참여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 디자인 메저스는 유럽연합 회원국([그룹 1]),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된 비회원국([그룹 2]),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은 비회원국([그룹 3]) 모두에서 기관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성균관대학교에서 지질 기술(Lipid Technologies)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연합 석사도 [그룹 1], [그룹 2], [그룹 3]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컨소시엄에는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하는 최소 2개국 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룹 3]의 기관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로젝트 기간은 연합 석사 74개월, 디자인 메저스 15개월이다(2024년 기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프로젝트 구성 방식

프로젝트의 개별 내용과 구성 방식은 컨소시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Erasmus+ 차원에서 요구하는 공통 조건 여섯 가지가 있다.

- 1) 연합 프로그램 유럽 표준(Standards for Quality Assurance of Joint Programmes)에 맞는 석사 커리큘럼을 작성해야 함.
 - 2) 대학 교육 기관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3) 전 세계에서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야 함.
 - 4) 참여 학생들이 컨소시엄 기관들을 옮겨 다니며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함.
 - 5) 참여 기관 스태프와 학자들의 상호 교환 활동을 장려해야 함.
 - 6) 연합 석사 학위 발급: 2개국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학위를 발급하거나 2개국 이상의 기관이 2개 이상의 학위를 발급해야 함. 이 두 가지 방식의 조합도 가능함. 학위 발급 기관에는 [그룹 1] 또는 [그룹 2]의 기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선정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프로젝트 적절성 (Relevance of the project) : 최대 30점

일반적 목표, 유럽연합의 가치 고려(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프로젝트의 필요성, 다른 Erasmus+ 액션과의 상호 보완성

2) 프로젝트 디자인과 실행의 질적 수준 (Quality of the project design and implementation) : 최대 30점

개념과 방법론, 석사 과정 질 관리 전략, 스태프의 수준, 비용 효과, 위험 관리

3) 파트너십과 협업 구성의 질적 수준(Quality of the partnership and the cooperation arrangements): 최대 20점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운영 및 관리

4) 파급 효과(Impact): 최대 20점

공적 영역과 사회, 파트너 기관, 개인 수준에 미치는 효과, 참여 학생들의 향후 진로와 효과, 지속 가능성

예산 사용 규칙에는 기관 배분 예산, 학생 장학금(최대 월 1,400유로, 약 208만원), 장애 학생 지원금, 비유럽 학생을 위한 추가 재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정량적 성과물은 없다.

3)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사례(1): 유로필로조피 프로젝트

2007년 프랑스 툴루즈 대학을 비롯한 7개의 유럽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 공간 내의 독일과 프랑스 철학”(Philosophies allemandes et françaises dans l’espace européen, 약칭 “유로필로조피”EuroPhilosophie)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신청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 한 번 갱신되어 2017년까지 지원을 받았다.

2017년에는 “독일과 프랑스 철학: 동시대의 목표”(Philosophies allemande et française : enjeux contemporains, 약칭 “유로필로조피”)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해 다시 선정되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예산은 2,846,600유로(약 42억원)다. 컨소시엄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고, 한국의 민간 연구소와 서울대학교도 연계 기관으로 결합하였다.¹⁰⁾

10) 파트너 기관(partner)과 연계 기관(associated partner)은 다르다. 전자는 공동 학위를 발급하는 곳이고, 후자는 학위 발급 없이 공동 활동에만 참여하는 곳이다.

2007~2017년 프로젝트와 2017~2023년 프로젝트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기관들이 운영하였고, 내용과 주제도 연속적이지만, Erasmus+ 행정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인식된다. 물론 선정 과정에서는 둘 사이의 연속성이 고려되었다.

유로필로조피 석사는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선정된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유럽과 비유럽 대학 2~3곳을 옮겨 다니며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밟는다. 석사 학위는 머물렀던 대학들의 공동 학위로 발급된다. 선정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장학금 없이 자비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등록금과 제반 비용은 모두 프로젝트 예산에서 지원된다.

석사 과정 운영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비유럽 출신 학생 A는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첫 번째,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두 번째, 프랑스 툴루즈 대학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학기를 보내고, 툴루즈 대학 교수 2인의 지도로 석사 논문을 작성한다. 각 대학으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학기를 시작할 때 세 대학 모두에 등록한다는 점이다. 즉, 물리적으로는 한 대학에 머물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동시에 3개 대학 학생이 된다. 루뱅 대학에서 첫 학기가 끝나면 성적 결과가 프라하 대학과 툴루즈 대학에 통보되고, 세 대학 행정 시스템에 모두 기록된다. 마찬가지로 프라하 대학과 툴루즈 대학의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성적도 나머지 두 대학에 통보된다. 석사 논문 심사가 끝나면 총 4개의 석사 학위증을 발급 받는다(유로필로조피 증명서, 루뱅, 프라하, 툴루즈 대학 석사 학위증).

유럽 출신 학생 A는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첫 번째 학기,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에서 두 번째 학기를 마친 후, 프랑스 툴루즈 대학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학기를 보내면서 석사 논문을 작성한다(컨소시엄은 유럽 출신 학생이 비유럽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을 보내도록 요구한다). 해당 학생은 브라질에 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석사 논문 심사는 프랑스 툴루즈 대학 교수 1인과 독일 부퍼탈 대학 교수 1인이 담당한다. 석사 논문 심사 후 총 4종의 석사 학위증을 발급받는다(유로필로조피 증명서, 루뱅, 상카를루스, 툴루즈 대학 학위증).

프로젝트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다. 대학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언어로 수업을 개설하기도 하고, 프랑스어 수업과 독일어 수업을 모두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대학으로 갈 것인지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대부분 대학의 사용 언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표 II-8. 유로필로조피 컨소시엄 변화

연도	컨소시엄 구성
2007	“유럽 공간 내의 독일과 프랑스 철학”(2007~2011) - 프랑스 툴루즈 대학(Universités de Toulouse-Le Mirail, 주관 기관), - 독일 보훔 대학(Ruhr-Universität Bochum) - 벨기에 루뱅 대학(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 룩셈부르크 대학(Université de Luxembourg) - 독일 뮌헨 대학(Ludwig-Maximilians Universität München) - 체코 프라하 대학(Univerzita Karlova v Praze) - 독일 부퍼탈 대학(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2008	컨소시엄 외부의 비유럽 대학 3곳에서 학생 이동 활동 시작. -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Universidade Federal de São Carlos), - 미국 멤피스 대학(The University of Memphis) - 일본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2009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 미국 멤피스 대학, 일본 호세이 대학이 연계 기관으로 결합
2010	기존의 연계 기관이었던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 미국 멤피스 대학, 일본 호세이 대학 및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Università di Bologna)과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Universidade de Coimbra)이 새로운 파트너 기관으로 결합
2011	“유럽 공간 내의 독일과 프랑스 철학” 갱신(2011~2017) [파트너 기관] - 프랑스 툴루즈 대학(주관 기관) -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 - 일본 호세이 대학 - 벨기에 루뱅 대학 - 미국 멤피스 대학 - 체코 프라하 대학 -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 - 독일 부퍼탈 대학 - 독일 본 대학(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연계 기관] - 파리 고등 사범 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de Paris) -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Universitat de Barcelona) - 캐나다 셰르브루크 대학(Université de Sherbrooke) - 프랑스 툴루즈 괴테 인스티튜트(Institut Goethe de Toulouse)

연도	컨소시엄 구성
2017	“독일과 프랑스 철학: 동시대의 목표”(2017~2023) [파트너 기관] - 프랑스 툴루즈 대학(주관 기관) -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 - 벨기에 루뱅 대학 - 미국 멤피스 대학 - 체코 프라하 대학 - 브라질 상카를루스 대학 - 독일 부퍼탈 대학 [연계 기관] - 프랑스 툴루즈 괴테 인스티튜트(Institut Goethe de Toulouse) - 한국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서울대학교 - 서유럽 프랑스어권을 위한 대학 사무소(Agence Universitaire de la Francophonie pour l'Europe de l'Ouest) - 브라질 아프리카-브라질 포르투갈어권 국제 대학(Universidade da Integração Internacional da Lusofonia Afro-Brasileira) - 캐리비언 철학 협회(Caribb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 출처: EuroPhilosophie (2024). Le projet Master Erasmus Mundus EuroPhilosophie (2006-2023) est désormais clos. <https://europhilomem.hypotheses.org/> 에서 10월 2일 인출.

유로필로조피 석사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1) 독일 고전 철학, 2) 독일과 프랑스 현상학, 3) 동시대 독일과 프랑스 철학이다. 하지만 초기 프로젝트와 달리 2017~2023년 프로젝트는 비유럽 지역의 지적 성과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고, 탈식민이 주요 주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유로필로조피는 매년 20명 내외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전 세계 대학으로 흩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중이다. 그 결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광범위한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접촉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4)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사례(2): PIXNET 프로젝트

“광자 집적 회로, 센서 및 네트워크”(Photonic Integrated Circuits, Sensors and

NETworks, PIXNET)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 프로젝트다. 주관 기관은 이탈리아 산타나 연구대학(Scuola Superiore Sant'Anna)이고, 영국 애스턴 대학(Aston University),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기술대학(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일본 오사카 대학(大阪大学)이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총예산은 3,334,000유로(약 49억원)다. 석사 과정의 목적은 양자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가 연계 기관으로 결합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유로필로조피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 대학을 이동하며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참여 기관들이 공동 학위를 발급한다. 네 개 대학에서 네 학기를 보내는 여섯 가지 이동 경로가 규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 국가 구성을 살펴보면 1) 영국-영국-네덜란드-네덜란드, 2) 이탈리아-이탈리아-네덜란드-네덜란드, 3) 이탈리아-이탈리아-영국-영국, 4) 영국-영국-이탈리아-이탈리아, 5) 영국-영국-일본-이탈리아, 6) 이탈리아-이탈리아-영국-일본 총 5개 팀 형태로 운영된다.

5) 에라스무스 문두스 디자인 메저스 프로젝트 구성 방식과 사례

에라스무스 문두스 디자인 메저스의 선정 평가 기준은 연합 석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로젝트 구성 방식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석사 학위 조건은 연합 석사와 동일하다(2개국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학위를 발급하거나 2개국 이상의 기관이 2개 이상의 학위를 발급해야 함. 이 두 가지 방식의 조합도 가능. 학위 발급 기관에는 [그룹 1] 또는 [그룹 2]의 기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비유럽 지역([그룹 3])의 기관이 단독으로 지원 가능한 액션 유형이고, 적지만 몇 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 성균관대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건강과 농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질 기술”(LIPIDTECH - Sustainable Lipid Technologies for Global Health and Agriculture)이라는 제목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디자인 메저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총지원 예산은 55,000유로(약 8천1백만원)이고, 지질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석사 과정의 목표다. 파트너 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과 사회”(KnowSoc - Knowledge and Society)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총예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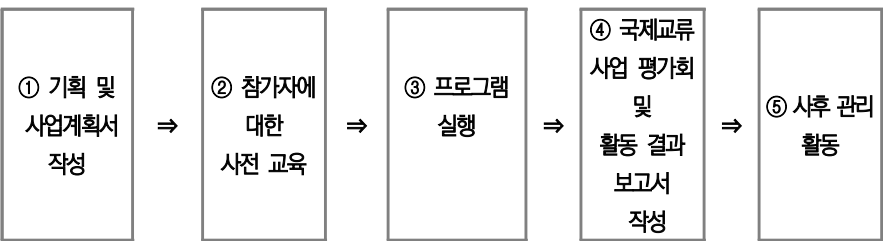
55,000유로(약 8천1백만원)다. 주제는 사회 인식론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짜 뉴스나 의견 양극화(belief polarisation)의 문제를 다룬다.

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제교류는 중앙부처 단위의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에서 각 사업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등이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학에서 여행과 연수 및 교환학생의 형태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은 참가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세계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다른 국가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교류사업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 목적과 방식을 포함하여 내용 면에서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방문 국가에 대한 관람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국제교류의 추진 과정은 ①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② 참가자에 대한 사전 교육, ③ 프로그램 실행, ④ 국제교류사업 평가회 및 보고서 작성, ⑤ 사후 관리 활동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을 청년 대상으로 적용하여 국제교류사업의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II-5]와 같다(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 출처: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그림 II-5.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 추진 절차

- ①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 : 사업기획 단계부터 교류사업 추진 주체 및 주관기관의 지도자들이 청년 대표와 함께 대상 국가 선정, 참가 규모, 프로그램 구성, 예산 규모 및 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얻을 수가 있다.
- ② 참가자에 대한 사전 교육 단계 : 참가자들에 대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조한다. 또한 사전 정보 검색을 통해 방문 국가와 활동 장소에 관한 언어, 문화, 기후, 음식, 시차, 생활 습관 등 기초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활동 내용 기록과 보고서 작성 방안에 관한 간단한 소개도 필요하다. 더불어 모둠 활동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체 생활의 에티켓 등을 실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 실행 단계 : 국제교류프로그램 역시 다른 여행프로그램과 같이 사전답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상 국가의 거리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인터넷 정보 검색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교류프로그램은 현지 방문 및 직·간접적인 참여 과정을 통한 체험학습의 과정으로 리더와 코디네이터와 참가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하에 계획된 콘텐츠를 실행해야 한다. 이 같은 실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전 지식 및 정보 검색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시점 혹은 하루의 일과가 종료된 후 일정한 시간을 분담하여 모둠별 토론과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유익했던 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④ 국제교류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서 작성은 참가자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결과 보고서의 구성은 사전에 학습한 관련 지식과 정보 검색 내용을 토대로 현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활동을 비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참고 자료를 조합하여 보고서의 기본 틀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 ⑤ 평가회 및 사후관리활동 : 이 단계에서는 먼저 국제교류 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중심으로 참가들이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실생활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사후관리활동으로는 참가자 상호 간 혹은 상대방 교류 국가의 참가자들과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익한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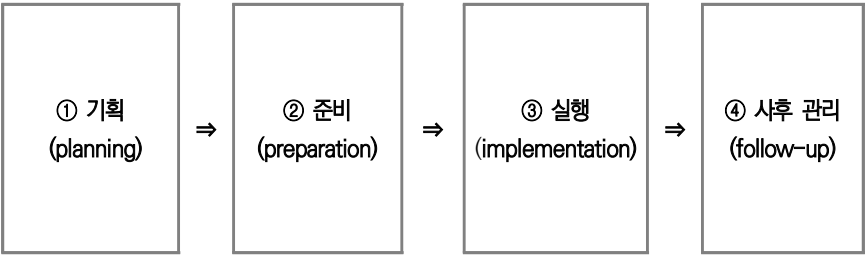
Erasmus+프로그램¹¹⁾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 연수, 청소년과 청년,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트너십, 행사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EU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이 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Erasmus+ 2024년 현재 Key Action1(Learning Mobility of Individuals: 1-1 ~ 1-10)을 포함하여 Key Action2(Cooperation among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Key Action3(Support to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s), Jean Monnet Action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청년 관련 기관 및 청년 그룹이 여러 국가의 청년들과 함께 형식적인 교육체계 밖에서 서로 교류하고 학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분야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 유럽 프로젝트와의 연계, 청년의 삶과 미래의 직업 역량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 교류(Youth Exchanges) 활동은 2개 국가 이상의 청년 그룹이 관심 주제와 유럽 청년 목표(The European Youth Goals)에서 영감을 받아 무형식(non-formal) 학습 프로그램(워크숍, 스포츠, 토론, 역할극, 시뮬레이션, 야외활동 등을 혼합한 형태)을 단기간에 함께 수행한다. 학습 기간은 실행 전 기획, 사전 준비, 교류 활동 후 평가 및 사후 관리(follow-up)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는 최소 2기 기관 이상이 참여하며, 마땅히 참여 기관에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참가 기관들의 목적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참가 기관들은 대표단을 파견(sending)하는 역할과 수용(receiving)하는 역할을 하고 이 기관 중 하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파트너십을 대표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신청한다.

11) 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Programme Guide, P.151-164. 원문 번역 및 주요 내용 인용.

청년 교류 프로젝트의 추진 절차는 기획(planning), 준비(preparation), 실행(implementation), 사후 관리(follow-up) 4단계로 [그림 II-6]과 같다. 특히 참가 기관과 참가 청년들은 이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습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programme Guide.

그림 II-6. Erasmus+ 청년 국제교류 추진 절차

- ① 기획 단계 :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참가자와 참가 기관의 요구(needs), 활동 목표, 학습 성과, 활동 방식, 사업 프로그램 개발, 활동 일정표 등을 확정해야 한다.
 - ② 준비 단계 : 교류 활동 국가로 출발하기 전에 실무적인 준비, 파트너 국가와의 협약 체결, 언어적/지적/학습적/ 측면을 비롯하여 수행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준비시킨다.
 - ③ 계획한 활동 실행
 - ④ 사후 관리 : 활동 평가, 참가자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성과의 확산 및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이 같은 추진 절차에 따른 ‘Erasmus+ 청년 교류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청년 및 참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 및 참가 기관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자신의 학습 및 발전 경험을 향상해야 한다.
 - 다양한 참가자 그룹을 참가시키며, 이러한 다양성을 토대로 추진한다.

- 청년 참가자들의 명확하게 파악된 요구에 기반한다.
- 참가자들은 무형식 혹은 비형식 학습 성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참가자들이 유럽 관련 주제와 유럽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격려한다.

Erasmus+ 청년 교류는 앞서 기술한 프로젝트 추진 절차와 더불어 교류활동 국가에 대한 사전 방문(Preparatory Visits)를 통해 행정적 준비 과정 점검, 참가 기관과 참가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질 높은 교류 활동을 사전에 담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전 방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하기도 한다.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에서는 청년 교류를 무형식 학습 상황에서 원하는 학습 결과를 스스로 사전에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의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학습 및 개인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핵심 활동이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학습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활용 방법을 숙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청년 품질 기준(Erasmus Youth Quality Standards)은 Key Action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참가자 선정 및 준비, 학습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평가·인정, 프로젝트 성과 공유) 등을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자들의 보호 및 안전(Protection and Safety of Participants)에 관한 지침을 비롯하여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s)에서의 포용성과 다양성(Inclusion and divers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청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youth), 참여와 시민 활동(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등에 관한 행동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Erasmus+ 프로그램 가이드의 마지막에는 표준화된 청년 교류 프로젝트 평가 기준(Criteria used to Assess Standard Youth Exchange Projects), 청년 교류에 관한 추가적인 자격 기준(Additional Eligibility for Youth Exchange), 사전 방문에 관한 추가 적격성 기준(Additional Eligibility criteria for Preparatory Visits), 지원서 평가 기준(Award criteria), 재정 지원 규칙(Funding rules)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이동성에 기반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운영 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교류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Erasmus+ 청년교류 프로젝트의 추진체계가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Erasmus+ 청년 교류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가 기획 단계에서 교류 대상 국가 선정, 참가 규모, 프로그램 구성, 예산 규모 및 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비해, Erasmus+는 참가자와 참가 기관의 요구(needs), 활동 목표, 학습 성과, 활동 방식, 사업 프로그램 개발, 활동 일정표 등을 확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준비 단계 역시 교류 국가로 출발하기 전에 실무적인 준비, 파트너 국가와의 협약 체결, 언어적/지적/학습적인 측면과 더불어 수행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준비시킨다. Erasmus+ 청년 교류 프로젝트의 기획과 준비 단계에 포함된 일부 항목들은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체계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제교류활동을 무형식의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여 참가자들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언어와 과제 수행을 준비시키고 활동 목표와 학습 성과를 관리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셋째, 단계별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협조 하에 청년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EU의 Erasmus+ 청년 교류 프로젝트는 질적 수준 유지와 학습 과정에서 참가 청년들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넷째, 나아가 각 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Erasmus+ 프로젝트는 학습 과정에서 참가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습 성과를 미리 계획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가 청년들은 활동 사례 및 개발(프로그램, 작업 방식, 업무 분담 결정)에도 최대한 깊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Erasmus+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국제교류활동을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여 새롭고 유익한 경험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Erasmus+ 청소년 품질 기준'에 포함된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참가자 선정 및 준비, 학습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평가·인정, 프로젝트 성과 공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청년 국제교류의 추진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제 교류활동의 기본 지침 혹은 표준 규정을 제작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포용성과 다양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청소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참여와 시민 활동 등에 관한 행동 수칙 등은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Erasmus+ 프로그램 가이드에 포함된 표준화된 청년 교류 프로젝트 평가 기준, 지원서 평가 기준, 재정 지원 규칙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들은 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형 Erasmus+ 프로젝트 모형” 구축 방안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와 운영 사례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관련 연구 과정을 거쳐 한국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국·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현황 분석

- 1. 중앙정부 국제교류 프로그램
-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
- 3.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 4. 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본)
- 5. 요약 및 시사점

1. 중앙정부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금까지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을 주축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9~24세 후기 청소년포함)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다. 외교부의 경우 파견 사업 다수가 전문인력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의 사업들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지니며, 다른 국가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1) 교육부

교육부는 주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첨단분야에 대한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중에 있다. 한편 대학생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개별 대학 단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신규 사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화되는 목표와 목적, 지향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청년 대상 국제교류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23 추진실적	'24 예산
CAMPUS Asia	한일중 및 ASEAN 국가 대학 간 공동 복수학위 취득, 교환학생 등 학생교류 지원	총 1,403명 학생 교류 지원 *파견(606명) 초청(797명)	4,449백만원
대학생 해외연수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한일대학생연수	국내 재학 대학생 약 1,430명 지원	13,331백만원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	한미정상회담(23.4) 계기 한미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여 첨단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공고화	한국대학(원)생 100명, 미국 연구자 100명	미국공여(기금규모 15백만달러)
한미(일)청년 한국첨단기업 탐방 프로그램	한·미·일 청년에게 한국 첨단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첨단기업 이해도 제고, 진로탐색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한·미·일 청년 460명 내외	220백만원 (변경가능)
ASEAM DUO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로 양 지역의 상호이해 증진 도모	한국학생 45명 유럽학생 45명 지원	710백만원

* 출처: 교육부 (2024). 교육부 소관 청년교류 지원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각 사업 단위로 내용을 살펴보면, Campus Asia는 한일중 및 ASEAN 국가 대학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공동 복수학위 등을 통한 학생 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견학생의 경우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를 제공하며, 초청학생에게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총 1,403명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파견학생 606명, 초청학생 797명이다.

대학생 해외연수 가운데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청년세대 간 교육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어학연수와 미국 내 기업에서 전공과 연계하여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2개월 간 어학연수와 3~4개월의 인턴십, 1개월 간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기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3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지원하면서 인턴십 기회를 더 확대해서 제공한다.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개발 및 진로개척 기회를 마련해준다. 지원 내용은 해외 대학에서

4~5주간 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교육비와 왕복 항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일 대학생 연수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 어학연수와 인턴십,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양국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6개월 간 일본 파견을 통해 현지 어학직무교육 및 전공연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한일대학생 연수로 구성된 대학생 연수 사업에 2023년 기준 국내 재학 대학생 1,430명이 지원하였다.

플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의 경우 2023년 4월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한미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하여 첨단분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공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 대학(원)생 100명과 미국 연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원)생은 미국 첨단분야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구자 100명은 한국 대학에 와서 첨단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024년 예산은 미국공여 기금 규모로 15백만 달러로 운영된다.

한미(일) 청년 한국 첨단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하계/동계방학기간에 한·미·일 청년 46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첨단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국내에서 학업중인 마·일 유학생, 장·단기교류로 한국에 방문한 마·일 청년을 포함한 해외 청년이며 한국 첨단기업 탐방기회를 통해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진로 탐색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ASEM DUO 사업은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를 통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에는 한국학생 45명, 유럽학생 45명으로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유럽 대학 간 1:1교류 프로그램(1학기, 4개월)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체재비 등 4,000유로 내외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총 44개팀 88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710백만원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다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대학-기업간 탐방, 교환학생, 인턴십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계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 또한 대부분 미국과 일본이 다수로 이뤄져있어 다양한 지역/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외교부

외교부의 청년 대상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 반면, 일반 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파견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청년정책 중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경우, 정책대상은 소득, 재학, 취창업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청년(19~29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외공관에 청년들을 파견하여 이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하반기 일정 기간동안 청년들이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문화외교나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 외교부에서 직접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2014년부터 정규사업화 된 이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 파견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38명이 파견(600백만원)되었고, 24년도에는 60명(1,162백만원)을 목표로 참여 대상과 예산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월 체재비, 왕복 항공료(정액 한도 내),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성과는 파견인원을 증원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청년에 한하여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시 가산점을 지원하고, 항공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특수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제업무 분야에 대한 일경험을 하고, 파견국 청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차세대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공공외교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파견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파견자와 신규 파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별 실습보고서를 공유하여 신규 파견자 대상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해당 사업의 경우 파견인원과 활동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항공료와 주거비 인상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체재비 이외에 개인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2023년도 기준 1인당 월 체재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에서 한계가 발생하며, 해당 청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지원에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중남미 전문인력으로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미주기구,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10여개 중남미 지역기구에 매년 25명 내외로 6개월 간 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하며, 외교부 주최 중남미 논문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인턴 파견 MOU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사업이 신설되어 17명 파견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2021년까지 파견을 하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 재개하여 2023년에 15개 지역기구에 25명, 2024년 상반기 까지 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359백만원으로서 외교부 직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처: 국무조정실 (2024). 2024년도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 자료 재작성

그림 Ⅲ-1.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추진 절차

해당 사업의 경우 인턴 파견 지원 경쟁률은 상승하는 반면에 예산은 '23년 403백만원에서 '24년 359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파견 인원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예산 마련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대학(원)생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청년 다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격 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글로벌 챌린저) 사업의 경우 「한국 국제교류재단법」 제6조¹²⁾에 기반하여 외교부에서 기획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위탁 운

영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 전문성을 함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 우수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실무 연수기회를 얻음으로써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2011년부터 KF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신설되어 싱크탱크 및 박물관 인턴십을 시행하였고 2015년에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었다. 2022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챌린저의 프리스쿨 성격으로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업 대상은 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우대조건이 있다. 연령은 세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으나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소득 기준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비취약 계층 간 지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년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과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취약계층 및 기존에 국제교류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다. 국제교류재단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해외 정책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인턴십 활동기회를 얻게할 뿐 아니라 학업 열의나 국제활동에 대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거주나 유학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다. 사업예산은 국비 1,837백만원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 7. 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e)

시기	구분	추진내용
전년도 6월~8월	사업계획 수립	- 해외 우수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의 글로벌 인턴 수요조사 및 파견 조건 협의 - KF-파견기관 간 협약 체결
전년도 9월~2월	참가자 공모 및 선발	- 참가자 선발공고 및 대외홍보 - 국내 외부전문가 평가, 파견기관 면접대상자 선정 및 진행, 최종합격자 선정 - KF글로벌챌린저아카데미 참가자 공모(4~5월)
3월~	사업수행	- KF-파견인턴 간 협약 체결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KF글로벌챌린저아카데미 국내외 연수 시행(6월~차년도1월)
연중	사업시행 및 활동결과 접수	- 현지 파견(기관별 파견일정 상이) - 현지 보고 접수(도착, 월간, 중간, 결과 등)
연말	사업결과 평가 및 후속관리	- 참가자 만족도조사 및 성과평가 - 후속회의 운영, 사후 현직조사 실시

* 출처: 국무조정실 (2024). 2024년도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 자료. 참조

그림 III-2. KF 글로벌 챌린저 추진 운영 절차

글로벌 챌린저 사업의 경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 대상으로 단계별 성장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턴십 파견국가와 지역을 다변화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신규 국가와 기관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다. 가장 큰 효과성으로는 기파견자를 대상으로 해외와 국내 취업률이 69.4%에 해당함으로써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있어 일자리 연계까지 실현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2023년 참여한 청년 4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파견 기관에서 연장해서 근무하거나 파견된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 기관에 취업한 사례를 볼 때 취업한 청년이 70% 정도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해외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챌린저 프리스쿨 제도 마련 등의 개선을 통해 합격자 가운데 2023년 대비 경제적 취약청년 비율이 16.1%p 상승하기도 하였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다만,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참여인원 증원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의 국제경험 및 해외 일자리 연계를 위한 기회로서의 확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 밖에도 외교부에서는 1996년부터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및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을 통해 국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이 유엔 및 국제기구에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4년 기준 13,942백만원으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는 30명, 유엔자원봉사단은 60명이 선발되어 파견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의 경우 국내외 대학 학사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대학비진학 청년이나 졸업유예청년 등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여성가족부¹³⁾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책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 국가 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이라고 정의¹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국가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민간 부문에서는 청소년 단체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사회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교류활동”이 법적 근거 있는 것처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1일에 신규로 제정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4477호로 시행될 때, 그 취지가 다음과 같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13) 여성가족부 청소년교류사업은 김진걸 차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작성한 내용으로, 본 연구는 청년(19~34세)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청소년(9~24세)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과 더불어 청년층 일부 연령이 후기 청소년(19~24세)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청년 국제교류 모델 구축의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소개. <https://kywa.or.kr>에서 2024년 5월 16일 인출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하고 2005년 2월 10일부로 법률 제7163호로 시행될 때,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가운데 동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항의8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동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활동의 지속적 발전되도록 기반 조성을 하게 되어 있다. 법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는 청소년교류활동의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및 향상되도록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법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서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청소년교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설치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III-2. 여성가족부 청(소)년 주요 국제교류 사업

사업명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해외자원 봉사단	국제회의 및 행사파견	글로벌 서밋
목적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국가 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청소년의 국제협력 활동 참여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	다자간교류활동 참가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참여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국제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 및 각국 청소년들과 인식공유를 통해 세계시민의식 제고 및 글로벌 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지향과 특성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 및 글로벌 리더로	봉사를 주제로 한 국제협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	미래세대의 일원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	미래세대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감 강화, 우호적 이미지 형성.

사업명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해외자원 봉사단	국제회의 및 행사파견	글로벌 서밋
	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	아실현과 글로벌 역 량강화 및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	결하기 위해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활동	전자구직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및 의견교류 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기반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상대국 청소년과의 교 류활동,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방문, 홈스 테이, 문화체험 등	교육봉사, 노력봉사,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국제회의·행 사 참석, 강연, 문화 체험, 토론회 및 발언 낭독 등	기조강연, 국가별 사례 발표, 분과 토론, 전체 총회, 정책 한류,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4조(국제청소년교 류활동의 지원)			
대상	만 16세~만 24세 청소년	만 15세~만 20세 청소년	만 16세~만 24세 청소년	만 18세~만 24세 청소년
규모	300명 내외	약 140여명	33명 내외	10여 개국 200명
시기	4월~11월 (10일 내외)	7~8월 중 파견 (10일 내외)	연중(15일 내외)	7~8월 중/ 8박 9일 내외(초청)

* 출처: 양계민, 권오영 (2023).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p.28

지금까지 중앙부처 단위로 청년 국제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청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부처 단위 비교

부처명	대표 프로그램	특징	'23 추진실적	'24 예산
교육부	Campus Asia	교육부 소관 청년대상 지 원 사업 중 가장 대규모 사 업으로 한일중, ASEAN 국가와의 공동복수학위취 득 및 교환학생 지원	총1,403명 학생 교류 지원 *파견(606명) 초청(797명)	4,449백만원

부처명	대표 프로그램	특징	'23 추진실적	'24 예산
외교부	KF 글로벌 챌린저 및 글로벌 챌린저아카데미	청년(취약계층청년 우대)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기 회를 확대하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 사전 프로그램 으로 프리스쿨 운영	6개국 23개처 청 년 30명 파견	1,837백만원
여가부	글로벌 서밋	10여개국 200명의 청 (소)년이 미래세대의 네트 워크 구축과 연대감 강화, 우호적 이미지 형성. 전자구적 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 및 의견교류하는 행사	-	-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

최근 들어 전국의 지자체가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정책 확대 마련 등을 계기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당 웹사이트 검색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제주도의 청년 대상,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 국제포럼과 자원봉사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던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서울시 청년허브' 등이 청년 국제교류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형태이다.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표 II-4>과 같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주관하는 「2024 서울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의 참가 대상은 서울 거주 19~34세 청년이다. 반면, 「2024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 해외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청년 및 시정기여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서울시 청년허브가 주관하는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단 '2023 GSEF 국제 포럼」은 참가 대상을 '서울시 거주 혹은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경험 보유 청년 5명 내외'로

한정하여 '2023국제사회경제협의체 (GSEF,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표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인턴십 참여 15개 국제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국제캠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표 III-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지역	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시 미래 청년 기획단	「2024 서울 청년 해외봉사단」	- 대상 : 서울 거주 19세~39세 청년 - 활동 : 지역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 국가 : 인도네시아(1개월) - 지원 : 해외 체제비(주거비, 생활비), 항공료, 의료보안 지원서비스 등
		「2024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취약 청년 및 시정기여자 - 활동 :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국가 : 미국, 베트남 현지 기업 등 - 지원 : 해외 체류비, 항공료, 여행자보험료, ESTA비자 발급비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청년 국제 교류단 '2023 GSEF 국제포럼」	- 대상 : 서울시 거주 혹은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경험 보유 청년 5명 내외 - 활동 : '2023국제사회경제협의체 (GSEF,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참가하여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표 - 국가 : UN결의안 채택 후 첫 포럼 전세계 600여개 도시, 4,000여명 참가 - 지원 : 국제교류 탐방 경비(왕복 항공권 및 숙박비, 회의 참가비) 및 교육
	서울특별시와 인턴십 참여 국제협력기관	서울형 청년인턴 국제캠프	- 대상 : 서울 거주 18세~39세 청년 구직자 - 활동 : 사전교육, 교육훈련병행 인턴십 - 협력기관 : 15개 국제협력기관 - 지원 : 인턴십 시급 및 사후지원(국제기관 및 글로벌기업 정보제공)

*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202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http://youth.seoul.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서울특별시청 (202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http://www.seoul.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서울시 사례의 특징은 그동안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각 구청 차원에서 직접 주관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서울시 청년허브' 등과 같은 청년정책 전문 기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기도

(1) 시흥시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청년대상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2023년 시흥시에서 시행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일정 및 내용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 소개하는 이유는 경기도 시흥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인 '시스터스쿨 프로젝트'가 외교부 주관 '2023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시흥타임즈, 2024.1.26), 시흥시의 특화 정책으로 매년 3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상호 문화주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시흥시에서는 '청소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큰 꿈의 영토를 확장하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1년간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하였다. 시 차원에서 가정, 학교와 연결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향상과 글로벌 역량을 목표로 교류사업을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자기주도적 해외연수, 문화 및 역사 전문가 교육과 심화활동을 통한 현지답사 견학, 해외학교와 시흥시 내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학교 간 결연사업 등이 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괄하며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른 국가까지 확장한 차원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활성화하는 특성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월별로 진행되어 온 국제교류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는 글로벌 특강, 3월에는 시스터스쿨 프로젝트(해외학교와의 교류), 4월은 헬로(Hello) 시흥스테이로 외국인인 방문하는 프로그램, 7~8월에는 청소년기획연수단(시흥에서 세계로)과 해외



* 출처 : 시흥시청 (2024). 시흥시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추진 일정. siheung.go.kr/2023 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그림 III-3. 시흥시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추진 일정(2023)

견학체험단(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을 운영함으로써 여름방학 기간에 직접 청소년·청년이 해외 답사 탐방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0월에는 전국청소년 모의유엔을 시행하고 11월에는 한-중 청소년 바둑대회를 통해 국가 간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활동은 지자체 청소년·청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 단위로 협력 교류를 맺고 있는 지역과의 연계는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행·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활동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청년 대상 국제교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다음,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경기도 청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례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비롯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평화교육센터’ 등이 청년 국제교류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2024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2024경기청년 해외진출[미국] 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은 서울시와 유사하게 경기도 내 19~39세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과학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은 해외 취·창업에 관심이 큰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경기 평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24 청년이 주도 하는 남북 청년교류 경기청년 피스리더2기’ 프로그램은 경기 거주 19세~39세 청년, 경기 소재 대학(원)생, 휴학생 50명, 외국인 유학생 10명으로 평화캠프, 국제청년포럼 정책 워크숍과 평화통일 특강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I-5. 경기도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지역	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2024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 대상 : 경기도 내 19세~39세 청년 - 활동 : 해외대학 연수 기회 제공 - 국가 : 미국, 호주,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9개 대학교 - 지원 : 사전교육, 해외대학 연수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비용
		「2024경기청년 해외진출 [미국]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19세~39세 청년 - 활동 : 경기청년들의 안정적인 인턴십 수행 지원(인턴십 사전준비, 기업매칭,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 - 국가 : 미국 - 지원 : 교육 1 : 1 컨설팅, 기업매칭, 비자수속, 사후관리 등 인턴십 참여 비용 일부, 편도항공료 실비의 50%(100만원 한도)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경기청년 해외 취 창업 기회 확충」	- 대상 : 해외 취창업에 관심이 큰 경기 청년(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 - 활동 : 해외기업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국가 :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호주,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2개국 13개 도시) - 지원 :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 비용 및 숙박, 항공비 등 운영비용

지역	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경기평화 교육센터	「2024 청년이 주 도 하는 남북 청년 교류 경기청년 피 스리더2기」	• 대상 : 경기 거주 19세~39세 청년, 경기 소재 대학(원)생, 휴학생 50명, 외국인 유학생 10명 • 활동 : 제주도 평화캠프, 국제청년포럼, 정책 워크숍과 평화통일 특강 • 국가 : 한국, 외국인 유학생 • 지원(혜택) : 80%이상 프로그램 참여시 수료증 수여, 제 주도 평화캠프 등 모든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모 듬별 활동비 지원, 기념품 증정 등

* 출처: 경기도청 (2024).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www.gg.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경기도 일자리재단 (2024).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s://www.gjf.or.kr> 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경기도 사례에서 먼저 시흥시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특징은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가정, 학교와 연결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향상과 글로벌 역량을 목표로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비롯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평화교육센터’ 등이 청년 국제교류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혹은 세계평화 포럼 및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문화 가정 및 이주 배경 청년 대상 국내외 교류사업을 개발하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는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하여 국제교류 관련 기구 및 단체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년 국제교류사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자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자체가 국제교류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힘입어 향후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제주국제연수센터’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주관하는 ‘2023 제주국제청년포럼(JIFF)’ 및 ‘제3회 아·태 영리더스 포럼, 제주’ 등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직접 주관하는 ‘제주 국제교류 청년 프렌즈’ 프로그램은 민간 영역의 공공외교 활동이 주목받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제주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I-6.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지자체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지역	주관	사업명	프로그램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UNITA·제주국제연수센터	「2023 제주국제청년포럼(JIFF)」	- 대상 : 제주 청년 및 제주 해외 교류도시 거주 20대·30대 청년 - 활동 : 2023 제주국제포럼 “청년의 언어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 평등과 정의, 번영과 혁신, 글로벌 제주 등) 소주제 1개 선택 - 참가혜택 : 유엔훈련연구기구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수료증 및 기념품
	(재)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 대상 : 제주 청년 및 제주 해외 교류도시 거주 20대·30대 청년 - 내용 : 청년들이 국제포럼에 한 세션을 직접 운영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 청년사무국은 2개월간 자료 조사, 사전 현장 홍보활동, 무대 및 발표 형식 구성, 전문가 섭외 등을 기획하고 소정에 활동비를 지급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제3회 아태 영리더스 포럼, 제주」	- 내용 : ‘청년과 일자리, 환경, 평화’를 주제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고 논의와 소통 - 참가 국가 :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
	제주평생교육장 학진홍원	「제주청년해외연수」	- 대상 : 제주지역 19~34세 청년 3인 이상 팀 구성 - 활동 : 국내외 지역 제한 배낭 여행 5박 7일 일정 - 지원 : 선발된 팀은 경비 1,000만원 지원 범위내에서 일정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제교류청년 프렌즈」	- 내용 : 민간영역의 공공외교 활동이 주목받는 시대에 흐름에 부응하여 제주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 - 교류국가 : 2023년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UCSD)와 국제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개최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2024). 청년 국제프로그램 <http://www.jeju.go.kr>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제주도에는 현재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제주평화연구원을 비롯하여 국제교류 관련 기구 및 단체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년 국제교류사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자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자체가 국제교류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힘입어 향후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에 근거하여 대표 프로그램 및 특징과 더불어 '23년도 추진 실적과 '24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표 III-7>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 지자체의 대표 프로그램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인턴십과 대학 연계 학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23년도 추진 실적에서 예산을 비교하면 경기도가 서울특별시에 비해 3배 정도 높고 제주도는 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학원생과 미국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표 III-7.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 지자체 단위 비교

부처명	대표 프로그램	특징	'23 추진실적	'24 예산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총1,403명 학생 교류 지원 *파견(606명) 초청(797명)	4,449백만원
경기도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미국, 호주,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9개 대학교와 연계하여 사전교육, 해외대학 연수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국내 재학 대학생 약 1,430명 지원	13,331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아·태 영리더스 포럼, 제주」	‘청년과 일자리, 환경, 평화’를 주제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역할 모색, 논의와 소통	한국대학(원)생 100명, 미국 연구자100명	미국공여(기금 규모 15백만원)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과 청년정책 확대에 따른 청년 국제교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콘텐츠는 단기적이며 일회성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시간과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사전 기획 및 준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추진체계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 및 자원봉사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회의는 전 지구적으로 공통 관심사인 기후 위기 대응, 환경, 평화 등을 포함하여, 최근 들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인턴십과 해외기업 체험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사업은 국가 간의 사전 교감과 양해각서 체결 등 상호협의를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지원시스템 등을 확정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의 유형과 더불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여 참가 국가 모두에게 호혜적인 국제교류사업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

1)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배경과 개념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므로 청소년국제교류의 개념이 대학생 국제교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 국제교류를 청소년활동 영역 중의 하나인 청소년교류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c).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4에서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d) 있으므로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국제교류의 개념은 이에 근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국제교류란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개별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활동이자,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교과 혹은 비교과와 관련된 활동 중의 하나라고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국제교류란 교류의 사전적 의미인 인적, 물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김창환, 유시은, 김윤영, 2013)을 포함하여 대학이 해외에 있는 대학과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교류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각국 청년의 학문적·문화적 경험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인적 인프라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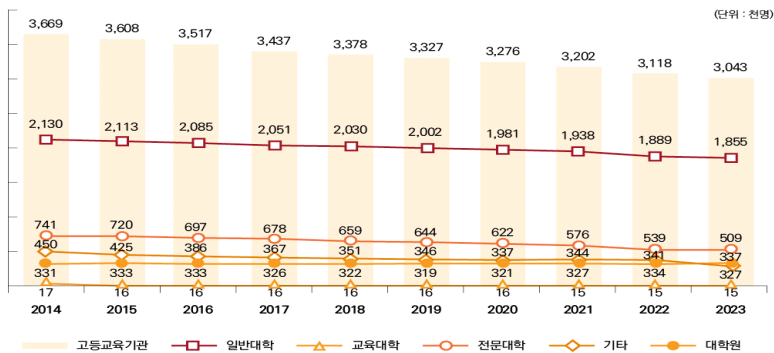
2) 대학 국제교류 현황

국내 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은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외국에서의 학습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는 복수학위 이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국내와 외국 대학 간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 일정 기간을 공부한 후 외국 대학으로 이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반대의 형태로도 운영된다. 셋째는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학술적 지식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 학술 대회나 워크숍을 통해 학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끝으로 국제 학위 프로그램인데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내와 외국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 간의 협력과 국제화를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의 국제교류 가운데 교환학생과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4년제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교에

서 학기나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교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그곳에서 해당 대학의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며, 언어 능력과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다른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여 학습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만 이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교 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경험한 학생들이 나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4개교로, 유형별로는 일반대학 190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3개교, 기타 47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이다. 전체 재적학생 수(재학생 + 휴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생)는 3,042,848명이다(교육부, 2023). 다음은 대학유형별 재적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 출처: 교육부(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3. 8. 30. p.4.

그림 III-4. 2023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대학유형별 재적학생 수

다음 <표 III-8>은 2023년에 공시된 대한민국 소재 대학 중에서 재학생 규모 기준 상위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대학으로의 파견 기간 별 인원, 외국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유치한 유학생의 유치 기간별 인원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I-8. '22 기준년도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번호	학교명	파견 인원 (자대학 → 타대학)	파견기간별 인원				유치인원 (타대학→ 자대학)	유치기간별 인원			
			~3개 월	3개월 초과~ 6개월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6개월 초과~ 1년	1년 초과
1	가천대학교	257	47	85	125	0	123	0	123	0	0
2	건국대학교	429	224	189	5	11	453	52	308	93	0
3	경북대학교	346	57	264	25	0	572	110	326	112	24
4	계명대학교	269	28	27	161	53	395	0	0	394	1
5	고려대학교	829	50	1	777	1	2,975	1,392	1,459	124	0
6	국립부경대학교	164	0	15	149	0	13	0	6	134	0
7	대구대학교	67	0	48	19	0	126	0	0	126	0
8	부산대학교	382	145	235	2	0	410	27	264	114	5
9	서울대학교	486	75	320	90	1	907	171	0	736	0
10	영남대학교	130	17	0	113	0	147	0	0	147	0
11	이화여자대학교	740	48	624	66	2	716	135	404	177	0
12	인하대학교	537	314	178	42	3	714	229	366	119	0
13	전남대학교	104	0	104	0	0	259	26	233	0	0
14	전북대학교	507	338	144	24	1	548	208	308	31	1
15	조선대학교	8	0	0	8	0	45	0	0	45	0
16	중앙대학교	428	51	377	0	0	893	132	761	0	0
17	충남대학교	196	93	103	0	0	177	42	135	0	0
18	한양대학교	251	24	114	110	3	1,996	1,062	435	499	0
	합계	6,130					11,469				

* 출처: 대학알리미 (2024b).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r.do>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1) 학술 교류 협정 국가 현황 및 특성

대학의 학점교류 현황을 포함한 전체 학술 교류 협정(MOU)을 체결한 국가의 현황과 체결 형태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학생 규모 상위 대학의 2022년 학술 교류 협정(MOU) 체결 국가의 현황은 <표 III-9>와 같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을 게시하고 있어 학술교류협정 국가와 대학(기관)을 대학알

리미에 제시된 각각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표 III-9. '22 기준년도 학술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번호	학교명	국가 수			대학(기관) 수
1	가천대학교	32개국			199개 대학
2	건국대학교	29개국			(621개 대학교 / 15개 연구소 및 정부·국제기관 / 15개 고등학교)
3	경북대학교	대학본부 62개국			302개
		단과대학 44개국			223개
		연구소 11개국			27개
4	계명대학교	66개국			398대학, 49개 기관
5	고려대학교	대학본부 87개국			571개
		단과대학 30개국			452개
		국제기구 49개국			339개
6	국립부경대학교	파견 16개국(20학년도)			29개국
		유치 11개국(20학년도)			21개국
7	대구대학교	16개국			124개
8	부산대학교	60개국			586개 대학 및 기관
9	서울대학교	학술교류협정	본부	61개국	375개
			대학(원)	62개국	901개
			연구소 및 부속시설	44개국	223개
		학생교환협정	본부	46개국	263개
			대학(원)	40개국	331개
			연구소 및 부속시설	6개국	8개
10	영남대학교	48개국			417개
11	이화여자대학교	82개국			1,115개
12	인하대학교	28개국			93개
13	전남대학교	69개국			519개
14	전북대학교	70개국			433개
15	조선대학교	4개국			14개
16	중앙대학교	42개국			159개
17	충남대학교	12개국			44개
18	한양대학교	68개국			478개

* 출처: 대학알리미 (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대학의 학점교류현황을 포함한 전체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단위로 파견 및 유입학생 현황과 교류협정 국가 네트워크 유형, 운영 프로그램 간 특징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 학생 현황

고려대학교¹⁵⁾의 경우, 학점교류를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의 파견하는 인원도 2022년 기준 연간 829명으로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역시 학점 교류를 위해 고려대학교로 파견을 오는 해외 유학생도 2천 975명으로 집계되어 가장 많은 외국과의 교류 실적이 있다.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고려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현황

협정 종류	협정 단위	국가 수	대학 수
Bilateral	대학	87	571
	단과대	60	452
	협정 소개(중복제외)	91	871
International Agency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s)	48	298
	SAF(Study Abroad Foundation)	6	48
	협정 소개(중복제외)	49	339
	소개	98	1,140

* 출처: 대학알리미 (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ipnh/unt/unmcom/RdViewer.do>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한양대학교는 22년 기준 1천 996명의 해외 대학의 대학생들이 한양대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28개 국가의 교류가 체결되어 있지만, 파견인원과 유치인원은 많은 축에 속한다.

15) 고려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2022학년도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ipnh/unt/unmcom/RdViewer.do>에서 편집하여 재작성함. 2024년 4월 20일 인출.

표 III-11. '22 기준년도 인하대학교 학점교류를 위한 외국대학 교류 현황

국가	파견인원	유치인원
합	69	0
네덜란드	1	7
노르웨이	0	2
대만	3	17
덴마크	0	5
독일	40	71
러시아	0	3
리히텐슈타인	1	0
말레이시아	0	18
멕시코	0	7
미국	104	4
일본	31	16
브루나이	0	4
스웨덴	6	15
스위스	0	2
스페인	27	14
싱가포르	5	17
아제르바이잔	0	159
영국	3	6
오스트리아	46	13
우즈베키스탄	0	15
아리아	1	8
인도네시아	0	29
중국	9	13
체코	61	5
카자흐스탄	0	4
캐나다	9	0
키르기즈	0	6
태국	30	1

국가	파견인원	유치인원
튀르키예	1	3
포르투갈	0	2
폴란드	3	1
프랑스	76	214
핀란드	6	7
헝가리	1	3
호주	3	2
홍콩	1	21
총합계	537	714

* 출처: 대학알리미 (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다수 국가와 교류 협력체계를 맺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점교류를 위한 22학년도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현황은 양자간 57개국 583개 대학이며, 다자간은 79개국, 1,115 개 대학과 이루어져있다. 교류 내용은 학생, 교수, 연구 교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별 협정체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 '22 기준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외국대학과 학점 교류 현황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1	가나	0	1	41	아르헨티나	0	4
2	과테말라	1	0	42	아이슬란드	1	0
3	그리스	0	1	43	아일랜드	1	1
4	남아프리카공화국	0	1	44	아제르바이잔	1	0
5	네덜란드	11	4	45	에스토니아	0	1
6	네팔	1	0	46	에콰도르	0	1
7	노르웨이	3	0	47	에티오피아	1	0
8	뉴질랜드	2	7	48	영국	20	18
9	니카라과	0	1	49	오스트리아	6	4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10	대만	29	21	50	우루과이	0	1
11	덴마크	3	1	51	이란	1	0
12	독일	36	7	52	이스라엘	2	0
13	라오스	1	0	53	이탈리아	10	3
14	라트비아	0	7	54	인도	2	7
15	러시아	1	0	55	인도네시아	5	28
16	레바논	0	7	56	일본	76	46
17	루마니아	1	0	57	자메이카	1	0
18	리투아니아	3	7	58	중국	62	35
19	말레이시아	2	2	59	체코	0	2
20	멕시코	2	7	60	칠레	1	3
21	모나코	1	0	61	카자흐스탄	4	0
22	모로코	1	1	62	캄보디아	2	0
23	몰타	0	1	63	캐나다	15	4
24	몽골	1	1	64	코스타리카	1	2
25	미국	136	193	65	콜롬비아	0	2
26	미얀마	0	1	66	태국	11	10
27	방글라데시	2	3	67	튀르키예	0	2
28	베트남	9	6	68	파라과이	1	0
29	벨기에	5	2	69	파키스탄	1	0
30	보츠와나	0	1	70	포르투갈	0	2
31	볼리비아	0	1	71	폴란드	2	1
32	불가리아	0	1	72	푸에르토리코	0	5
33	브라질	2	4	73	프랑스	37	14
34	사우디아라비아	1	0	74	피지	0	1
35	수단	1	0	75	핀란드	4	7
36	스웨덴	5	4	76	필리핀	7	16
37	스위스	8	3	77	헝가리	0	1
38	스페인	16	10	78	호주	10	19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번호	국가명	체결 기관 수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양자간 협정 (Bi-lateral)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39	싱가포르	4	0	79	홍콩	8	1
40	아랍에미리트	2	3				
					소계	583	532
					합계	1,115	

* 출처: 대학알리미(2024a).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한양대학교¹⁶⁾의 해외 협력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67개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478개의 대학(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83개 대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58개 대학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44개교, 프랑스 28개교, 독일 21개교, 대만 19개교, 스페인 16개교, 영국 12개교, 스웨덴과 호주 각각 10개교와 해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권역인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협력 대학이 136개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음 <표 III-13>은 2022 년도 기준으로 한양대학교가 협력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과의 권역별 MOU 숫자와 해외협력 프로그램 별 참가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4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반교류임을 알 수 있다.

16) 한양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해외 협력교 정리.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표 III-13. '22 기준년도 한양대학교 해외 협력교 숫자 및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권역	MOU 수	일반교류	학생교환 교류	연구교류	인턴십	복수학위	썸머/윈터	방문학생
아시아	205	178	118	4	204	8	19	10
북아메리카	71	56	46	2		2	18	5
중동	9	6	2		9		1	
유럽	165	141	131	2	165	4	19	5
오세아니아	10	9	7		10		2	
남아메리카	10	9	9		10			
아프리카	8				8		1	
합계	478	399	313	8	406	14	60	20

* 출처: 대학알리미(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서울대학교¹⁷⁾는 한양대학교 다음으로 해외에서 서울대학으로의 유입 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이다. 국제학술교류협정 총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술교류협정에는 일반학술 교류협정, 학생교환협정, 공동-복수학위협정, 기타 협정이 포함된다.

표 III-14. '22 기준년도 서울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MOU) 총괄 현황

구분	학술교류협정	학생교환협정
본부	61개국 375개 기관	46개국 263개 기관
대학(원)	62개국 901개 기관	40개국 331개 기관
연구소 및 부속시설	44개국 223개 기관	6개국 8개 기관

* 출처: 대학알리미(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영남대학교의 경우, 2022년 기준 51개국 454개 대학과 체결범위는 대학전체, 혹은 단과대학(자체단위), 연구소 단위로, 주요협정 내용으로는 학술교류, 학생교환, 교원 교환

15) 서울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2022학년도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는 대학원 연계 과정과 비학위 과정, 2+2 복수학위, 3+2 학부편입학, 중외합작판학 한국어센터 협정, 어학연수생/유학생 유치, 1+1 석사과정 복수학위프로그램, 석박사 대학원생 공동양성, 대학원과정연계프로그램 시행각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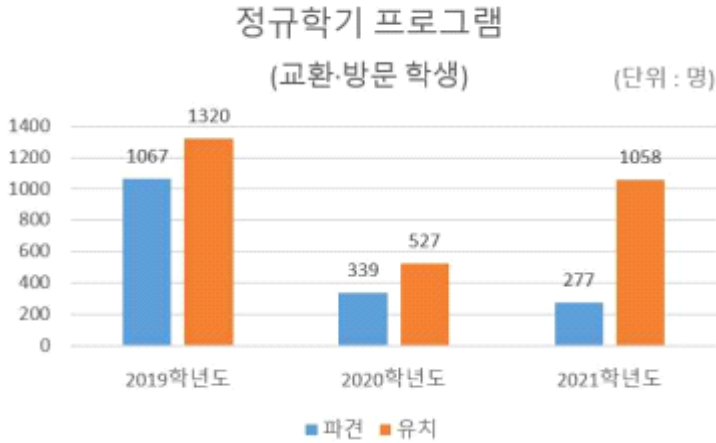
51개국에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 같은 남미에 있는 국가와도 대학전체 차원에서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가는 물론 다양한 내용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학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

고려대학교는 학점 교류 외에도 다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생 대상의 대학 또는 개별 단과대학 차원의 다양한 교환(SEP, Student Exchange Program) 및 방문(VSP, Visiting Student Progra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해외 수학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감각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정규학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연구 기반을 제공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국제하계대학(ISC, International Summer Campus), 국제동계대학(IWC, International Winter Campus) 프로그램을 통해 150여개(하계 120여개, 동계 30여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전 세계 70여 개국 300여 개 대학 2,700(하계 1,800명, 동계 900명)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된 국제하계대학과 2016년 개설된 국제동계대학에는 그 동안 총 2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KU-GLP라는 프로그램은 파견국가의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개인의 전공과 접목하여 해당 국가의 어학능력 향상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부터 중국, 라틴아메리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출처: 대학알리미(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그림 III-5. 고려대학교 2019년 ~ 2021학년도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현황

한편, 서울대학교는 외국대학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과 학점교류 현황외에도 단기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SNU in the World Program(SWP)은 방학 기간 중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집중교육과 현지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외 계절학기 프로그램으로 22년의 경우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21년 대비 참가 인원이 4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모든 대학에서 국제교류 활동이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5. '22 SNU in the World Program(SWP)

순번	프로그램명	장소 및 국가	참가인원	비고
1	SNU in Berlin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30	
2	SNU in Madrid	스페인 국립마드리드대학교	30	
3	SNU in the EU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교	20	
4	SNU in the UK: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영국 서섹스대학교	20	
5	SNU in Social Impact	관악캠퍼스 및 시흥캠퍼스	15	국내
6	SNU in Biotech	관악캠퍼스 등	34	
7	SNU in Australia: Climate Crisis, Green Management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20	
8	SNU in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소재 주요 국제기구	34	
9	SNU in Portugal: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20	
10	SNU in San Francisco: Innovation and Social Justice	미국 UC 산타크루즈	22	
11	SNU in Japan: Inclusive Socie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	21	
합계			266	

* 출처: 대학알리미(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International Summer Program(ISP)은 하계방학 기간 중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어 진행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재학생 및 국제 학생 대상 국제하계강좌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 학생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영어 진행 교과목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대학 학생의 입국 절차와 한국 내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포함한 국제 교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이 특이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 대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28개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21년에는 33개국 52개 외국대학 출신 학생 111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22년에는 37개국 93개교 외국대학 출신 학생 243명이 참가하여 전년대비 50% 이상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Study Abroad Program(SAP)은 방학 기간에 해외 우수 대학에서 계절학기, 실습, 연구 수행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부생의 단기 국외연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2년 52명이 파견되었다. 이 역시 21년 코로나로 축소되어 4명 파견 된 것과 비교하면 해외로의 지원 프로그램은 확산 추세에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복수학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대학교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대학정보공시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류현황에 의하면 2022년도 복수학위 재학생은 7명으로 이중 3명이 신입생이며, 교육과정 공동운영, 즉 공동학위 관련 프로그램 교류내역은 22년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교류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6. 전북대학교 대학정보공시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류현황(2022년도 현황)

구분	교류내용	
프로그램명	교육과정 공동운영(복수학위)	
학위과정	학사	석사
대학의 관여학과	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 사회과학대학:신문방송학과 생활과학대학:의류학과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외국 국가명	몽골, 중국	홍콩
파트너 대학의 관여 학과	한국어, 국제학(한국학), 소프트웨어공학, 패션디자인	환경에너지관련 전공
프로그램 별도설치 여부	없음	없음
신규 참여학생 수 (외국대학→전북대)	2	1
신규 참여학생 수 (전북대→외국대학)	0	0
사용언어(본교)	한국어	한국어, 영어
사용언어(외국파트너 대학)	해당국가 언어(파견자 없음)	해당국가 언어(파견자 없음)
이수학점 수(본교)	65~70학점	석사6~18학점, 박사9~27학점
이수학점 수(외국파트너 대학)	상대대학의 기준에 따름	상대대학의 기준에 따름

구분	교류내용	
	(파견자는 없음)	(파견자는 없음)
* 출처: 대학알리미 (2024c). 외국학생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하고 편집하여 작성.		

4. 해외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본)

일본의 교육 및 연구 개발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화,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0).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본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진행된 '글로벌 30'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2009년에 시작된 글로벌 30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본 대학에서 영어로 완전히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09).

일본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30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내 주요 대학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대학들이 글로벌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학술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018).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비자 취득의 용이성, 학생 지원 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문화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대학을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어 주며, 그 결과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글로벌 30 프로젝트는 일본 내에서 국제적 학습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참여 대학들에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문적 다양성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일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학생들은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은 일본이 글로벌 혁신 지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일본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맞춘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일본이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과학적,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여러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기술 이전, 학문 교류, 공동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일본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과 글로벌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 일본의 Erasmus+ 프로그램 취지와 방향

일본의 Erasmus+ 프로그램 참여는 교육 및 연구의 글로벌 표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과의 교육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0). Erasmus+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국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교육 및 연구 기관의 국제적 프로파일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학문적 및 문화적 교류 증진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rasmu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본 학생 및 연구자들은 유럽의 교육 기관과 연구 센터에서 학습 및 연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제적인 학문적 교류는 또한 일본의 학문적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기대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연구 개발의 혁신 촉진이다. 일본과 유럽 간의 연구 협력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가져온다. 이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연구 과제 해결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교육 및 연구 기관의 국제적 프로파일 강화를 통해 Erasmus+ 프로그램 참여는 일본의 교육 및 연구 기관에 더 많은 국제적 노출을 제공한다. 이는 일본 기관들이 국제 교육 및 연구 커뮤니티에서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Erasmus+ 프로그램 참여는 일본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글로벌 교육과 연구 환경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대에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최근의 일본 Erasmus+ 프로그램 운영 현황¹⁸⁾

Erasmus+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대학생, 박사과정 학생, 대학 직원, 교육 기관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위 과정 및 장학금 유형을 살펴보면 단기 유학 장학금으로서 EU와 일본의 고등 교육 기관 간에 체결된 200여 개의 학생 교류 협정을 통해, 매년 약 350명의 일본 학생과 직원이 유럽의 파트너 대학으로 유학 또는 파견된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및 연구자는 학위 취득 기간 중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유럽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유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월 800유로에서 900유로의 생활비 장학금과 여행 보조금을 받는다.

Erasmus Mundus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 석사(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EMJM)의 경우, EU 및 기타 국가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8) EHEF2024 (2024). JP-FACTSHEET_Erasmus+2025-2026. https://ehf-japan.org/wp-content/uploads/2023/05/JP_FACTSHEET_Erasmus-2025-2026.pdf 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일본의 Erasmus+ 2025-2026 최신 정보의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함.

운영하며, 고품질의 통합 과정 및 다중 또는 공동 학위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석사 과정 학생과 객원 교수 및 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현재 기준, 2025~2026 학년도의 EMJM 프로그램에서는 약 150개의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초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동일한 기간에 새로운 장학금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 장학금은 수업료, 여행 및 이전 비용, 생활비, 보험료를 보조하며 최대 1만 6800유로까지 지원된다. 또한 박사 과정 및 박사후 연구 장학금 및 기타 연구 보조금은 'Horizon Europe'의 일부인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MS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MSCA는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정보는 MSCA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3) Erasmus+ 프로그램 관련 일본의 운영 주체 및 운영 기관들의 주요 기능과 역할¹⁹⁾

(1) 일본의 문부과학성(MEXT)

일본의 문부과학성(MEXT)은 일본 고등교육의 틀 내에서 Erasmus+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참여는 일본 교육 부문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이다. MEXT의 Erasmus+ 프로그램 참여는 일본의 참여를 관리하는 정책의 전략적 수립으로 시작된다. 이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국가 교육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MEXT는 Erasmus+ 프로그램의 목표가 일본의 전반적인 교육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략 계획으로는 교육부는 일본 기관이 Erasmus+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한다. 이 계획에는 이동성, 학문적 협력, 유럽 교육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일본 환경에 통합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포함된다.

한편, 문부과학성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의 고등교육을 국제화하는 것인데, 이는

19)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0). Overview of international exchange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https://www.mext.go.jp/en/>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Erasmus+ 프로그램의 목표와 밀접하게 일치한다. 글로벌 프로젝트 30은 문부과학성의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내 유학생 수를 늘리고 일본 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일본 내 유학생 수를 늘리고 일본 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30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국경을 초월한 교육 교류와 학술 협력을 촉진하는 Erasmus+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완한다.

국제 파트너십 지원을 위하여 MEXT는 일본 대학과 해외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학술 교류 및 상호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지식의 흐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세계화된 취업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국제 정책에 대한 행정적 감독은 MEXT의 중요한 기능이며, 특히 Erasmus+ 프로그램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운영한다. 먼저, MEXT는 Erasmus+ 프로그램에 따라 학술 교류의 물류 및 행정적 측면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비자 지원, 파트너십 품질 보증, 학업 표준 조정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으로서 문부과학성은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 교육 기관에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기관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자금 조달 메커니즘 및 교육 기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끝으로, 정책 일관성 보장을 위하여 문부과학성은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된 국제 교류 및 협력이 보다 광범위한 일본 교육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국제 경험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2) 대학의 국제 사무소²⁰⁾

일본 대학의 국제 사무소는 Erasmus+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중요한 촉진 기관으로서 일본과 유럽 교육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한다. 이들 사무소는 전략 기획부터 운영 실행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의 국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① Erasmus+ 학생교환 프로그램 운영

국제 사무소는 Erasmus+ 교환 프로그램 관리를 주도한다. 이들은 프로그램 홍보, 지원서 관리부터 학생들의 해외 유학 준비에 이르기까지 교환의 전체 수명주기를 감독한다. 그들의 임무는 학생들이 학점 편입, 언어 능력 요구 사항 및 문화 통합과 같은 필수 측면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기대와 기회를 이해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 기관은 유럽 대학과의 중앙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하여 모든 협력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그들은 교육 목표와 학생 교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여 양측이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② 유럽 대학과 협약 체결

국제 사무소는 유럽 대학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포괄적이며 학생 수, 재정 조건, 학업 표준, 교환 기간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교환 범위를 자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계약이 체결된 후 국제 사무소는 약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품질 관리를 감독하여 교환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두 파트너 기관에서 기대하는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③ 학생교류 관리

Erasmus+ 프로그램에 따라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학생에 대한 선택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문화적 민감화, 언어 훈련, 비자 및 주택과 같은 물류 준비를 포함할 수 있는

20)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Japan. (2022). Japanese government(MEXT) scholarship for 2022. https://www.mext.go.jp/content/20210510-mxt_gakushi02-000014806-02.pdf 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0). Overview of international exchange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mext.go.jp/en/>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된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또한 교환학생 간 동안 사무실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학문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호스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필요한 학업 지도와 개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 및 교직원의 유럽 유학 및 파견 지원

학업 및 물류 촉진: 국제 사무실은 학생과 교수진 모두에게 유럽 체류와 관련된 학업 조언 및 물류 계획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학업 및 연구 목표를 이용 가능한 기회에 맞추고 여행, 숙박 및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필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장학금 및 기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수진을 안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재정적 장벽을 줄여 더 많은 참가자가 교환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3) 일본 과학 진흥회(JSPS)²¹⁾

일본 과학 진흥회(JSPS)는 Erasmus Plus 프로그램과 같은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학술 협력 및 연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프로젝트 30 운영 및 지원의 일환으로서 일본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 글로벌 프로젝트 30에서 JSPS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본 대학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국제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 유학생과 연구자가 이러한 기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JSPS는 대학이 유학생을 수용하고 해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영어 강좌 개발, 캠퍼스 시설 개선, 국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자원 제공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자금 및 자원 운용과 관련해서 JSPS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과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국경 간 협력을 통해 과학 및 학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024). about us. <https://www.jps.go.jp/english/e-aboutus/index.html> 에서 2024년 5월10일 인출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018). Global 30 Project. <https://www.jps.go.jp> 에서 2024년 5월10일 인출

이 자금은 장비, 연구 목적의 여행, 인적 교류 등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JSPS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연구자와 유럽 및 기타 지역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촉진한다. 이는 더 깊은 과학적 교류를 촉진하고 수행되는 연구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JSPS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과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는 학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4) 일본 외무부(MOFA)²²⁾

일본 외무부(MOFA)는 Erasmus+와 같은 프로그램 추진을 포함하여 국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① 국제교류협력정책 기획 및 추진

MOFA는 일본의 국제 협력과 교육 교류를 강화하는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학생 교환, 학술 협력, 국제 연구 파트너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MOFA는 교육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상대국과 협력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교류를 촉진하는 협정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 넓은 외교 정책 목표와 문화 외교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포함된다.

② 해외 프로그램 참여 지원

Erasmus+ 및 기타 국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MOFA는 일본 기관과 학생들이 Erasmus+와 같은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절차 지원, 때로는 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효과적으로 해외 여행과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비자 지원,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해외 일본인 및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9).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www.mofa.go.jp/files/0005271155.pdf> 에서 2024년 5월 8일 인출

중앙기적 차원에서 볼 때 MOFA는 Erasmus+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학생과 학자의 국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적이며 문화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요약 및 시사점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교육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년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 대부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협력 국가 네트워크 또한 한일중, 한-미, ASEAN 국가를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반영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업)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대학 비진학 청년이나 졸업유예생들의 경우 국제교류를 통한 학업 기회를 확보하고 싶어도 쉽게 지원하기 어렵다.

한편, 외교부의 경우 외교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사업을 제외한 청년 사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참여 대상이 청년 일반으로 확대된 점은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로 볼 때 참여 인원이나 예산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란 어렵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고 만족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제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진출이나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이 전액삭감 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 및 해외 탐방 기회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해볼 수 있다. 향후, 청(소)년 시기의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세대로 연결되어 글로벌 역량강화와 교육 및 일자리 영역에서의 해외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토대로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한 생애주기형 국제교류 사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특징은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가정, 학교와 연결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청소년

의 세계시민의식 향상과 글로벌 역량을 목표로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각 구청 차원에서 직접 주관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서울시 청년허브’ 등과 같은 청년정책 전문 기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비롯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평화교육센터’ 등이 청년 국제교류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혹은 세계평화 포럼 및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문화 가정 및 이주 배경 청년 대상 국내외 교류사업을 개발하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하여 국제교류 관련 기구 및 단체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년 국제교류사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자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자체가 국제교류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힘입어 향후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과 청년정책 확대에 따른 청년 국제교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콘텐츠는 단기적이며 일회성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시간과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사전 기획 및 준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추진체계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 및 자원봉사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회의는 전 지구적으로 공통 관심사인 기후 위기 대응, 환경, 평화 등을 포함하여, 최근 들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인턴십과 해외기업 체험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사업은 국가 간의 사전 교감과 양해각서 체결 등 상호협업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지원시스템 등을 확정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의 유형과 더불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여 참가 국가 모두에게 호혜적인 국제교류사업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내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문화와 학술 환경에서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몇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 문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높은 성적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정책과 절차의 복잡성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서류 작성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셋째, 비용 문제이다.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비, 생활비,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어학 능력 요구이다. 해외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언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학점 이전 문제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수한 학점을 자신의 학위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학교와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문화적 적응 문제이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된 기존 청년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모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국 대학과의 연계협력 강화이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학점 인정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학점교류 프로그램의 확대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비용 지원 및 장학금 제공이다.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교환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넷째, 학습 및 문화적 적응 지원이다.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의 학습 및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문화 교육, 현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해외 대학의 체험 효과를 제고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 평가 및 품질 관리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투입, 과정, 산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성은 청년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국제 경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각과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4장 청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인식 및 정책요구 분석

- 1. 설문조사
- 2. 초점집단면담(FGI)
- 3.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설문조사

1) 조사 설계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적인 수요를 양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 수는 총 1,023명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을 이메일로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성별·연령별 균등할당, 지역별 비례할당으로 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이며, 조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5개 영역에 대해 85개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는데,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승인번호: 202405-HR-고유-009, 통보일: 2024.06.03.).

표 IV-1. 문항 구성

조사 영역	문항 수
1. 국제교류에 관한 일반 인식	9
2. 대학의 학생 교류에 관한 인식	12
3. 에라스무스+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7
4.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적 요구	29
5. 응답자 특성	8

2)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V-2.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23	100.0%
성별	남성	509	49.8%
	여성	514	50.2%
연령	만19~24세	334	32.6%
	만25~29세	337	32.9%
	만30~34세	352	3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1.2%
	전문대학(재/졸)	179	17.5%
	4년제대학(재/졸)	678	66.3%
	대학원(석/박사졸)	51	5.0%
해외 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72.3%
	경험 없음	283	27.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7.7%
	일주일 내외	315	30.8%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2.6%
	1개월~6개월 이내	108	10.6%
	6개월 이상	86	8.4%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1.6%
	중소도시	304	29.7%
	읍면	89	8.7%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5.6%
	충청권	104	10.2%
	전라권	90	8.8%
	경상권	219	21.4%
	강원/제주권	41	4.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3.0%
	충청권	121	11.8%
	전라권	92	9.0%
	경상권	236	23.1%
	강원/제주권	32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3.4%
	중층	444	43.4%
	하층	442	43.2%
1인가구	중위소득 이상	555	54.3%
중위 소득 ²³⁾	중위소득 미만	468	45.7%

23)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e-나라지표 (2024).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4년 4월 15일 인출)

3) 국제교류에 관한 일반 인식

(1)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34.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20.4%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는 35.3%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만30~34세의 경우 33.5%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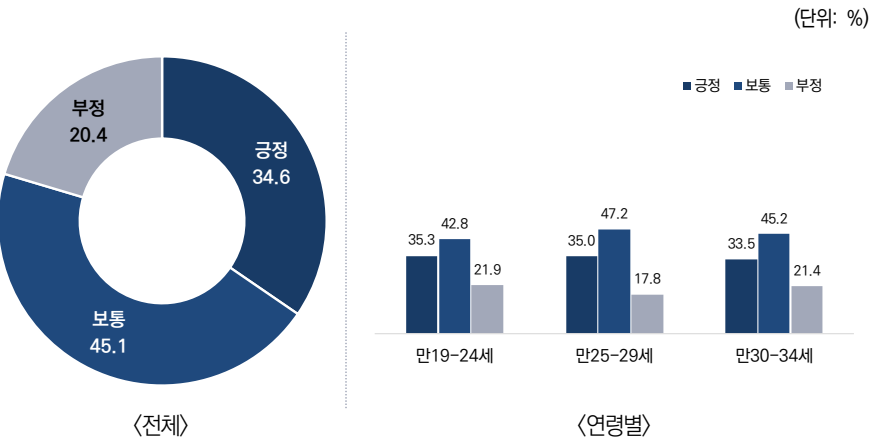


그림 IV-1.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표 IV-3.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χ^2
전체	(1,023)	7.0	27.6	45.1	18.3	2.1	6.095
만19~24세	(334)	8.1	27.2	42.8	19.2	2.7	
만25~29세	(337)	7.4	27.6	47.2	16.9	0.9	
만30~34세	(352)	5.7	27.8	45.2	18.8	2.6	

* $p < .05$, ** $p < .01$, *** $p < .001$.

(2)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적 이해 증진’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28.0%), ‘협력관계(네트워크) 구축’(2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적 이해 증진’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5.4%, 만25~29세: 28.5%, 만30~34세: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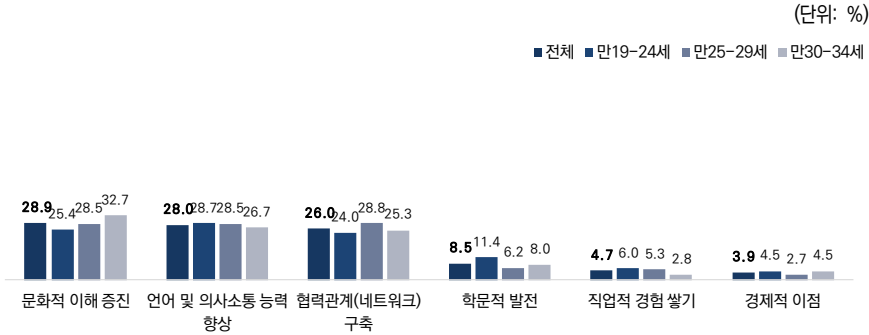


그림 IV-2.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표 IV-4.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적 이해 증진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	학문적 발전	직업적 경험 쌓기	경제적 이점	χ^2
전체	(1,023)	28.9	28.0	26.0	8.5	4.7	3.9	16.499
만19~24세	(334)	25.4	28.7	24.0	11.4	6.0	4.5	
만25~29세	(337)	28.5	28.5	28.8	6.2	5.3	2.7	
만30~34세	(352)	32.7	26.7	25.3	8.0	2.8	4.5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 교류’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적 교류’(18.2%), ‘학문적 교류’(1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문화 교류’ 응답이(62.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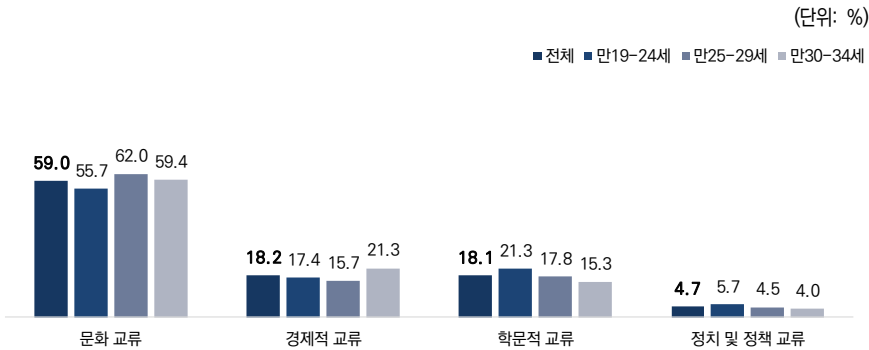


그림 IV-3.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표 IV-5.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경제적 교류	학문적 교류	정치 및 정책 교류	χ^2
전체	(1,023)	59.0	18.2	18.1	4.7	8.749
만19~24세	(334)	55.7	17.4	21.3	5.7	
만25~29세	(337)	62.0	15.7	17.8	4.5	
만30~34세	(352)	59.4	21.3	15.3	4.0	

* $p < .05$, ** $p < .01$, *** $p < .001$.

(4)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8.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1.7%)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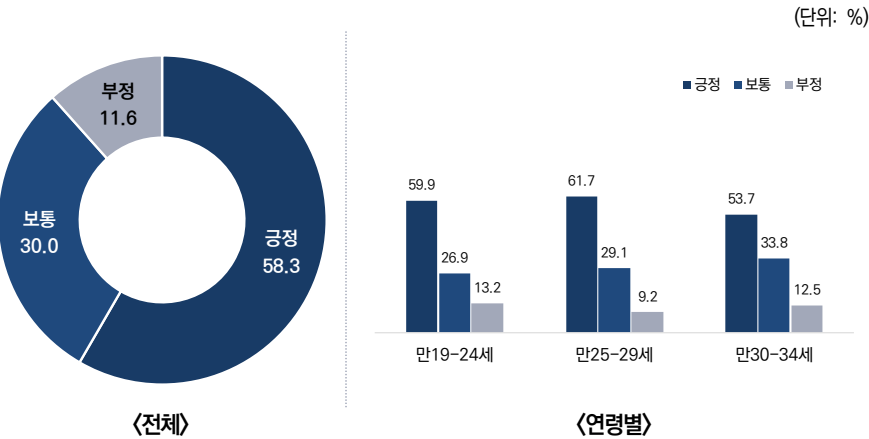


그림 IV-4.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표 IV-6.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0.3	38.0	30.0	9.2	2.4	14.415
만19~24세	(334)	21.3	38.6	26.9	11.4	1.8	
만25~29세	(337)	19.6	42.1	29.1	7.7	1.5	
만30~34세	(352)	20.2	33.5	33.8	8.5	4.0	

* $p < .05$, ** $p < .01$, *** $p < .001$.

(5)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럽권’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북미권’(32.8%), ‘아시아권’(2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유럽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8.9%, 만25~29세: 38.9%, 만30~34세: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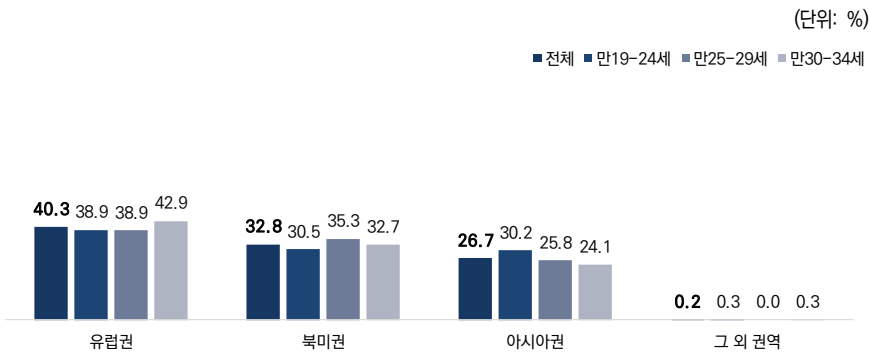


그림 IV-5.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

표 IV-7.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

(1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유럽권	북미권	아시아권	그 외 권역	χ^2
전체	(1,023)	40.3	32.8	26.7	0.2	5.596
만19~24세	(334)	38.9	30.5	30.2	0.3	
만25~29세	(337)	38.9	35.3	25.8	0.0	
만30~34세	(352)	42.9	32.7	24.1	0.3	

* $p < .05$, ** $p < .01$, *** $p < .001$.

(6)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대 초반'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대 중반'(27.9%), '10대 후반'(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20대 초반' 응답이(49.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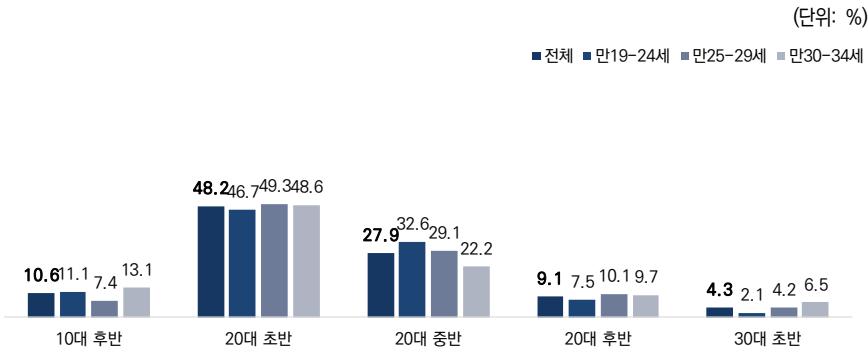


그림 IV-6.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표 IV-8.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χ^2
전체	(1,023)	10.6	48.2	27.9	9.1	4.3	21.912**
만19~24세	(334)	11.1	46.7	32.6	7.5	2.1	
만25~29세	(337)	7.4	49.3	29.1	10.1	4.2	
만30~34세	(352)	13.1	48.6	22.2	9.7	6.5	

* $p < .05$, ** $p < .01$, *** $p < .001$.

(7)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 여부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75.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3.0%, 만25~29세: 74.8%, 만30~34세: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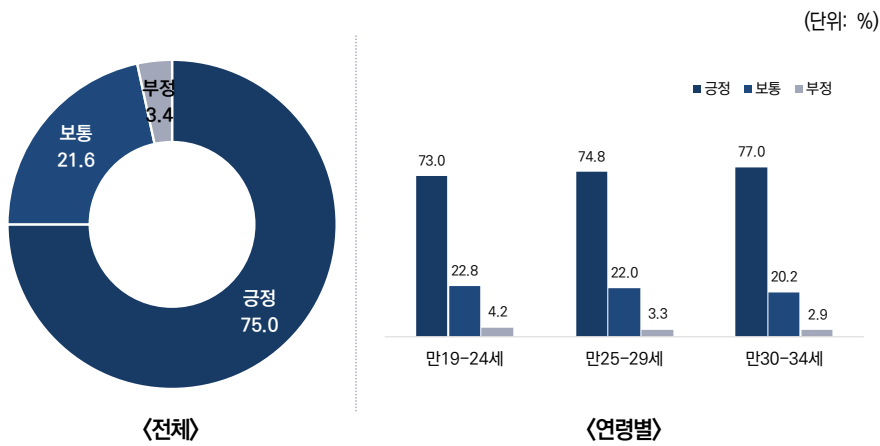


그림 IV-7.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표 IV-9.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30.7	44.3	21.6	2.9	0.5	3.975
만19~24세	(334)	30.2	42.8	22.8	3.9	0.3	
만25~29세	(337)	28.8	46.0	22.0	2.7	0.6	
만30~34세	(352)	33.0	44.0	20.2	2.3	0.6	

* $p < .05$, ** $p < .01$, *** $p < .001$.

(8)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언어 능력 향상’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적 이해’(23.8%), ‘다문화 경험’(2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 능력 향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6.8%, 만25~29세: 32.6%, 만30~34세: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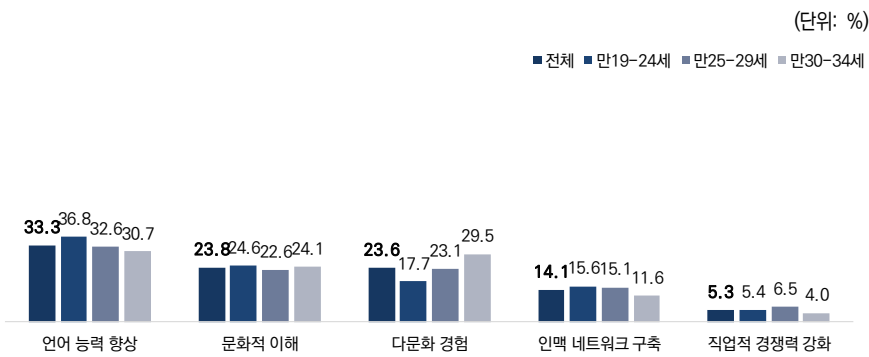


그림 IV-8.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표 IV-10.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언어 능력 향상	문화적 이해	다문화 경험	인맥 네트 워크 구축	직업적 경 쟁력 강화	χ^2
전체	(1,023)	33.3	23.8	23.6	14.1	5.3	17.041*
만19~24세	(334)	36.8	24.6	17.7	15.6	5.4	
만25~29세	(337)	32.6	22.6	23.1	15.1	6.5	
만30~34세	(352)	30.7	24.1	29.5	11.6	4.0	

* $p < .05$, ** $p < .01$, *** $p < .001$.

(9)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32.5%), ‘지자체’(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1.6%, 만25~29세: 41.5%, 만30~34세: 4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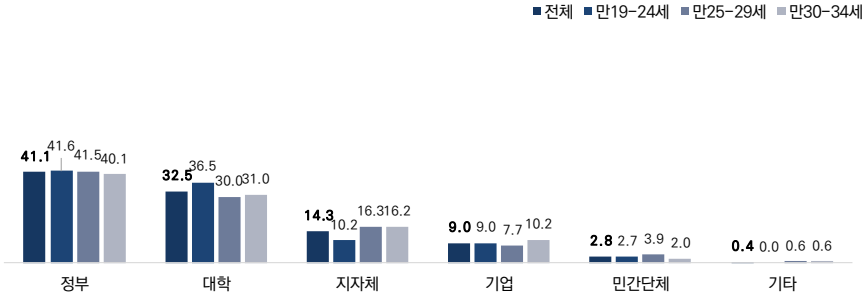


그림 IV-9.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표 IV-11.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부	대학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기타	χ^2
전체	(1,023)	41.1	32.5	14.3	9.0	2.8	0.4	13.845
만19~24세	(334)	41.6	36.5	10.2	9.0	2.7	0.0	
만25~29세	(337)	41.5	30.0	16.3	7.7	3.9	0.6	
만30~34세	(352)	40.1	31.0	16.2	10.2	2.0	0.6	

* $p < .05$, ** $p < .01$, *** $p < .001$.

4) 대학의 학생 교류에 관한 인식

(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43.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5.8%, 만25~29세: 42.5%, 만30~34세: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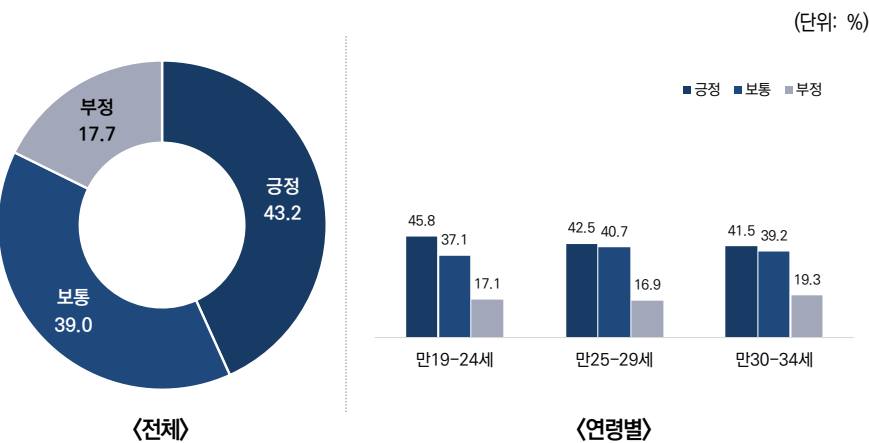


그림 IV-10.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표 IV-12.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χ^2
전체	(1,023)	10.2	33.0	39.0	15.4	2.3	9.000
만19~24세	(334)	10.5	35.3	37.1	14.1	3.0	
만25~29세	(337)	10.7	31.8	40.7	16.3	0.6	
만30~34세	(352)	9.4	32.1	39.2	15.9	3.4	

* $p < .05$, ** $p < .01$, *** $p < .001$.

(2)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9.1%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5.4%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1.0%, 만25~29세: 68.9%, 만30~34세: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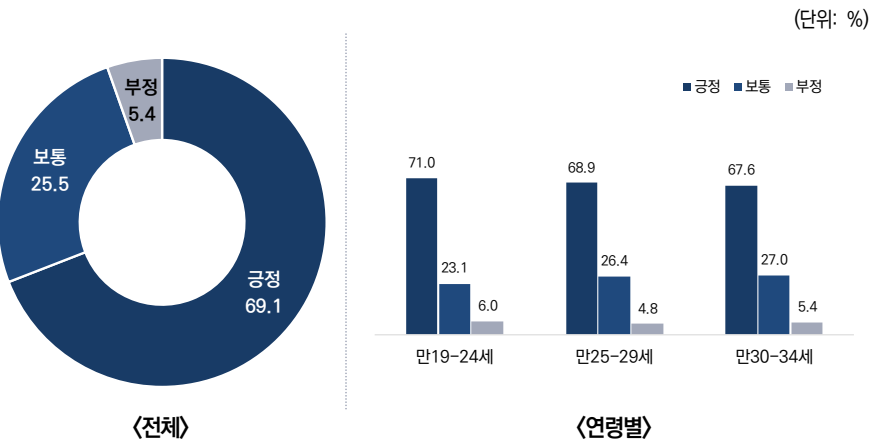


그림 IV-1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표 IV-13.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2.1	47.0	25.5	4.4	1.0	4.838
만19~24세	(334)	23.4	47.6	23.1	5.1	0.9	
만25~29세	(337)	19.9	49.0	26.4	4.2	0.6	
만30~34세	(352)	23.0	44.6	27.0	4.0	1.4	

* $p < .05$, ** $p < .01$, *** $p < .001$.

(3)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4.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5.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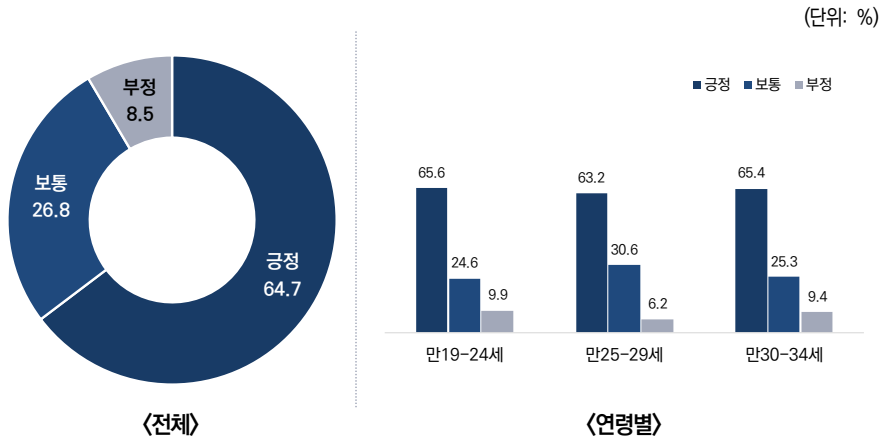


그림 IV-12.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표 IV-1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4.7	40.0	26.8	7.0	1.5	6.207
만19~24세	(334)	24.9	40.7	24.6	8.4	1.5	
만25~29세	(337)	24.0	39.2	30.6	5.0	1.2	
만30~34세	(352)	25.3	40.1	25.3	7.7	1.7	

* $p < .05$, ** $p < .01$, *** $p < .001$.

(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또는 추천 의향 있는(N=662)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른 문화 경험’ 응답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문적 이해와 경험 증진’(2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다른 문화 경험’ 응답이(3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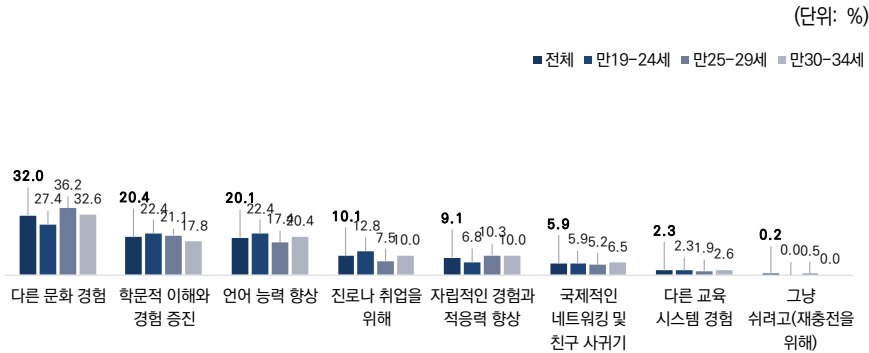


그림 IV-13.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표 IV-15.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른 문화 경험	학문적 이해와 경험 증진	언어 능력 향상	진로나 취업을 위해	자립적인 경험과 적응력 향상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친구 사귀기	다른 교육 시스템 경험	그냥 쉬려고 (재충전 을 위해)	χ^2
전체	(662)	32.0	20.4	20.1	10.1	9.1	5.9	2.3	0.2	12.680
만19~24세	(219)	27.4	22.4	22.4	12.8	6.8	5.9	2.3	0.0	
만25~29세	(213)	36.2	21.1	17.4	7.5	10.3	5.2	1.9	0.5	
만30~34세	(230)	32.6	17.8	20.4	10.0	10.0	6.5	2.6	0.0	

* $p < .05$, ** $p < .01$, *** $p < .001$.

(5)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또는 추천 의향 없는(N=87)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언어 능력 부족’ 응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적 부담’(26.4%), ‘문화적 적응 문제’(1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 능력 부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9.4%, 만25~29세: 28.6%, 만30~34세: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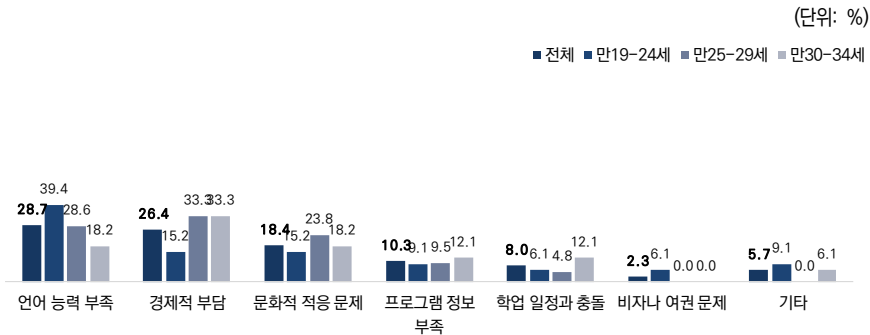


그림 IV-1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표 IV-16.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언어 능력 부족	경제적 부담	문화적 적응 문제	프로그 램 정보 부족	학업 일정과 충돌	비자나 여권 문제	기타	χ^2
전체	(87)	28.7	26.4	18.4	10.3	8.0	2.3	5.7	12.086
만19~24세	(33)	39.4	15.2	15.2	9.1	6.1	6.1	9.1	
만25~29세	(21)	28.6	33.3	23.8	9.5	4.8	0.0	0.0	
만30~34세	(33)	18.2	33.3	18.2	12.1	12.1	0.0	6.1	

* $p < .05$, ** $p < .01$, *** $p < .001$.

(6)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 교류' 응답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언어 학습'(23.9%), '학문적 교환'(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 교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4.6%, 만25~29세: 25.5%, 만30~34세: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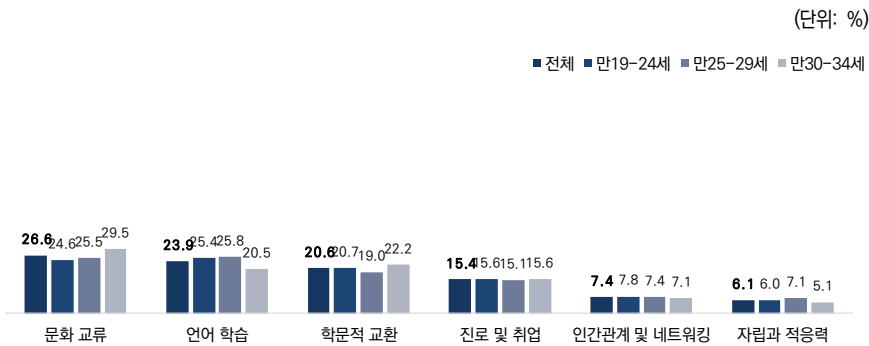


그림 IV-15.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표 IV-1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언어 학습	학문적 교환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자립과 적응력	χ^2
전체	(1,023)	26.6	23.9	20.6	15.4	7.4	6.1	6.557
만19~24세	(334)	24.6	25.4	20.7	15.6	7.8	6.0	
만25~29세	(337)	25.5	25.8	19.0	15.1	7.4	7.1	
만30~34세	(352)	29.5	20.5	22.2	15.6	7.1	5.1	

* $p < .05$, ** $p < .01$, *** $p < .001$.

(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9.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0.9%, 만25~29세: 69.7%, 만30~34세: 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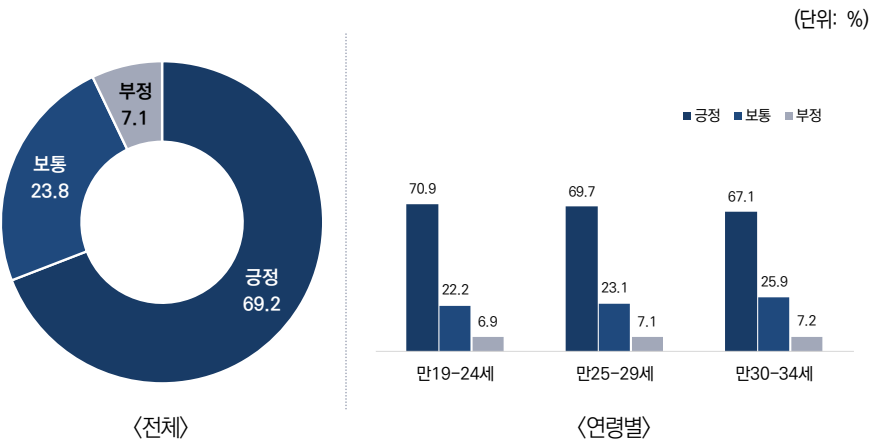


그림 IV-16.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표 IV-18.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6.9	42.3	23.8	6.1	1.0	2.261
만19~24세	(334)	28.7	42.2	22.2	5.7	1.2	
만25~29세	(337)	26.7	43.0	23.1	6.2	0.9	
만30~34세	(352)	25.3	41.8	25.9	6.3	0.9	

* $p < .05$, ** $p < .01$, *** $p < .001$.

(8)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월 ~ 3개월 이내'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3개월 ~ 6개월 이내'(26.3%), '6개월 ~ 1년 이내'(1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1개월 ~ 3개월 이내' 응답이(2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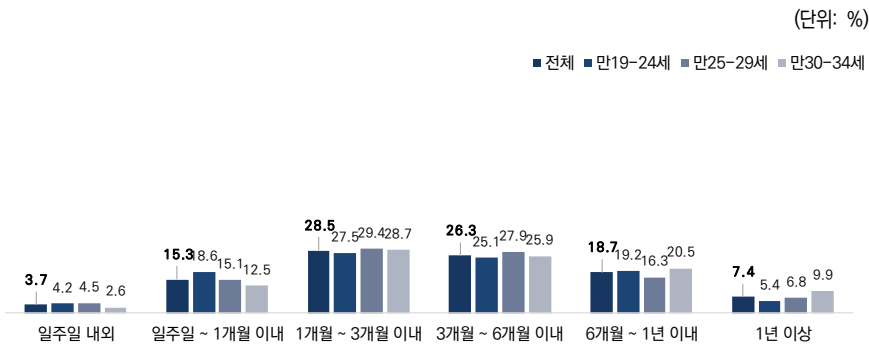


그림 IV-1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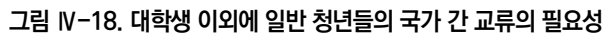
표 IV-19.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주일 내외	일주일 ~ 1개월 이내	1개월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이내	6개월 ~ 1년 이내	1년 이상	χ^2
전체	(1,023)	3.7	15.3	28.5	26.3	18.7	7.4	13.479
만19~24세	(334)	4.2	18.6	27.5	25.1	19.2	5.4	
만25~29세	(337)	4.5	15.1	29.4	27.9	16.3	6.8	
만30~34세	(352)	2.6	12.5	28.7	25.9	20.5	9.9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1.8%, 만25~29세: 71.8%, 만30~34세: 73.0%).



(10)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71.9%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7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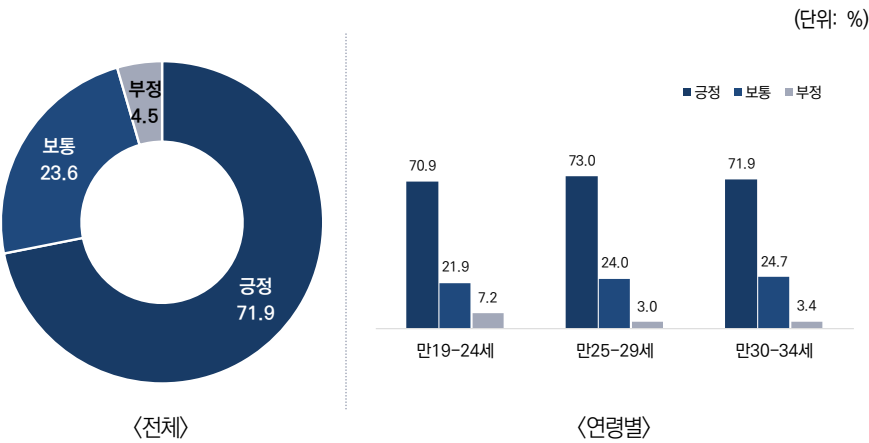


그림 IV-19.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표 IV-2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9.2	42.7	23.6	4.1	0.4	9.170
만19~24세	(334)	29.3	41.6	21.9	6.6	0.6	
만25~29세	(337)	30.3	42.7	24.0	2.7	0.3	
만30~34세	(352)	28.1	43.8	24.7	3.1	0.3	

* $p < .05$, ** $p < .01$, *** $p < .001$.

(1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8.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2.1%, 만25~29세: 69.2%, 만30~34세: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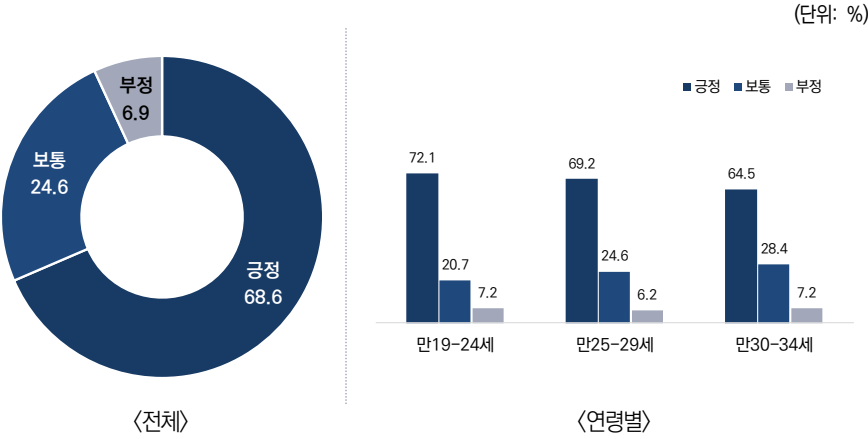


그림 IV-20.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표 IV-22.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8.0	40.6	24.6	6.2	0.7	6.465
만19~24세	(334)	28.4	43.7	20.7	6.6	0.6	
만25~29세	(337)	28.5	40.7	24.6	5.6	0.6	
만30~34세	(352)	27.0	37.5	28.4	6.3	0.9	

* $p < .05$, ** $p < .01$, *** $p < .001$.

(12)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 이유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N=701)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 교류’ 응답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진로 및 취업’(22.4%), ‘언어 학습’(1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문화 교류’ 응답이(31.7%)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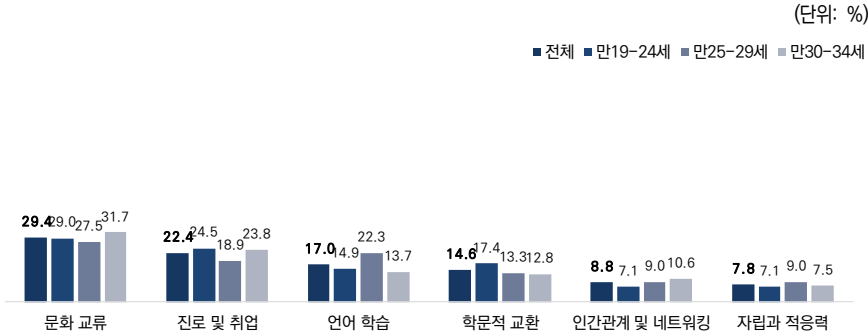


그림 IV-21.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 이유

표 IV-23.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진로 및 취업	언어 학습	학문적 교환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자립과 적응력	χ^2
전체	(701)	29.4	22.4	17.0	14.6	8.8	7.8	13.041
만19~24세	(241)	29.0	24.5	14.9	17.4	7.1	7.1	
만25~29세	(233)	27.5	18.9	22.3	13.3	9.0	9.0	
만30~34세	(227)	31.7	23.8	13.7	12.8	10.6	7.5	

* $p < .05$, ** $p < .01$, *** $p < .001$.

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14.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4.5%로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16.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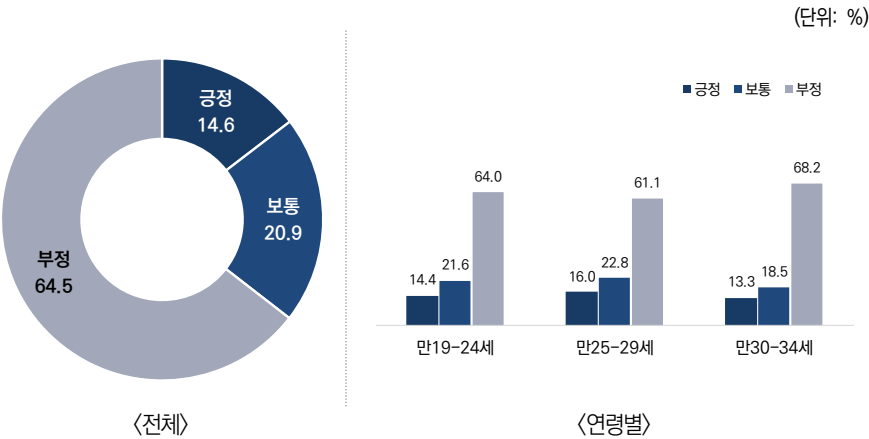


그림 IV-2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표 IV-2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χ^2
전체	(1,023)	3.7	10.9	20.9	25.1	39.4	10.547
만19~24세	(334)	3.3	11.1	21.6	29.0	35.0	
만25~29세	(337)	4.7	11.3	22.8	22.8	38.3	
만30~34세	(352)	3.1	10.2	18.5	23.6	44.6	

* $p < .05$, ** $p < .01$, *** $p < .001$.

(2)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및 도움 정도

가.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6.9%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3.1%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2.5%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8.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30~3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5.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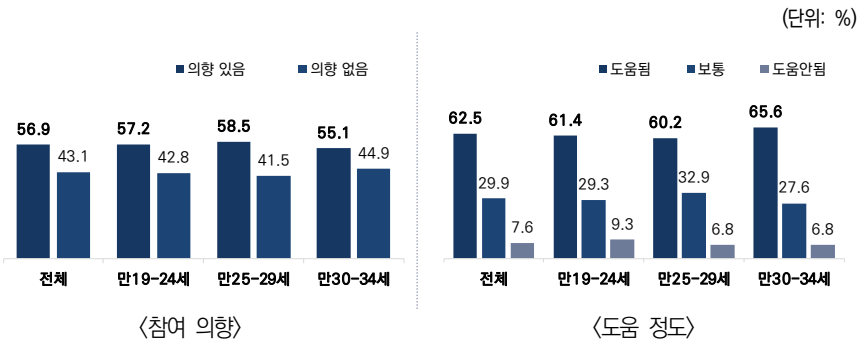


그림 IV-23.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표 IV-25.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6.9	43.1	0.802	62.5	29.9	7.6	7.556
만19~24세	(334)	57.2	42.8		61.4	29.3	9.3	
만25~29세	(337)	58.5	41.5		60.2	32.9	6.8	
만30~34세	(352)	55.1	44.9		65.6	27.6	6.8	

* $p < .05$, ** $p < .01$, *** $p < .001$.

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4.4%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7.3%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6.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71.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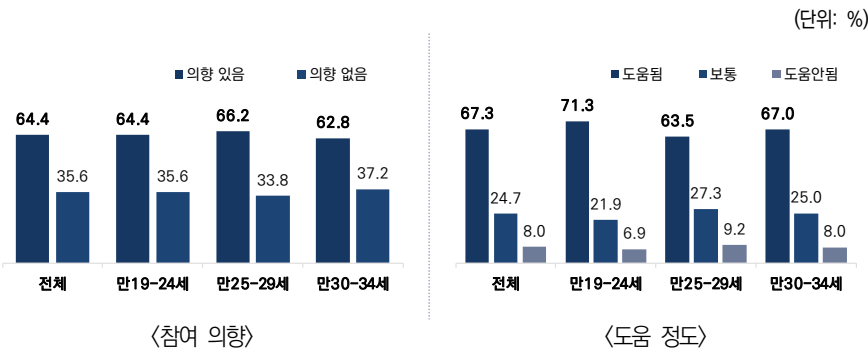


그림 IV-24.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2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64.4	35.6	0.863	67.3	24.7	8.0	12.263
만19~24세	(334)	64.4	35.6		71.3	21.9	6.9	
만25~29세	(337)	66.2	33.8		63.5	27.3	9.2	
만30~34세	(352)	62.8	37.2		67.0	25.0	8.0	

* $p < .05$, ** $p < .01$, *** $p < .001$.

다.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8.5%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1.5%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58.0%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향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만19~24세: 64.1%, 만25~29세: 59.3%, 만30~34세: 52.3%),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4.7%, 만25~29세: 55.5%, 만30~34세: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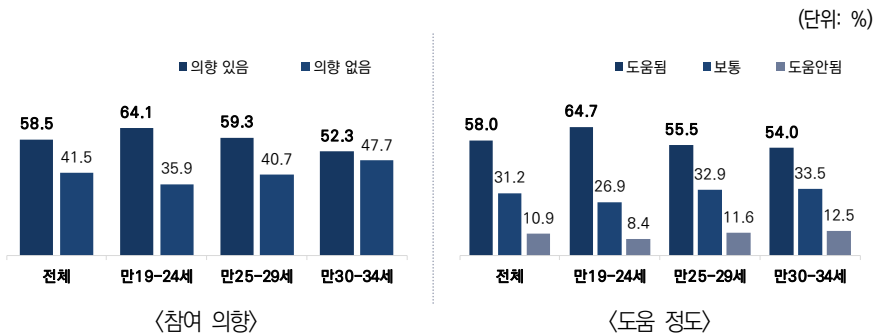


그림 IV-25.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표 IV-27.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8.5	41.5	9.989**	58.0	31.2	10.9	11.405
만19~24세	(334)	64.1	35.9		64.7	26.9	8.4	
만25~29세	(337)	59.3	40.7		55.5	32.9	11.6	
만30~34세	(352)	52.3	47.7		54.0	33.5	12.5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1.7%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3.5%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향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만19~24세: 64.1%, 만25~29세: 60.8%, 만30~34세: 60.2%),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 (67.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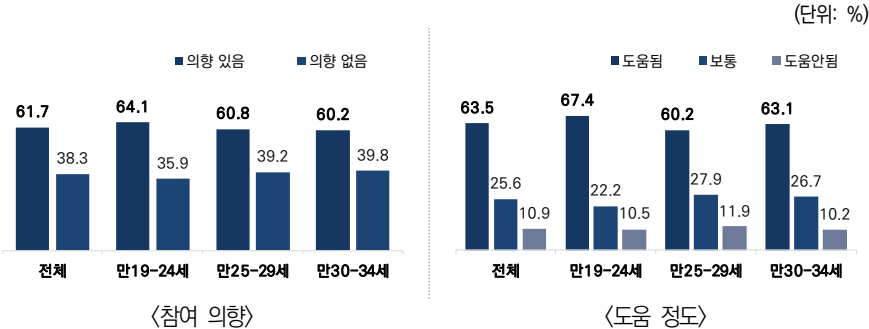


그림 IV-26.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표 IV-28.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1.7	38.3		63.5	25.6	10.9	
만19~24세	(334)	64.1	35.9	1.226	67.4	22.2	10.5	7.196
만25~29세	(337)	60.8	39.2		60.2	27.9	11.9	
만30~34세	(352)	60.2	39.8		63.1	26.7	10.2	

* $p < .05$, ** $p < .01$, *** $p < .001$.

마.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7.5%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2.5%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7%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0.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2.9%, 만25~29세: 59.9%, 만30~34세: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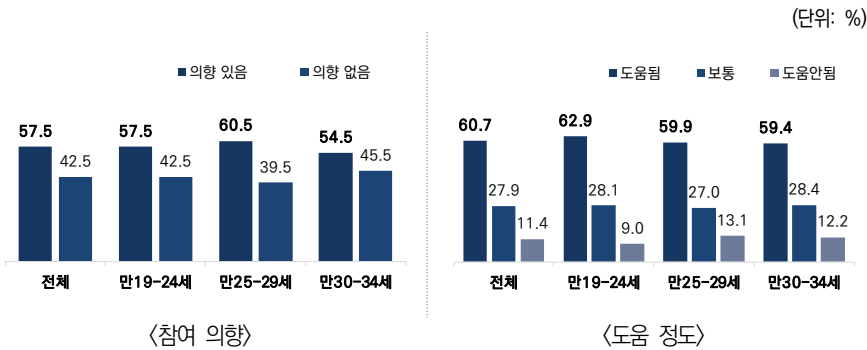


그림 IV-27.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표 IV-29.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7.5	42.5	2.526	60.7	27.9	11.4	6.088
만19~24세	(334)	57.5	42.5		62.9	28.1	9.0	
만25~29세	(337)	60.5	39.5		59.9	27.0	13.1	
만30~34세	(352)	54.5	45.5		59.4	28.4	12.2	

* $p < .05$, ** $p < .01$, *** $p < .001$.

바.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6.2%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3.8%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59.5%로 나타났으며, '도움 안됨'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7.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30-3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1.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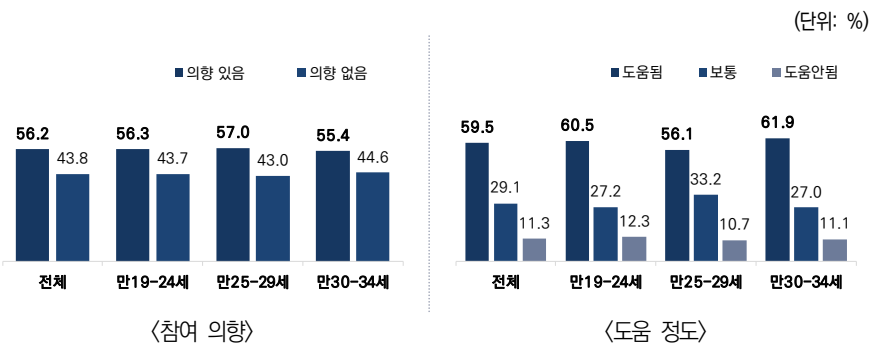


그림 IV-28.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 IV-30.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6.2	43.8	0.175	59.5	29.1	11.3	7.743
만19~24세	(334)	56.3	43.7		60.5	27.2	12.3	
만25~29세	(337)	57.0	43.0		56.1	33.2	10.7	
만30~34세	(352)	55.4	44.6		61.9	27.0	11.1	

* $p < .05$, ** $p < .01$, *** $p < .001$.

사.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2.2%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7.8%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0%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3.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30-3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3.1%)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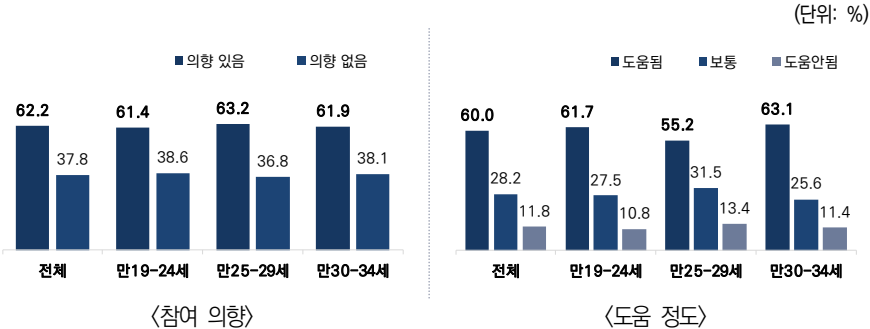


그림 IV-29.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표 IV-31.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62.2	37.8	0.251	60.0	28.2	11.8	7.924
만19~24세	(334)	61.4	38.6		61.7	27.5	10.8	
만25~29세	(337)	63.2	36.8		55.2	31.5	13.4	
만30~34세	(352)	61.9	38.1		63.1	25.6	11.4	

* $p < .05$, ** $p < .01$, *** $p < .001$.

아.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4.7%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5.3%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1.2%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6.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4.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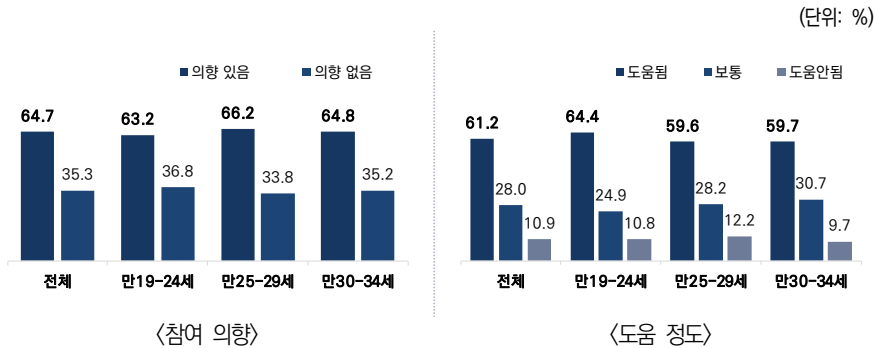


그림 IV-30.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32.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4.7	35.3	0.661	61.2	28.0	10.9	6.479
만19~24세	(334)	63.2	36.8		64.4	24.9	10.8	
만25~29세	(337)	66.2	33.8		59.6	28.2	12.2	
만30~34세	(352)	64.8	35.2		59.7	30.7	9.7	

* $p < .05$, ** $p < .01$, *** $p < .001$.

자.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8.6%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9%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향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만19~24세: 60.5%, 만25~29세: 59.3%, 만30~34세: 56.0%),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 (62.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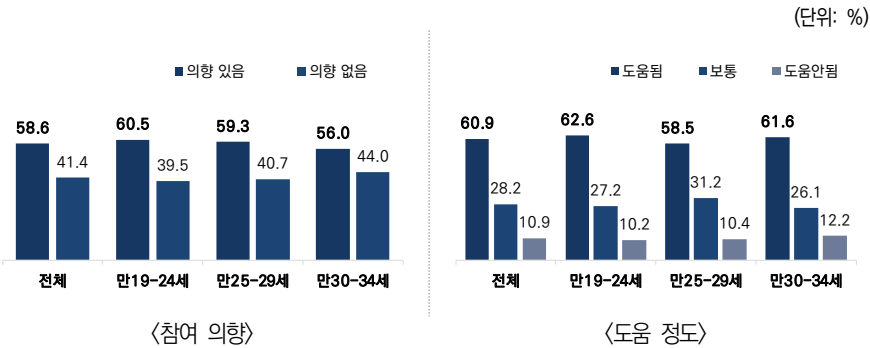


그림 IV-31.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 IV-33.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8.6	41.4	1.569	60.9	28.2	10.9	5.671
만19~24세	(334)	60.5	39.5		62.6	27.2	10.2	
만25~29세	(337)	59.3	40.7		58.5	31.2	10.4	
만30~34세	(352)	56.0	44.0		61.6	26.1	12.2	

* $p < .05$, ** $p < .01$, *** $p < .001$.

차.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8.9%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1.1%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1.3%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0.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5.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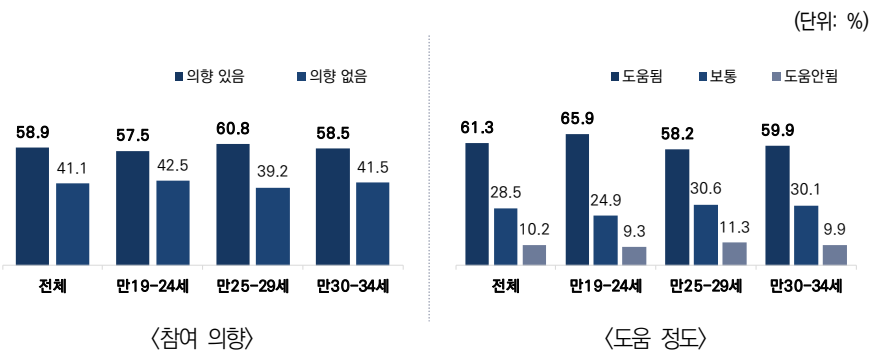


그림 IV-32.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표 IV-34.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58.9	41.1	0.815	61.3	28.5	10.2	16.546*
만19~24세	(334)	57.5	42.5		65.9	24.9	9.3	
만25~29세	(337)	60.8	39.2		58.2	30.6	11.3	
만30~34세	(352)	58.5	41.5		59.9	30.1	9.9	

* $p < .05$, ** $p < .01$, *** $p < .001$.

(3) 에라스무스+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및 도움 정도

가.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5.1%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4.9%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2.7%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향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만19~24세: 66.8%, 만25~29세: 64.7%, 만30~34세: 63.9%),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 (64.1%)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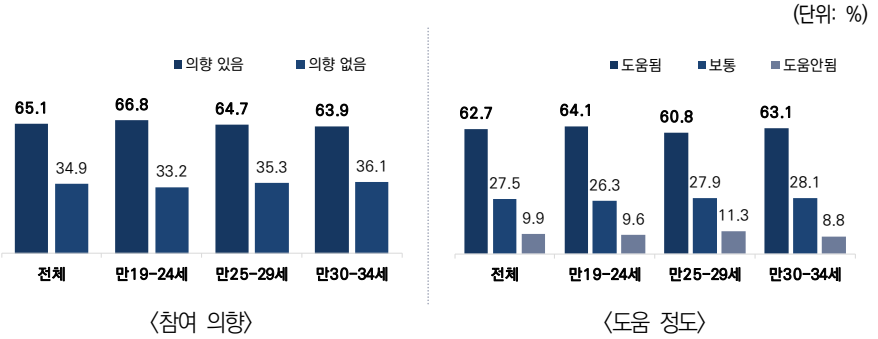


그림 IV-33.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표 IV-35.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65.1	34.9	0.649	62.7	27.5	9.9	4.339
만19~24세	(334)	66.8	33.2		64.1	26.3	9.6	
만25~29세	(337)	64.7	35.3		60.8	27.9	11.3	
만30~34세	(352)	63.9	36.1		63.1	28.1	8.8	

* $p < .05$, ** $p < .01$, *** $p < .001$.

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8.5%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1.5%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8%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9.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5.9%, 만25~29세: 58.5%, 만30~34세: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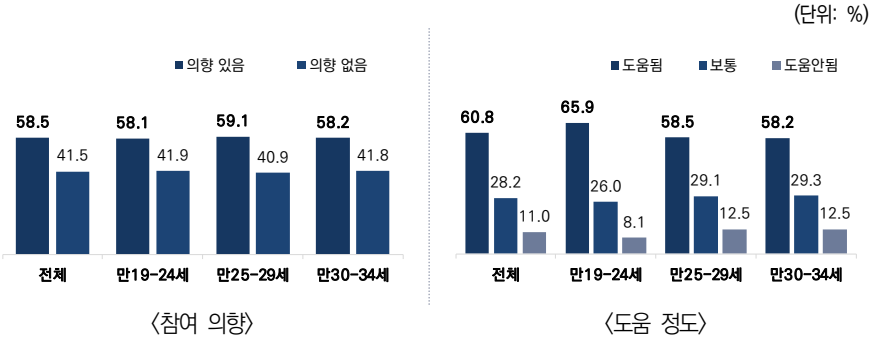


그림 IV-34.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표 IV-36.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8.5	41.5	0.075	60.8	28.2	11.0	9.823
만19~24세	(334)	58.1	41.9		65.9	26.0	8.1	
만25~29세	(337)	59.1	40.9		58.5	29.1	12.5	
만30~34세	(352)	58.2	41.8		58.2	29.3	12.5	

* $p < .05$, ** $p < .01$, *** $p < .001$.

다.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2.7%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1.6%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8.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4.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3.5%)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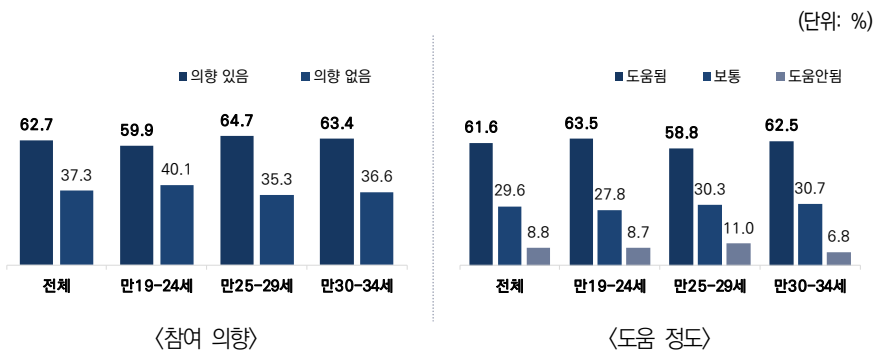


그림 IV-35.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표 IV-37.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2.7	37.3	1.768	61.6	29.6	8.8	5.084
만19~24세	(334)	59.9	40.1		63.5	27.8	8.7	
만25~29세	(337)	64.7	35.3		58.8	30.3	11.0	
만30~34세	(352)	63.4	36.6		62.5	30.7	6.8	

* $p < .05$, ** $p < .01$, *** $p < .001$.

라.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9.4%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6%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향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만19~24세: 62.3%, 만25~29세: 59.3%, 만30~34세: 56.8%),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 (6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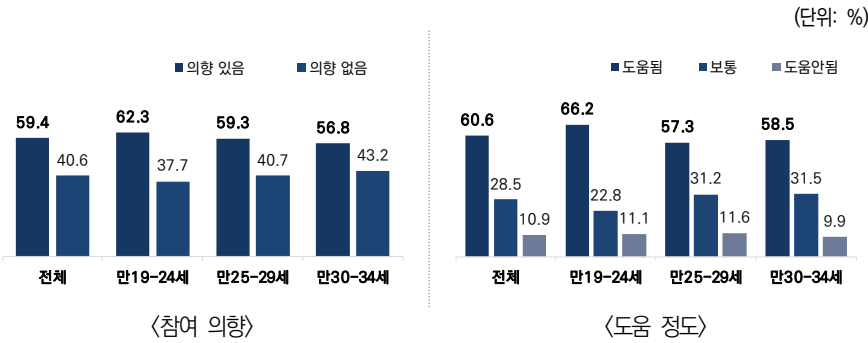


그림 IV-36.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38.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9.4	40.6	2.119	60.6	28.5	10.9	15.490
만19~24세	(334)	62.3	37.7		66.2	22.8	11.1	
만25~29세	(337)	59.3	40.7		57.3	31.2	11.6	
만30~34세	(352)	56.8	43.2		58.5	31.5	9.9	

* $p < .05$, ** $p < .01$, *** $p < .001$.

마.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 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5.6%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4.4%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59.2%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7.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3.2%, 만25~29세: 59.6%, 만30~34세: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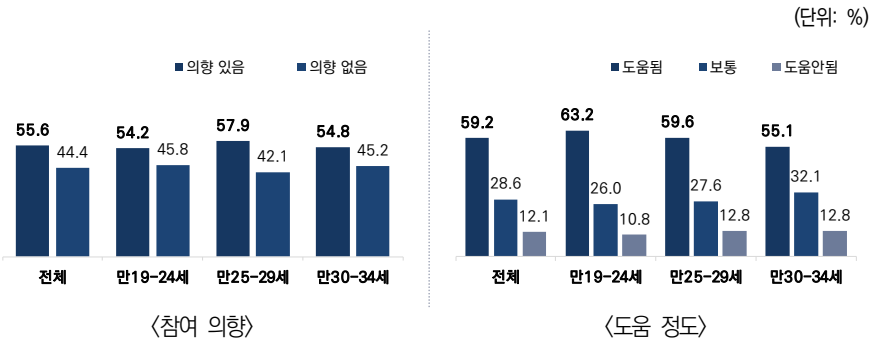


그림 IV-37.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표 IV-39.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5.6	44.4	1.052	59.2	28.6	12.1	9.602
만19~24세	(334)	54.2	45.8		63.2	26.0	10.8	
만25~29세	(337)	57.9	42.1		59.6	27.6	12.8	
만30~34세	(352)	54.8	45.2		55.1	32.1	12.8	

* $p < .05$, ** $p < .01$, *** $p < .001$.

바.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7.6%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57.3%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9.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58.7%, 만25~29세: 56.7%, 만30~34세: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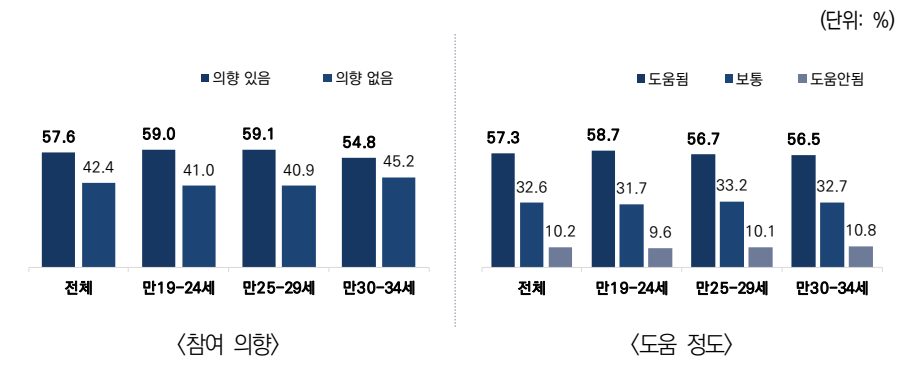


그림 IV-38.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표 IV-40.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7.6	42.4	1.657	57.3	32.6	10.2	3.237
만19~24세	(334)	59.0	41.0		58.7	31.7	9.6	
만25~29세	(337)	59.1	40.9		56.7	33.2	10.1	
만30~34세	(352)	54.8	45.2		56.5	32.7	10.8	

* $p < .05$, ** $p < .01$, *** $p < .001$.

사.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60.4%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39.6%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60.5%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64.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61.1%)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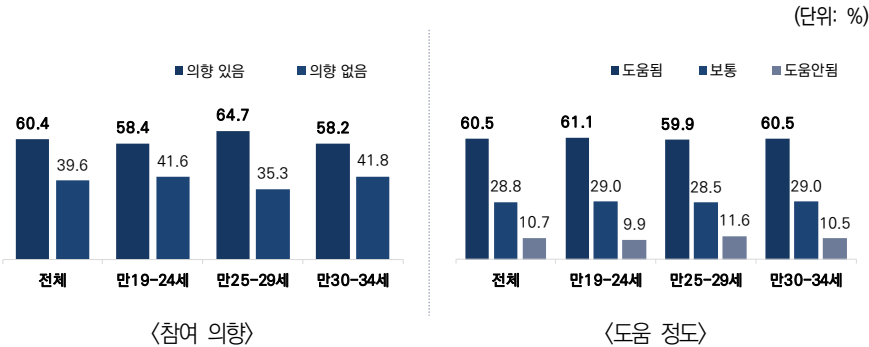


그림 IV-39.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표 IV-41.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0.4	39.6	3.847	60.5	28.8	10.7	10.250
만19~24세	(334)	58.4	41.6		61.1	29.0	9.9	
만25~29세	(337)	64.7	35.3		59.9	28.5	11.6	
만30~34세	(352)	58.2	41.8		60.5	29.0	10.5	

* $p < .05$, ** $p < .01$, *** $p < .001$.

아.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향 있음’ 응답은 53.0%로 나타났으며, ‘의향 없음’ 응답은 47.0%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됨’ 응답은 55.9%로 나타났으며, ‘도움안됨’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의향 있음’ 응답이(54.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19-24세 집단에서 ‘도움됨’ 응답이(58.1%)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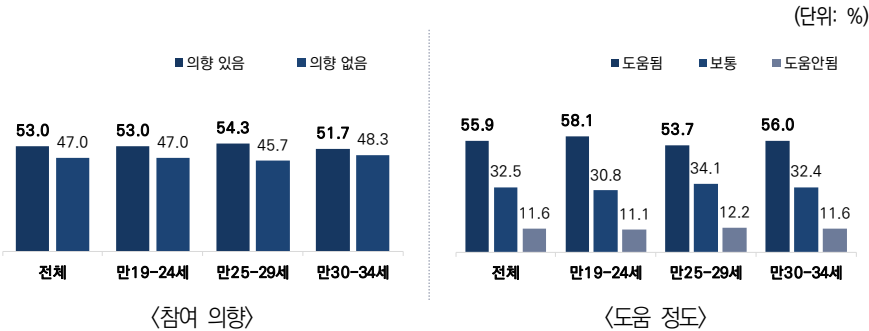


그림 IV-40.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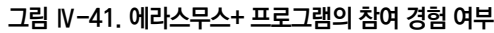
표 IV-42.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53.0	47.0	0.467	55.9	32.5	11.6	5.698
만19~24세	(334)	53.0	47.0		58.1	30.8	11.1	
만25~29세	(337)	54.3	45.7		53.7	34.1	12.2	
만30~34세	(352)	51.7	48.3		56.0	32.4	11.6	

* $p < .05$, ** $p < .01$, *** $p < .00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있다' 응답이(9.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6.6	93.4	10.510**
만19~24세	(334)	7.2	92.8	
만25~29세	(337)	9.5	90.5	
만30~34세	(352)	3.4	96.6	

* $p < .05$, ** $p < .01$, *** $p < .001$.

(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N=68)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 교환(교환 학기)’ 응답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사(교육자) 교환’(27.9%), ‘공동 학위과정’(2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학생 교환(교환 학기)’ 응답이(46.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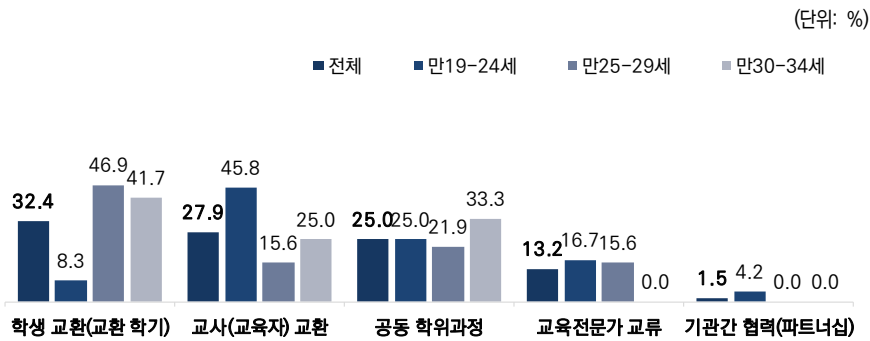


그림 IV-4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표 IV-4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생 교환 (교환 학기)	교사 (교육자) 교환	공동 학위과정	교육전문가 교류	기관간 협력 (파트너십)	χ^2
전체	(68)	32.4	27.9	25.0	13.2	1.5	15.443
만19~24세	(24)	8.3	45.8	25.0	16.7	4.2	
만25~29세	(32)	46.9	15.6	21.9	15.6	0.0	
만30~34세	(12)	41.7	25.0	33.3	0.0	0.0	

* $p < .05$, ** $p < .01$, *** $p < .001$.

(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 응답은 59.1%로 나타났으며, ‘없다’ 응답은 40.9%로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있다’ 응답이(59.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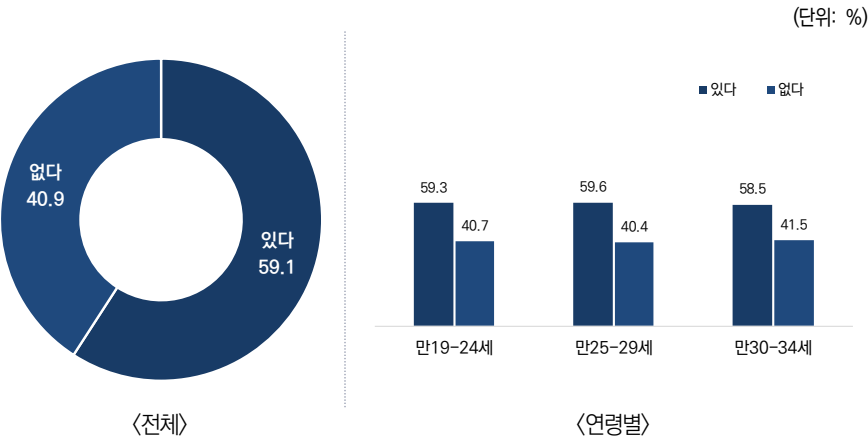


그림 IV-4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IV-4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59.1	40.9	0.094
만19~24세	(334)	59.3	40.7	
만25~29세	(337)	59.6	40.4	
만30~34세	(352)	58.5	41.5	

* $p < .05$, ** $p < .01$, *** $p < .001$.

(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는(N=605)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른 문화와 언어 경험’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문적 발전과 경험’(19.0%), ‘국제적 네트워킹 및 친구 사귀기’(1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 경험’ 응답이(44.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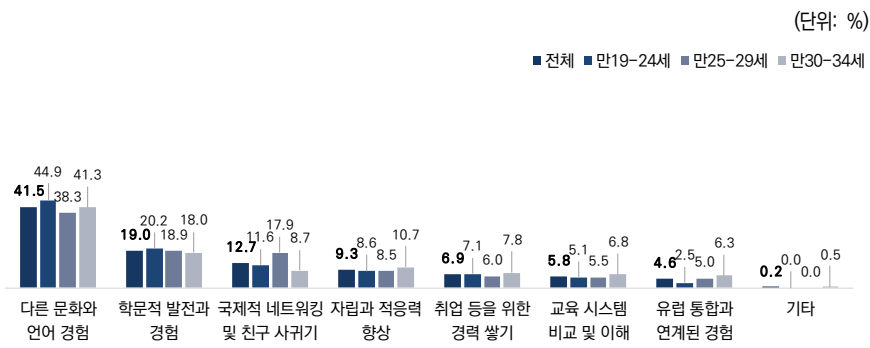


그림 IV-4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표 IV-4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른 문 화와 언 어 경험	학문적 발전과 경험	국제적 네트워킹 및 친구 사귀기	자립과 적응력 향상	취업 등 을 위한 경력 쌓기	교육 시 스템 비교 및 이해	유럽 통 합과 연계된 경험	기타	χ^2
전체	(605)	41.5	19.0	12.7	9.3	6.9	5.8	4.6	0.2	15.233
만19~24세	(198)	44.9	20.2	11.6	8.6	7.1	5.1	2.5	0.0	
만25~29세	(201)	38.3	18.9	17.9	8.5	6.0	5.5	5.0	0.0	
만30~34세	(206)	41.3	18.0	8.7	10.7	7.8	6.8	6.3	0.5	

* $p < .05$, ** $p < .01$, *** $p < .001$.

(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없는(N=418)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정적 부담’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언어적 어려움’(17.9%), ‘국제 교류 자체에 관심 없어서’(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적 부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8.7%, 만25~29세: 33.1%, 만30~34세: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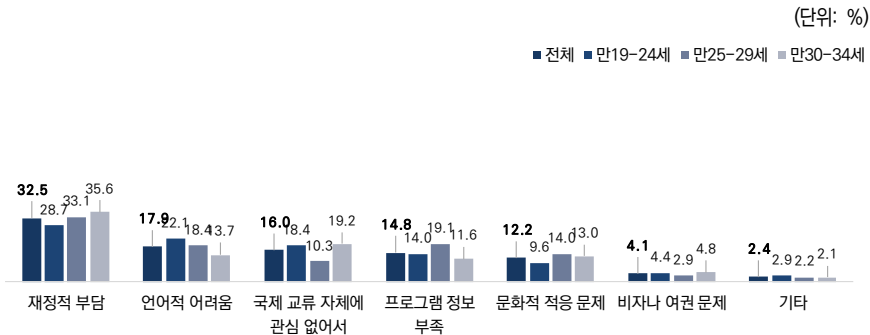


그림 IV-4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표 IV-4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재정적 부담	언어적 어려움	국제 교류 자체에 관 심 없어서	프로그램 정보 부족	문화적 적응 문제	비자나 여권 문제	기타	x ²
전체	(418)	32.5	17.9	16.0	14.8	12.2	4.1	2.4	12.862
만19~24세	(136)	28.7	22.1	18.4	14.0	9.6	4.4	2.9	
만25~29세	(136)	33.1	18.4	10.3	19.1	14.0	2.9	2.2	
만30~34세	(146)	35.6	13.7	19.2	11.6	13.0	4.8	2.1	

* $p < .05$, ** $p < .01$, *** $p < .001$.

(9)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문화적 이해와 폭넓은 시야’ 응답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언어 능력 향상’(18.9%), ‘국제적 네트워킹 기회’(1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적 이해와 폭넓은 시야’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6.8%, 만25~29세: 38.3%, 만30~34세: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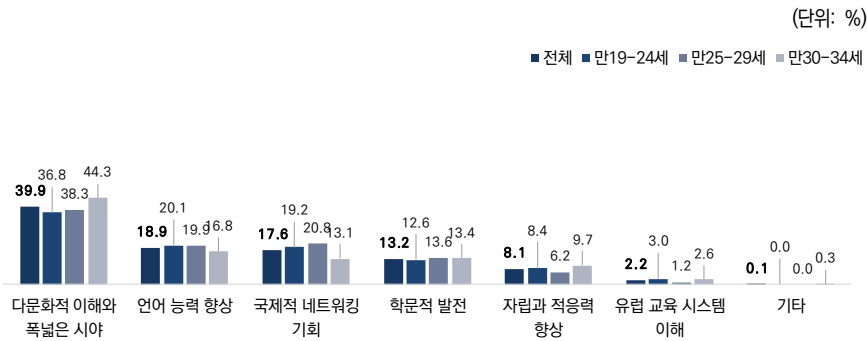


그림 IV-4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표 IV-4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문화적 이해와 폭 넓은 시야	언어 능력 향상	국제적 네 트워킹 기 회	학문적 발전	자립과 적응력 향상	유럽 교육 시스템 이해	기타	χ^2
전체	(1,023)	39.9	18.9	17.6	13.2	8.1	2.2	0.1	17.761
만19~24세	(334)	36.8	20.1	19.2	12.6	8.4	3.0	0.0	
만25~29세	(337)	38.3	19.9	20.8	13.6	6.2	1.2	0.0	
만30~34세	(352)	44.3	16.8	13.1	13.4	9.7	2.6	0.3	

* $p < .05$, ** $p < .01$, *** $p < .001$.

(1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 교환(교환 학기)’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동 학위과정’(19.6%), ‘직업훈련’(1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학생 교환(교환 학기)’ 응답이(45.5%)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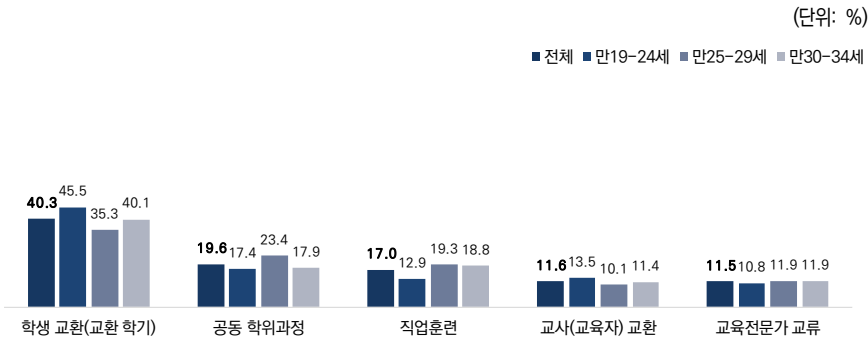


그림 IV-4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표 IV-49.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생 교환 (교환 학기)	공동 학위과정	직업훈련	교사(교육 자) 교환	교육전문가 교류	χ^2
전체	(1,023)	40.3	19.6	17.0	11.6	11.5	15.200
만19~24세	(334)	45.5	17.4	12.9	13.5	10.8	
만25~29세	(337)	35.3	23.4	19.3	10.1	11.9	
만30~34세	(352)	40.1	17.9	18.8	11.4	11.9	

* $p < .05$, ** $p < .01$, *** $p < .001$.

(1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33.3%), ‘지자체’(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정부’ 응답이(46.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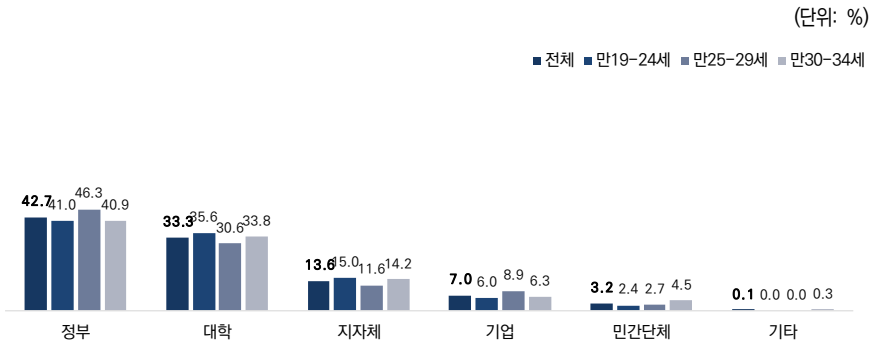


그림 IV-4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표 IV-5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부	대학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기타	χ^2
전체	(1,023)	42.7	33.3	13.6	7.0	3.2	0.1	11.745
만19~24세	(334)	41.0	35.6	15.0	6.0	2.4	0.0	
만25~29세	(337)	46.3	30.6	11.6	8.9	2.7	0.0	
만30~34세	(352)	40.9	33.8	14.2	6.3	4.5	0.3	

* $p < .05$, ** $p < .01$, *** $p < .001$.

6)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적 요구

(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7.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0.0%, 만25~29세: 66.4%, 만30~34세: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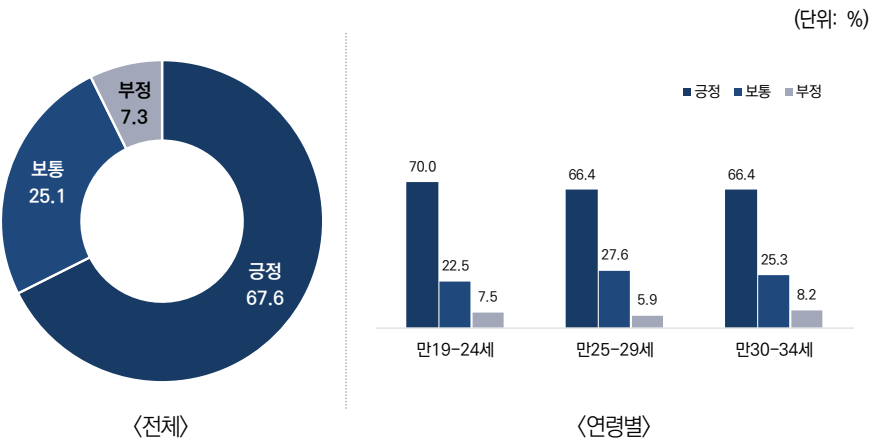


그림 IV-49.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표 IV-5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5.1	42.5	25.1	6.1	1.2	6.037
만19~24세	(334)	28.1	41.9	22.5	6.6	0.9	
만25~29세	(337)	22.8	43.6	27.6	5.0	0.9	
만30~34세	(352)	24.4	42.0	25.3	6.5	1.7	

* $p < .05$, ** $p < .01$, *** $p < .001$.

(2)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학금 제공'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 확대'(29.6%), '비자절차 간소화'(2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장학금 제공'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44.6%, 만25~29세: 33.8%, 만30~34세: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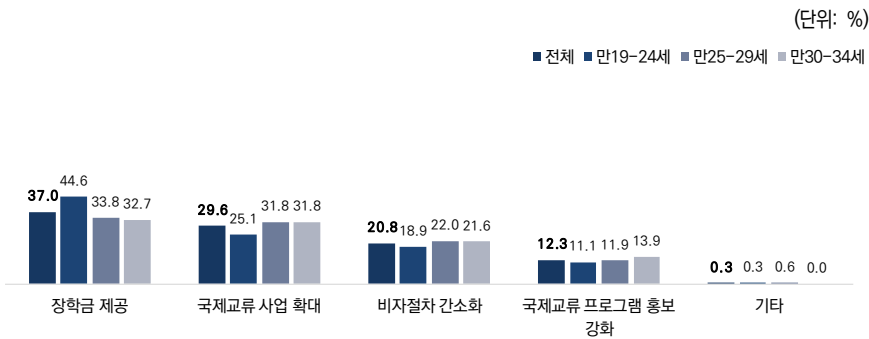


그림 IV-50.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표 IV-52.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장학금 제공	국제교류 사업 확대	비자절차 간소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홍보 강화	기타	χ^2
전체	(1,023)	37.0	29.6	20.8	12.3	0.3	15.482
만19~24세	(334)	44.6	25.1	18.9	11.1	0.3	
만25~29세	(337)	33.8	31.8	22.0	11.9	0.6	
만30~34세	(352)	32.7	31.8	21.6	13.9	0.0	

* $p < .05$, ** $p < .01$, *** $p < .001$.

(3)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외교부’(30.8%), ‘문화체육관광부’(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교육부’ 응답이(47.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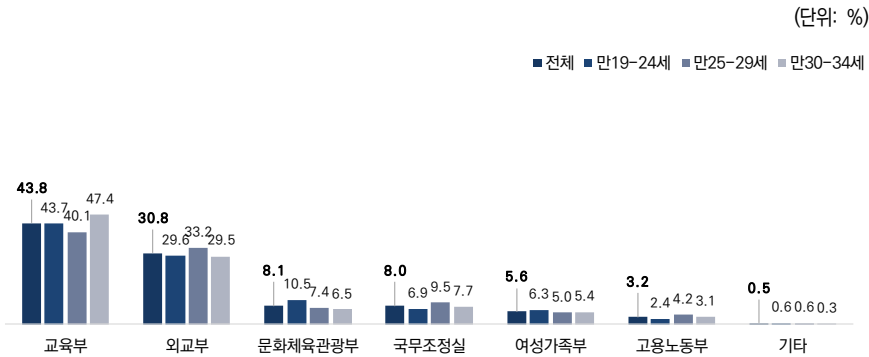


그림 IV-51.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표 IV-53.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국무 조정실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기타	x ²
전체	(1,023)	43.8	30.8	8.1	8.0	5.6	3.2	0.5	10.790
만19~24세	(334)	43.7	29.6	10.5	6.9	6.3	2.4	0.6	
만25~29세	(337)	40.1	33.2	7.4	9.5	5.0	4.2	0.6	
만30~34세	(352)	47.4	29.5	6.5	7.7	5.4	3.1	0.3	

* $p < .05$, ** $p < .01$, *** $p < .001$.

(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7.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70.6%, 만25~29세: 66.5%, 만30~34세: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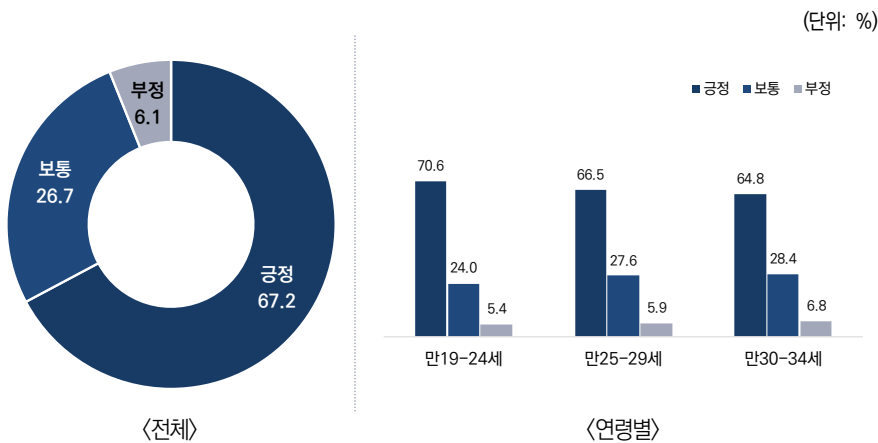


그림 IV-5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표 IV-5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4.0	43.2	26.7	5.0	1.1	4.033
만19~24세	(334)	26.3	44.3	24.0	4.5	0.9	
만25~29세	(337)	22.3	44.2	27.6	5.0	0.9	
만30~34세	(352)	23.6	41.2	28.4	5.4	1.4	

* $p < .05$, ** $p < .01$, *** $p < .001$.

(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학금 지원’(25.7%), ‘참여 자격 확대’(1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8.6%, 만25~29세: 38.6%, 만30~34세: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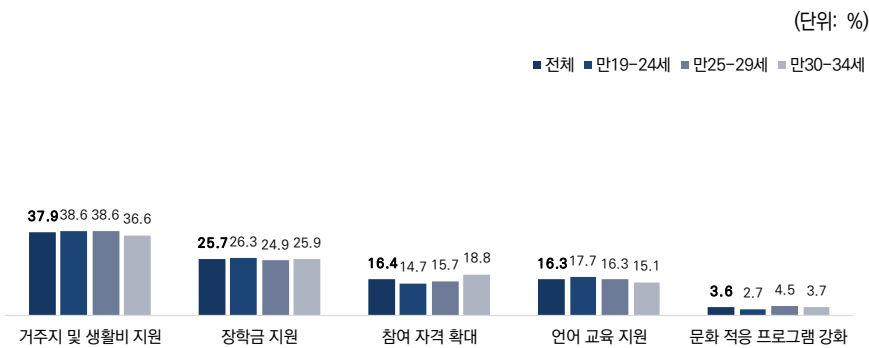


그림 IV-5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표 IV-5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참여 자격 확대	언어 교육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강화	χ^2
전체	(1,023)	37.9	25.7	16.4	16.3	3.6	4.406
만19~24세	(334)	38.6	26.3	14.7	17.7	2.7	
만25~29세	(337)	38.6	24.9	15.7	16.3	4.5	
만30~34세	(352)	36.6	25.9	18.8	15.1	3.7	

* $p < .05$, ** $p < .01$, *** $p < .001$.

(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29세 지원'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9~24세 지원'(43.6%), '30~34세 지원'(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25~29세' 응답이(56.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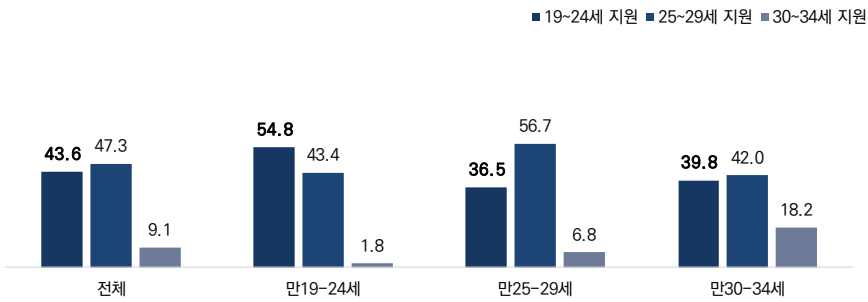


그림 IV-5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표 IV-5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9~24세 지원	25~29세 지원	30~34세 지원	χ^2
전체	(1,023)	43.6	47.3	9.1	77.510***
만19~24세	(334)	54.8	43.4	1.8	
만25~29세	(337)	36.5	56.7	6.8	
만30~34세	(352)	39.8	42.0	18.2	

* $p < .05$, ** $p < .01$, *** $p < .001$.

가.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8.2%, 만25~29세: 66.5%, 만30~34세: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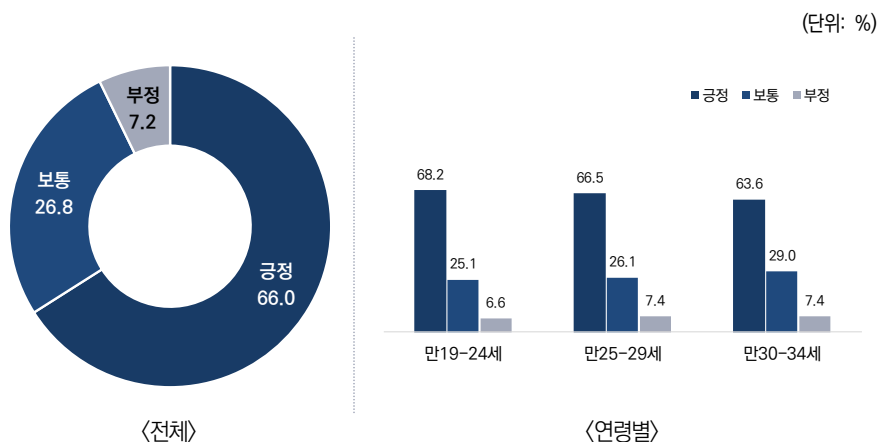


표 IV-57.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 $p < .05$, ** $p < .01$, *** $p < .001$.

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7.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70.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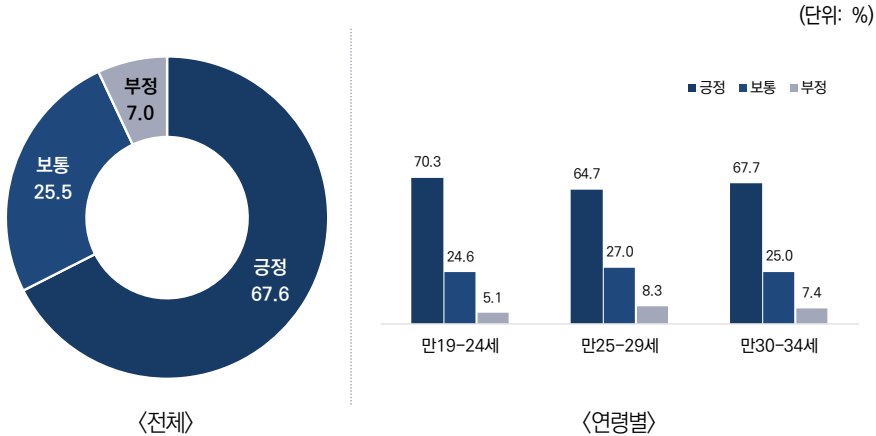


그림 IV-5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58.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1	40.5	25.5	6.0	1.0	6.580
만19~24세	(334)	26.9	43.4	24.6	4.8	0.3	
만25~29세	(337)	24.9	39.8	27.0	6.8	1.5	
만30~34세	(352)	29.3	38.4	25.0	6.3	1.1	

* $p < .05$, ** $p < .01$, *** $p < .001$.

다.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55.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1.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4.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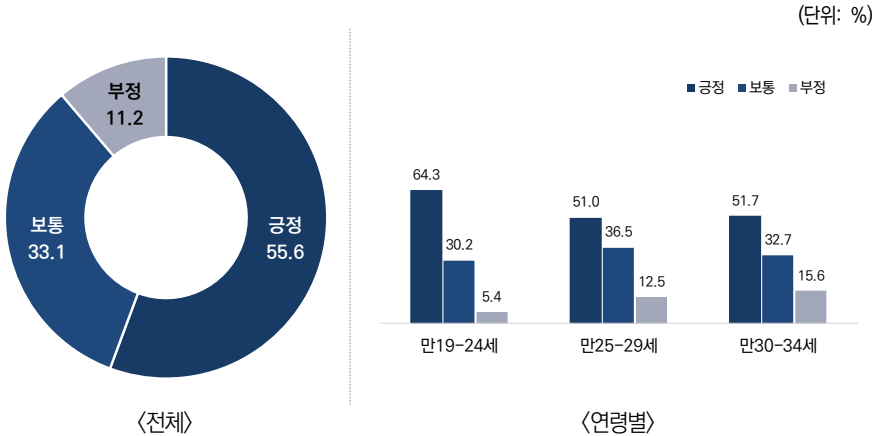


그림 IV-57.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표 IV-59.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1.1	34.5	33.1	8.6	2.6	26.525***
만19~24세	(334)	25.7	38.6	30.2	4.2	1.2	
만25~29세	(337)	18.4	32.6	36.5	9.2	3.3	
만30~34세	(352)	19.3	32.4	32.7	12.2	3.4	

* $p < .05$, ** $p < .01$, *** $p < .001$.

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3.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6.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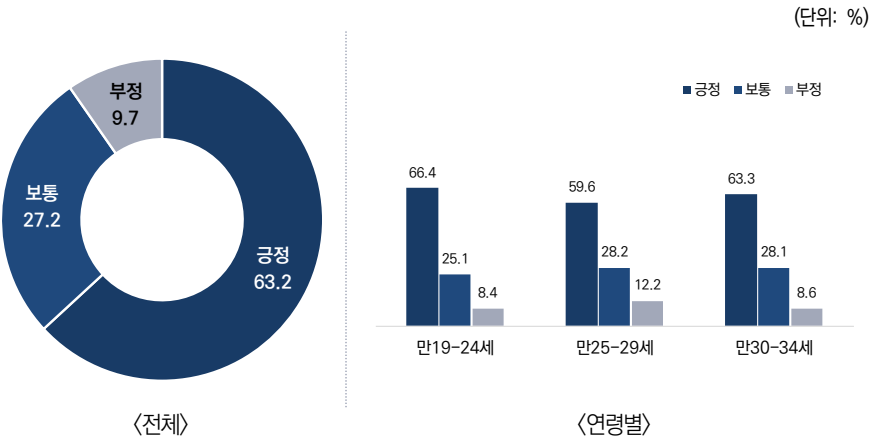


그림 IV-58.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표 IV-60.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8	36.4	27.2	7.6	2.1	6.884
만19~24세	(334)	27.2	39.2	25.1	6.9	1.5	
만25~29세	(337)	27.0	32.6	28.2	9.8	2.4	
만30~34세	(352)	26.1	37.2	28.1	6.3	2.3	

* $p < .05$, ** $p < .01$, *** $p < .001$.

마.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1.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2.5%)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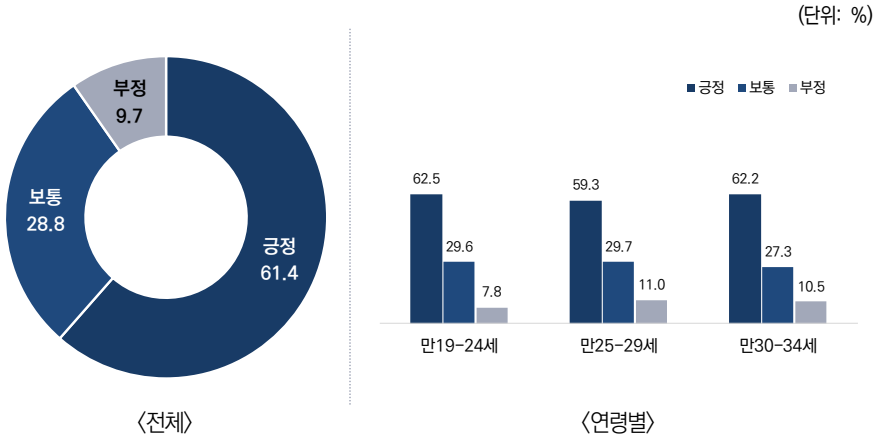


그림 IV-59.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표 IV-61.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7	34.7	28.8	7.3	2.4	6.290
만19~24세	(334)	28.4	34.1	29.6	5.7	2.1	
만25~29세	(337)	24.9	34.4	29.7	7.4	3.6	
만30~34세	(352)	26.7	35.5	27.3	8.8	1.7	

* $p < .05$, ** $p < .01$, *** $p < .001$.

바.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0.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4.6%)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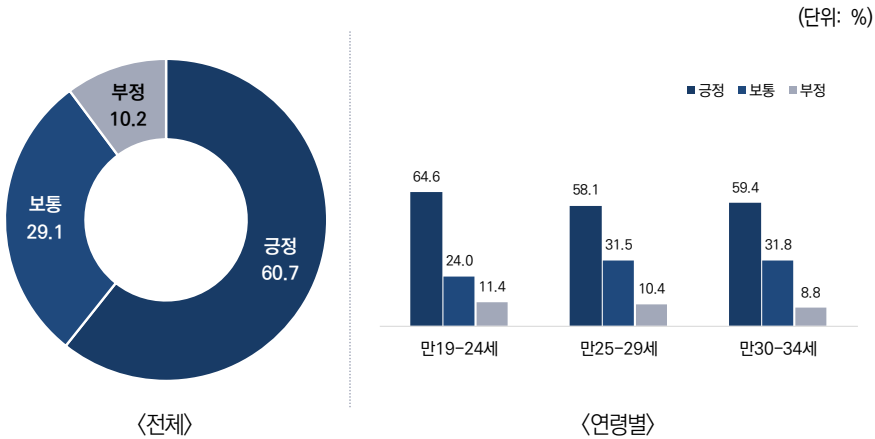


그림 IV-60.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 IV-62.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4	34.3	29.1	8.2	2.0	10.254
만19~24세	(334)	30.2	34.4	24.0	9.6	1.8	
만25~29세	(337)	23.1	35.0	31.5	8.6	1.8	
만30~34세	(352)	25.9	33.5	31.8	6.5	2.3	

* $p < .05$, ** $p < .01$, *** $p < .001$.

사.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1.7%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4.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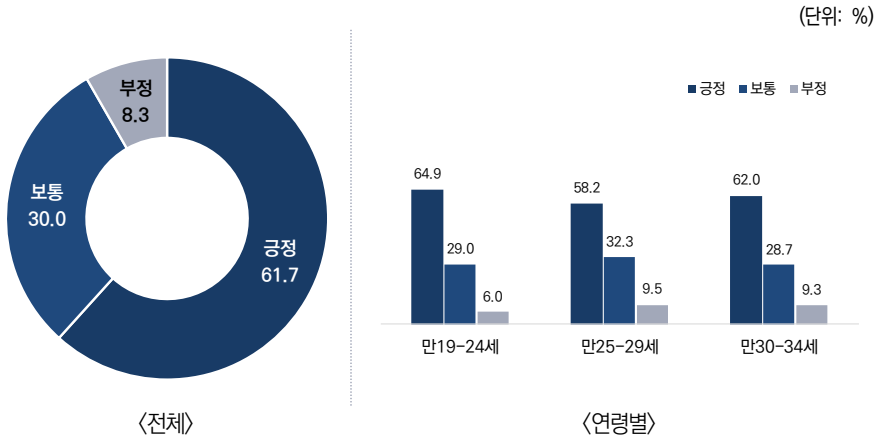


그림 IV-61.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표 IV-63.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7	35.0	30.0	5.9	2.4	8.718
만19~24세	(334)	26.9	38.0	29.0	3.6	2.4	
만25~29세	(337)	27.3	30.9	32.3	7.4	2.1	
만30~34세	(352)	25.9	36.1	28.7	6.5	2.8	

* $p < .05$, ** $p < .01$, *** $p < .001$.

아.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3.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7.0%)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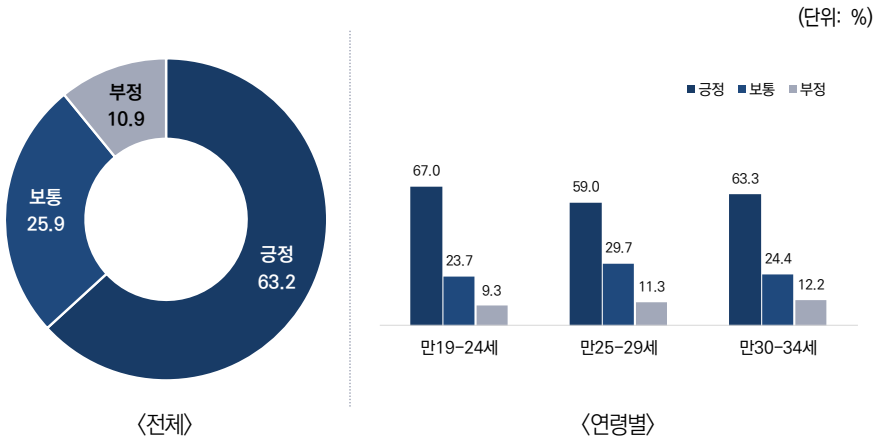


그림 IV-62.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64.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9	36.3	25.9	8.6	2.3	12.634
만19~24세	(334)	31.1	35.9	23.7	6.9	2.4	
만25~29세	(337)	26.7	32.3	29.7	8.6	2.7	
만30~34세	(352)	23.0	40.3	24.4	10.2	2.0	

* $p < .05$, ** $p < .01$, *** $p < .001$.

자.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2.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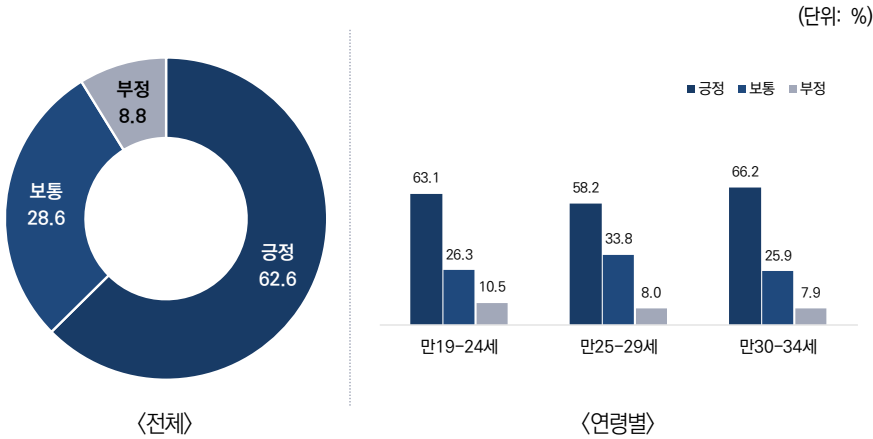


그림 IV-63.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 IV-65.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5.8	36.8	28.6	7.1	1.7	17.030*
만19~24세	(334)	30.8	32.3	26.3	9.0	1.5	
만25~29세	(337)	22.0	36.2	33.8	5.9	2.1	
만30~34세	(352)	24.7	41.5	25.9	6.5	1.4	

* $p < .05$, ** $p < .01$, *** $p < .001$.

차.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4.5%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70.3%)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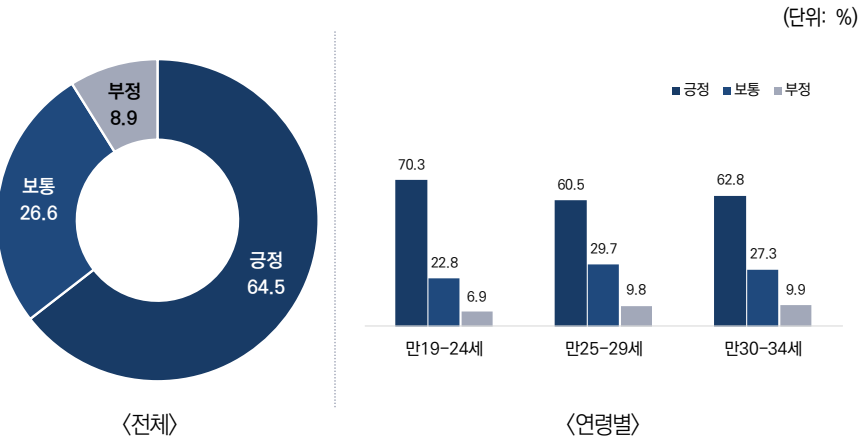


그림 IV-64.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표 IV-66.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8.6	35.9	26.6	6.7	2.2	11.229
만19~24세	(334)	28.7	41.6	22.8	5.1	1.8	
만25~29세	(337)	28.2	32.3	29.7	8.0	1.8	
만30~34세	(352)	29.0	33.8	27.3	7.1	2.8	

* $p < .05$, ** $p < .01$, *** $p < .001$.

(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가.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 간 협력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5.9%
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8.8%)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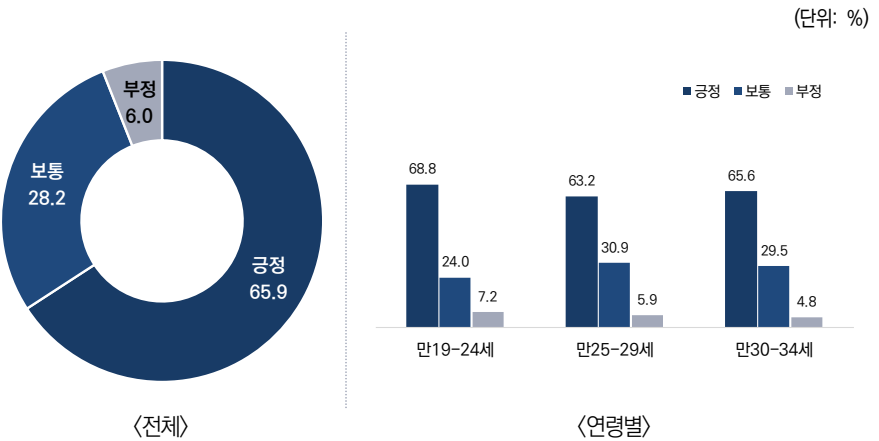


그림 IV-65.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표 IV-67.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0	38.9	28.2	4.5	1.5	8.104
만19~24세	(334)	30.2	38.6	24.0	5.1	2.1	
만25~29세	(337)	26.1	37.1	30.9	4.7	1.2	
만30~34세	(352)	24.7	40.9	29.5	3.7	1.1	

* $p < .05$, ** $p < .01$, *** $p < .001$.

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6.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71.5%)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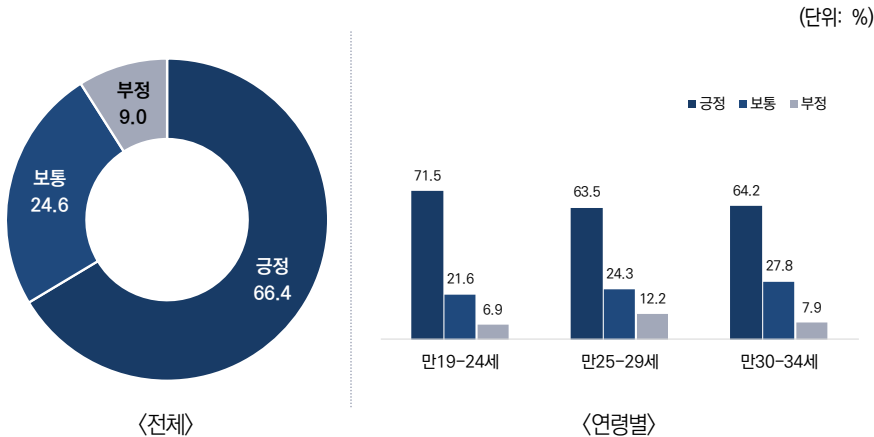


그림 IV-66.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표 IV-68.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31.5	34.9	24.6	7.3	1.7	12.445
만19~24세	(334)	36.2	35.3	21.6	5.7	1.2	
만25~29세	(337)	29.7	33.8	24.3	9.8	2.4	
만30~34세	(352)	28.7	35.5	27.8	6.5	1.4	

* $p < .05$, ** $p < .01$, *** $p < .001$.

다.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4.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9.7%)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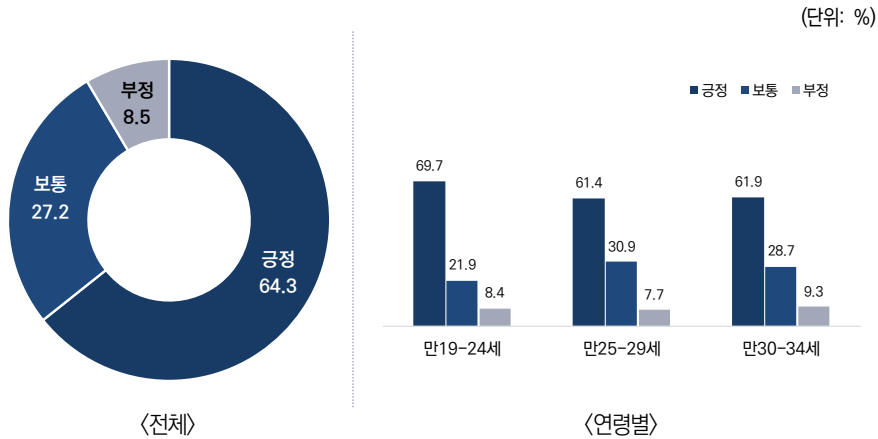


그림 IV-67.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표 IV-69.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4.8	39.5	27.2	6.2	2.3	11.560
만19~24세	(334)	27.8	41.9	21.9	6.6	1.8	
만25~29세	(337)	25.5	35.9	30.9	5.3	2.4	
만30~34세	(352)	21.3	40.6	28.7	6.5	2.8	

* $p < .05$, ** $p < .01$, *** $p < .001$.

라.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4.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4.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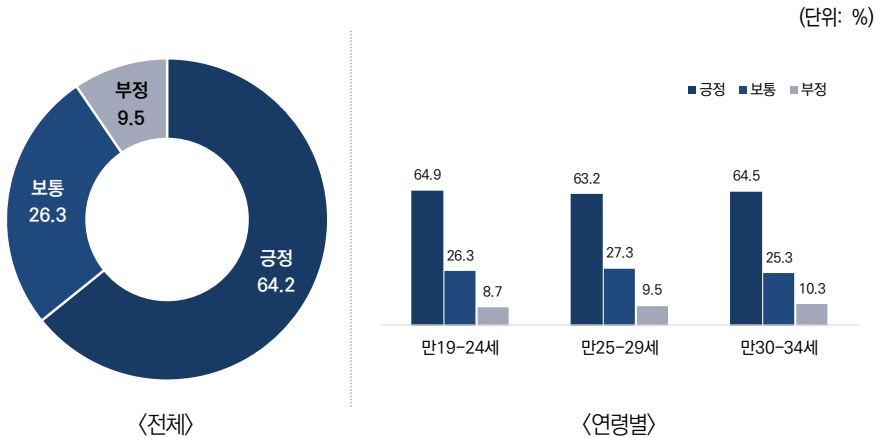


그림 IV-68.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표 IV-70.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0	38.2	26.3	7.7	1.8	8.170
만19~24세	(334)	30.2	34.7	26.3	7.8	0.9	
만25~29세	(337)	24.9	38.3	27.3	7.4	2.1	
만30~34세	(352)	23.0	41.5	25.3	8.0	2.3	

* $p < .05$, ** $p < .01$, *** $p < .001$.

마.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 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0.8%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5.2%, 만25~29세: 59.6%, 만30~34세: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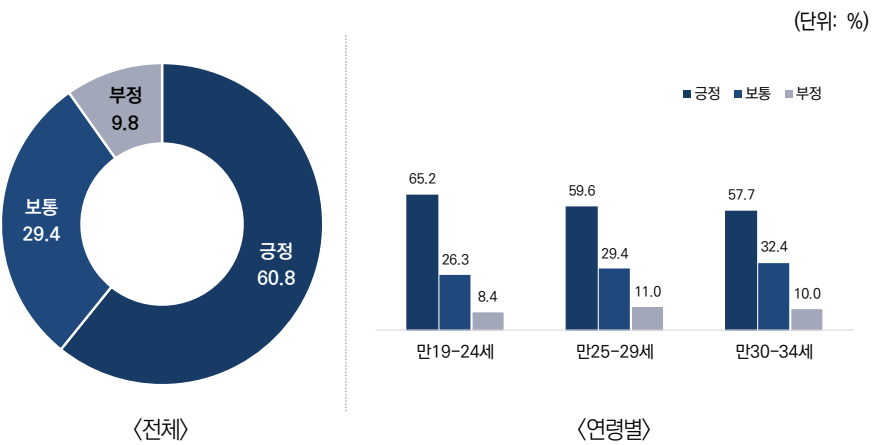


그림 IV-69.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표 IV-71.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9	32.9	29.4	6.3	3.5	8.217
만19~24세	(334)	32.3	32.9	26.3	5.1	3.3	
만25~29세	(337)	25.5	34.1	29.4	7.7	3.3	
만30~34세	(352)	25.9	31.8	32.4	6.0	4.0	

* $p < .05$, ** $p < .01$, *** $p < .001$.

바.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1.4%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7.3%, 만25~29세: 58.7%, 만30~34세: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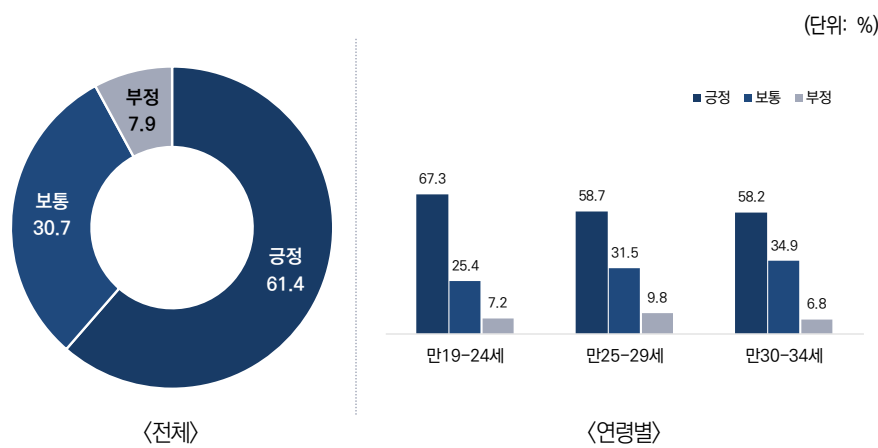


그림 IV-70.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표 IV-72.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4.6	36.8	30.7	6.6	1.3	10.895
만19~24세	(334)	26.9	40.4	25.4	6.3	0.9	
만25~29세	(337)	22.8	35.9	31.5	8.0	1.8	
만30~34세	(352)	24.1	34.1	34.9	5.7	1.1	

* $p < .05$, ** $p < .01$, *** $p < .001$.

사.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5.2%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8.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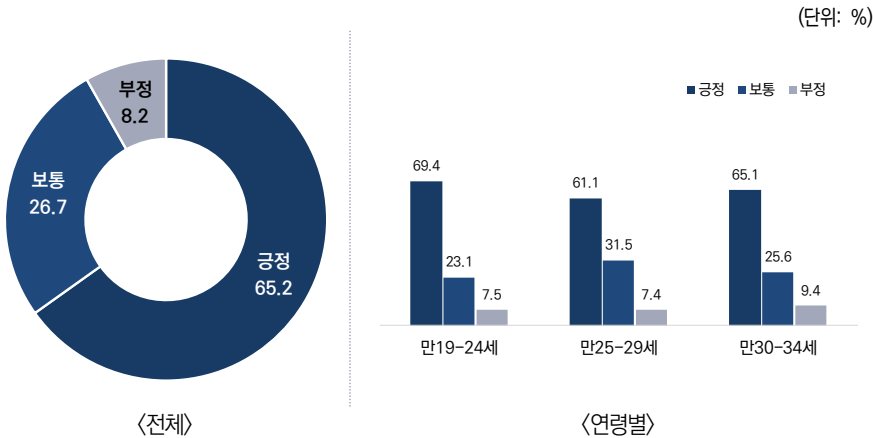


그림 IV-71.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표 IV-73.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8.1	37.1	26.7	6.1	2.1	13.687
만19~24세	(334)	34.1	35.3	23.1	6.0	1.5	
만25~29세	(337)	24.6	36.5	31.5	5.3	2.1	
만30~34세	(352)	25.6	39.5	25.6	6.8	2.6	

* $p < .05$, ** $p < .01$, *** $p < .001$.

아.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0.0%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4.6%, 만25~29세: 59.1%, 만30~34세: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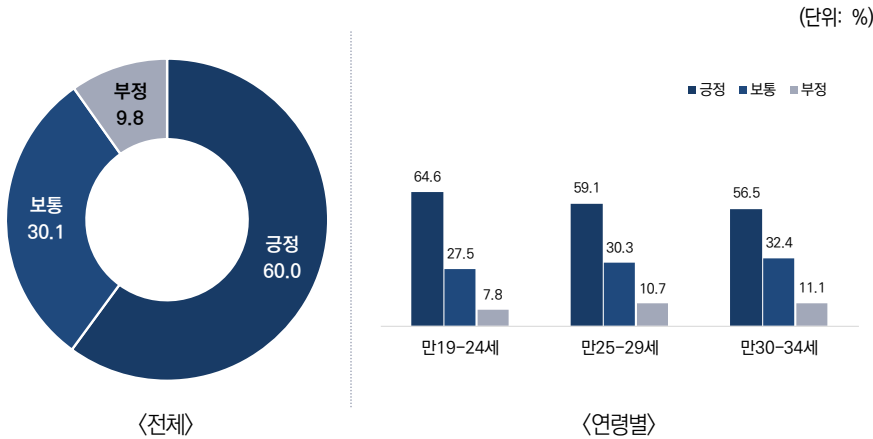


그림 IV-72.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표 IV-74.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2.7	37.3	30.1	7.0	2.8	15.250
만19~24세	(334)	29.0	35.6	27.5	5.1	2.7	
만25~29세	(337)	22.0	37.1	30.3	8.0	2.7	
만30~34세	(352)	17.3	39.2	32.4	8.0	3.1	

* $p < .05$, ** $p < .01$, *** $p < .001$.

(9)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외교부'(31.5%), '국무조정실'(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교육부' 응답이(44.9%)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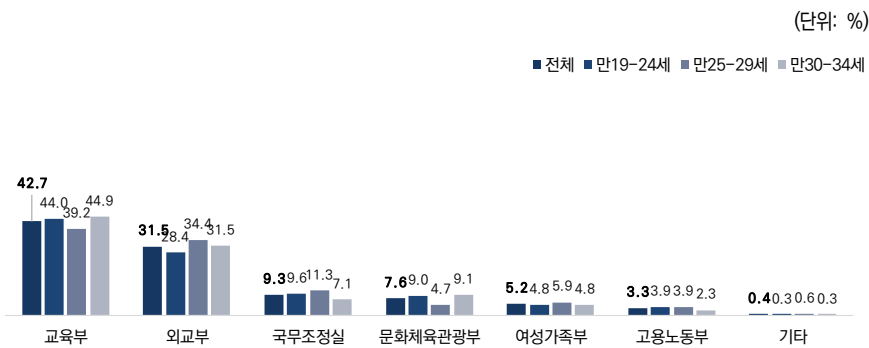


그림 IV-7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표 IV-7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교육부	외교부	국무 조정실	문화체육 관광부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기타	χ^2
전체	(1,023)	42.7	31.5	9.3	7.6	5.2	3.3	0.4	15.014
만19~24세	(334)	44.0	28.4	9.6	9.0	4.8	3.9	0.3	
만25~29세	(337)	39.2	34.4	11.3	4.7	5.9	3.9	0.6	
만30~34세	(352)	44.9	31.5	7.1	9.1	4.8	2.3	0.3	

* $p < .05$, ** $p < .01$, *** $p < .001$.

(1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2.6%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5.9%, 만25~29세: 62.1%, 만30~34세: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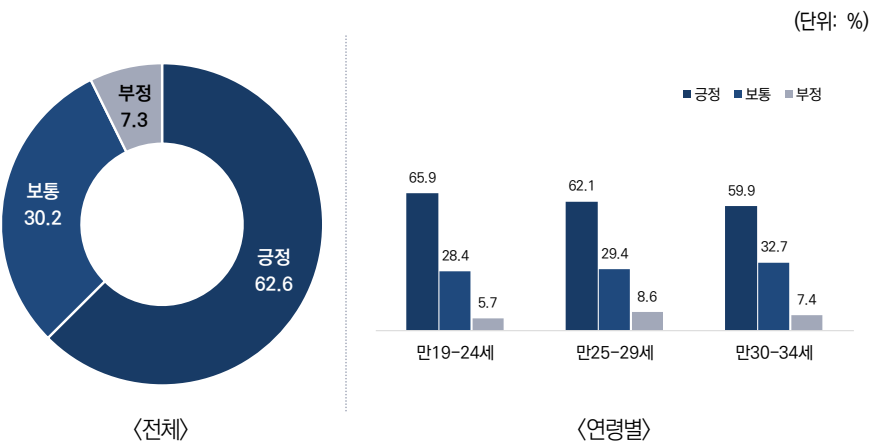


그림 IV-7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표 IV-7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2.5	40.1	30.2	6.1	1.2	4.781
만19~24세	(334)	24.3	41.6	28.4	5.1	0.6	
만25~29세	(337)	22.0	40.1	29.4	7.1	1.5	
만30~34세	(352)	21.3	38.6	32.7	6.0	1.4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3.8%)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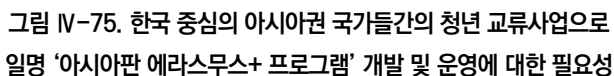


표 IV-77. 한국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들간의 청년 교류사업으로
일명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2.7	38.0	30.5	7.6	1.2	7.598
만19~24세	(334)	23.7	40.1	27.2	8.4	0.6	
만25~29세	(337)	22.6	36.2	34.1	5.6	1.5	
만30~34세	(352)	21.9	37.8	30.1	8.8	1.4	

* $p < .05$, ** $p < .01$, *** $p < .001$.

(12)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 응답은 60.6%로 나타났으며, '없다' 응답은 39.4%로 나타났다.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64.1%, 만25~29세: 62.9%, 만30~34세: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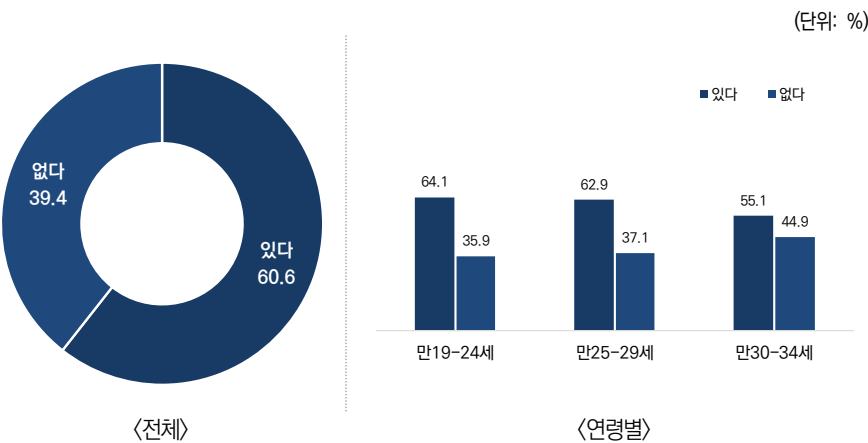


그림 IV-76.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표 IV-78.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60.6	39.4	6.876*
만19~24세	(334)	64.1	35.9	
만25~29세	(337)	62.9	37.1	
만30~34세	(352)	55.1	44.9	

* $p < .05$, ** $p < .01$, *** $p < .001$.

(13)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전체(N=1,023)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은 66.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6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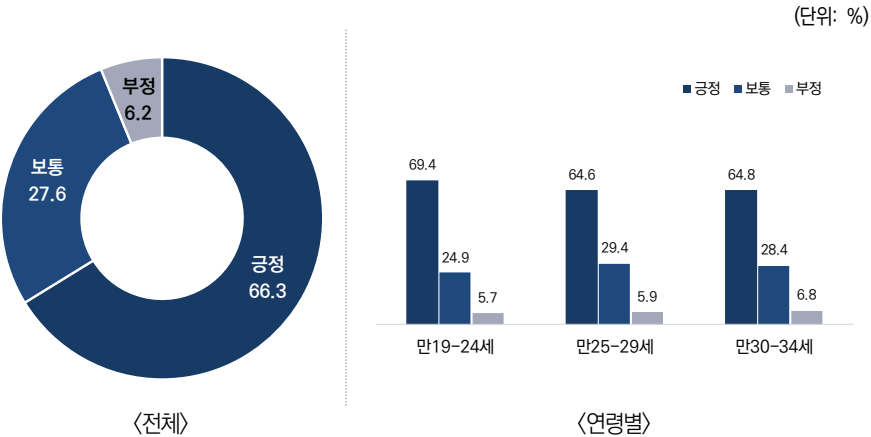


그림 IV-77.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표 IV-79.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6.8	39.5	27.6	4.8	1.4	8.048
만19~24세	(334)	31.4	38.0	24.9	4.8	0.9	
만25~29세	(337)	23.1	41.5	29.4	4.7	1.2	
만30~34세	(352)	25.9	38.9	28.4	4.8	2.0	

* $p < .05$, ** $p < .01$, *** $p < .001$.

2. 초점집단면담조사(FGI)

1) 초점집단면담조사(FGI) 실시 목적

청년 당사자 대상의 질적인 초점집단면담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청년의 경험과 비교해 보다 더 맥락화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고,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 과정, 참여 후의 과정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그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토대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 및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자 했다. 더불어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제안하는 다양한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이 당사자 집단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즉 반응과 선호 그리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1:1 심층인터뷰와 비교해 FGI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면담 구성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면담 참여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상세한 기억과 구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또한 개인의 국제교류 경험 회상을 넘어서서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이라는 추상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초점집단면담조사(FGI) 참여자 구성

(1)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

FGI의 집단 구성은 가용 예산의 제한 내에서 검토 및 결정되었다. 크게 고려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의 주요한 대상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9~24세) 그리고 청년의 연령(19~34세)에서 중복구간인 만19세에서 만24세(1999년생~2005년생)의 청년으로 표집 기준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였다. 이 연령대에는 대학생들이 몰려 있어 국제교

류에 대한 욕구와 실제 경험의 빈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청년의 사례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 면에서,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 면에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 사례들을 표본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로 고려한 내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을 골고루 면담하려 했다. 참여자의 거주 지역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였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기록하려고 했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간(장기/단기)에 따라, 파견된 지역에 따라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찾으려 하였다.

이같이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참여자들을 모아 놓고 그 안에서 적합한 사례를 선택해 최종 연구참여자로 표집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했다. 연구팀은 대학 교강사를 통해,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FGI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하고, 출생연도,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준과 그 경험의 내용에 관해 간단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표집된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들려주고 다른 배경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을 추가로 표집해나갔다.

표 IV-80. FGI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

구분	섭외 기준
공통 조건	- 만19~24세(1999~2005년생)의 청년 - 자발적으로 FGI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변이 조건	- 성별, 연령, 지역 안배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안배 - 아직 미경험인 청년 - 정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 대학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 2개월 이상 장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 단기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 다양한 지역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청년

(2) 참여자 구성

앞서 기술한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따라 선정된 FGI의 참여자 수는 총 12명이다. 가용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술하였듯 그 안에서라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IV-81〉에 제시된 면담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면담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는 평균 23.0세이다. 남성이 5명, 여성이 7명이다. 대학 재학생이 11명, 졸업생이 1명이다. 면담 참여 희망자를 구하지 못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고졸 비진학청년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면 서울, 경기도 3명, 전북, 충북, 충남, 부산 등 타 지역 거주 참여자가 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중앙정부 주관 프로그램에, 다른 4명은 대학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세 사람은 2개월 이상 진행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나머지 5명은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국, 스위스, 일본, 모로코, 이집트,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이들의 국제교류 무대도 다양했다.

표 IV-81. FGI 참여자 명단 및 특성

구분		나이(출생년도)	성별	지역	국제교류 경험	
1그룹	중앙정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1	24(99년생)	남성	부산	(일본 외무성) 일본, (여가부) 모로코, 이집트
		2	24(00년생)	여성	충남	(교육부) 한미대학생연수 WEST
		3	24(00년생)	남성	서울	(외교부)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4	21(03년생)	여성	전북	(외교부)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
2그룹	대학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5	22(02년생)	남성	서울	(대학) 태국, 스위스
		6	23(01년생)	남성	전북	(대학) 일본, 말레이시아
		7	24(00년생)	여성	경기	(대학) 인도, (국내) 중국인 유학생 교류
		8	22(02년생)	여성	충북	(대학) 자기설계 해외배낭연수
3그룹	정부 또는 대학 주관 국제교류 미경험 청년	9	24(99년생)	여성	서울	전혀 없음
		10	24(00년생)	남성	서울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교류
		11	24(00년생)	여성	서울	전혀 없음
		12	20(04년생)	여성	서울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교류

참여자들의 집단 배치는 국제교류 경험의 차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주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대학 주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아직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대체로 지원이 더 크고 경쟁이 더 치열한 정부 프로그램의 특성상 1그룹(중앙정부 주관 프로그램 참여자)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2그룹(대학 주관 프로그램 참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각자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틀에 약간은 한정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3그룹(아직 미경험인 청년)의 대화는 조금 막연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한정된 표본만을 면담했으며, 집단 배치 시에 다른 요인들을 적당히 통제해 가면서 배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별 대화에서 드러난 차이를 중앙정부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학 프로그램 참여자, 미참여자 간의 보편적인 차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초점집단면담조사(FGI) 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의 구성

FGI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각각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실제 면담 진행 시에는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에 따라 진행자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면담을 이끌었다. 첫 번째 파트는 각자의 국제교류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듣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 형성 계기, 프로그램 지원까지의 과정, 활동 내용(파견 전, 파견된 동안, 귀국 후), 주관기관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항, 향후 국제교류 참여 계획 등을 질문하였다. 미참여자들은 어떠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깊게 나누었다. 이 시간에는 면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는 논의의 토픽과 관련한 생각을 상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파트는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축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였다.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정부나 대학 중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지, 국제교류 모델 내에는 어떠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국가와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부분의 논의는 추상적이고 정책적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청년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도 집단 내의 주류적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질문과 관련된 생각을 FGI 실시 전에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방문하고 싶은 대륙 선호를 정해보게 하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간단한 설문지를 면담 전날 참여자들에게 미리 배포하는 장치를 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FGI에서 즉석에서 응답할 때보다 조금 더 숙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진행자는 면담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한 정보 값을 미리 갖고 이를 고려하며 FGI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표 IV-82. FGI 주요 내용 구성

구분	내용
개인의 국제교류 경험	-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 국제교류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및 선발 과정 -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만족도 -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금전/비금전적 지원 및 만족도 - 프로그램 참여 및 미션 수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가 참여 의향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축의 필요성 -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의 운영 주체에 관한 의견 -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국가 유형에 관한 의견

(2) 초점집단면담조사(FGI) 방법

FGI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계획에는 대면 인터뷰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졌다. 우선은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는 점이 있었으며, 또한 조사가 대학생들의 방학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참여자들의 일정이 조정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기대도 현실과는 달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은 학업 외의 대외활동이나 추가적인 교육 수강에 열정적인 청년이기도 했으며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지역을 이동하면서 만나질

씩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 조사는 차선택이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최선책이기도 했다.

2024년 8월 5일에서 8월 26일 사이에 그룹별 FGI가 실시되었다. 집단별로 90분 정도를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실제로는 80분 정도로 조금 짧게 마감된 집단(3그룹 미경험 청년 집단)도 있었으며, 1그룹의 경우는 120분을 약간 초과하였다. 조사 시작 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대화 내용의 녹음에 대한 허가를 구두로 취득하였다. 조사는 참여자들 각각의 소개로 시작되었는데, 소개할 때 각자가 참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해서 함께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조금은 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참석자들 그리고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호기심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나 유연하게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FGI 진행 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면담이 기계적인 질문과 답변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집단 전체의 발언이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계속해서 조정하여 한 번 처음 답변한 참여자가 계속 처음 답변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도 의견이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발언 내에 인용해가면서 구술을 이어나갔다.

(3) IRB 심의

이번 FGI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및 승인은 본 연구의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받았다(승인번호: 202405-HR-고유-009, 통보일: 2024.06.03.). FGI는 IRB를 통해 연구윤리를 검토, 심의, 승인받은 조사 설계와 질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4) 초점집단면담조사(FGI) 결과의 분석

녹취된 자료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전사하여 녹취록 초벌로 만들었다. 이 자료를 연구자가 다시 청취하면서 인공지능이 잘못 기록한 부분을 잡아냄과 동시에 주제별로 초벌 분류와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완성된 녹취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번 FGI의 목적은 발화 내용을 추상화, 일반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맥락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더 가까이 있다.

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개인의 국제교류 경험과 관련해서는 시간순으로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국제교류에 관심 갖게 된 순간에서부터, 참여 이전의 준비, 참여 중의 어려움, 참여 이후의 인식까지를 개인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과 관련한 내용은 주요 토픽별로 정리하였다.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의 필요성, 운영 주체, 교류 대상 국가와 관련한 의견과 그 맥락을 제시하였다.

4) 초점집단면담조사(FGI) 주요 결과

(1) 개인의 국제교류 경험 및 인식

① 관심의 형성: “원래 관심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여러 종류의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원래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뿐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도 참여 빈도가 높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일 또한 이들의 성향을 반영한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탈리아, 필리핀, 미국 그런 데들은 지자체와 학교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다녀오면서 이 활동을 대학교가 가서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제가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구참여자 1)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좀 거슬러 가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이제 문화 탐방을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제 갔어요.” (연구참여자 5)

인용문에서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국제교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청년 시기의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종의 계기 없는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천성적인 성향으로 말이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들 커뮤니티 사이트인 링커리어나 위비티와 같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모전 대외 활동 해외 파견 활동 그런 테마별로 나뉘져 있는데 해외 테마 파견 활동에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1)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가진 이같은 적극적인 성향은, 평소 다양한 정보가 올라오는 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대학 및 학과 공지사항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주 적극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수, 지인 등의 우연한 추천을 계기로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내에서 참가자 숫자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교수가 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여겨진다.

② 기대와 목적: “나는 경험주의자다”

청년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첫째로, 스펙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미션을 수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구직 시장에서의 경쟁자인 동년배들과의 차이로 나아갈 수도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취업용 스펙의 하나로 여기는 시각은 다만 아주 전략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막연한 인식에 가깝다.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재밌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 경험을 쌓다 보면 그것이 스펙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를 갖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해외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제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 국제교류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7)

“해외 근무 자체가 일단 큰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기대가 있어서 가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11)

둘째, 비슷한 결로 어학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아무래도 어학 능력이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외국 경험이

단기간에 언어, 특히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들과 일상적으로 외국어로 대화하는 경험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한 기대사항으로 가지고 있었다.

“너무 한국식 영어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어 스피킹에서 이번에 스위스 갔을 때 좀 많이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을 좀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5)

“제일 근본적으로는 약간 그런 인턴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전 회화 같은 거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9)

셋째, 여행이다. 해외여행을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단순 여행으로 외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비행기 티켓과 체류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청년들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빠박한 프로그램이 있는 일정보다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어 체류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쪽을 선호했다. 다음 인용문에서처럼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외국 청년들의 같은 욕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외국인 아세안 지역 친구들 중에 한국에 처음 방문한 친구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 친구들이 기대하는 site visit은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유명한 그런 곳들이었을 텐데 그런 곳은 방문하지 못하고” (연구참여자 3)

넷째, 외국인과의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대체로 기대했고 또 만족하는 부분이 외국인 친구를 만나 SNS 계정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후에는 물론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친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친해졌고 그 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맥주 한잔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었지만 사실 이게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깊이 친해질 수는 없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다섯째, 경험 그 자체이다. 경험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앞에 서술한 다른 목적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새로운 경험” 자체를 중시한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전부이기도 하다.

“우선 외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몇 달간 있어 본 있을 경험이 앞으로 많지 않으니까 대학 시절에 그런 걸 느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7)

“저는 경험을 되게 중시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게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들이 밝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위해서라든가, 어떠한 진로를 개척하고 싶어서라든가 하는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을 청년들이 갖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충분한 경험이다. 그런 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강조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두려움과 준비사항: “국제교류의 자격”

국제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선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이 있고, 선발된 이후에도 실제 해외 파견을 위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특히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일종의 문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첫째로, 이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막연함을 경험하였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에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고 있다 보니, 어떤 준비가 어떤 수준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특히 검색으로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인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가 더 많다 보니 그 같은 운에 닿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인용문에서 보듯 “감이 안 온다”는 점이 미참여자들의 경우 이들의 시작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었다.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경비 아니면 필요한 준비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참여자 10)

“사실 외국에 나간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좀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약간 처음에는 시차 적응도 그렇고 약간 먹는 거 그다음에 거주지를 정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9)

해외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인종차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아래 인용문에서와 같이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파견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생활 중의 곤란함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애초에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그렇게 백인이 많은 커뮤니티다 보니까 약간 인종 차별에 대한 걱정이 되게 앞섰어서 생각보다 제가 마음을 여는 데 조금 오래 걸렸었고” (연구참여자 4)

둘째로,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다. 인용문의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장기 프로그램에 도전해 선발되었는데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현지에서의 체류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기 체류 프로그램의 경우 현지에서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욕심은 있었지만 막상 어딘가를 가려고 하니까 좀 두려움도 앞섰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연구참여자 2)

특히 재정적 문제의 핵심은 장기 프로그램에서 현지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비 문제다. 여기에 더해 주거 계약의 안전성과 관련한 어려움을 참가자들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2는 원룸에서 두 사람이 같이 생활했는데도 한 달에 130만 원에 달하는 차임을 부담해야 했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현지에서 집을 계약하는 과정과 계약을 마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른 사례들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주거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보완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나왔다.

“저는 일단 약간 거주지 같은 것들을 100% 는 아니더라도 한 20~30%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우선은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9)

셋째로, 국제교류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며, 또 지원자격으로 연령이나 학년 제한, 어학 성적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참여의 문이 아주 넓지는 않다보니 청년들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내가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도전하는 일 자체를 미루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막연하게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쏟게 된다.

“어쨌든 서류나 면접의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스펙이나 아니면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뭔가 자격이 조금 더 돼야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실제로 경험해보니 대부분의 다른 참가자들이 일련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말을 통해 국제교류의 자격에 관한 담론을 퍼뜨리게 된다. 영어회화가 수준급 이상으로 가능한 청년들, 혹은 국제교류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경력을 쌓은 청년들이 국제교류 단원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었다. 이러한 인상은 중앙정부가 주관기관인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더 많이 남아있었다.

“파견단들의 구성원을 봤을 때 일본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본어 연극대회라든지 일본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영상은 서포터즈라든지 어떤 특정 대회나 서포터즈 활동을 이수할 하거나 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일본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1)

“굉장히 영어 실력을 좀 높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정으로 에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써서 제출했어야 되고 그 주제도 이 포럼의 취지에 맞도록 좀 굉장히 답하게 썼었던 것 같고요.” (연구참여자 3)

④ 참여 과정과 결과: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원과 선발, 준비 과정을 거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미 완수한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제공해준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 아쉬운 점을 전혀 꼽지 않았고, 겨우 짜내어 말하더라도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거나 갑자기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 혹은 ‘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식으로 자기 귀인의 아쉬움 정도를 언급할 뿐이었다.

“저는 딱히 보완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해외 체류 및 외국인과의 교류라는 경험을 개인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쌓을 수 있었다는 점과 크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데 대한 감사함을 표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더 집중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어찌 됐든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인 소득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이점을 준지는 모르겠지만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기대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일단 학교에서 비용을 일단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5)

주관기관의 비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대학원생 통역이나 조교를 배치하여 언어 장벽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전문가가 여행 일정에 동행하는 것,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텝이 따라붙는 것(장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주기적인 피드백 제공), 일정 중 혹은 일정 전에 한국에서 전문가 강연을 받는 것 등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주관기관 직원들의 친절함과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 중에 참여자들이 소화하게 되는 미션 수행에 대해서도 대체로 큰 불만사항은 없었다. 해외 현지에서 무엇을 할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일간보고를 작성하거나, UCC(릴스, 쇼츠 등)나 블로그 포스팅을 생산하는 일, 그리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등에 대해서 대체로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과업이 너무 어렵거나 막연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이나 튜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이전 기수분들이 하셨던 걸 보여주셨던 거 그 이외에는 없었어서 그게 어려웠고 그리고 그 선정 이후에도 보고서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던 게 거의 논문처럼 써야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이같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시 도전할 다음 해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워킹홀리데이를 기획하거나, 만24세를 초과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 인턴십이나 취업을 알아보고 있기도 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시야를 키워주고 이를 통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낯선 곳에서 고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2)

“국제교류 활동을 한 경험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고 뜻깊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 저는 이제 이제 나이가 24세가 이제 끝나서 이용을 못하는데” (연구참여자 1)

“물론 이번 경험도 좋았지만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저는 해외 취업이라든가 인턴십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큼니다.” (연구참여자 4)

(2)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성에 대한 의견

① 필요성: “국제교류 확대는 무조건 좋다”

FGI의 후반부는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에, 국제교류 모델이라는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가능한 선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 주었다.

우선 모든 참여자들이 국제교류 확대 및 포괄적 국제교류 모델 구축에 대해 찬성하였다. 이들의 이해도식 속에서 국제교류 경험과 그것의 확대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포괄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 모두 EU의 Erasmus+ 모델을 이번 연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위의 인용문에서 연구참여자 1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참여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음을 아쉬워하며,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을 구성하는 일이 프로그램의 확대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이러한 국제교류 모델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아래와 같이 내놓기도 했다.

“저는 대학원을 준비 중이라서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한 달 정도로 다녀오는 단발성 해외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한 6개월이나 아니면 아예 1년 같이 연구 프로그램으로 다녀올 의향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6)

“뭔가 방향 동안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0)

“국제 교류라는 게 꼭 어떤 in-person 일 필요 없이 온라인 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되게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연구참여자 3)

어떤 청년은 장기간의 파견 프로그램을, 또 어떤 청년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또 꼭 규모 있게 예산을 써야만 하는 해외 현지 파견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은 국제교류의 규모 및 다양성 확대에 닿아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청년이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국제 교류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약간 비중을 대학생 위주로 두되 일정 퍼센트 이상은 그런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을 안 다니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9)

이번 FGI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만 구성된 것은 연구의 한계점일 수 있는데, 면담 과정에서 청년들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의견을 위 인용문과 같이 내기도 했다. Erasmus+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여 의견을 낸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이 구성될 때는 Erasmus+에서와 같이 교직원,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년들도 국제교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일단 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좀 대부분 다들 한국 문화 알리기 아니면 봉사 이런 느낌으로 획일화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문화를 경험을 더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은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안에서 운영 기관 내지는 국가가 국제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국제교류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가 담긴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했다. 청년들의 직업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자리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해외 기업 탐방, 예컨대 지방소멸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겪고 있을 수 있는 로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가 교류 프로그램, 같은 전공 학생들끼리의 교류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② 운영주체: “중앙정부를 가장 신뢰한다”

FGI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를 5점 만점으로 물었다. 아래 [그림 IV-78]은 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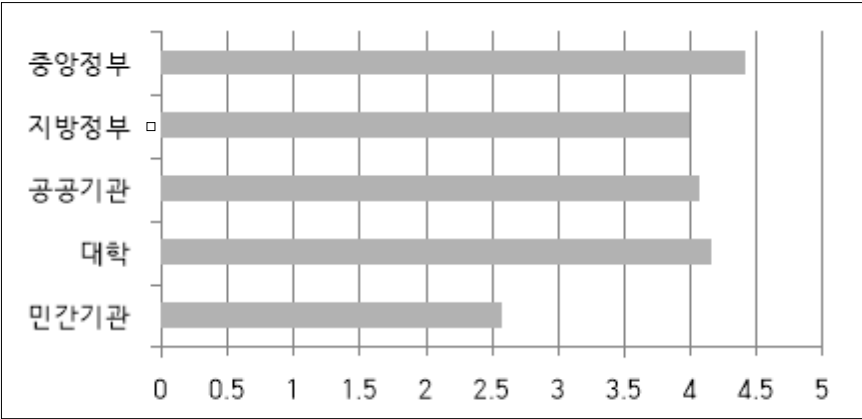


그림 IV-78. 여러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도

민간기관(2.58점)을 제외하면 4점 이상으로 대체로 신뢰도가 높았으나, 그중에서도 중앙정부(4.42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대학 4.17점, 공공기관 4.08점, 지방정부 4.00점)

이러한 기관별 신뢰도 편차에 대한 맥락을 알기 위해, 국제교류 모델의 운영주체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학 등 중에서 어떠한 대안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지를 면담을 통해 논의해 보았다. 약간은 아쉽게도, 연구참여자들의 발화는 국제교류 모델의 운영 주체로서 기관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단위로서 기관을

이야기하는 논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정부 주관 프로그램과 대학 주관 프로그램의 특성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운영 기관에 대한 선호는, 어찌 되었든 청년들이 대체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력서에 쓴다고 하면은 그 주체 기관이 공공기관 혹은 그 상위 기관일 경우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높은 스펙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3)

“국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제적이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은 있는데요.” (연구참여자 2)

기본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중앙정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앙정부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었다. 자기계발의 차원에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보다 스펙을 쌓아가는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 활동 시 안전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가 얹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 또한 중앙정부가 가장 신뢰간다고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단체가 그 주최를 맡게 된다면 행정처리나 아니면 뭔가를 금급할 때 바로바로 물어보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중앙정부가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국제교류 모델의 주체라기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단위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언급 역시도 중앙정부가 가진 권위와 관련이 있다. 권위가 높고 큰 수준에서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지 못한 개별 행위자인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이루어지는 소통과 접촉의 강도는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갖는 권위가 주는 효과가 이러한 작은 단점들을 상쇄하는 것으로 여기는 데 동의하였다.

“뭔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하는 게 뭔가 더 선발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도전하기 뭔가 더 쉬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연구참여자 7)

“저희 언니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갔었는데 너무 이제 물론 또래들을 이제 뵈기도 하는데 너무 좀 랜덤 같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친구가 걸리기도 하나 봐요.” (연구참여자 8)

중앙정부와 비교해 대학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기관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기는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라는 사실 과도 관련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자신이 소속된 기관인 대학을 여러 면에서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은 중앙정부와 비교해 대학 프로그램의 문턱이 낮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 대학 프로그램에는 같은 대학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동일성의 안락함이 존재한다.

“제가 지방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일단 대학교가 많지가 않아서 대학 간의 네트워킹으로 뭔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 라인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좀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연구참여자 1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그러나 더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의 운영 주체로 대학을 꼽기에는 강력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바로 한국의 경우 대학 간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현재에도 대학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양과 질의 차이가 심하며 대학 주도의 국제교류 모델은 오히려 그러한 격차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③ 선호지역: “선진 지역이 좋다”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에 어떠한 국가와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물었다. FGI 전에 8개의 대륙에 대한 선호를 응답하게 한 후, 실제 면담에서는 그러한 응답의 구체적인 맥락을 물었다. 예상할 수 있듯 대륙 선호 응답에서 선진 지역이 보다 선순위에 포함되었다. 응답자들 간에 편차는 있으나, 평균을 내보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서아시아(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국제교류와 관련한 지역 선호가 나타났다.

“저는 북미 지역을 아마 1순위로 했을 텐데 일단 북미 지역은 경제적으로 접근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했었고요.” (연구참여자 4)

“그쪽은 약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북미 선호에 대한 이유를 다양하게 언급하였는데, 진로 탐색과 스펙 형성을 위해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이 기본적인 이유였다. 진로를 개발하는데 있어 여전히 다른 외국어보다는 영어 구사 능력이 우선시되는 상황도 연결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몇몇 맥락도 덧붙여졌는데, 우선 북미 지역이 생각만큼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체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계층을 고려해서 보면 서민 계층의 청년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의견이다. 국제 경험이 불평등 강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의 청년들에게 북미 지역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불평등 해소의 한 방안일 수 있다. 미국 자체가 다양성의 땅이기 때문에, 즉 여러 인종 그리고 여러 국가 출신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 보안 쪽 분야가 이제 유럽이 강세이고 아무래도 선진국이어야 좀 발달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유럽을 1순위로 하고 아프리카를 후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6)

유럽은 평균적으로 보면 북미에 이어 2순위였지만, 연구참여자에 따라서는 유럽을 1순위로 뽑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 유럽인 경우, 위의 인용문과 같이 유럽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았다.

“사실 해외 여행이라든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요새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인 개개인이 좀 가기 어려운 곳들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연구참여자 1)

“다른 중동이나 아니면 중남미 이런 그곳은 제가 뭔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러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이 있어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관리된 관리 산하에서 가면은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순서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1)

상대적으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후순위로 꼽는 지역을 오히려 더 먼저 고려해야 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이들은 북미나 유럽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행으로도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구참여자 1은 이미 이전에도 이집트와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11은 오히려 개인이 여행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국가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프리카는 좀 치안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 위생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제일 후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연구참여자 5)

“중동이나 아니면 중남미 이런 그곳은 제가 뭔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러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이 있어서” (연구참여자 11)

국제교류 과정에서의 안전에 관한 우려는 인터뷰 중에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와 같이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치안이나 안전, 여성 인권 등의 문제로 꺼려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④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안에 대한 선호

이번 연구에서 검토된 세 개의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축안에 대한 선호를 묻고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연구참여자인 청년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국제교류 참여자인 개인의 선호 차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대체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적합할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대안은 ‘한중일/아세안/한미 국가 중심 네트워크’ 방안(8명 선택)이었다. 이렇게 선호가 집중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류 지역인 미국이 이 대안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안이 교육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인 만 19~24세의 연구참여자들이 가진 생애주기상의 욕구와 교육, 일자리라는 국제교류 모델 대안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교육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좀 개개인에게 있어서 나중에 취업 전선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2)

“제 주변에만 봐도 한국에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본이나 외국에 있는 다양한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 그런 파견 활동을 찾아보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 그 국가의 발전된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된다면” (연구참여자 1)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특히 여전히 좁은 취업의 문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국제교류를 하나의 활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의 일자리 관련 경험이 한국에서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예 해외에서의 취업을 통한 다른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존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국내의 일자리 부족과 비교해 해외에는 오히려 구직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비교하면서, 해외 취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음을 논의하였다.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럽 국가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교류 모델 대안을 선호한 연구참여자는 3명 있었다. 이들이 이 대안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이들이 북미보다 유럽을 교류 지역으로 더 선호하는 맥락이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한중일/아세안/한미 국가 중심 네트워크’가 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맥락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보다는 경험이나 네트워크에 국제교류의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이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EU 국가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를 좀 잘

활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 5)

“일단은 그런 잘 체계화된 그런 교환 학생 그런 국제 교류 제도를 만약에 우리나라와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교환학생 제도를 먼저 우리나라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연구참여자 10)

또한 Erasmus+ 프로그램이 이미 잘 구축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과 같이 한국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그곳에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편이 여러 가지로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한중일/아세안/한국가 중심 네트워크’ 대안을 선호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유럽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경제공동체 기반도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일단 언어나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연구참여자 11)

“Erasmus 같이 약간 표준화된 모델이 있는 것도 사실상 좋지만 저희와 문화권도 다르고 약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만의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연구참여자 9)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일단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넓혀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EU와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Erasmus+ 모델이 EU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문화 및 경제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 진단하면서, 단순히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이 거기에 발을 엮는 일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한국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Erasmus+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대안을 택한다고 해도 EU에 속하지 않은 한국은 그 모델 안에서 중심이 아닌 뒷순위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해외에서 한식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지금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많이 만들면 한국도 좀 외교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연구참여자 8)

1명의 연구참여자만이 ‘ODA 협력, 한국학/한국문화 관심 많은 국가 중심 네트워크’ 대안을 선호하였다. 그는 기존 국제교류 경험도 해외에서 한국 제품과 문화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어, 한국문화라는 키워드와 관심이 어느 정도 일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아본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국제교류 일반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은 Erasmus+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로 작용한다. 만19~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이해(지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교류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6%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제교류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20.4%로 나타났고, 특히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교류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비롯한 Erasmus+ 프로그램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교류 자체에 대한 이해 증진이 선행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해 증진’(28.9%)의 가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남성의 경우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았으며,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협력관계(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기도 했다. 해외체류 경험 여부에 따른 국제교류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은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는 ‘문화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59.0%로 과반을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이어 청년들은 ‘언어 능력 향상’(33.3%)이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적 이해’는 23.8%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긍정’ 응답이 75.0%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국제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교류에 대해 전체 청년들 중 58.3%가 참여에 ‘긍정’ 의사를 표했으며, 특히

최종학력별로 대학원(석/박사졸)(76.5%), 해외 체류 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80.2%)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 참여 선호 지역으로 청년들은 ‘유럽권’(40.3%) > ‘북미권’(32.8%) > ‘아시아권’(26.7%)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북미권’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시아권’ 응답은 최종학력별로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43.6%), 해외 체류 경험 없음(3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국제교류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정책의 기획과 설계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대학의 학생 교류에 관한 인식

대학생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표적인 청년 의견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청년들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청년들은 43.2%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별로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 졸업한 학교의 지역별로 살펴볼 때 수도권 대학인 경우 47.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지원 규모나 적극성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 중 ‘문화 교류’(26.6%), ‘언어 학습’(23.9%), ‘학문적 교환’(20.6%)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으로는 1개월~3개월 이내(28.5%), 3개월~6개월 이내(2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청년은 64.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는 청년은 8.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추천 의향 있는(N=662) 청년은 ‘다른 문화 경험’(32.0%)을, 참여 또는 추천 의향 없는(N=87) 청년은 ‘언어 능력 부족’(28.7%)을 꼽았다. 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교육이나 선발기준으로서 언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 이외의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3%로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국제교류가 이들의 청년 시기 교육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1.9%로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일반 청년들에게도 유익성이 있다는 공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정책고객의 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 도움 여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 대학생 이외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 필요성, 대학생 이외 일반 청년들 대상 국가 간 교류의 청년 시기 교육과 성장에 기여 여부, 정부 차원의 대학생 이외 일반 청년들 대상 국가 간 교류 기회 지원 여부 모두 약 70.0%의 긍정 응답을 받았다. 대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 계층 전반에 대한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경우 ‘진로 및 취업’(22.4%)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문화 교류’ 응답(2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결과는 청년들이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진로 및 취업’을 15.4%로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화 교류’의 경우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진로 및 취업’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일반 청년의 국제 교류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주제인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6%, 모른다는 응답은 64.5%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청년의 6.6%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학생 교환(교환 학기)’(32.4%), ‘교사(교육자) 교환’(27.9%), ‘공동 학위과정’(25.0%) 등의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별 참여 의향과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가 67.3%로 가장 높았다.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참여 의향(65.1%)과 도움 정도(62.7%)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해 59.1%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다른 문화와 언어 경험'(41.5%)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 의향이 없는 40.9%의 경우 '재정적 부담'(32.5%)을 가장 크게 느꼈다. 이는 국제교류와 Erasmus+의 본격 전개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rasmus+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가장 큰 이점은 '다문화적 이해와 폭넓은 시야'(39.9%)로 나타났으며, Erasmus+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은 '학생 교환(교환 학기)'(40.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rasmus+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학'(33.3%), '지자체'(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Erasmus+ 프로그램의 추진체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3)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적 요구

먼저,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요구 조사 결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장학금 제공'(37.0%), '국제교류 사업 확대'(29.6%), '비자절차 간소화'(20.8%) 등의 정부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교육부'(43.8%) > '외교부'(30.8%) > '문화체육관광부'(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주관부처에 대해 청년들은 교육부의 역할 적합도를 높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67.2%의 청년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37.9%), '장학금 지원'(25.7%), '참여 자격 확대'(16.4%)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교육부'(42.7%) > '외교부'(31.5%) > '국무조정실'(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Erasmus+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19~24세 대상'(43.6%) 및 '25~29세 대상'(47.3%)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에 대해 62.6%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Erasmus+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학 재학연령인 20대 전반기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기 청년들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 필요성의 경우, 학생 교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이 67.6%,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문화적 이해 증진 혹은 문화 교류 보다는 일자리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Erasmus+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주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들간의 청년 교류사업, 일명 ‘아시아판 Erasmus+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6명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60%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 응답은 66.3%로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취지인 Erasmus+ 프로그램과의 접목과 한국형 모델의 개발에 대한 청년들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정책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한 FGI를 통하여 국제교류에 참여했거나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어떠한 개인의 맥락에서 국제교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 기회에 도전해왔고, 같은 맥락에서 국제교류 또한 젊은 시절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로 여기고 이를 준비하였다. 경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스펙 쌓기, 어학 실력 향상, 외국인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지고 참여했다. 도전과 경험의 결과는 대체로 즐겁기만 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월성과 능력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세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생각해 볼 지점이다. 이들은 첫 국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해외 경험을 다시 찾아보고 준비하고 꿈꾸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다른 삶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 가는 과정 내에 있는 청년들이었다.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구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었다. 충분한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가 운영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데, 또 북미나 유럽 등의 선진 지역과 더 연결되기를 바라는 데, 교육 및 일자리와 연계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데 이들의 중론이 있지만, 연구참여자들 각각이 가진 경험과 배경의 다양성만큼이나 국제교류 모델에 대한 선호 또한 여러 면에서 차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점은 어찌되었든 대학생들에게, 또 대학생의 범위를 넘어선 청년 일반에

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공통의 바람이었다.

“한국형 Erasmus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각 대학별의 국제 교류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참여자 1)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수준의 국제교류 모델이 단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병렬적으로 합치는 것 이상으로 일정한 지향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떠한 맥락에서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과 관련하여, FGI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 청년들의 다양한 목적과 욕구를 포괄하되, 개인의 욕구 그리고 국가 차원의 비전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까닭은 일률적이지 않다.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참여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국제교류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만 청년 당사자들의 욕구는 대체로 자기계발이나 스펙, 역량 강화 등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사회적인 효과를 중심에 두고 이같은 개인적 욕구들을 조율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 청년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의 차원에서 국제교류 모델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전 세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이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원가족 배경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국제 경험과 글로벌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해소의 맥락에서 보자면, 해외 경험을 만들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제 역량이 충분한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욱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사교육 등을 통해 국제적 역량이 갖춰진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국내에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한 후 해외에 파견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셋,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교류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건수나 파견 명수, 해외 취업 성과 등의 단기적이고 수량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미 역량이 갇추어져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성과 수치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제교류의 나비효과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을 잠재력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이 국가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세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비전과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제5장 한국형 Erasmus+모델 구축 및 정책제언

- 1. 한국형 Erasmus+ 모델 도출
과정 및 정책 방향목표 설정
- 2. 한국형 Erasmus+ 설계 방향
및 목적
- 3. 한국형 Erasmus+모형 구성
및 운영방안
- 4. 한국형 Erasmus+의 청년정책
연계 운영 방안
- 5.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 6.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한국형 Erasmus+ 모델 도출 과정 및 정책 방향목표 설정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 기존 청년대상 국제교류 사업 분석

- EU Erasmus+ 분석 → 지속가능한 청년 국제교류 모델 목표, 방향, 운영방식을 토대로 한국형 Erasmus+ 토대 제공 → 정책과제 도출 위한 근거 마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학, 해외국가(일본) 운영 사례 분석 → 청년층 설문조사 및 FGI 문항 개발 및 전문가의견조사 근거자료 활용 → 정책과제 도출 위한 근거 마련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 1,000명 대상 국제교류 필요성 및 인식조사 → 청년층의 국제교류 인식, 경험, 정책요구 조사 → 정책과제 도출의 실증 근거 마련

(3) FGI(초점집단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 대상 FGI 실시 →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 청년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 청년 당사자, 국내외 국제교류 학계 전문가, 현장 사업담당자, 공무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국제교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도출

(5) 정책세미나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청년,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온오프라인 정책세미나를 실시 → 한국형 Erasmus+ 모델 타당성 확보 → 모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검토를 통해 실증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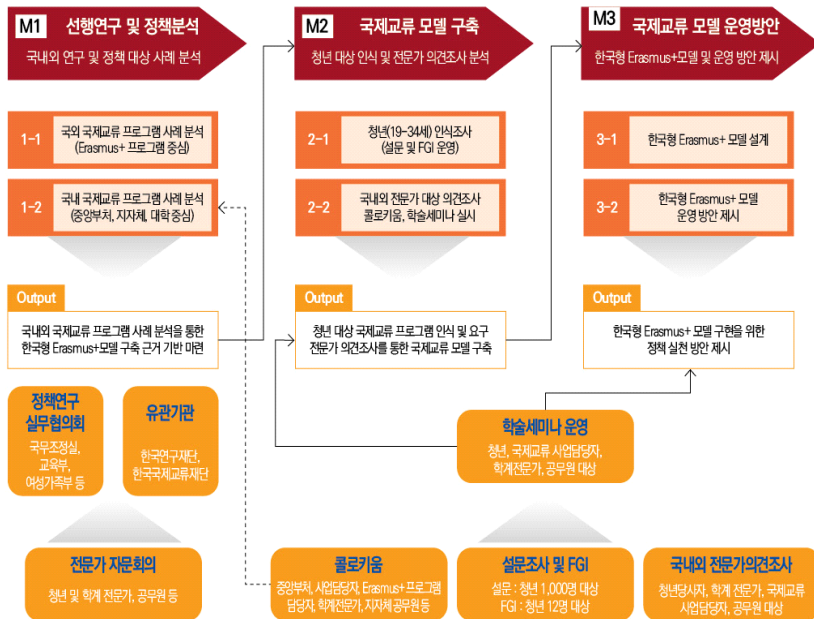


그림 V-1.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

특히,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 대상 국제교류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현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국제교류 모형의 목적과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의 경우 청소년정책위원회 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험에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는 학계와 현장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도 청년정책 관련 연구나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표 V-1.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참여자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최근 5년 동안 청년정책 연구 및 업무 종사자 및 청년정책 참여 청년 대상 선정)
참여자 구성	- 국제교류 학계전문가 4인 + 현장 업무담당자 2인 - 청년 당사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포함) 4인 -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2인 총12인
조서내용	-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의 필요성 - 기존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선방안 -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국제교류 모델에서 고려사항 - 한국형 국제교류 모델 수립 시 목적, 방향 및 프로그램 논의 등
조사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4회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세미나 개최
조사시기	2024년 8~10월

정책세미나는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청년 대상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목표와 목적, 프로그램 구조 등 거시적인 차원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었다. 이후 후반부에서는 연구진이 구성한 한국형 Erasmus+ 모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 운영 주체 간의 연계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국제교류 모형 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정과제(90~92)에서 청년층 대상의 정책 지원과 국정과제(97,99)에서 제시하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청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과 차별성에 초점을 맞춰 구조화하였다.

2)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운영의 목표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실제 중앙부처 청년정책에서 해당 모델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국형 Erasmus+ 모델 실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V-2]와 같이 추진방향과 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6개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한국형 Erasmus+ 의 3대 원칙은 청년 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 청년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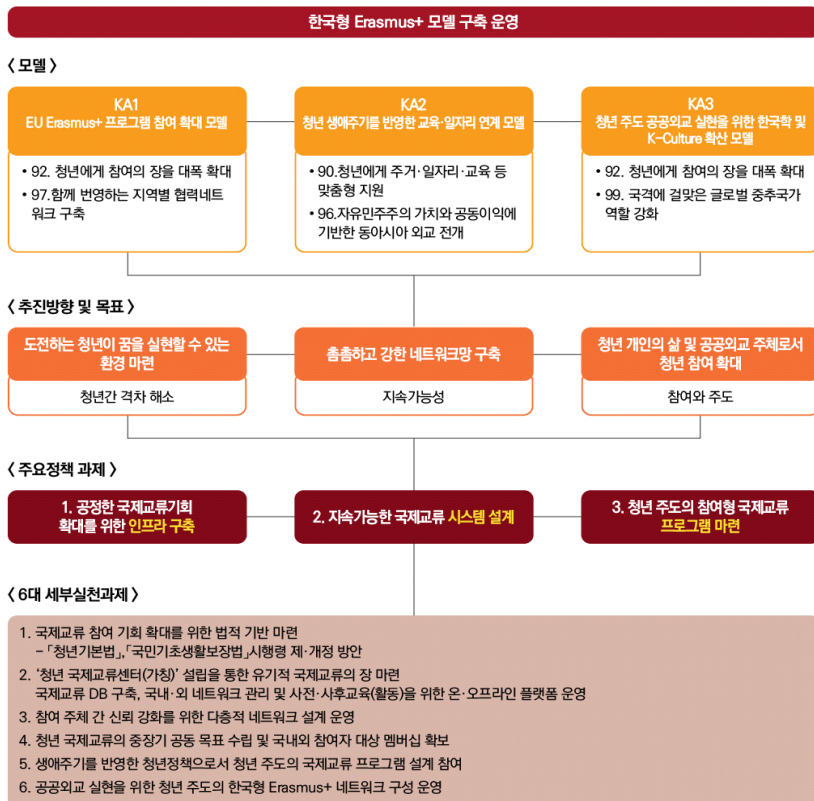


그림 V-2. 한국형 Erasmus+ 모델 구축 운영

2. 한국형 Erasmus+ 설계 방향 및 목적

1) 한국형 Erasmus+ 영역별 설계 방향

먼저, 운영 및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Key Action1은 EU의 Erasmus+와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중간조직 연계하는 것으로, Key Action 2는 기존의 중앙부처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Key Action 3은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청년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Key Action 1에서는 참여활동 및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EU Erasmus+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Key Action 2에서는 교육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서 국제교류와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Key Action 3에서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또는 개인단위로 한국학 및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한국형 Erasmus+ 운영 설계(안)

표 V-2. 한국형 Erasmus+ 설계 요약

모델	추진체계	프로그램 영역(주제)	목적	관련 국정과제
Key Action 1	EU Erasmus+ → 중앙부처 또는 청년 국제교류지원 중간조직(신설)	참여 활동 중심 EU Erasmus+ 프로그램	• EU와 우리나라 간 청년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한 Erasmus+ 참여 기회 확대	•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97. 함께 변형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Key Action 2	중앙부처 → 지자체	생애주기 반영교육 및 일자리정책 연계	• 중앙부처 청년정책 기반 청년 친화적인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	•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Key Action 3	공공기관 및 민간 청년단체 → 청년당사자 주도	공공외교를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교류 확산	• 공공외교로서 청년 주도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교류 확산	•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99.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그림 V-3. 한국형 Erasmus+ 운영 (안)

3. 한국형 Erasmus+모형 구성 및 운영방안

1) Key Action 1.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확대

(1)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모델 개요

한국은 현재 ‘한-EU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협력진흥사업’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중 Erasmus+ EMJM(Erasmus Mundus Joint Masters: 에라스무스 문두스 연합석사학위과정)과 EMDM(Erasmus Mundus Design Measures: EMJM 준비기획 지원 프로그램)에 국내기관 대응 자금 지원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 추진 목적은 한-EU 간 교육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교류 확대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한-EU 교육협력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11월에 유럽연합(EU) 측에서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시점을 계기로 '09년 교육과학부가 직접 '인력교류'를 신규선정 과제로 관리하다가 '11년 한국연구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한-EU 교육협력사업으로 2009년~2014년 동안 총16개 대학에서 신규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과 연계된 컨퍼런스와 연구자 간담회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유럽연합 측에서 한-EU교육협력사업(ICI-ECP)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하고 통보 하였다. 그 후 2015년 '한-EU 참여 대학 협의체' 회의 개최와 2016년 '한-EU 고등교육 정책협의회'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 '한-EU 교육협력사업' 및 '한-EU 교육협력진흥사업'의 형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한-EU 교육협력진흥사업'과 '한-EU 교육협력사업'의 선정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교육협력진흥사업(EMJM 1건, EMDM 2건), '23년 교육협력진흥사업(EMJM 1건, EMDM 1건), 교육협력사업(EMJM 1건), '24년 교육협력사업(EMDM 2건)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24).

한-EU 교육협력사업을 포함하여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차원에서 공동학위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과정에서 학기 운영 시기, 교육과정 선정,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와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참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 능력, 상호국가에 대한 문화이해,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 능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과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현장 견학과 자원봉사 및 회의 등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국제교류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교류가 참가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시간과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와 같이 사전 기획 및 준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국제교류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콘텐츠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2) Key Action1. EU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 참여 확대 소개

Erasmus+는 교육, 연수, 청년,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트너십, 행사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Erasmus+를 총괄하는 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육 및 문화 실행국'(European Commission's 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이하 EACEA)이다. 이곳에서 프로젝트들의 시작과 진행 관리, 모니터링, 결과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나아가 EACEA와 함께 개별 국가 단위의 관리 기관(National Agencies)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Erasmus+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Erasmus+ 청년과 스포츠 실행 기관'(Agence Erasmus+ Jeunesse et Sport)을 운영하고, 독일은 '독일 아카데미 교류 서비스'(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DAAD) 산하에 Erasmus+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Erasmus+ 프로그램 국가는 현재 EU 회원국 27개와 비EU 회원국 6개, 총 33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는 Erasmus+의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파트너 국가로서 EU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로 EU 주변의 파트너 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그 외의 파트너 국가로 구분된다. 이들 국가의 Erasmus+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33개 프로그램 국가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EU Erasmus+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규정에 대한 이해와 각 프로그램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이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을 <표 V-3>과 같이 영역별로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은 먼저 EU Erasmus+를 총괄하는 운영 추제인(EACEA)과 함께 개별 국가 단위의 관리 기관(NAs)에 해당하는 한국의 운영기관과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중앙 및 지자체, 대학연합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현재 파트너 국가로서 EU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분야 공동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의 인적교류 및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설치와 더불어 중장기 예산 확보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

및 지자체, 대학연합회 및 개별 대학 차원의 ‘한-EU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응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V-3. 유럽연합(EU)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내용

구분	유럽연합 Erasmus+ 프로그램	한국 참여 및 적용 방안 검토
운영 주체	• 유럽집행위원회(Erasmus+ 프로그램 개발) • 유럽교육·문화집행국(EACEA: Executive Agency for Education and Culture) • 33개 프로그램 국가의 회원국 국가기관 (NAs: National Agencies)	•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 플랫폼(NAs) 구축 -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유네스코,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O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주체 지정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제주도 청년정책과 등 - 대학 : 교육부 글로벌 대학 및 대학 라이즈 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 • 중앙-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강화 •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 운영기관 직원 및 프로그램 참가자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참가자격	• 프로그램 국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 • 비EU 회원국 프로그램 국가: 6개 (33개 국가 모든 프로그램 지원 가능) • 파트너 국가: 유럽연합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EU주변의 파트너 국가, 그 외의 파트너 국가(한국 포함) 등 (프로그램 국가와 공동 참여 및 일부 지원 가능)	• 한국이 EU Erasmus+ 프로그램에 파트너 국가로 참여 방안 확대 - EU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공동프로젝트 발굴 -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 및 청소년·청년 기관이 EU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세부 프로그램	• key Action 1: 인적교류(1.1~1.10) • key Action 2: 기관 간 협력(2.1~2.8) • key Action 3: 정책개발 및 협력(3) • 장 모네 활동(Jean Monnet Actions)	• 고등교육기관 인적교류 및 청소년·청년 참가자와 이 분야 지도자 교류 확대 • 교육, 훈련, 청소년·청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국가 및 민간 기관 간의 교류·협력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청소년·청년 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과 공동 학위 과정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고등교육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국가의 HEI 경우 제안서 제출공고 후 자국의 관리기관(NA)에 신청서 제출 • 파트너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HEI: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은 프로그램 국가의 HEI와 협력이 체결 되어야 함.	• 한국 참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중 Erasmus+ EMJM 혹은 EMDM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가 확정된 기관 소속 연구자 • 대학 차원의 EU Erasmus+ 프로그램 지원 플랫폼과 전담 부서 설치 운영 •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 EU Erasmus+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위한 국내/대학의 파일럿 기관 시범 운영

구분	유럽연합 Erasmus+ 프로그램	한국 참여 및 적용 방안 검토
재정 지원	• 지원예산 : 각 프로그램 국가에 설치된 회원국 국가기관(NA)에 보유 • 신청방법: 프로그램 국가 HEI와 한 개 이상의 파트너 국가 HEI와 공동으로 자국의 NA에 재정 지원 신청	• 중앙정부 차원에서 EU Erasmus+ 프로그램과 기금 지원 협의 추진 검토 • 대학연합회 차원의 공동학위 설치 기금 조성 및 대학의 자체 교류기금으로 EU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글로벌 및 라이스 사업 연계) • '한-EU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응투자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

① EU Erasmus+ 참여 대상 국가 네트워크

EU Erasmus+ 의 필요성은 참가 대상 국가와 참가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교육, 훈련, 청소년·청년, 스포츠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제교육 협력 강화, 문화교육 활성화, 청소년과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rasmus+ 가 추구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학,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직업훈련,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 쌓고 이러한 노력이 각자의 경력과 직업으로 이어져 삶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국가 간의 협력과 높아진 국제이해 수준은 국제적 활동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EU Erasmus+ 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본의 유럽연합(EU) 프로그램 국가를 포함하여 파트너 국가와 한국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나아가 아세안(ASEAN)국가로의 확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먼저 EU 국가는 기본의 파트너로서 협력 경험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선진 교육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상호교류가 용이하고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운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교육과 인력교류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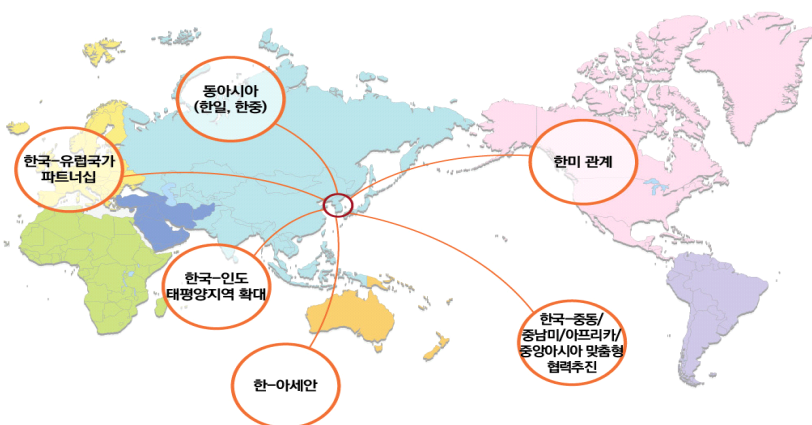


그림 V-4. 한국형 Erasmus+ 모형 참여 국가 네트워크

② EU Erasmus+와 한국형 Erasmus+ 모형 연계 방안

EU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형 Erasmus+ 모형과의 연계 방안을 <표 V-4>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 때, Key Action은 유럽연합의 Erasmus+ 프로그램에서의 Key Action과 유사한 구조 형태로서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성격을 고려하여 Key Action1-3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청소년과 청년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부처 및 기관 단위로 산재해 있어 지원 시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연계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EU의 Erasmus+ Key Action1 “Learning Mobility of Individuals”의 청소년과 청년의 개별적 학습 이동성 유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교류인 해외 탐방, 해외자원봉사, 교육·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학생 대상의 ‘한-EU 공동 석사 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현재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사업을 확대하거나 각 대학의 국제교류사업에 Erasmus+ 프

그럼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앞서 기술한 ‘글로벌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된 ‘대학라이즈사업’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준비생과 취업 청년 대상의 해외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4. EU Erasmus+ 과 한국형 Erasmus+ 의 연계 방안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젝트
일반 청소년, 청년	Key Action1. Learning Mobility of Individuals 1-6. Learning Mobility in the Field of Youth 1-8. Mobility Projects for Young People“Youth Exchanges”	청소년, 청년 교육 훈련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 청소년, 청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생	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Student Mobility for Studies	한-EU 공동 석사 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업준비생	Youth Exchanges European Solidarity Corps/ Internships	국제 자원봉사 활동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취업 청년	Ersamus accreditation in adult education Stass Mobility for Training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연수 프로그램

③ 도식(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확대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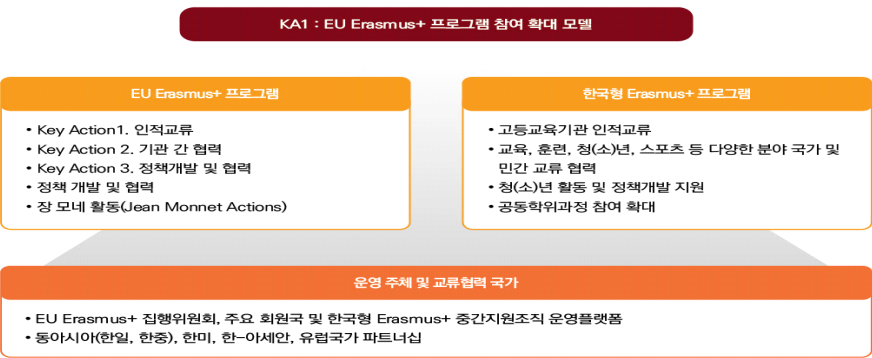


그림 V-5.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1. EU Erasmus+ 연계(안)

④ 효과성(기대효과)

EU Erasmus+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형 Erasmus+ 구축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및 국제화 전문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토대에서 청년들은 국제사회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 글로벌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연수 및 인턴십을 통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프로그램 및 파트너 국가와 교육 및 관광 수요를 점증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제협력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효과로 다양한 국제활동 및 문화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드라마와 춤을 비롯하여 음식과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K-컬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외교와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적 효과로는 먼저 이 사업에 참여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Erasmus+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적으로는 교육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Key Action2.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모형

(1)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모형 개요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설계와 관련하여 Erasmus+와 관련한 내부 환경을 살펴보면 한국 연구재단의 ‘한-EU 교육협력사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EU Erasmus+ EMJM(Erasmus Mundus Joint Masters) 및 EMDM(Erasmus Mundus Design Measures) 참여 국내기관 대응자금 지원을 통한 한-EU간 교육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고등교육 학생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매년 총 2억원을 복수공동 석사학위 이행 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컨소시엄 참여 사업비 등으로 지원

하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데 첫째는 교육협력사업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 교류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 운영경비(행정인력 고용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는 교육협력진흥사업으로서 Erasmus+ EMJM 혹은 EMDM에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준비기획 활동을 지원하여 한-EU 교육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의를 위한 활동, 학위과정 및 행정절차를 위한 비용, 과제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한국연구재단, 2024). 한국연구재단의 ‘한-EU 교육협력사업’은 Erasmus+와 관련하여 소규모의 교류 경비를 지원하는 작은 사업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추진되는 유일한 관련 사업으로서 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등을 본 연구의 설계에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업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3분의 2 정도가 관련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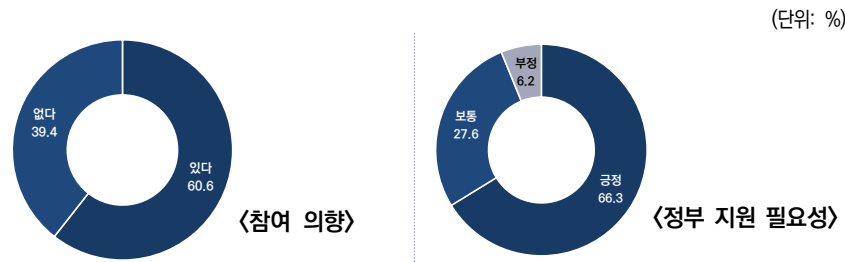


그림 V-6. 향후 한국형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참여 의향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또한 Erasmus+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조사결과,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학금 지원’(25.7%), ‘참여 자격 확대’(1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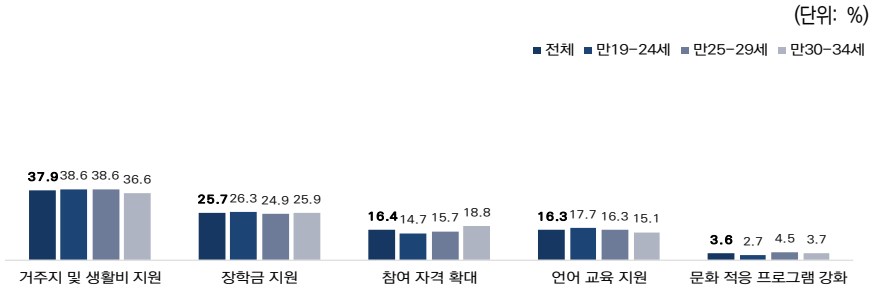


그림 V-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이와 같은 청년들의 필요성 및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구성하였다.

(2) Key Action2.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소개

① 참여 대상 국가 네트워크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계·협력 및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 간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 간 권역 범위는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존 Erasmus+ 참여국 범위인 EU 회원국 및 Erasmus+ 공식참여국 6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터키, 아이슬란드, 세르비아)에 우리나라가 공식참여국으로 편재되어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Erasmus+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파트너십이 추가로 구성되는 것이다.

둘째,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로 새로운 국가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 참여국가들과의 MOU를 체결하고 국가별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투입 예산, 사업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Erasmus+ 혹은 아시아판 Erasmus+를 위한 새로운 국가 간 권역이다.

② 프로그램 내용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참여대상 및 액션 유형별 연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표 V-5.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교육 분야 프로그램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그램 내용
대학생	고등교육 연계 (Higher Education)	- 목적 : 대학생들에게 다른 국가에서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학습하거나 연구 수행 경험을 쌓도록 함 - 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 - 지원 사항 : 학비, 생활비, 이동 경비,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서 학업 기회 제공 • 국제적인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 문화 교류와 언어 학습 기회
대학원생	공동 석사 학위 (Joint Master Degrees)	- 목적 : 여러 국가의 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석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학업을 진행하며 다국적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상 : 석사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 - 지원 사항 : 학비, 생활비, 항공료 지원 - 주요 내용 • 여러 국가에서 학습하고 다국적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 글로벌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 다양한 문화와 언어 경험
일반 청년	성인교육 연계 (Adult Education)	- 목적 : 성인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 론을 배우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성인 교육 종사자 - 지원 사항 : 체류비, 항공료, 연수비 지원 - 주요 내용 • 성인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 및 연수 기회 •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대한 이해 증진
초·중등 교사 및 교육행정가 (교장/교감)	초·중등학교 교육 연계 (School Education)	- 목적 : 초·중등 교사들이 해외에서 교육 연구, 수업 관찰, 교육 방법론 개선 등의 경험 습득하도록 연수 기회 제공 - 대상 : 초·중등 교사 및 교육 관리자 - 지원 사항 : 체류비, 항공료, 교육 연수 지원 - 주요 내용 • 해외 교육 시스템 및 교수법 학습 •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 형성 • 교육자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교육 방법 도입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그램 내용
대학 교직원	교직원 교류 (Staff Mobility)	- 목적 : 대학의 교수, 연구자, 행정직원들에게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학문적 협력을 촉진함 - 대상: 대학 교수, 연구원, 행정직원 - 지원 사항 : 체류비, 항공료, 학문적 교류 활동 지원 - 주요 내용 • 해외 교육 및 연구 경험 •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의 협력 기회 • 교육 네트워크 확장
초·중등학교 교직원	교사 연수 (Teacher Training)	- 목적 : 초·중등 교사들이 다른 국가에서 교수법과 교육 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초·중등 교사 - 지원 사항 : 체류비, 항공료, 연수비 지원 - 주요 내용 • 해외에서 교육 연수를 통해 교수법 개발 • 다른 국가의 교육 시스템 체험 • 국제적인 교육 커뮤니티와 협력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일자리 분야에 대한 참여대상 및 액션 유형별 연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 직무 연계 기회 제공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표 V-6.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 중 일자리 분야 프로그램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그램 내용
대학생, 대학원생	인턴십 (Traineeships)	- 목적 : 대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국제적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기간 중 또는 졸업 후 최대 12개월 동안 해외 기업, 연구소, 또는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및 최근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 지원 사항 : 생활비, 이동 경비,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다른 국가 내의 기업 및 조직에서 실무 경험 • 글로벌 경력 개발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 • 대학 학점 인정 가능(인턴십 기간에 따라)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그램 내용
일반 청년	창업 지원 (Young Entrepreneurs)	- 목적 : 청년 창업가와 다른 나라의 숙련된 기업가를 연결하여 협업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가가 멘토 기업가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함 - 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 지원 사항 : 체류비 - 주요 내용 • 다른 국가에서 1~6개월 동안 멘토링 및 비즈니스 경험 •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 수립 • 현지 기업가 네트워크 확장
졸업생, 취업준비 청년	직업교육 및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목적 :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직업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 및 교육을 통한 경력을 개발하도록 함 - 대상 :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 졸업생 - 지원 사항 : 훈련비, 생활비, 이동 경비 지원 - 주요 내용 • 국제적인 직무 능력 및 직업 교육 기회 제공 • 해외 기업에서의 인턴십 및 훈련 경험 • 다른 국가간 직업 네트워크 형성
일반 청년	청년 자원봉사 직무 교류 (Solidarity Corps)	- 목적 :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다양한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 경력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함 - 대상 :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 - 지원 사항 : 생활비, 숙박비, 여행비, 언어 교육 및 사전 교육 - 주요 내용 •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직무 경험 축적 • 프로젝트 종료 후 취업을 위한 추천서 및 증명서 발급 • 국제적인 자원봉사 경력을 통해 경력 개발
직업교육 종사자	직업교육 종사자 지원 (Vocational education worker support)	- 목적 : 직업 교육 종사자, 교사, 트레이너 등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 종사자들이 최신 교육 방법론을 습득하고, 현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함 - 대상 : 직업 교육 및 훈련 종사자, 교육자 - 지원 사항 : 생활비, 이동 경비 - 주요 내용 • 다른 국가에서 직업 교육 훈련 연수 기회 •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교육 방법 습득 • 국제적인 경력 개발 및 직무 관련 기술 향상

③ 프로그램 간 연계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 국가들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 보유 및 지원 가능 자원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각국이 수행가능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확정하고 역할을 배분하는 등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유관 부처 단위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거친 결과, Key Action2 모형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학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과의 중복 점검과 편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과 대상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일자리 영역에서 단계별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주관부처 또는 기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사업기관을 중심으로 부처와 대학, 기관 간 원활한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식(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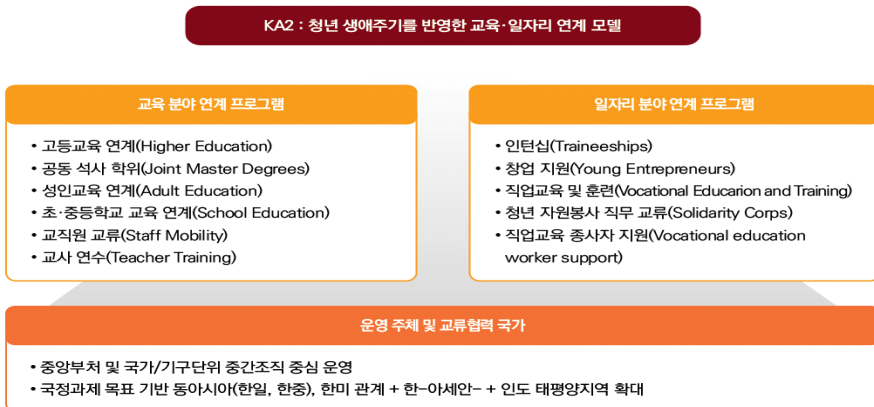


그림 V-8. 한국형 Erasmus+ Key Action2. 청년 생애주기를 반영한 교육·일자리 연계(안)

⑤ 효과성(기대효과)

본 모형의 기대효과를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Erasmus+ 모델을 통해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서 국제적인 학문적 경험을 쌓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정과제에서는 첨단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에 참가한 청년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 트렌드를 배우고 돌아와 이를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외교적 네트워크 확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문화적 교류를 경험하여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적 이해와 국제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넷째,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후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Erasmus+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토대로 청년들은 국제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쌓은 경험은 한국 내 기업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일자리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제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다른 나라의 대학 및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이는 참여 국가와 한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 지방 대학이나 지역 기반 기관들도 국제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교육과 국제화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준다.

3) Key Action 3. 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 모형

(1)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모델 개요

Key Action 3 모형은 관련 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최근 우리나라 청년 및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외국 청년들의 수요가 급등한 현상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현재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청년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학 및 문화에 대한 외국의 수요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한국학진흥사업과 문화교류 협력강화 사업을 통한 한국문화 활성화 사례를 대표로 꼽을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의 주요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는 등 현지에서 한국 관련한 언어, 문화, 학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8개국가 26개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교수직이 설치되었고, 17개국 25개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 교원 고용지원, 41개국가 69개교에 한국(어)학 객원교수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와 현지 특강을 결합하여 구성된 KF글로벌 e-스쿨의 경우 45개국가 16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인 것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성장과 함께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화와도 결합하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술차원에서의 한국(어)학에 대한 정책 지원 노력과 더불어 문화와 결합한 차원에서 일반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학을 확산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청년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 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청년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청년예술과도약지원)'로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발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추진성과로 국제교류 지원이 있으며 2022년 기준, 30억 예산으로 223명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2023년 34억 273명 지원으로 확대하여 청년예술가 국제교류사업과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하지만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청년 예술가지원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국내 활동 중심으로 예산이 확대된 반면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화 활성화 사업을 보면 주로 전세계 유수 박물관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전시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라 청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물론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해외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해외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청년들과 해외 청년들이 접목하여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외 국제교류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한국학과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해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전공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입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국내에 있는 외국 청년들과의 교류,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한국학과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한국형 Erasmus+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청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해 증진(28.9%)의 가치를 얻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는 것뿐 아니라 이들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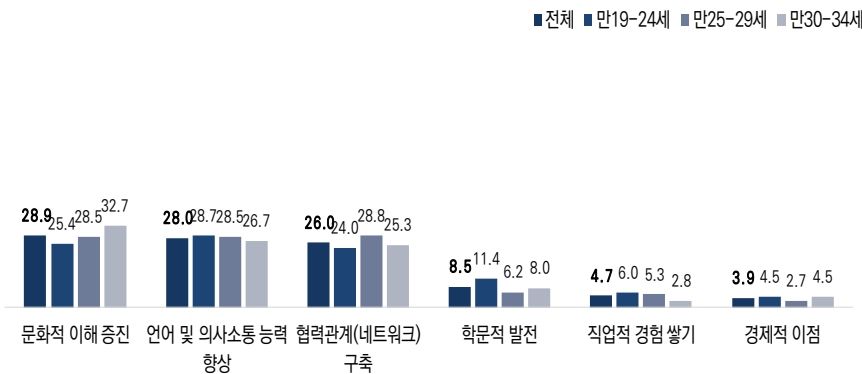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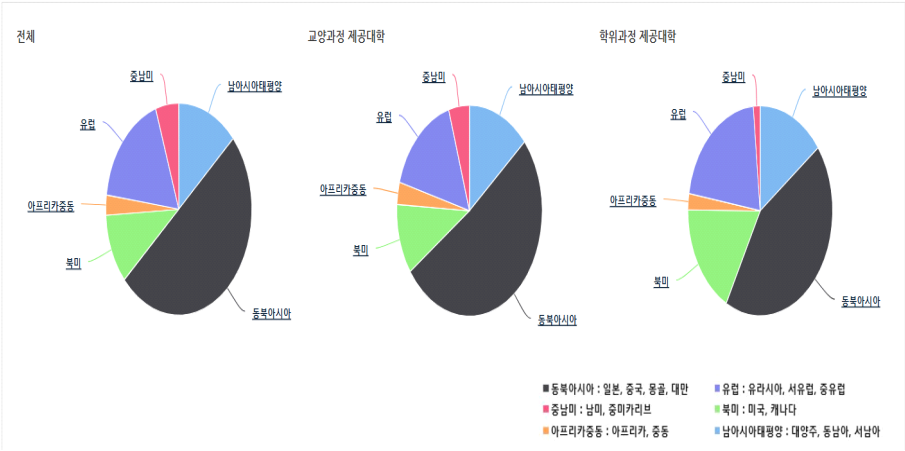
그림 V-9. 청년이 인식하는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한편, 인식조사와 FGI를 통해 볼 때 국제교류 참여 선호 지역이 유럽권(40.3%), 북미권(32.8%), 아시아권(26.7%)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볼 때, 해외

청년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선호는 반대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학 전공이 대학에 설치된 주요 국가들을 살펴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국국제교류재단(2024)이 제시한 한국학이 교양과정이나 학위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가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탓에 가장 높고 그 외 남아시아 태평양지역(대양주, 동남아, 서남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동북아, 북미, 유럽 지역 이외 남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 지역별 현황



*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KFTC센터 (2024). 세계 한국학 현황 지도.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그림 V-10. 한국학 강좌 지역별 운영 현황

(2) Key Action 3. 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 소개

① 참여 대상 국가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3.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개인을 활동 주체로 삼아 한국학 및 한국문화를 전파확산을 주제로 하는 프로

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대상 국가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앞서 Key Action 1과 Key Action 2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국제교류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심과 선호를 보이는 해외 청년들의 국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볼 수 있다.

일례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남아시아태평양(대양주,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중남미(남미, 중미, 카리브) 등을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교양이나 전공으로 과목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 사례로 해당 지역 가운데 베트남, 인도,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협력 관계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국가 청년들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방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 청년과는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차원에서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어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순위	국가	대학개수	순위	국가	대학개수	순위	국가	대학개수
1	 일본	376	10	 몽골	21	21	 멕시코	11
2	 중국	269	12	 프랑스	20	22	 캄보디아	10
3	 미국	134	13	 말레이시아	19	22	 튀르키예	10
4	 러시아	39	14	 카자흐스탄	17	24	 콜롬비아	9
5	 대만	37	15	 캐나다	16	25	 아르헨티나	7
5	 베트남	37	16	 인도네시아	15	25	 이탈리아	7
7	 태국	32	17	 우즈베키스탄	12	25	 페루	7
8	 영국	29	17	 키르기스스탄	12	28	 모로코	6
9	 인도	23	17	 필리핀	12	28	 스페인	6
10	 독일	21	17	 호주	12	28	 싱가포르	6

*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KFTC센터 (2024). 세계 한국학 현황 지도.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그림 V-11. 한국학 강의 설치 주요 국가

② 프로그램 내용

이와 같이 한국학과 문화 전파 확산 및 이를 매개체로 한 청년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운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학과 문화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대상의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취창업을 준비생이나 대학생 가운데 한국학과 문화교류에 관심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학 및 문화 네트워크 아카데미(가칭)’를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개설하여 우리나라 청년 및 해외 유학 온 외국 청년 대상으로 한국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하여 일자리로 확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취창업 컨설팅으로 연계해 운영해 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과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은 2024년 기준 19,634백만원 예산을 토대로 해외 대학 내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객원교수를 파견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공자 및 연구자 확산을 통해 한국학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의 경우 한국학 발전 초기 단계 지역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학 강의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한국어학 전공자이거나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쳐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과학기술 영역에 특화되어 우리나라 청년 해외 일자리 취창업 등의 사업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할 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당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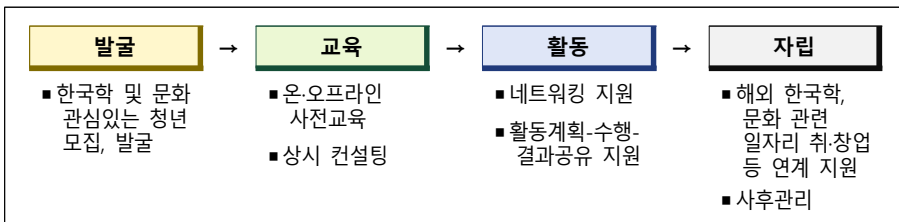


그림 V-12. 한국학 및 문화 전파 확산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 절차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전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펠로십, 대학원생 장학지원, 박사후 연구 펠로십, 방한 연구 펠로십, 외교관·공무원 한국어언어문화 연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망에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3. 프로그램에서 구현해보고자 한다.

표 V-7.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구분	사업내용	추진계획
한국어펠로십	해외 한국전공 학부생, 석박사 과정생에게 방한 한국어 연수 기회 제공	· 한국어 36개국 54명 내외
대학원생 장학지원	해외 주요대학의 한국관련 전공 석박사 과정생에게 장학금 지원	· 150명 내외
박사후연구펠로십	한국 관련 박사학위 취득 신진학자가 해외 주요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20명 내외
방한연구펠로십	한국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방한 연구 지원	· 21개국 33명 내외
외교관·공무원 한국어언어문화연수	외교관, 국제협력관 등을 위한 방한 한국어문화 연수 기회 제공	· 31개국 31명

*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2024). 2024년도 업무현황 보고자료. 내부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한국문화 해외확산을 위하여 문화교류협력사업으로 2024년 기준 10,361백만 예산으로 우수한 한국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화공공외교 사업을 개최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이 사업 또한 한국전문 기금 큐레이터직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미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어 관련 사업과 청년정책에서의 청년 예술가 지원 등 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문화 및 예술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8.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3. 운영 주체 및 방안 예시

참여대상	액션 유형(Action Type)	연계 프로젝트
대학(원)생	한국어·한국문화·한국문화 전공 및 학위과정생 대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연계 한국학 교원 및 객원 교수 파견, 한국학 온라인 강의(KF글로벌 e-스쿨), 한국전문가 육성 사업 연계
청년 예술가	청년예술가들이 지속적인 발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공연이나 전시 활동 등을 지원해주고 해외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플랫폼 마련	·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계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대상으로 작품제작 발표비용 지원,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사업에 해외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청년	한국어학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청년 대상으로 한국의 고유 콘텐츠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상호 간 인적, 물질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청년 육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창업 프로그램의 확장된 개념으로 한국의 지역 브랜드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③ 도식(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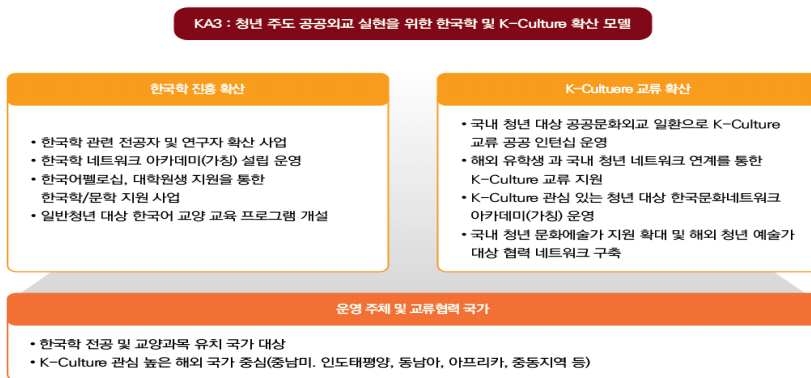


그림 V-13. 한국형 Erasmus+ Key Action3.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안)

④ 효과성(기대효과)

공공민간영역의 청년단체, 기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한국학 및 문화 전파 확산을 꾀하고자 하는 Key Action 3 이 구현되면 우리나라 청년 대상으로 한국학 및 문화 전파를 위한 통로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교육, 일자리, 참여의 경험 폭이 확장될 것이라 본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과 문화교류 확산 사업의 경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있는 학자, 예술가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기형성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나라 학문이나 문화에 관심이 깊어 유학, 방문한 해외 청년들과 국내에서의 교류 네트워크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공공문화외교의 일환으로 한국학과 문화전파를 매개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 본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형 Erasmus+ KA1~KA3 구축을 통해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U Erasmus+ 프로그램과의 연계 확장을 통한 국내 청년들의 참여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적 효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함양을 통해 글로벌 시티즌십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이 주 타겟층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인턴십 등을 통해 일자리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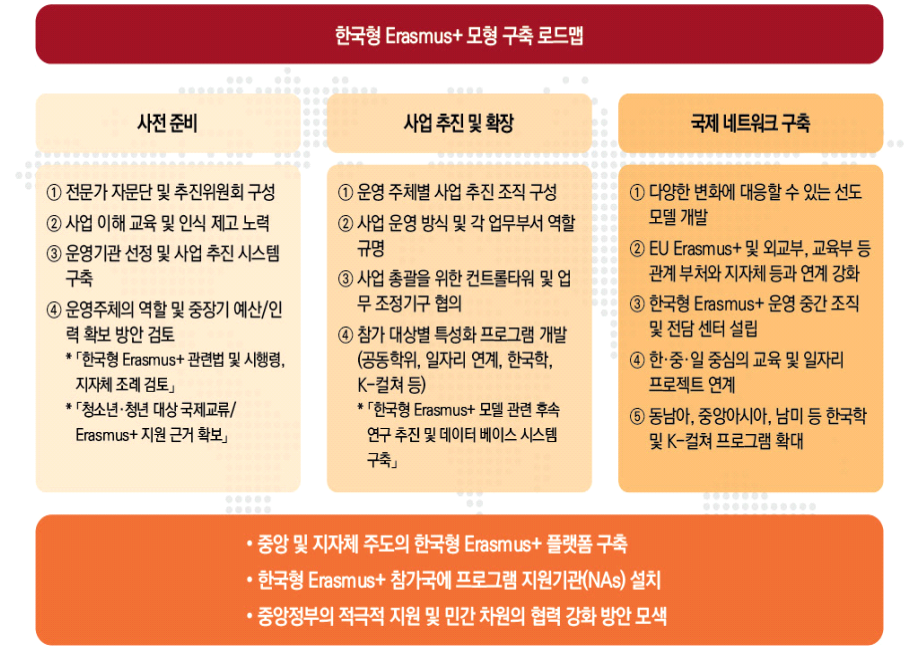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외교로서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청년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끝으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나 북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Erasmus+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청년 간 교류를 통해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 청년 참여 네트워크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협력하였을 때 공공외교로서도 큰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4차 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등 글로벌 전환기에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미래 문제 해결에 청년의 목소리

가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차원의 인식이 확장되는 것과도 연결된다.

표 V-9. 한국형 Erasmus+ Key Action 1~3.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교육적 효과	경제적 효과
•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및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 국제사회 이해 및 글로벌 감수성 함양, 해외 연수 및 인턴십을 통한 실무 능력 함양	• 프로그램 국가와 교역 및 관광 수요 확대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역량 강화 • 국제협력으로 참가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 •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시장 확대
사회·문화적 효과	정책적 효과
• 다양한 국제활동 및 문화 교류 활성화 • 문화 외교를 통한 K-콘텐츠 확산 및 강화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 유도 • 국제 협력 선도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	•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단체 협력 강화 • 교육 혁신 토대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 검토 • 한국형 Erasmus+ 의 법적 근거 마련



4. 한국형 Erasmus+의 청년정책 연계 운영 방안

본 연구는 청년 대상의 국제교류 방안으로서의 한국형 Erasmus+를 구축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모델의 Key Action 3. 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확산(안)도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사업과 해당 영역을 연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의 교육, 일자리,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에서의 활동 발판을 확장하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영역별 국제교류 사업 분석

2024년도 기준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청년정책 가운데 교육, 일자리, 문화복지, 참여권리 영역에 있어 국제교류 또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 V-10>과 같다. 일자리와 참여권리 영역이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 주체의 교환학생이나 공동학위를 제외하고 청년 일자리 교육, 평생 교육 등과 연계한 측면에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생 사업을 제외한 이후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자리 연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타영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존 청년대상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외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 해외진출이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존재하였고 예산 측면에 있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청년예술가 지원이나 게임 산업을 해외에 홍보하는 형태의 사업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2024년에는 해외 진출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외교부 사업이 가장 많이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시도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중심으로 청년정책 가운데 국제교류 또는 해외진출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년 대상 인턴십이나 해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었고 해외 청년과의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전파 확산하기 위한 공공외교로서의 목적을 지닌 청년대상 정책사업도 최근에 와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예산이나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10. 2024년 국제교류(해외진출)관련 정부 부처 단위 청년정책 사업

영역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관련법
교육	미래에너지인 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	58,921백만원	○ 에너지법 제16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30조 ○ 해외자원개발법 제10조
	스마트시티 혁 신인재 육성	국토교통부	1,200백만원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건축설계 인재육성	국토교통부	1,020백만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9조
일자리	해외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57,540백만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농식품 분야 해 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77백만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체육분야 (스포츠산업) 인턴십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360백만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9조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033백만원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5조 제2항
	국제음서버 인력양성사업	해양수산부	1,200백만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조달청	213백만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지역전문가 양 성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2,682백만원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4호 및 제③항, 제8조 제①항
	K-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백만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창업성공 패키지 (글로벌창업사 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547백만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글로벌 액셀러 레이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9,915백만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영역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관련법
	TIPS(팁스)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428,400백만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85백만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반조성 5,200백만원 콤플렉스조성 4,890만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 제1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570백만원	- 문화기본법 제9조 제1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
	산림산업 창업지원	산림청	1,700백만원	- 산림기본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21조의2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9조의 2~4 - 청년기본법 제17조, 제19조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	법무부	5.6백만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5항 제4호, 제5호
복지 문화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청년예술가도 약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26백만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8조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500백만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여 권리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외교부	1,162백만원	-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외교부	115백만원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영역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관련법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359백만원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MOU 및 기구측과 협의 결과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475백만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 3항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재외동포청	257백만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촌진흥청	1,331백만원	◦ 농촌진흥법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AFLO)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40백만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제17조
	해외산림청년 인재 육성	산림청	246백만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8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인턴	국토교통부	242백만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 2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75,865백만원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글로벌 챌린저)	외교부	1,837백만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9,774백만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	13,331백만원	◦ 교육기본법 제29조 ◦ 고등교육법 제23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외교부	460백만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국가보훈부	523백만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교육, 복지문화, 일자리, 참여권리. 2024.3.재구성

2) 한국형 Erasmus+ 과의 연계 사례 제안

(1) Key Action 1.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확대

①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외교부) 연계 사례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2022년부터 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필요성	- 청년층의 다양한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 한-일 및 한-중청년교류, 한-아세안 청년교류 확대 기반 조성 - 신남방, 신북방 국제외교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기대
■ 주요내용	- 청년 주도형 사회 국제교류 및 국제활동 추진 - 한·일대학생교류, 한·중청년교류, 한·베청년교류, 공공외교 캠프
■ 관계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6조
■ 소관부처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한국국제교류재단
■ 예산지원(안)	국비(국제교류기금) 100%, 예산증가 계획 수립
■ 추진체계(안)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현재는 한·일대학생교류 및 한·중청년교류, 한·베청년교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EU Erasmus+ 프로그램 참여 방안 모색과 한국형 Erasmus+ 구축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청년교류의 내실화와 더불어 한·아세안 청년교류, 한·중앙아시아 청년교류 등을 통한 신남방과 신북방 공공외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가 상호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협력체계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와 기금 형태로 예산확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접근방식이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외교부) 연계 사례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챌린저’라는 사업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KF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한 다음 국제기구 인턴십과 한국어교육 인턴십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는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으로 통합 브랜딩하고, 2023년 ‘KF 글로벌 챌린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 필요성	• 우리나라 청년의 전문성 함양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글로벌 챌린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따른 단계별 성장 지원 • 국내외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청년 진출 활성화
■ 주요내용	• 해외 유수 분야별 전문기관(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인턴십 활동 • 차세대 청년들에게 국내외 교육활동 및 체험 기회 제공
■ 관계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6조
■ 소관부처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한국국제교류재단
■ 예산지원(안)	• 국비(국제교류기금) 100%, 예산증가 계획 수립
■ 추진체계(안)	•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글로벌 챌린저 사업의 특징은 기 파견자 대상 현지 조사 결과, 해외 및 국내 취업률 (69.4%)로 나타나 청년들의 국내외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한 계층 청년들의 해외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들의 합격 비율이 상승(전년대비 16.1%)하고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이 사업은 금년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Erasmus+ 모델의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부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 인턴십 파견처를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진출 분야를 국제기구와 연구소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청년들의 ‘글로벌 챌린저’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24~’28년 사업계획서에 드러난 전체 예산과 참여 대상자 수(청년) 모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거나 예산의 일부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사업의 성과와 수요조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③ 국제기구 청년 진출 지원사업(외교부) 연계 사례

국제기구 청년 진출 지원사업은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은 32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소지자로 2023년 25명, 2024년 25명을 각각 신규 파견하도록 계획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4).

■ 필요성	-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청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 국내외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청년 진출 활성화
■ 주요내용	- 국가의 비용 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을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파견 - 유엔 현장사무소에 봉사단으로 근무하여 기술 습득, 네트워킹 확대 및 국제적 경험 기회 제공
■ 관계법령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외교부예규 제242호) 「한·UNV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소관부처	외교부
■ 예산지원(안)	- 국제기구초급간부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 '23년(9,410 백만원) → '24년(13,942 백만원) 증가 - 유엔자원봉사단 - '23년(4,860백만원) → '24년(5,832백만원) 증가
■ 추진체계(안)	외교부(유엔과) 직접 추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사업의 추진 절차는 외교부와 국제기구가 선발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담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선정 과정은 Key Action 1. EU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와 유사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는 한국형 Erasmus+ 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이하 UNV) 파견 절차는 우리의 파견 희망 규모와 UNV측 예산 필요금액 협의 후 한·UNV간 서한 교육 및 기부금 납부에 따른 UNV측의 후보자 선정 및 파견 등으로 진행된다. 두 사업 모두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수의 국제기구

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파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 Key Action 2. 중앙부처 청년정책 중심 일자리 연계

① 해외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연계 사례(안)

중앙부처의 해외 진출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취업 알선과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본 연구의 Key Action 2의 일자리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성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알선,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및 취업 후 정착 등 사후관리 지원 • 청년 미취업자의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해외 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과정 K-Move 스쿨 확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 대학 등 연수기관 참여 확대 • 사업추진기관 확충 등 지원체계 개편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2조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예산지원(안)	• 2024년 : 57,540백만원 (현행) • 2025년 : 60,000백만원 • 2026년 : 75,000백만원
추진체계(안)	• 고용노동부실 → 사업추진기관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운영, 해외취업정착금 지원, 연수기관으로 대학 참여, 취업연계 민간기업 참여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도의 경우 57,540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합동, 2024).

본 사업에서 K-Move 스쿨의 경우 주로 국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

대상 연수과정을 취업 대상국과 교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양국 청년들의 상호 모집과 양성으로 확대하는 등 Key Action 2 의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해외취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연계 사례(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은 해외 주요시장별 실무형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재학생 대상의 교육과 실습,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 필요성	• 해외 주요시장별 실무형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재학생 대상 교육 및 실습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 필요 • 지방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도모
■ 주요내용	• 해외 특화지역별 어학, 상관습, 시장진출전략, 국내외 전시마케팅 및 상담, SNS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산업 수출 등에 관한 교육 및 실습 • 수출 프로세스별 산학협력업체 지원
■ 관계법령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8조 제1항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지원(안)	• 2024년 : 2,796백만원 (현행) • 2025년 : 3,500백만원 • 2026년 : 4,000백만원
■ 추진체계(안)	• 산업부 → 한국무역협회 → 대학 → 산학협력업체 및 지자체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와 대학, 산학협력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특화지역별 어학 및 상관습, 시장진출전략에 관한 교육, 국내외 전시마케팅 및 상담 지원, SNS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산업 수출 등에 관한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는데, 수출 프로세스별 산학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상국가에 인력을 장기 파견하여

지역전문가로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본 사업의 경우도 국내 프로그램 위주에서 해외 현지와 상호 교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양국의 청년들이 일자리 교류가 가능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사례(안)

청년의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을 통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Date, Network, AI 등 신기술 분야의 창업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창업 인력 양성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을 보육 및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병행하고 있다.

■ 필요성	• Data, Network,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창업을 위한 인력 양성 필요 • 인력양성을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육성
■ 주요내용	• 글로벌 기업, 국내외 Data, Network, AI 분야 전문가 특화교육 및 프로젝트 실습 • 창업성공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공간 제공 • 글로벌 창업기획자 보육 등 글로벌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 소관부처	• 중소기업부
■ 예산지원(안)	• 2024년 : 13,547백만원 (현행) • 2025년 : 20,000백만원 • 2026년 : 25,000백만원
■ 추진체계(안)	• 중소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실제 사업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주로 신기술 분야인 Date, Network, AI 분야에 특화하여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한 창업의 사업화 지원과 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공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Date, Network, AI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 간 전통적인 경제 및 산업 환경의 차이를 상쇄하여 상호 협력 개발 및 연계 산업화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창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신기술 분야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역량을 육성하고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그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다.

(3) Key Action 3 . 청년 주도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학 및 K-culture 확산

①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사업 (외교부) 연계 사례(안)

중장부처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청년들의 국제업무 역량 강화와 파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정책 인턴십일자리 지원,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으로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본 사업은 일반 청년 가운데 만19~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일정 기간 동안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기존 인턴십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어 사용 국가의 국제업무 분야 일경험을 제공하고 대상 아웃리치 통한 차세대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파견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홈커밍데이 개최하여 기존 파견자와 신규 파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해 갈 수 있기 위한 노력이 있다.

■ 필요성	• 재외공관 파견을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확보 • 청년 대상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경험 지원
■ 주요내용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정규사업으로 시행, 만19~29세 이하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일정 기간 동안 재외공관 파견을 통해 문화외교,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지원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제13조, 제15조2항,3항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산지원(안)	• 예산 현행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 현재 외교부 직접 사업으로 진행 - 재외공관 수요조사 → 파견공관 선정 → 선발 및 파견 → 실습 종료 후 정산 및 수료증 발급

해당 사업의 경우 현재 국비 100%로 운영되고 있고 2013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준도 대학(원)생이나 특정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관련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 다수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 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취약계층 청년들이 국제교류 및 해외경험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때 사업 효과 뿐 아니라 정책적인 함의도 포함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 한국형 Erasmus+ KA3에서의 한국문화 전파 확산 프로그램과의 접목을 시도할 경우 재외공관에서의 문화외교 및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홈커밍데이를 운영하여 기존 파견자와 신규 파견자 간의 정보 소통 교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에서의 지속가능성 목적을 위한 참여자 간 네트워크 강화 측면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본 사업을 공공외교 현장 실습으로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해외 공관 뿐 아니라 U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 (문화재청) 연계 사례(안)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유산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전파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과의 한국형 Erasmus+ 연계를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및 정책기획, 홍보, 모니터링, 자원봉사, 청년활동 역량강화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고 확산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우리나라 문화를 기반으로 공공외교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청년 네트워크와 해외 청년 네트워크와의 교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 확산 방안으로는 현재 한국교류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우수한 K-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글로벌 거점 활용 도시 및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 네트워킹, 한국 특별전시와 공연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략국가로서 일본과 중국을 지정하고, 교류미진지역으로 아프리카, 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국제교류재

단, 2024).

이와 같이 청년을 공공외교 정책 주체로 해외 지역에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향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킨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존의 글로벌 문화교류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차세대 글로벌 세대로 청년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 관련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

■ 필요성	• 청년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세계 유산보호 참여기회 확대 • 청년 주도적인 활동 기반 해외 청년활동 행사 참여를 통한 교류 소통 기회 마련
■ 주요내용	• 청년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및 콘텐츠 개발 등 정책 기획, 세계 유산 홍보, 교육, 모니터링, 환경 정화 등 자원봉사 활동, 청년활동 역량 강화 교육 등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지원 등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 활동 육성, 지원), 「청년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예산지원(안)	• 예산 현행유지 또는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사업예산 미증액으로 충분한 활동비(인당 활동비 연50만원) 지급지원이 부족하여 참여를 확대하거나 활동 지원이 어려움 존재
■ 추진체계(안)	• 문화재청 →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대상 및 예산 확대 → 지자체 청년 및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청년 모집을 위한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또는 청년단체와의 연계 필요

5.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1)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한국형 Erasmus+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6개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형 Erasmus+ 의 3대 원칙은 청년 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청년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V-15. 한국형 Erasmus+ 추진 방향

이에 해당 모델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전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로 “도전하는 모든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청년이 공공외교 실현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발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과제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한국형 Erasmus+ 구축운동을 위한 추진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V-11. 한국형 Erasmus+ 구축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정책 방향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도전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격차 해소	1. 청소년·청년 친화적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	1)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개정 방안 2) '청소년·청년 국제교류센터' 확장 운영을 통한 유기적 국제 교류의 장 마련 - 국제교류 DB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및 사전사후교육 (활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촉촉하고 강한 네트워크망 구축 지속가능성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마련	1) 참여 주체 간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 운영 2) 청소년·청년 국제교류의 중장기 공동 목표 수립 및 국내외 참여자 대상 멤버십 확보
청소년·청년의 삶 및 공공외교 주체로서 참여 확대 참여와 주도	3. 청소년·청년 주도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1)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설계 참여 2)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형 Erasmus+ 네트워크 구성 운영
도전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공외교 실현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발판 마련		

2) 정책제언 도출 과정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 당사자인 청년층 대상 인식조사 및 FGI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등과 정책실무연구협의회 및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시행하면서 청년 국제교류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한국형 Erasmus+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과제 및 목표를 선정하였다.

표 V-12. 한국형 Erasmus+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근거 및 운영방식

영역별 정책		근거			정책 도출 근거			
		Key Action			문헌분석 및 선행 분석	설문조사	FGI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
		KA1	KA2	KA3				
정책과제								
1.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재개정 방안		○	○	○	●	●	●	
2) ‘청소년·청년 국제교류센터’ 확장 운영을 통한 유기적 국제교류의 장 마련 - 국제교류 DB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및 사전사후교육(활동)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	○	●		●	●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1) 참여 주체 간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 운영		○	○	○	●		●	●
2) 청소년과 청년 국제교류의 중장기 공동 목표 수립 및 국내외 참여자 대상 멤버십 확보		○	○	○	●	●	●	●
3. 청소년·청년 주도의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1)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계 참여		○	○				●	●
2)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한국형 Erasmus+ 네트워크 구성 운영			○	○	●		●	●

3) 국정과제 청년정책과 본 연구의 정책과제와의 연계성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청년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이다. 또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때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국정과제 영역과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화 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교육부, 청년당사자 그룹, 서울경기·제주도 의회 등 다양한 정책 협력 주체와 정책에 대한 실천 방안 논의를 하였다.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청년 위원회, 청년 단체뿐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 갈 것이다.

표 V-13. 국정과제와 본 연구 정책과제의 연계성

한국형 Erasmus+ 구축운영 정책과제 1.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3. 청년 주도의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세부과제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4	과제5	과제6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취업지원 혁신		●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	
	미래역량 강화 지원		●				
	교육 부담 완화	●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 약의 기회보장	공정기반 구축	●			●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				
국정과제 92. 청년에 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참여 확대		●	●	●	●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방 및 민간 협업		●	●	●	●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한국형 Erasmus+ 구축운영 정책과제	1.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3. 청년 주도의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청년정책 인프라	●	●	●		●	
	법제 개선	●					●
	국정과제 96. 자유민 주주의 가치와 공동이 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관계		●		●	●
		한중관계		●		●	●
		한일관계		●		●	●
	국정과제 97. 함께 번 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			●
		지역별 맞춤형 협력추진		●			●
	국정과제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 가 역할 강화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		●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		●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			●

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 방안

본 연구에서는 23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제안하는 정책과제와의 연계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년정책 중 국제교류 또는 해외진출 사업에 반영되어 청년들의 국제교류 정책 사업이 국제교류를 원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효과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자 한다.

표 V-1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안)

구분	지속	신규	확대
일자리	- 청년수요 반영 일경험 활성화 -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대폭 확대 - 글로벌 창업 준비 초기단계 기업에 해외진출 지원 ※ (TIPS)창업기획자, 초기 전문VC 등으로 구성된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자금 등 매칭 지원('22년 500개→'27년 1천개)	-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청년인턴 채용 확대 방안 마련(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 +a 지원) - 글로벌 청년사관학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확대 지원	
본 연구 연계방안	대학, 기업등 소속되어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청년, 취약계층 청년층도 일자리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해외 청년기업 대상 창업지원 컨설팅 플랫폼 마련 등	- 해외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신규 확대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	- 대학비진학청년 교육비 지원 - 핵심 첨단분야 범정부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지역인재 양성 지원 - 대학생 및 청년 진로지원 강화	대학비진학 청년 대상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동 프로그램 설계 운영	첨단분야 해외기업 탐방 및 장학 지원예산 및 참여자 확대 노력
본 연구 연계방안	대학비진학, 지역청년, 졸업유예생 등 다양한 청년이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한·미·일 청년 한국 첨단기업 탐방 프로그램(교육부) 확대를 통해 첨단분야 공동학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온오프라인 연계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복지문화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 -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
본 연구 연계방안	한국학 및 K-Culture 교류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주체로서 청년 네트워크 구축 활용	- 취약계층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한 지원 대상 사각지대 해소 방안 - K-Culture 교류 확산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청년 예술가 지원 방안

구분	지속	신규	확대
		목적의 청년대상 공공 외교 프로그램 확대 운 영 방안 마련	
참여권리	• 법령예산 관련 청년정책 지원기반 확 대 강화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 운 지표 마련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 체적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 • 글로벌 이슈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국제교류 지원 •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 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뒷받침	• 온라인 종합플랫폼 개 선, 확대를 통해 각 부 처 지자체 청년정책 연 계, 정보 통합 제공 • 청소년 국제교류 센터 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국제교류 프로 그램 개발 확대
본 연구 연계방안	•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 조 및 기능 재편성 • 청소년·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교 류 및 해외진출 관련 정책 사업 정보 DB구축 및 참여자 네트워크망 운영 관리	• 청년이 주도하에 공공외 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젝 트 기획 운영 •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국제교류의 공 정한 기회 마련	• 글로벌 청년기후환경 챌린지, 국제 청년 서 밋 등 글로벌 이슈 중 심의 청년 교류 네트워 크 유지 확대 노력

6. 한국형 Erasmus+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개정 방안

•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의 공공외교 지원 활동 추가 -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청년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 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2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 중단이라 취약계층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발생하는 부분 개정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 예산지원(안)	• 예산 현행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1)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①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원하는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소속이나 상황에 제약없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대상 정책인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접근을 하였을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도적 인프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청년친화적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실천과제로 「청년기본법」개정을 통한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있는 경우에 청년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청년 국제교류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은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 창업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 주거지원(제20조), 청년 복지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GI와 정책세미나 때 청년당사자 및 국제교류 담당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볼 때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은 일자리, 창업, 문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데 국제협력 지원이 별도의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청년 해외취업지원에서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취약계층, 지역과의 협업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내용의 경우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수급과 취업정보와 전산망이 구축되어 대학이나 기업에 소속되지 못한 경우 해당 해외 체험을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는 창업, 공공외교, 문화활동 지원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청년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국제교류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국제교류 활동의 중간조직으로서 청년지원센터도 고려해볼 수 있어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청년들이 국제교류 사업에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② 주요내용

청년 정책의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 가운데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에 있어 기존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향상)와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2023년 추가 신설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 취창업, 문화 활동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해외진출 및 공공외교 활동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단위로 흩어져 있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청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곳이 필요하기에 이를 청년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작업도 시행하였다.

표 V-15. 청년기본법 개정(안)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 지역소속소속 지위 등의 격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등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동, 공공외교 활동, 그 외 해외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국내외 청년 국제교류, 해외진출 및 공공외교 관련한 청년지원 사업(신설) 6.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4b)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역 청년 지원 확대

①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교류의 진입 기회 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부처 청년정책 가운데 해외 인턴십 파견이나 해외진출 관련 사업의 경우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어 6개월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해당 국제교류나 인턴십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일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일 경우, 상당수가 생계지원이나 다른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르면 수급자기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중단되고 있어 실제 수급을 받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항공료 전액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들의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파견 기간을 연장해서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제재비에 있어서 1인당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취약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체재비 증액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② 주요내용

취약계층 청년의 국제교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원 노력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외교 또는 국제교류, 해외 일자리 인턴십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 한해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년기본법」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등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동, 공공외교 활동, 그 외 해외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이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에서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의 참여의 폭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시 사전 교육이나 체재비 지원 등 국제교류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과 같이 취약계층 청년들의 국제교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유연하게 개정하여 청년들이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V-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청년 기본법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 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2. 6. 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 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2. 6. 21.> 중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단,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예외 적용한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기초생활보장법_시행령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2) ‘청소년·청년 국제교류센터’ 확장을 통한 유기적 국제교류의 장 마련

- 국제교류 DB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및 사전사후교육(활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① 필요성

본 연구에서 청년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통로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도 기존에 관련 부처에서 프로그램 경험이 있거나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추천받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부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서 참여 지원을 한 경우가 다수였다.

한편, 일반 청년들의 경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어떠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을 하는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때 담당 사업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중앙부처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청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지 않는 신규 사업의 경우, 지원자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즉,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중앙부처와 정책 수요자인 청년 모두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두 주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청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에 일회성 사전 교육 보다는 실제 필요한 언어, 문화이해, 업무 수행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또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 경험이 적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요구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담당자 대상 면담에서도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다른 청년정책사업과 다르게 청년들의 기초 언어능력이나 경험이 실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발 할 때부터 해당 영역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다른 청년정책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고, 사업 참여 이후에도 해당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갈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② 주요 내용

2024년도 중앙부처 시행 사업 가운데 참여권리 영역 가운데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국무조정실)’ 과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사업과 청년 국제교류 사업 연계를 제안한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은 청년 정책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 전달체계의 경우 일자리 정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부처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정책의 통합, 연계를 위한 온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이 플랫폼을 통해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를 연계해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청년 대상 국제교류 사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 체계를 살펴볼 때 각 부처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정책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 작성 방식이나 정보의 양이 모두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도 예산이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라 이에 따른 후속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와도 연계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국제교류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제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준비 중인 오프라인 지원체계의 경우,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광역기초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전달체계로 삼아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통합지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기능에 부처 단위로 시행 중인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실제 지원하여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EU의 Erasmus+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Erasmus+ Mundus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대상의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연계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및 문화교류확산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청년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청년국제교류센터(가칭)’을 신설하여 온오프라인으로서 청년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청소년과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청년의 경우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요구와 경험이 높은 것을 반영할 때 청소년 시기의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까지 미치는 영향을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와 국제교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주요내용	•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정보 DB 및 사전·사후교육활동 연계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 체계(국무조정실)와 청소년 국제교류네트워크(여성가족부) 활용 •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국무조정실)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참여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를 대체하고 기존 청년정책 정보 공유 기능의 한계를 극복한 청년 국제교류 사업 중심의 온오프라인 기능으로서 ‘청소년·청년국제교류센터’ 확장 운영 제안 • 기존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국제교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기를 이어주는 생애주기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확충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24조의 5, •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의 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 예산지원(안)	• 청소년·청년 국제교류네트워크 및 국제교류센터 예산 확장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 국제교류 사업 관련 중앙부처 → 청년 국제교류 관련 지자체 및 청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지자체 청소년센터 와의 협업 네트워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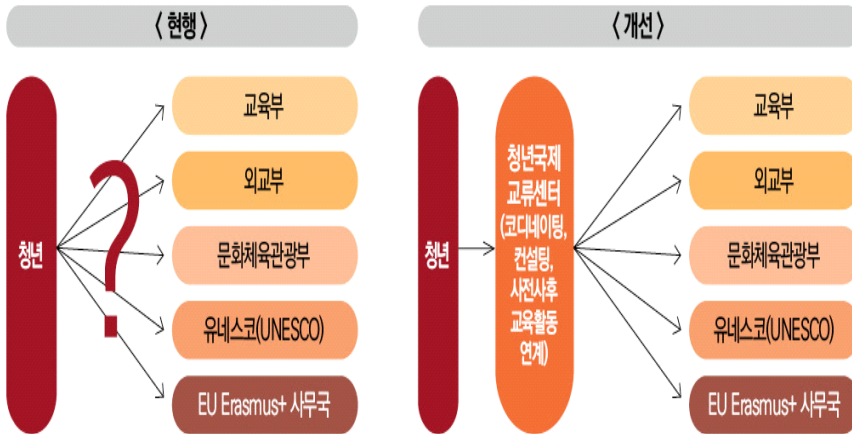


그림 V-16. 청년·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운영 체계(안)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1) 참여 주체 간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 운영

① 필요성

국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주체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며 강화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변동성이 높아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 측면을 볼 때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긴밀한 교류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일, 한-중 간의 국가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어렵기도 하였다. 국가 단위에서의 청소년·청년의 국제교류는 지속성이 기반되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교류가 가능해 온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만 삼고 진행하는 국제교류에서 학교, 공공기관, 청년단체 등의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한 방식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운영 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② 주요 내용

국제교류는 상호 주체 간의 신뢰가 기반 되었을 때 국가 관계 등의 외부 변수가 작용하더라도 변동 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교류 운영 주체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운영되는 청년 대상 국제교류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할 때 국가 중앙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 보다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민간 단체 등을 토대로 운영한 것을 기반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수원시 국제교류 추진 조직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운영주체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예산지원이나 행정 운영 차원에서 독립성을 띄고 있어 실제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장점을 지닌다. 또한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어 부처 직접 운영 사업들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정부 단위로 연결하여 운영하기 보다 해당 국가 내 대학,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관리가 동반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구조로 연계되었는데 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사례를 제외한 국제교류 사업들은 중단되는 경우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교류의 특성 상 국가 단위로 직접적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사업 기관 또는 조직을 중심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사례로서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2024년 기준, 15개의 국제자매도시와 4개의 국제 우호 도시와 협약을 맺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국제교류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실질적인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재단의 경우, 수원시 청소년·청년 재단,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팀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또한 지자체 행정 차원이 아니라 재단과 기관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맺은 국가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이 효과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학, 청년단체 및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국외 국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 형태의 행정구조가 요구된다.

■ 주요내용 • 중앙정부 부처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사업 운영 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국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예산 지원 및 유연한 행정절차 시스템 마련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국제교류 사업 담당 기관	
■ 예산지원(안) • 청소년·청년국제교류 지원 예산 추가 확보 필요,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기금 재원 마련	
■ 추진체계(안) • 담당 부처 → 공공기관, 대학 및 지자체 청소년센터, 청년 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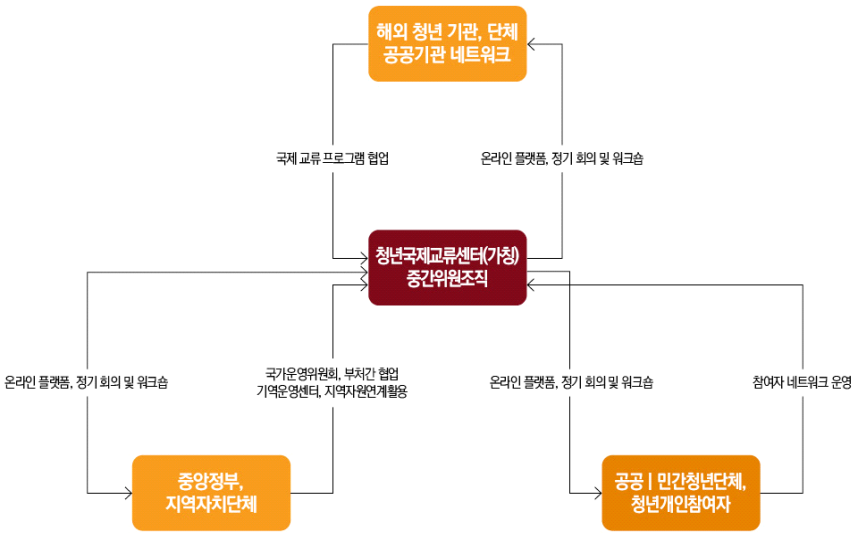


그림 V-17. 한국형 Erasmus+ 을 적용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안)

(2) 청소년·청년 국제교류의 중장기 공동 목표 수립 및 국내외 참여자 대상 멤버십 확보

① 필요성

앞서 참여 주체 간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행정 운영 차원에서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국제교류 참여주체로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관계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 Erasmus+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Erasmus+ 프로그램의 경우, 명확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였고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 또한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공고화 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진행한 FGI와 전문가의견조사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국제교류를 포함한 청년정책에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일회성 이벤트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련 활동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청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이 형성되었을 때 청년 국제교류를 참여한 청년간의 네트워크 소속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국제교류 사업 운영 주체 간의 긴밀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참여하는 청년 구성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공동 목표 수립과 이를 위한 유기적 활동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그렇다면 청년 대상으로 국제교류 사업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청년의 삶 변화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교류 사업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토대로 청년층이 공감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의 대상 청년층이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기업과 같이 소속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다수 존재하였던 반면에 한국형 Erasmus+에서는 청년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교류 을 만드는 것을 우선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와 비전 수립에 있어서도 청년 간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청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미래세대로서 전지구적 공동체의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자신을 토대로 공동의 목표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교류 영역에서 제시하는 청년 주도성과 유사한 맥락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수립한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여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목표와 목적이 형성되었을 때 청년 참여자들 또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청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비전 수립 • 국제교류 참여자 간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동기부여 마련(예: 홈커밍데이 개최, 생애주기 반영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학력기준의 다양화를 통해 학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등을 완화하고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외교부
■ 예산지원(안)	•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청년정책네트워크 내 국제교류 영역 추가
■ 추진체계(안)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신규 조직 필요

3) 청소년·청년 주도의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1)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청소년·청년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계 참여

① 필요성

청년층에게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해외국가를 방문하거나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거에 비해 해외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손쉬워졌고, 다양한 플랫폼과 통로를 통해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년 대상의 국제교류는 여행 성격의 단순한 문화탐방에서 한층 더 나아가 청년층의 일자리, 교육, 참여 측면에서 유의미한 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청년층의 국제교류 자체 활성화 보다는 청년정책으

로서 국제교류가 어떠한 방향과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년 대상 국제교류 또한 교육과 일자리와 연계하여 청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청년정책에서의 교육, 일자리 정책에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과 관련되는 사업 간 연계하여 담당 부처 업무 간 연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17>과 같이 부처 단위로 시행하는 유사한 형태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정책사업이 다수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V-1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시된 국제교류 관련 사업

참여 유형	주요 내용
해외인턴	•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 (국제기구)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민간협업) 한상기업 인턴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이후, 해당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이 내용을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가이드북 제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관련 정책 지도가 제작되어 청년층에게 확산되면, 중앙부처 간 연계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정책 정보를 토대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갈 것인지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제1차청년기본계획(‘21~’25)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청년주도형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내용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국제교류 참여 활동 방안은 청년 이 직접

예산부터 프로그램 내용, 향후 네트워크 확장 계획까지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재편성해 볼 수 있다.

■ 주요내용	• 중앙부처 간 청년정책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에서 진행중인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 연계를 통한 재구조화 작업 시행 • 부처 단위 재구조화 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정책 사업을 토대로 청년 친화적 국제교류 사업 지도(map) 제작 홍보 • 청년 주도성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 예산, 세부 프로그램 내용, 향후 발전 계획까지 기획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과제 발굴 필요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차 청년기본계획(‘21~’25)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예산지원(안)	• 부처간 연계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중복예산 절감 • 청년친화적인 국제교류 사업 지도(map) 제작 예산 마련 • 청년주도적인 프로젝트성 기획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 예산 마련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 → 국제교류 참여 청년 당사자

(2)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청소년·청년 주도의 한국형 Erasmus+ 네트워크 구성 운영

① 필요성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 수정(안) 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서 탈피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국제교류 지원을 목표로 2022년 2억7천명에서 2023년 4억5천명으로 청년 주도의 해외봉사와 일경험 사업이 지속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청년 대상의 폭과 활동 프로그램 영역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에 있어 최근 한국학·문화, K-Culture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특히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년 세대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효과성이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과정에 있어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rasmus+ 에 기반하여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글로벌 이슈 주제 국제교류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Key Action 1, 중앙부처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일자리 연계 사업인 Key Action2, 공공외교로서 확장하여 한국학과 K-Culture 교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Key Action3 을 연계하여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토대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층이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청소년·청년네트워크와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EU Erasmus+ 의 경우, 유럽연합 내 청소년과 청년 간 연대의식을 토대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주거, 교육과 관련해서도 토의하고 토론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운영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인접한 국가 중심으로 한-일-중, 한-아세안 국가 청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 학생들과 연계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각 국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부터 전지구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한국학, 문학, K-Culture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층의 공공외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면 주로 한·일대학생교류, 한·베청년교류사업, 한·중청년교류, 공공외교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아세안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이 부상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등 해당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 또한 동아시아나 미주지역과 비교할 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파트너십이 약했던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이슈를 토대로 연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국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제시하듯이 다층적 국가 협력 네트워크와의 교류가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외교로서 문화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의 공공외교 지원 활동 추가 - 제24조의 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청년 국제교류, 공공외교 관련 추가 •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 국가 청년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 공공외교(문화외교, 스포츠외교등) 사업과 청년정책과의 연계 강화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제24조, 제24조의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외교부
■ 예산지원(안)	• 청소년·청년층 주도의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외교부, 여성가족부 → 청소년·청년국제교류센터(확대), 한국국제교류재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기도 일자리재단 (2024).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s://www.gif.or.kr> 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 경기도청 (2024).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www.gg.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 고려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2022학년도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3. 8. 30.
- 교육부 (2024). 교육부 소관 청년교류 지원사업 자료. 내부자료.
- 국무조정실 (2024). 2024년도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 자료. 내부자료.
- 김창환, 유시은, 김운영 (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 대학알리미 (2024a).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편집하여 작성, 2024년 4월 20일 인출
- 대학알리미 (2024b).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편집하여 작성, 2024년 4월 20일 인출
- 대학알리미 (2024c). 외국학생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편집하여 작성, 2024년 4월 20일 인출
- 매규한 (2007). **청소년학연구방법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c).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

/청소년 기본법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d). 청소년활동진흥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_진흥법에서 2024년 9월 20일 인출](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_진흥법에서_2024년_9월_20일_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e). 한국국제교류재단법. [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서 2024년 9월 23일 인출](https://www.law.go.kr/법령/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서_2024년_9월_23일_인출)

서울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2022학년도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202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http://youth.seoul.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서울특별시청 (2024). 서울시 청년 국제교류. <http://www.seoul.go.kr>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시흥시 (2024). 시흥시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추진 일정. <http://siheung.go.kr/2023> 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시흥타임즈 (2024.1.26.). 시흥시 청소년 국제교류 “ 잘했다”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34662> 에서 2024년 7월 2일 인출.

양계민, 권오영 (2023).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 김민 (2021).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나라지표 (2024).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4년 4월 15일 인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4).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http://www.jeju.go.kr>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2024년도 업무현황 보고자료. 내부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KF통계센터 (2024). 세계 한국학현황 지도.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에서 2024년 10월 20일 인출.

한국연구재단 (2024). '23년도 한-EU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개요. 내부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소개. <https://kywa.or.kr> 에서 2024년 5월 16일 인출.

한양대학교 (2024). 대학알리미 해외 협력교 정리. https://www.academyinfo.go.kr/ui_pnh/unt/unmcom/RdViewer.do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황세영, 강경균 (20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HEF2024 (2024). JP-FACTSHEET_Erasmus+2025-2026. https://ehf-japan.org/wp-content/uploads/2023/05/JP_FACTSHEET_Erasmus-2025-2026.pdf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3). *Erasmus+ Annual Report 2022*.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24a).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23>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4b). *Erasmus+ programme Guid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24c).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portal (FTOP).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home> 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4d). Organisation Registration system. <https://webgate.ec.europa.eu/erasmus-esc/index/>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a). Search Project. <https://erasmus-plus.ec.europa.eu/projects/search>에서 2024년 5월 1일에 인출.

European Commission Erasmus+ (2024b). Erasmus to Erasmus+. <https://erasmus-plus.ec.europa.eu/about-erasmus/history-funding-and-future> 에서 2024년 5월 1일 인출.

EuroPhilosophie (2024). Le projet Master Erasmus Mundus EuroPhilosophie (2006-2023) est désormais clos. <https://europhilomem.hypotheses.org/> 에서 10월 2일 인출.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018). Global 30 Project. <https://www.jsps.go.jp> 에서 2024년 5월 8일 인출.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024). about us. <https://www.jsps>.

go.jp/english/e-aboutus/index.html 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09). Initiative for Attracting Students from Abroad (Global 30).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7/03/30/1383779_06.pdf 에서 2024년 5월 8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0). Overview of international exchange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https://www.mext.go.jp/en/> 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 (2022). Japanese government(MEXT) scholarship for 2022. https://www.mext.go.jp/content/20210510-mxt_gakushi02-000014806-02.pdf 에서 2024년 5월 8일 인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9).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www.mofa.go.jp/files/000527155.pdf> 에서 2024년 5월 8일 인출.

Outreach Hannover (2024). Youth work for career management with different abilities' youngsters. <https://outreach-hannover.de/youth-work-for-career-management-with-different-abilities-youngsters/> 에서 2024년 8월 5일에 인출.

Zver, M. (2023).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rasmus+ programme 2021-2027*. European Parliament Report.

○ — 부 록

부 록

청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인식 및 정책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_____입니다.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모형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인식 및 정책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책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05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A. 응답자 선정 및 공통 문항

문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A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19세 미만, 34세 초과 응답자 OUT

문A8) 귀하의 가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문A9) 귀하는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A9-1) (문A9에서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만) 해외에 어떤 목적으로
나가셨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여행
② 교환학생(학점교류)
③ 업무 출장
④ 어학연수 등 교육
⑤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⑥ 취업
⑦ 기타 ()

문A9-2) (문A9에서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만) 해외에 얼마나 있다가
오셨습니까?(가장 길게 있다고 온 경우를 기준으로)

- ① 일주일 내외
② 일주일 ~ 1개월 이내
③ 1개월 ~ 3개월 이내
④ 3개월 ~ 6개월 이내
⑤ 6개월 ~ 1년 이내
⑥ 1년 이상

PART B. 국제교류에 관한 일반 인식

문B1) 국제교류란 국가 간 또는 다양한 국적, 문화, 언어, 역사 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소통과 교류, 협력을 의미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모른다
- ⑤ 전혀 모른다

문B2)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적 이해 증진
- ②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③ 협력관계(네트워크) 구축
- ④ 학문적 발전
- ⑤ 직업적 경험 쌓기
- ⑥ 경제적 이점

문B3)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다음 형태 중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학문적 교류 ② 문화 교류 ③ 경제적 교류 ④ 정치 및 정책 교류

문B4) 귀하는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B5) 청년 시기에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미권 ② 유럽권 ③ 아시아권 ④ 그 외 권역 ()

문B6) 청년 시기에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언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대 후반 ② 20대 초반 ③ 20대 중반 ④ 20대 후반
- ⑤ 30대 초반

문B7) 국제교류의 경험을 쌓는 것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B8)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이점 중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적 이해
② 인맥 네트워크 구축
③ 언어 능력 향상
④ 다문화 경험
⑤ 직업적 경쟁력 강화

문B9) 국제교류를 주도하는 주체는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② 지자체 ③ 대학 ④ 기업 ⑤ 민간단체
⑥ 기타 ()

PART C. 대학의 학생 교류에 관한 인식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다른 국가나 대학으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 및 학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시각과 이해를 키우고,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류 국가 및 대학, 프로그램은 대학마다 다르며, 대학생들은 주로 학교의 국제교류 담당부서나 학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합니다.

문C1)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① 다른 문화 경험
- ② 언어 능력 향상
- ③ 학문적 이해와 경험 증진
- ④ 진로나 취업을 위해
- ⑤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친구 사귀기
- ⑥ 자립적인 경험과 적응력 향상
- ⑦ 다른 교육 시스템 경험
- ⑧ 그냥 쉬려고(재충전을 위해)
- ⑨ 기타 ()

- ① 경제적 부담
- ② 학업 일정과 충돌
- ③ 언어 능력 부족
- ④ 프로그램 정보 부족
- ⑤ 문화적 적응 문제
- ⑥ 비자나 여권 문제
- ⑦ 기타 ()

문C4)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다음 목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문화 교류
- ② 언어 학습
- ③ 학문적 교환
- ④ 진로 및 취업
- ⑤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 ⑥ 자립과 적응력

문C5)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C6)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은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주일 내외
- ② 일주일 ~ 1개월 이내
- ③ 1개월 ~ 3개월 이내
- ④ 3개월 ~ 6개월 이내
- ⑤ 6개월 ~ 1년 이내
- ⑥ 1년 이상

문C7)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치 않다 ⑤ 전혀 필요치 않다

문C8)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C9)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C9-1) (문C9에서 '①, ②'에 응답한 사람만)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도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 교류
② 언어 학습
③ 학문적 교환
④ 진로 및 취업
⑤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⑥ 자립과 적응력

PART D.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유럽 내에서 대학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자, 기관 및 기업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직업적 및 개인적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환 학생, 교수 및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유럽 내외의 대학 간 교류를 통해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문적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 다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럽 연합 국가 소속의 청년들 교류가 중심이고, 아직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 대학의 극소수 청년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D1) 이와 같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문D2) 다음은 에라스무스+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 의향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없음	의향있음	매우 도움없음	조금 도움없음	보통	조금 도움있음	매우 도움있음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문D3) 다음은 에라스무스+의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의 참여 의향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이해없음	이해있음	매우나약함	조금나약함	보통임	꽤나나약함	전혀나약함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문D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D4-1) (문D4에서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어떤 활동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 ① 학생 교환(교환 학기)
 ② 공동 학위과정
 ③ 교사(교육자) 교환

- ④ 교육전문가 교류
- ⑤ 기관간 협력(파트너십)
- ⑥ 기타 ()

문D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D5-1) (문D5에서 '① 있다'에 응답한 사람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문화와 언어 경험
- ② 학문적 발전과 경험
- ③ 국제적 네트워킹 및 친구 사귀기
- ④ 자립과 적응력 향상
- ⑤ 교육 시스템 비교 및 이해
- ⑥ 유럽 통합과 연계된 경험
- ⑦ 취업 등을 위한 경력 쌓기
- ⑧ 기타 ()

문D5-2) (문D5에서 '② 없다'에 응답한 사람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정적 부담 ② 언어적 어려움 ③ 문화적 적응 문제
- ④ 프로그램 정보 부족 ⑤ 비자나 여권 문제 ⑥ 국제 교류 자체에 관심
없어서
- ⑦ 기타 ()

문D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음 이점들 중 청년들에게
가장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문화적 이해와 폭넓은 시야
- ② 언어 능력 향상
- ③ 학문적 발전

- ④ 국제적 네트워킹 기회
- ⑤ 자립과 적응력 향상
- ⑥ 유럽 교육 시스템 이해
- ⑦ 기타 ()

문D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는 다음 활동 중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교환(교환 학기)
- ② 공동 학위과정
- ③ 교사(교육자) 교환
- ④ 교육전문가 교류
- ⑤ 직업훈련

문D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주체는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② 지자체 ③ 대학 ④ 기업 ⑤ 민간단체 ⑥ 기타

PART E.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적 요구

문E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E2) 청년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제교류 사업 확대
- ② 장학금 제공
- ③ 비자절차 간소화
-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 홍보 강화
- ⑤ 기타 ()

문E3) 청년들의 국제교류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부
- ② 외교부
- ③ 국무조정실
- ④ 여성가족부
- ⑤ 문화체육관광부
- ⑥ 고용노동부
- ⑦ 기타 ()

문E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E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학금 지원
- ②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 ③ 언어 교육 지원
- ④ 참여 자격 확대
- ⑤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강화

문E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연령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9~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문E7) 다음은 에라스무스+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라스무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	매우 필요 함	조금 필요 함	보통 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문E8) 다음은 에라스무스+의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각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라스무스+ 기관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 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문E9)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부 ② 외교부 ③ 국무조정실 ④ 여성가족부
 ⑤ 문화체육관광부 ⑥ 고용노동부 ⑦ 기타 ()

문E10)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치 않다 ⑤ 전혀 필요치 않다

문E11) 만약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간 청년 교류사업인
일명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치 않다 ⑤ 전혀 필요치 않다

문E12)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귀하는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E13)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치 않다 ⑤ 전혀 필요치 않다

청년의 국제교류에 인식조사 결과 (배경변인별)

부록 표-1.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지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x ²
전체		(1,023)	7.0	27.6	45.1	18.3	2.1	
성별	남성	(509)	7.5	28.5	42.8	18.5	2.8	4.119
	여성	(514)	6.6	26.7	47.3	18.1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3	17.4	45.2	26.1	7.0	56.998***
	전문대학(재/졸)	(179)	3.4	19.0	47.5	27.9	2.2	
	4년제대학(재/졸)	(678)	8.3	31.1	44.0	15.3	1.3	
	대학원(석/박사졸)	(51)	9.8	33.3	51.0	5.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8.5	31.5	42.3	16.6	1.1	44.057***
	경험 없음	(283)	3.2	17.3	52.3	22.6	4.6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2	17.3	52.3	22.6	4.6	94.037***
	일주일 내외	(315)	6.3	21.0	48.3	22.9	1.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9.1	35.5	42.0	12.6	0.9	
	1개월~6개월 이내	(108)	10.2	41.7	37.0	10.2	0.9	
	6개월 이상	(86)	12.8	46.5	27.9	12.8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8.7	31.1	40.3	18.3	1.6	31.652***
	중소도시	(304)	4.3	24.7	52.3	16.1	2.6	
	읍면	(89)	4.5	12.4	53.9	25.8	3.4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7.7	29.7	42.7	18.1	1.8	13.835
	충청권	(104)	3.8	26.0	53.8	14.4	1.9	
	전라권	(90)	7.8	21.1	48.9	21.1	1.1	
	경상권	(219)	6.8	25.6	44.3	19.6	3.7	
	강원/제주권	(41)	4.9	26.8	51.2	17.1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7.4	30.4	42.1	18.3	1.8	15.262
	충청권	(121)	5.8	21.5	54.5	16.5	1.7	
	전라권	(92)	8.7	22.8	48.9	18.5	1.1	
	경상권	(236)	7.2	26.3	44.5	18.6	3.4	
	강원/제주권	(32)	0.0	25.0	53.1	21.9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6.1	38.0	34.3	11.7	0.0	48.631***
	중층	(444)	5.4	29.7	47.5	15.5	1.8	
	하층	(442)	5.9	22.2	45.9	23.1	2.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7.0	29.7	44.5	16.8	2.0	3.713
	중위소득 미만	(468)	7.1	25.0	45.7	20.1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 국제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적 이해 증진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	학문적 발전	직업적 경험 쌓기	경제적 이점	χ^2
전체	(1,023)	28.9	28.0	26.0	8.5	4.7	3.9	17.125**
성별	남성	(509)	25.0	29.5	24.8	11.0	4.9	
	여성	(514)	32.9	26.5	27.2	6.0	4.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4.3	32.2	23.5	6.1	5.2	22.020
	전문대학(재/졸)	(179)	22.9	30.7	26.8	9.5	5.0	
	4년제대학(재/졸)	(678)	30.7	27.3	25.7	8.8	4.4	
	대학원(석/박사졸)	(51)	37.3	17.6	33.3	5.9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3.8	29.2	23.8	7.3	3.5	55.694***
	경험 없음	(283)	16.3	24.7	31.8	11.7	7.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6.3	24.7	31.8	11.7	7.8	77.662***
	일주일 내외	(315)	35.6	28.9	20.3	8.3	2.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2.0	31.2	24.7	5.6	5.2	
	1개월~6개월 이내	(108)	24.1	29.6	32.4	10.2	2.8	
	6개월 이상	(86)	44.2	24.4	23.3	4.7	2.3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8.4	30.2	25.4	7.6	4.6	9.646
	중소도시	(304)	30.6	23.4	28.3	10.2	3.9	
	읍면	(89)	27.0	28.1	22.5	9.0	7.9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3	29.0	27.8	7.6	3.9	18.755
	충청권	(104)	28.8	21.2	27.9	10.6	6.7	
	전라권	(90)	34.4	28.9	22.2	10.0	2.2	
	경상권	(219)	28.8	26.9	23.3	8.2	7.3	
	강원/제주권	(41)	26.8	34.1	19.5	14.6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7.9	29.2	27.7	7.6	4.1	19.653
	충청권	(121)	30.6	21.5	26.4	9.1	8.3	
	전라권	(92)	33.7	28.3	22.8	10.9	2.2	
	경상권	(236)	29.7	28.0	23.3	8.1	5.9	
	강원/제주권	(32)	21.9	31.3	25.0	18.8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1.4	28.5	27.0	5.1	5.1	15.958
	중층	(444)	26.4	27.9	28.2	11.0	3.8	
	하층	(442)	30.8	27.8	23.5	7.0	5.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9.9	28.8	27.6	6.5	4.1	10.683
	중위소득 미만	(468)	27.8	26.9	24.1	10.9	5.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제교류 형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경제적 교류	학문적 교류	정치 및 정책 교류	χ^2
전체		(1,023)	59.0	18.2	18.1	4.7	3.016
성별	남성	(509)	57.2	20.2	18.1	4.5	
	여성	(514)	60.9	16.1	18.1	4.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6.5	21.7	15.7	6.1	9.445
	전문대학(재/졸)	(179)	53.6	24.0	19.0	3.4	
	4년제대학(재/졸)	(678)	60.5	16.4	18.4	4.7	
	대학원(석/박사졸)	(51)	64.7	13.7	15.7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2.4	15.3	18.8	3.5	26.323***
	경험 없음	(283)	50.2	25.8	16.3	7.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0.2	25.8	16.3	7.8	33.421***
	일주일 내외	(315)	61.6	16.8	19.0	2.5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4.1	10.8	20.3	4.8	
	1개월~6개월 이내	(108)	60.2	19.4	17.6	2.8	
	6개월 이상	(86)	64.0	16.3	15.1	4.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9.8	17.6	18.3	4.3	4.276
	중소도시	(304)	58.6	20.1	16.8	4.6	
	읍면	(89)	55.1	15.7	21.3	7.9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9.1	16.9	20.7	3.3	26.992**
	충청권	(104)	51.0	23.1	15.4	10.6	
	전라권	(90)	58.9	26.7	10.0	4.4	
	경상권	(219)	61.2	17.8	15.5	5.5	
	강원/제주권	(41)	68.3	7.3	19.5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8.5	17.0	20.7	3.9	17.408
	충청권	(121)	52.9	22.3	16.5	8.3	
	전라권	(92)	57.6	26.1	12.0	4.3	
	경상권	(236)	63.1	16.9	15.3	4.7	
	강원/제주권	(32)	65.6	9.4	18.8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0	13.9	18.2	5.8	9.881
	중층	(444)	60.8	17.1	19.1	2.9	
	하층	(442)	56.3	20.6	17.0	6.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8.7	18.7	17.8	4.7	0.267
	중위소득 미만	(468)	59.4	17.5	18.4	4.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 국제교류에 대한 참여 의향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0.3	38.0	30.0	9.2	2.4	6.714
성별	남성	(509)	17.7	37.7	32.8	9.6	2.2	
	여성	(514)	23.0	38.3	27.2	8.8	2.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2.2	26.1	41.7	13.0	7.0	88.106***
	전문대학(재/졸)	(179)	10.6	26.8	46.4	13.4	2.8	
	4년제대학(재/졸)	(678)	22.9	43.1	24.6	7.7	1.8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37.3	17.6	5.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5.3	38.6	26.9	7.3	1.9	54.766***
	경험 없음	(283)	7.4	36.4	38.2	14.1	3.9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7.4	36.4	38.2	14.1	3.9	102.599***
	일주일 내외	(315)	16.8	34.6	35.9	9.8	2.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1.6	41.1	21.2	5.2	0.9	
	1개월~6개월 이내	(108)	28.7	39.8	24.1	4.6	2.8	
	6개월 이상	(86)	34.9	45.3	12.8	7.0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1.7	37.5	30.0	8.6	2.2	12.667
	중소도시	(304)	19.4	41.8	26.6	9.5	2.6	
	읍면	(89)	13.5	29.2	41.6	12.4	3.4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1.8	39.4	27.2	9.1	2.5	20.151
	충청권	(104)	17.3	34.6	32.7	12.5	2.9	
	전라권	(90)	20.0	27.8	41.1	6.7	4.4	
	경상권	(219)	17.4	42.5	30.6	7.8	1.8	
	강원/제주권	(41)	24.4	26.8	34.1	14.6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0.7	39.3	28.0	9.6	2.4	17.613
	충청권	(121)	22.3	37.2	25.6	11.6	3.3	
	전라권	(92)	17.4	30.4	42.4	5.4	4.3	
	경상권	(236)	19.9	39.8	30.9	7.6	1.7	
	강원/제주권	(32)	18.8	28.1	37.5	15.6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4.8	42.3	26.3	3.6	2.9	19.435*
	중층	(444)	19.8	41.7	28.2	9.0	1.4	
	하층	(442)	19.5	33.0	33.0	11.1	3.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19.8	41.3	28.8	7.4	2.7	8.678
	중위소득 미만	(468)	20.9	34.2	31.4	11.3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지역(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유럽권	북미권	아시아권	그 외 권역	χ^2
전체		(1,023)	40.3	32.8	26.7	0.2	14.971**
성별	남성	(509)	37.3	30.6	31.6	0.4	
	여성	(514)	43.2	35.0	21.8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9.1	28.7	32.2	0.0	39.347***
	전문대학(재/졸)	(179)	31.8	24.6	43.6	0.0	
	4년제대학(재/졸)	(678)	42.6	35.8	21.2	0.3	
	대학원(석/박사졸)	(51)	41.2	31.4	27.5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1.2	37.0	21.6	0.1	41.047***
	경험 없음	(283)	37.8	21.9	39.9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7.8	21.9	39.9	0.4	52.067***
	일주일 내외	(315)	43.5	32.4	24.1	0.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9.8	40.3	19.9	0.0	
	1개월~6개월 이내	(108)	39.8	39.8	20.4	0.0	
	6개월 이상	(86)	38.4	41.9	18.6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9.8	33.0	27.0	0.2	5.234
	중소도시	(304)	40.8	34.9	24.0	0.3	
	읍면	(89)	41.6	24.7	33.7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1.1	35.0	23.9	0.0	14.832
	충청권	(104)	41.3	31.7	26.9	0.0	
	전라권	(90)	43.3	24.4	31.1	1.1	
	경상권	(219)	37.9	31.1	30.6	0.5	
	강원/제주권	(41)	31.7	34.1	34.1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9.1	35.1	25.8	0.0	13.161
	충청권	(121)	43.0	33.1	24.0	0.0	
	전라권	(92)	44.6	21.7	32.6	1.1	
	경상권	(236)	40.7	31.8	27.1	0.4	
	강원/제주권	(32)	34.4	34.4	31.3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5.8	39.4	24.1	0.7	14.501*
	중층	(444)	40.3	35.8	23.6	0.2	
	하층	(442)	41.6	27.8	30.5	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4.0	31.7	24.1	0.2	7.529
	중위소득 미만	(468)	35.9	34.2	29.7	0.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 청년 시기 국제교류에 참여한다면 선호 시기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χ^2
전체		(1,023)	10.6	48.2	27.9	9.1	4.3	0.831
성별	남성	(509)	11.0	47.3	28.5	9.2	3.9	
	여성	(514)	10.1	49.0	27.2	8.9	4.7	19.7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7.4	47.0	19.1	8.7	7.8	
	전문대학(재/졸)	(179)	9.5	45.8	30.7	7.3	6.7	
	4년제대학(재/졸)	(678)	9.9	49.0	28.2	9.7	3.2	
	대학원(석/박사졸)	(51)	7.8	49.0	33.3	7.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11.1	50.0	26.2	8.8	3.9	6.289
	경험 없음	(283)	9.2	43.5	32.2	9.9	5.3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9.2	43.5	32.2	9.9	5.3	21.139
	일주일 내외	(315)	9.8	51.7	25.4	9.8	3.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11.3	51.1	27.3	6.1	4.3	
	1개월~6개월 이내	(108)	8.3	49.1	26.9	13.0	2.8	
	6개월 이상	(86)	18.6	41.9	25.6	7.0	7.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10.0	46.2	29.0	10.2	4.6	7.062
	중소도시	(304)	10.9	50.3	27.0	7.6	4.3	
	읍면	(89)	13.5	55.1	22.5	6.7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10.9	48.3	27.6	9.1	4.0	10.832
	충청권	(104)	11.5	45.2	32.7	7.7	2.9	
	전라권	(90)	15.6	42.2	24.4	10.0	7.8	
	경상권	(219)	8.2	50.7	27.9	9.1	4.1	
	강원/제주권	(41)	4.9	53.7	26.8	9.8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10.5	49.3	27.3	8.9	4.1	9.060
	충청권	(121)	10.7	47.1	28.9	10.7	2.5	
	전라권	(92)	14.1	40.2	26.1	12.0	7.6	
	경상권	(236)	9.7	49.2	29.2	7.6	4.2	
	강원/제주권	(32)	6.3	50.0	28.1	9.4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8.8	48.2	24.1	12.4	6.6	17.762*
	중층	(444)	9.2	49.3	32.0	6.5	2.9	
	하층	(442)	12.4	47.1	24.9	10.6	5.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10.3	49.9	24.7	10.1	5.0	8.120
	중위소득 미만	(468)	10.9	46.2	31.6	7.9	3.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 국제교류 경험이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30.7	44.3	21.6	2.9	0.5	8.638
성별	남성	(509)	27.1	46.0	23.6	3.1	0.2	
	여성	(514)	34.2	42.6	19.6	2.7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9.6	39.1	29.6	1.7	0.0	37.897***
	전문대학(재/졸)	(179)	17.3	46.9	31.3	4.5	0.0	
	4년제대학(재/졸)	(678)	33.3	44.7	18.4	2.8	0.7	
	대학원(석/박사졸)	(51)	45.1	41.2	11.8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4.9	44.9	17.8	2.2	0.3	40.947***
	경험 없음	(283)	19.8	42.8	31.4	4.9	1.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9.8	42.8	31.4	4.9	1.1	82.468***
	일주일 내외	(315)	26.7	50.5	21.9	1.0	0.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2.0	40.7	15.6	1.7	0.0	
	1개월~6개월 이내	(108)	32.4	41.7	17.6	7.4	0.9	
	6개월 이상	(86)	48.8	39.5	9.3	1.2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0.5	44.0	21.6	3.3	0.6	7.868
	중소도시	(304)	31.9	46.1	19.4	2.6	0.0	
	읍면	(89)	28.1	40.4	29.2	1.1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1.1	45.7	20.4	2.1	0.7	26.766*
	충청권	(104)	31.7	35.6	23.1	8.7	1.0	
	전라권	(90)	25.6	41.1	31.1	2.2	0.0	
	경상권	(219)	29.2	46.1	21.9	2.7	0.0	
	강원/제주권	(41)	41.5	43.9	12.2	2.4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0.6	45.8	20.5	2.4	0.7	20.695
	충청권	(121)	33.9	38.0	20.7	6.6	0.8	
	전라권	(92)	25.0	39.1	33.7	2.2	0.0	
	경상권	(236)	30.9	45.3	21.2	2.5	0.0	
	강원/제주권	(32)	34.4	50.0	12.5	3.1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9.2	46.0	22.6	1.5	0.7	5.116
	중층	(444)	30.2	46.4	19.8	3.4	0.2	
	하층	(442)	31.7	41.6	23.1	2.9	0.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3.0	45.2	18.7	2.3	0.7	9.681*
	중위소득 미만	(468)	28.0	43.2	25.0	3.6	0.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8.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언어 능력 향상	문화적 이해	다문화 경험	인맥 워크 구축	네트 워킹 능력 강화	χ^2
전체		(1,023)	33.3	23.8	23.6	14.1	5.3	22.272***
성별	남성	(509)	37.7	21.0	19.4	16.9	4.9	
	여성	(514)	29.0	26.5	27.6	11.3	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6.5	20.9	19.1	16.5	7.0	13.374
	전문대학(재/졸)	(179)	36.9	22.9	20.7	14.5	5.0	
	4년제대학(재/졸)	(678)	32.9	23.3	25.1	13.7	5.0	
	대학원(석/박사졸)	(51)	19.6	39.2	23.5	11.8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0.5	25.8	24.1	14.3	5.3	11.421*
	경험 없음	(283)	40.6	18.4	22.3	13.4	5.3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0.6	18.4	22.3	13.4	5.3	39.472***
	일주일 내외	(315)	34.6	26.7	21.0	12.4	5.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7.7	26.4	22.1	16.9	6.9	
	1개월~6개월 이내	(108)	27.8	26.9	22.2	18.5	4.6	
	6개월 이상	(86)	26.7	19.8	43.0	9.3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1.4	22.2	24.3	17.1	4.9	18.244*
	중소도시	(304)	37.5	27.0	20.4	9.2	5.9	
	읍면	(89)	32.6	23.6	29.2	9.0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0.8	24.8	23.4	16.0	5.1	14.950
	충청권	(104)	33.7	22.1	26.0	11.5	6.7	
	전라권	(90)	37.8	27.8	16.7	12.2	5.6	
	경상권	(219)	36.1	19.6	26.0	12.8	5.5	
	강원/제주권	(41)	43.9	26.8	22.0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0.3	24.9	23.6	16.4	4.8	17.024
	충청권	(121)	38.8	19.0	24.0	10.7	7.4	
	전라권	(92)	38.0	28.3	16.3	12.0	5.4	
	경상권	(236)	34.7	21.6	25.8	12.7	5.1	
	강원/제주권	(32)	40.6	25.0	25.0	3.1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7	27.7	15.3	24.8	4.4	28.663***
	중층	(444)	36.0	21.8	22.7	14.9	4.5	
	하층	(442)	32.4	24.4	26.9	10.0	6.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2.8	22.9	24.9	13.5	5.9	2.669
	중위소득 미만	(468)	34.0	24.8	22.0	14.7	4.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9.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부	대학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기타	χ^2
전체		(1,023)	41.1	32.5	14.3	9.0	2.8	0.4	7.426
성별	남성	(509)	37.1	34.4	14.7	10.4	2.9	0.4	
	여성	(514)	44.9	30.5	13.8	7.6	2.7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2.2	13.9	19.1	11.3	3.5	0.0	69.480***
	전문대학(재/졸)	(179)	36.9	24.0	18.4	17.3	3.4	0.0	
	4년제대학(재/졸)	(678)	40.1	37.8	12.5	6.6	2.7	0.3	
	대학원(석/박사졸)	(51)	43.1	33.3	11.8	5.9	2.0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1.8	33.0	14.1	8.1	2.7	0.4	3.140
	경험 없음	(283)	39.2	31.1	14.8	11.3	3.2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9.2	31.1	14.8	11.3	3.2	0.4	16.705
	일주일 내외	(315)	43.5	29.8	16.2	7.9	2.2	0.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1.6	32.0	14.7	8.7	2.6	0.4	
	1개월~6개월 이내	(108)	38.9	38.0	10.2	7.4	5.6	0.0	
	6개월 이상	(86)	39.5	40.7	9.3	8.1	1.2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8.3	33.8	15.4	8.6	3.5	0.5	10.827
	중소도시	(304)	43.8	31.6	12.5	9.9	2.0	0.3	
	읍면	(89)	51.7	25.8	12.4	9.0	1.1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0.8	32.0	15.5	8.1	3.3	0.4	20.452
	충청권	(104)	30.8	34.6	18.3	12.5	3.8	0.0	
	전라권	(90)	45.6	27.8	10.0	13.3	3.3	0.0	
	경상권	(219)	43.8	33.3	11.9	8.7	1.4	0.9	
	강원/제주권	(41)	46.3	39.0	9.8	4.9	0.0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0.4	31.5	16.4	7.9	3.3	0.4	17.180
	충청권	(121)	37.2	36.4	15.7	7.4	3.3	0.0	
	전라권	(92)	46.7	27.2	8.7	13.0	3.3	1.1	
	경상권	(236)	42.8	33.5	11.0	10.6	1.7	0.4	
	강원/제주권	(32)	37.5	40.6	12.5	9.4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9.9	39.4	16.8	8.0	5.1	0.7	26.438**
	중층	(444)	40.1	36.7	12.4	7.9	2.3	0.7	
	하층	(442)	45.5	26.0	15.4	10.4	2.7	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0.2	29.7	16.4	10.1	3.1	0.5	9.377
	중위소득 미만	(468)	42.1	35.7	11.8	7.7	2.6	0.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0.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지식)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χ^2
전체		(1,023)	10.2	33.0	39.0	15.4	2.3	5.547
성별	남성	(509)	9.2	33.0	38.3	16.1	3.3	
	여성	(514)	11.1	33.1	39.7	14.8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7	16.5	50.4	24.3	7.0	70.400***
	전문대학(재/졸)	(179)	4.5	26.3	49.2	17.9	2.2	
	4년제대학(재/졸)	(678)	13.0	36.7	34.7	13.9	1.8	
	대학원(석/박사졸)	(51)	11.8	45.1	35.3	7.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12.3	35.5	35.8	14.7	1.6	30.870***
	경험 없음	(283)	4.6	26.5	47.3	17.3	4.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6	26.5	47.3	17.3	4.2	76.028***
	일주일 내외	(315)	7.6	27.9	42.9	19.4	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13.9	40.3	32.5	12.1	1.3	
	1개월~6개월 이내	(108)	13.9	41.7	30.6	12.0	1.9	
	6개월 이상	(86)	23.3	43.0	25.6	8.1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12.4	34.4	37.1	13.7	2.4	18.829*
	중소도시	(304)	6.3	33.6	40.8	17.1	2.3	
	읍면	(89)	7.9	21.3	46.1	22.5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11.1	36.0	36.7	13.7	2.5	18.565
	충청권	(104)	8.7	29.8	43.3	15.4	2.9	
	전라권	(90)	11.1	20.0	45.6	21.1	2.2	
	경상권	(219)	8.2	30.1	42.5	17.4	1.8	
	강원/제주권	(41)	9.8	43.9	26.8	17.1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10.7	36.5	36.7	13.8	2.2	20.951
	충청권	(121)	9.9	30.6	38.0	18.2	3.3	
	전라권	(92)	12.0	19.6	44.6	21.7	2.2	
	경상권	(236)	9.7	29.7	43.2	15.3	2.1	
	강원/제주권	(32)	0.0	46.9	34.4	15.6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7.5	45.3	24.1	11.7	1.5	43.709***
	중층	(444)	11.0	34.0	39.4	14.6	0.9	
	하층	(442)	7.0	28.3	43.2	17.4	4.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10.3	34.6	36.9	16.0	2.2	2.677
	중위소득 미만	(468)	10.0	31.2	41.5	14.7	2.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1.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대학생 교육과 성장에의 도움 정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2.1	47.0	25.5	4.4	1.0	10.510*
성별	남성	(509)	19.3	46.4	27.5	5.9	1.0	
	여성	(514)	24.9	47.7	23.5	2.9	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5.7	40.9	39.1	3.5	0.9	39.011***
	전문대학(재/졸)	(179)	15.6	46.4	33.5	4.5	0.0	
	4년제대학(재/졸)	(678)	23.5	49.0	21.8	4.4	1.3	
	대학원(석/박사졸)	(51)	41.2	37.3	15.7	5.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5.1	48.8	21.9	3.5	0.7	33.996***
	경험 없음	(283)	14.1	42.4	35.0	6.7	1.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4.1	42.4	35.0	6.7	1.8	55.450***
	일주일 내외	(315)	19.4	49.8	27.3	2.5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7.7	50.6	16.0	4.8	0.9	
	1개월~6개월 이내	(108)	27.8	47.2	21.3	3.7	0.0	
	6개월 이상	(86)	36.0	41.9	18.6	3.5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1.6	47.8	24.3	5.2	1.1	7.094
	중소도시	(304)	24.3	44.7	26.6	3.3	1.0	
	읍면	(89)	18.0	49.4	30.3	2.2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2.0	48.9	23.9	3.9	1.4	17.379
	충청권	(104)	23.1	40.4	28.8	7.7	0.0	
	전라권	(90)	18.9	41.1	36.7	2.2	1.1	
	경상권	(219)	21.9	49.3	23.3	5.0	0.5	
	강원/제주권	(41)	29.3	39.0	26.8	4.9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1.4	48.9	24.2	4.1	1.5	19.278
	충청권	(121)	24.8	43.0	24.8	7.4	0.0	
	전라권	(92)	15.2	43.5	38.0	2.2	1.1	
	경상권	(236)	25.0	47.0	23.3	4.2	0.4	
	강원/제주권	(32)	21.9	40.6	31.3	6.3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7	41.6	26.3	4.4	0.0	9.020
	중층	(444)	21.8	50.0	22.7	4.1	1.4	
	하층	(442)	20.6	45.7	28.1	4.8	0.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3.2	49.0	22.0	4.9	0.9	8.351
	중위소득 미만	(468)	20.7	44.7	29.7	3.8	1.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2.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나 추천 의향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23)	24.7	40.0	26.8	7.0	1.5	15.995**
성별	남성	(509)	21.6	37.3	30.6	8.4	2.0	
	여성	(514)	27.8	42.6	23.0	5.6	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8.3	30.4	33.9	13.0	4.3	54.848***
	전문대학(재/졸)	(179)	15.1	36.9	34.6	10.6	2.8	
	4년제대학(재/졸)	(678)	27.1	42.6	24.3	5.2	0.7	
	대학원(석/박사졸)	(51)	41.2	37.3	15.7	5.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9.2	42.2	23.1	4.7	0.8	66.266***
	경험 없음	(283)	13.1	34.3	36.4	13.1	3.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3.1	34.3	36.4	13.1	3.2	102.511***
	일주일 내외	(315)	22.2	39.7	31.4	5.4	1.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9	47.6	19.0	3.0	0.4	
	1개월~6개월 이내	(108)	38.0	38.0	17.6	5.6	0.9	
	6개월 이상	(86)	41.9	41.9	10.5	5.8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8	41.1	25.9	6.8	1.4	10.144
	중소도시	(304)	26.0	38.2	25.7	8.9	1.3	
	읍면	(89)	20.2	38.2	37.1	2.2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7	41.8	25.5	5.3	1.8	24.769
	충청권	(104)	19.2	37.5	33.7	8.7	1.0	
	전라권	(90)	24.4	27.8	35.6	10.0	2.2	
	경상권	(219)	24.7	41.1	25.6	7.8	0.9	
	강원/제주권	(41)	26.8	41.5	14.6	17.1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9	41.5	27.1	4.8	1.7	24.788
	충청권	(121)	24.0	38.8	26.4	9.1	1.7	
	전라권	(92)	21.7	31.5	34.8	9.8	2.2	
	경상권	(236)	26.7	38.6	25.4	8.5	0.8	
	강원/제주권	(32)	18.8	53.1	9.4	18.8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2.8	40.1	21.9	4.4	0.7	13.528
	중층	(444)	23.9	42.1	26.8	6.3	0.9	
	하층	(442)	23.1	37.8	28.3	8.6	2.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3	42.2	24.5	5.6	1.4	8.657
	중위소득 미만	(468)	22.9	37.4	29.5	8.8	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3.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른 문화 경험	학문적 이해와 경험 증진	언어 능력 향상	진로나 취업을 위해	자립적 인 경험 과 적응 력 향상	국제적 인 네트 워킹 및 친구 사 귀기	다른 교육 시스템 경험	그냥 쉬려고 (재충 전을 위 해)	χ^2
전체	(662)	32.0	20.4	20.1	10.1	9.1	5.9	2.3	0.2	11.519
성별	남성 (300)	27.0	20.0	21.7	13.0	9.3	6.7	2.0	0.3	
	여성 (362)	36.2	20.7	18.8	7.7	8.8	5.2	2.5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6)	17.9	17.9	28.6	14.3	5.4	12.5	1.8	1.8	43.807**
	전문대학(재/졸) (93)	28.0	21.5	16.1	18.3	8.6	6.5	1.1	0.0	
	4년제대학(재/졸) (473)	33.6	20.9	20.5	8.5	8.7	5.1	2.7	0.0	
	대학원(석/박사졸) (40)	42.5	15.0	12.5	5.0	20.0	5.0	0.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528)	33.3	19.9	20.8	8.5	10.0	5.1	2.3	0.0	18.374*
	경험 없음 (134)	26.9	22.4	17.2	16.4	5.2	9.0	2.2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134)	26.9	22.4	17.2	16.4	5.2	9.0	2.2	0.7	36.989
	일주일 내외 (195)	34.9	20.0	22.6	9.2	6.7	3.1	3.6	0.0	
	일주일~1개월 이내 (179)	29.6	21.8	21.2	8.9	11.7	5.6	1.1	0.0	
	1개월~6개월 이내 (82)	28.0	20.7	17.1	9.8	13.4	8.5	2.4	0.0	
	6개월 이상 (72)	44.4	13.9	19.4	4.2	11.1	5.6	1.4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415)	32.0	22.2	20.2	9.6	9.4	4.6	1.7	0.2	15.467
	중소도시 (195)	32.8	19.0	18.5	9.2	9.2	8.7	2.6	0.0	
	읍면 (52)	28.8	11.5	25.0	17.3	5.8	5.8	5.8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384)	31.0	20.6	22.4	9.1	9.6	6.3	1.0	0.0	27.992
	충청권 (59)	30.5	27.1	11.9	11.9	10.2	5.1	3.4	0.0	
	전라권 (47)	36.2	10.6	27.7	8.5	6.4	6.4	4.3	0.0	
	경상권 (144)	34.0	22.2	13.9	13.2	7.6	4.9	3.5	0.7	
	강원/제주권 (28)	32.1	10.7	25.0	7.1	10.7	7.1	7.1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360)	29.4	21.1	22.8	10.0	9.7	5.3	1.7	0.0	30.847
	충청권 (76)	32.9	21.1	15.8	9.2	7.9	11.8	1.3	0.0	
	전라권 (49)	38.8	18.4	22.4	8.2	4.1	6.1	2.0	0.0	
	경상권 (154)	35.7	21.4	14.3	12.3	8.4	3.9	3.2	0.6	
	강원/제주권 (23)	30.4	4.3	26.1	4.3	17.4	8.7	8.7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00)	28.0	14.0	27.0	14.0	8.0	6.0	2.0	1.0	14.990
	중층 (293)	31.4	21.8	18.4	10.2	10.2	5.8	2.0	0.0	
	하층 (269)	34.2	21.2	19.3	8.6	8.2	5.9	2.6	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380)	32.4	22.1	20.5	7.4	10.8	5.8	1.1	0.0	18.168*
	중위소득 미만 (282)	31.6	18.1	19.5	13.8	6.7	6.0	3.9	0.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4.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나 추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언어 능력 부족	경제적 부담	문화적 적응 문제	프로그 램 정보 부족	학업 일정과 충돌	비자나 여권 문제	기타	χ^2
전체	(87)	28.7	26.4	18.4	10.3	8.0	2.3	5.7	8.416
성별	남성	(53)	24.5	32.1	11.3	13.2	9.4	1.9	7.5
	여성	(34)	35.3	17.6	29.4	5.9	5.9	2.9	2.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0)	40.0	30.0	5.0	10.0	10.0	0.0	5.0
	전문대학(재/졸)	(24)	33.3	29.2	12.5	8.3	8.3	0.0	8.3
	4년제대학(재/졸)	(40)	22.5	25.0	25.0	12.5	5.0	5.0	5.0
	대학원(석/박사졸)	(3)	0.0	0.0	66.7	0.0	33.3	0.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41)	19.5	22.0	22.0	17.1	9.8	2.4	7.3
경험 없음	경험 없음	(46)	37.0	30.4	15.2	4.3	6.5	2.2	4.3
	경험 없음	(46)	37.0	30.4	15.2	4.3	6.5	2.2	4.3
	경험 없음	(46)	37.0	30.4	15.2	4.3	6.5	2.2	4.3
해외 체류 기간	일주일 내외	(21)	14.3	28.6	19.0	9.5	9.5	4.8	14.3
일주일~1개월 이내	일주일~1개월 이내	(8)	37.5	12.5	12.5	25.0	12.5	0.0	0.0
	1개월~6개월 이내	(7)	28.6	14.3	28.6	28.6	0.0	0.0	0.0
	6개월 이상	(5)	0.0	20.0	40.0	20.0	20.0	0.0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2)	28.8	30.8	17.3	9.6	1.9	3.8	7.7
중소도시	중소도시	(31)	29.0	19.4	19.4	12.9	19.4	0.0	0.0
	읍면	(4)	25.0	25.0	25.0	0.0	0.0	0.0	25.0
	수도권	(40)	22.5	30.0	22.5	5.0	5.0	5.0	10.0
현재 거주 지역	충청권	(10)	60.0	0.0	10.0	20.0	10.0	0.0	0.0
전라권	전라권	(11)	18.2	36.4	9.1	18.2	9.1	0.0	9.1
	경상권	(19)	26.3	36.8	21.1	15.8	0.0	0.0	0.0
	강원/제주권	(7)	42.9	0.0	14.3	0.0	42.9	0.0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35)	28.6	25.7	20.0	5.7	2.9	5.7	11.4
	충청권	(13)	38.5	15.4	7.7	15.4	23.1	0.0	0.0
	전라권	(11)	18.2	36.4	9.1	18.2	9.1	0.0	9.1
	경상권	(22)	22.7	36.4	27.3	13.6	0.0	0.0	0.0
	강원/제주권	(6)	50.0	0.0	16.7	0.0	33.3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7)	14.3	14.3	57.1	0.0	14.3	0.0	0.0
	중층	(32)	31.3	15.6	15.6	15.6	12.5	6.3	3.1
	하층	(48)	29.2	35.4	14.6	8.3	4.2	0.0	8.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39)	20.5	35.9	17.9	15.4	5.1	0.0	5.1
중위소득	중위소득 미만	(48)	35.4	18.8	18.8	6.3	10.4	4.2	6.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5.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언어 학습	학문적 교환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자립과 적응력	x ²
전체		(1,023)	26.6	23.9	20.6	15.4	7.4	6.1	
성별	남성	(509)	24.0	25.0	23.4	15.1	7.7	4.9	9.199
	여성	(514)	29.2	22.8	17.9	15.8	7.2	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3.5	18.3	25.2	22.6	3.5	7.0	24.887
	전문대학(재/졸)	(179)	23.5	23.5	17.9	22.3	6.7	6.1	
	4년제대학(재/졸)	(678)	27.1	25.1	20.9	12.7	8.1	6.0	
	대학원(석/박사졸)	(51)	37.3	21.6	15.7	11.8	9.8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8	24.6	19.3	14.6	6.9	5.8	10.231
	경험 없음	(283)	20.8	21.9	24.0	17.7	8.8	6.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8	21.9	24.0	17.7	8.8	6.7	30.599
	일주일 내외	(315)	27.9	27.3	16.8	17.1	6.3	4.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7.3	22.1	22.1	13.0	6.9	8.7	
	1개월~6개월 이내	(108)	25.9	22.2	25.9	13.0	9.3	3.7	
	6개월 이상	(86)	39.5	24.4	12.8	11.6	5.8	5.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5	24.4	20.8	14.8	7.0	6.5	3.958
	중소도시	(304)	27.6	23.0	19.1	16.8	8.6	4.9	
	읍면	(89)	23.6	22.5	24.7	15.7	6.7	6.7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3	24.8	20.6	13.7	6.5	6.2	25.479
	충청권	(104)	25.0	19.2	26.9	20.2	4.8	3.8	
	전라권	(90)	25.6	21.1	20.0	20.0	6.7	6.7	
	경상권	(219)	26.5	24.7	16.0	15.5	11.4	5.9	
	강원/제주권	(41)	9.8	24.4	31.7	17.1	7.3	9.8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7.1	25.5	21.0	13.8	6.5	6.1	16.571
	충청권	(121)	25.6	21.5	21.5	18.2	5.8	7.4	
	전라권	(92)	26.1	20.7	19.6	22.8	5.4	5.4	
	경상권	(236)	27.1	22.9	18.2	15.3	10.6	5.9	
	강원/제주권	(32)	18.8	21.9	31.3	12.5	12.5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2.6	29.2	20.4	13.9	5.8	8.0	11.678
	중층	(444)	25.0	25.2	22.7	15.1	7.0	5.0	
	하층	(442)	29.4	20.8	18.6	16.3	8.4	6.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7.4	25.0	20.0	14.6	6.8	6.1	2.376
	중위소득 미만	(468)	25.6	22.4	21.4	16.5	8.1	6.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6.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소속 학생 대부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23)	26.9	42.3	23.8	6.1	1.0	11.773*
성별	남성	(509)	22.8	44.0	25.1	6.5	1.6	
	여성	(514)	30.9	40.7	22.4	5.6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8.3	42.6	32.2	5.2	1.7	44.126***
	전문대학(재/졸)	(179)	17.3	38.5	34.6	9.5	0.0	
	4년제대학(재/졸)	(678)	29.5	43.8	20.1	5.5	1.2	
	대학원(석/박사졸)	(51)	45.1	35.3	15.7	3.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0.1	43.1	19.9	6.1	0.8	28.711***
	경험 없음	(283)	18.4	40.3	33.9	6.0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8.4	40.3	33.9	6.0	1.4	43.440***
	일주일 내외	(315)	27.6	41.9	23.2	6.7	0.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2.9	42.9	19.0	4.8	0.4	
	1개월~6개월 이내	(108)	27.8	44.4	15.7	9.3	2.8	
	6개월 이상	(86)	34.9	46.5	15.1	3.5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7.6	41.7	23.2	6.3	1.1	2.319
	중소도시	(304)	26.0	42.8	24.3	5.9	1.0	
	읍면	(89)	24.7	44.9	25.8	4.5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6.2	43.8	23.4	5.8	0.9	15.218
	충청권	(104)	26.0	36.5	24.0	12.5	1.0	
	전라권	(90)	27.8	37.8	27.8	6.7	0.0	
	경상권	(219)	27.9	42.9	24.2	3.7	1.4	
	강원/제주권	(41)	31.7	43.9	17.1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5.1	44.8	23.1	6.1	0.9	19.963
	충청권	(121)	31.4	36.4	20.7	10.7	0.8	
	전라권	(92)	27.2	37.0	28.3	7.6	0.0	
	경상권	(236)	29.2	40.3	26.3	3.0	1.3	
	강원/제주권	(32)	21.9	53.1	15.6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0	40.1	27.0	5.1	0.7	6.927
	중층	(444)	26.8	44.1	20.9	7.4	0.7	
	하층	(442)	26.9	41.2	25.6	5.0	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5	44.0	23.1	5.9	0.5	3.479
	중위소득 미만	(468)	27.4	40.4	24.6	6.2	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7.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기간(해외 체류기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일주일 내외	일주일 ~ 1개월 이내	1개월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이내	6개월 ~ 1년 이 내	1년 이 상	χ^2
전체		(1,023)	3.7	15.3	28.5	26.3	18.7	7.4	19.991**
성별	남성	(509)	3.7	19.1	30.8	23.0	15.7	7.7	
	여성	(514)	3.7	11.7	26.3	29.6	21.6	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6.1	25.2	26.1	18.3	15.7	8.7	32.679**
	전문대학(재/졸)	(179)	6.1	16.8	30.7	24.0	11.7	10.6	
	4년제대학(재/졸)	(678)	2.8	13.6	28.6	28.2	20.4	6.5	
	대학원(석/박사졸)	(51)	2.0	11.8	25.5	27.5	27.5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1	16.1	27.2	26.4	19.9	6.5	8.804
	경험 없음	(283)	2.8	13.4	32.2	26.1	15.5	9.9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8	13.4	32.2	26.1	15.5	9.9	87.502***
	일주일 내외	(315)	7.9	18.4	29.2	24.4	14.0	6.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1.3	17.3	29.9	26.0	17.7	7.8	
	1개월~6개월 이내	(108)	1.9	11.1	32.4	27.8	25.0	1.9	
	6개월 이상	(86)	0.0	10.5	5.8	32.6	40.7	10.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4.3	16.5	27.9	26.5	18.4	6.3	15.256
	중소도시	(304)	2.3	12.5	27.0	28.3	20.7	9.2	
	읍면	(89)	4.5	16.9	38.2	18.0	13.5	9.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7	13.5	27.6	27.9	18.8	7.4	17.875
	충청권	(104)	2.9	23.1	26.9	19.2	22.1	5.8	
	전라권	(90)	1.1	16.7	33.3	23.3	14.4	11.1	
	경상권	(219)	2.7	16.0	29.2	26.0	19.2	6.8	
	강원/제주권	(41)	2.4	14.6	31.7	29.3	14.6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0	14.6	27.7	28.0	17.7	7.0	18.691
	충청권	(121)	2.5	16.5	27.3	20.7	25.6	7.4	
	전라권	(92)	1.1	18.5	32.6	22.8	14.1	10.9	
	경상권	(236)	2.5	15.3	28.4	26.7	20.3	6.8	
	강원/제주권	(32)	3.1	15.6	37.5	25.0	9.4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0.2	20.4	27.7	18.2	21.2	2.2	48.715***
	중층	(444)	2.7	14.4	31.5	29.5	16.9	5.0	
	하층	(442)	2.7	14.7	25.8	25.6	19.7	11.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8	16.0	29.0	25.9	18.2	7.0	0.948
	중위소득 미만	(468)	3.6	14.5	28.0	26.7	19.2	7.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8.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7.2	45.1	23.9	3.4	0.5	8.760
성별	남성	(509)	24.4	44.2	26.5	4.3	0.6	
	여성	(514)	30.0	45.9	21.2	2.5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7.4	43.5	33.9	3.5	1.7	37.354***
	전문대학(재/졸)	(179)	21.2	39.7	35.2	3.9	0.0	
	4년제대학(재/졸)	(678)	29.6	46.9	19.8	3.2	0.4	
	대학원(석/박사졸)	(51)	37.3	43.1	15.7	3.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1.4	46.1	19.1	3.1	0.4	44.742***
	경험 없음	(283)	16.3	42.4	36.4	4.2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6.3	42.4	36.4	4.2	0.7	64.157***
	일주일 내외	(315)	25.4	49.8	21.9	2.5	0.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6.8	41.1	17.7	4.3	0.0	
	1개월~6개월 이내	(108)	34.3	43.5	17.6	2.8	1.9	
	6개월 이상	(86)	34.9	48.8	14.0	2.3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7.1	45.1	23.7	3.5	0.6	3.539
	중소도시	(304)	28.0	45.7	22.4	3.6	0.3	
	읍면	(89)	24.7	42.7	30.3	2.2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8	45.7	21.8	3.0	0.7	18.554
	충청권	(104)	23.1	43.3	27.9	4.8	1.0	
	전라권	(90)	17.8	46.7	32.2	3.3	0.0	
	경상권	(219)	26.5	47.0	22.8	3.7	0.0	
	강원/제주권	(41)	39.0	26.8	29.3	4.9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8.4	45.2	22.7	3.0	0.7	16.177
	충청권	(121)	25.6	46.3	22.3	5.0	0.8	
	전라권	(92)	16.3	44.6	35.9	3.3	0.0	
	경상권	(236)	28.8	45.3	22.5	3.4	0.0	
	강원/제주권	(32)	31.3	37.5	25.0	6.3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49.6	19.7	1.5	0.7	4.131
	중층	(444)	26.6	45.0	24.3	3.6	0.5	
	하층	(442)	27.4	43.7	24.7	3.8	0.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7	47.7	22.3	2.7	0.5	5.111
	중위소득 미만	(468)	27.8	41.9	25.6	4.3	0.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19.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의 국가간 교류가 청년 시기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9.2	42.7	23.6	4.1	0.4	12.142*
성별	남성	(509)	24.6	45.2	25.7	4.3	0.2	
	여성	(514)	33.9	40.3	21.4	3.9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45.2	32.2	2.6	0.0	35.018***
	전문대학(재/졸)	(179)	22.9	38.5	33.5	5.0	0.0	
	4년제대학(재/졸)	(678)	31.1	44.0	19.9	4.4	0.6	
	대학원(석/박사졸)	(51)	47.1	35.3	17.6	0.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2.2	43.6	20.5	3.2	0.4	23.623***
	경험 없음	(283)	21.6	40.3	31.4	6.4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1.6	40.3	31.4	6.4	0.4	41.616***
	일주일 내외	(315)	26.7	44.1	25.7	3.5	0.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7.7	42.4	16.9	2.6	0.4	
	1개월~6개월 이내	(108)	31.5	47.2	15.7	4.6	0.9	
	6개월 이상	(86)	38.4	40.7	17.4	2.3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9.4	42.1	23.0	4.9	0.6	8.446
	중소도시	(304)	29.9	44.1	22.7	3.3	0.0	
	읍면	(89)	25.8	42.7	30.3	1.1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1.1	44.1	20.6	3.7	0.5	22.036
	충청권	(104)	27.9	32.7	33.7	5.8	0.0	
	전라권	(90)	24.4	38.9	33.3	3.3	0.0	
	경상권	(219)	26.5	46.1	23.3	3.7	0.5	
	강원/제주권	(41)	31.7	39.0	19.5	9.8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9.5	44.8	20.8	4.1	0.7	23.907
	충청권	(121)	33.1	34.7	27.3	5.0	0.0	
	전라권	(92)	22.8	38.0	34.8	4.3	0.0	
	경상권	(236)	30.1	43.2	24.2	2.5	0.0	
	강원/제주권	(32)	21.9	46.9	18.8	12.5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9.2	50.4	17.5	2.2	0.7	12.515
	중층	(444)	29.1	44.4	22.5	4.1	0.0	
	하층	(442)	29.4	38.7	26.5	4.8	0.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8.6	45.2	22.3	3.2	0.5	5.578
	중위소득 미만	(468)	29.9	39.7	25.0	5.1	0.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0. 대학생 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 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23)	28.0	40.6	24.6	6.2	0.7	9.138
성별	남성	(509)	25.0	39.5	27.5	7.3	0.8	
	여성	(514)	30.9	41.6	21.8	5.1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0	34.8	29.6	7.8	0.9	19.788
	전문대학(재/졸)	(179)	21.8	42.5	29.6	6.1	0.0	
	4년제대학(재/졸)	(678)	28.3	41.6	23.0	6.2	0.9	
	대학원(석/박사졸)	(51)	47.1	33.3	17.6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0.7	41.9	21.6	5.1	0.7	22.631***
	경험 없음	(283)	20.8	37.1	32.5	8.8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8	37.1	32.5	8.8	0.7	36.298**
	일주일 내외	(315)	26.7	45.1	22.2	6.0	0.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2.9	39.4	20.8	5.6	1.3	
	1개월~6개월 이내	(108)	32.4	41.7	20.4	3.7	1.9	
	6개월 이상	(86)	37.2	37.2	23.3	2.3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7.5	41.4	24.0	6.3	0.8	3.874
	중소도시	(304)	30.3	37.8	25.0	6.3	0.7	
	읍면	(89)	23.6	43.8	28.1	4.5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1	42.0	22.8	6.0	1.1	14.381
	충청권	(104)	26.0	32.7	33.7	7.7	0.0	
	전라권	(90)	25.6	40.0	26.7	7.8	0.0	
	경상권	(219)	28.8	42.0	23.7	5.5	0.0	
	강원/제주권	(41)	31.7	34.1	26.8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6.6	42.4	23.4	6.6	0.9	11.998
	충청권	(121)	31.4	35.5	27.3	5.8	0.0	
	전라권	(92)	27.2	35.9	28.3	8.7	0.0	
	경상권	(236)	30.1	40.3	25.0	4.2	0.4	
	강원/제주권	(32)	25.0	43.8	21.9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3.6	35.0	25.5	4.4	1.5	13.879
	중층	(444)	24.3	45.9	22.5	6.8	0.5	
	하층	(442)	29.9	36.9	26.5	6.1	0.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5	42.2	24.1	6.7	0.5	2.692
	중위소득 미만	(468)	29.7	38.7	25.2	5.6	0.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1. 대학생이외에 일반 청년들에게 국가간 교류의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배경)에 따른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문화 교류	진로 및 취업	언어 학습	학문적 교환	인간관계 및 네트워킹	자립과 적응력	χ^2
전체	(701)	29.4	22.4	17.0	14.6	8.8	7.8	13.550*
성별	남성	(328)	27.1	22.3	18.0	17.7	10.1	4.9
	여성	(373)	31.4	22.5	16.1	11.8	7.8	10.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1)	25.4	25.4	15.5	14.1	2.8	16.9
	전문대학(재/졸)	(115)	27.0	21.7	14.8	20.0	11.3	5.2
	4년제대학(재/졸)	(474)	29.5	23.2	18.1	13.7	8.2	7.2
	대학원(석/박사졸)	(41)	41.5	9.8	12.2	9.8	19.5	7.3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537)	30.4	24.4	17.1	14.2	8.4	5.6
	경험 없음	(164)	26.2	15.9	16.5	15.9	10.4	15.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164)	26.2	15.9	16.5	15.9	10.4	15.2
	일주일 내외	(226)	28.8	22.6	17.7	15.0	8.4	7.5
	일주일~1개월 이내	(167)	28.1	28.7	17.4	13.2	9.6	3.0
	1개월~6개월 이내	(80)	36.3	20.0	17.5	18.8	3.8	3.8
	6개월 이상	(64)	34.4	25.0	14.1	7.8	10.9	7.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434)	32.7	19.8	18.2	16.6	6.0	6.7
	중소도시	(207)	24.6	24.2	15.0	10.1	14.0	12.1
	읍면	(60)	21.7	35.0	15.0	15.0	11.7	1.7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399)	31.8	21.1	16.8	13.8	9.3	7.3
	충청권	(61)	24.6	27.9	6.6	27.9	8.2	4.9
	전라권	(59)	28.8	18.6	15.3	15.3	8.5	13.6
	경상권	(155)	27.1	25.2	20.6	12.3	7.1	7.7
	강원/제주권	(27)	18.5	22.2	25.9	7.4	14.8	11.1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374)	31.3	19.5	17.6	15.2	8.8	7.5
	충청권	(81)	25.9	33.3	11.1	21.0	6.2	2.5
	전라권	(58)	27.6	17.2	13.8	15.5	12.1	13.8
	경상권	(166)	27.1	25.9	18.7	10.8	7.8	9.6
	강원/제주권	(22)	31.8	18.2	22.7	4.5	18.2	4.5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94)	20.2	19.1	26.6	25.5	5.3	3.2
	중층	(312)	29.8	24.0	18.6	13.1	6.4	8.0
	하층	(295)	31.9	21.7	12.2	12.5	12.5	9.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381)	30.4	22.0	16.5	15.5	9.4	6.0
	중위소득 미만	(320)	28.1	22.8	17.5	13.4	8.1	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χ^2
전체		(1,023)	3.7	10.9	20.9	25.1	39.4	27.517***
성별	남성	(509)	4.7	13.9	24.6	22.0	34.8	
	여성	(514)	2.7	7.8	17.3	28.2	4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1.7	3.5	27.0	26.1	41.7	21.681*
	전문대학(재/졸)	(179)	5.6	11.2	24.6	27.9	30.7	
	4년제대학(재/졸)	(678)	3.4	12.4	19.0	24.0	41.2	
	대학원(석/박사졸)	(51)	5.9	5.9	19.6	27.5	41.2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1	10.9	20.0	24.7	40.3	2.618
	경험 없음	(283)	2.8	10.6	23.3	26.1	37.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8	10.6	23.3	26.1	37.1	26.846*
	일주일 내외	(315)	3.2	6.7	19.7	25.4	45.1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5	11.7	20.8	25.5	38.5	
	1개월~6개월 이내	(108)	6.5	17.6	22.2	25.9	27.8	
	6개월 이상	(86)	5.8	16.3	16.3	18.6	43.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4.4	13.0	23.0	23.3	36.2	21.269**
	중소도시	(304)	2.3	6.9	16.4	28.9	45.4	
	읍면	(89)	3.4	9.0	21.3	24.7	41.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0	11.4	21.1	23.9	39.5	9.308
	충청권	(104)	2.9	9.6	26.0	26.9	34.6	
	전라권	(90)	4.4	8.9	18.9	23.3	44.4	
	경상권	(219)	3.2	11.9	18.7	26.0	40.2	
	강원/제주권	(41)	2.4	4.9	22.0	36.6	34.1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2	11.8	22.7	24.9	36.3	13.013
	충청권	(121)	2.5	9.1	20.7	25.6	42.1	
	전라권	(92)	4.3	7.6	20.7	20.7	46.7	
	경상권	(236)	3.4	11.4	17.4	25.4	42.4	
	강원/제주권	(32)	0.0	6.3	18.8	37.5	37.5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0.2	21.9	22.6	14.6	30.7	49.399***
	중층	(444)	2.7	10.1	22.3	26.6	38.3	
	하층	(442)	2.7	8.1	19.0	26.9	43.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6	11.5	20.5	24.3	40.0	1.062
	중위소득 미만	(468)	3.8	10.0	21.4	26.1	38.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3.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6.9	43.1	1.463	62.5	29.9	7.6	8.780
성별	남성	(509)	55.0	45.0		59.9	30.6	9.4	
	여성	(514)	58.8	41.2		65.0	29.2	5.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7.4	62.6	43.790***	48.7	43.5	7.8	52.398***
	전문대학(재/졸)	(179)	45.8	54.2		48.6	41.9	9.5	
	4년제대학(재/졸)	(678)	61.4	38.6		66.5	26.1	7.4	
	대학원(석/박사졸)	(51)	80.4	19.6		88.2	7.8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0.9	39.1	17.930***	68.5	24.6	6.9	43.515***
	경험 없음	(283)	46.3	53.7		46.6	43.8	9.5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6.3	53.7	33.469***	46.6	43.8	9.5	71.367***
	일주일 내외	(315)	52.7	47.3		64.4	30.2	5.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7.5	32.5		74.0	20.3	5.6	
	1개월~6개월 이내	(108)	64.8	35.2		64.8	22.2	13.0	
	6개월 이상	(86)	68.6	31.4		73.3	18.6	8.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1	42.9	2.374	64.6	27.6	7.8	8.771
	중소도시	(304)	58.6	41.4		61.2	32.2	6.6	
	읍면	(89)	49.4	50.6		51.7	38.2	10.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1	42.9	1.514	65.6	27.6	6.9	24.179
	충청권	(104)	60.6	39.4		56.7	33.7	9.6	
	전라권	(90)	55.6	44.4		57.8	32.2	10.0	
	경상권	(219)	54.3	45.7		58.0	33.3	8.7	
	강원/제주권	(41)	61.0	39.0		68.3	29.3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7.2	42.8	1.311	64.2	28.6	7.2	17.428
	충청권	(121)	60.3	39.7		64.5	28.1	7.4	
	전라권	(92)	53.3	46.7		57.6	32.6	9.8	
	경상권	(236)	56.4	43.6		58.5	33.1	8.5	
	강원/제주권	(32)	53.1	46.9		68.8	28.1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8	37.2	9.189*	61.3	24.8	13.9	26.667***
	중층	(444)	60.4	39.6		67.1	26.6	6.3	
	하층	(442)	51.6	48.4		58.1	34.8	7.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8.6	41.4	1.375	65.0	27.4	7.6	6.186
	중위소득 미만	(468)	54.9	45.1		59.4	32.9	7.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4.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4.4	35.6		67.3	24.7	8.0	
성별	남성	(509)	58.3	41.7	16.277***	64.8	25.9	9.2	6.685
	여성	(514)	70.4	29.6		69.6	23.5	6.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6.5	43.5	8.857*	65.2	29.6	5.2	13.300
	전문대학(재/졸)	(179)	59.8	40.2		63.7	29.1	7.3	
	4년제대학(재/졸)	(678)	66.1	33.9		67.4	23.6	9.0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82.4	13.7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6.9	33.1	7.140**	68.9	23.5	7.6	5.997
	경험 없음	(283)	58.0	42.0		62.9	27.9	9.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8.0	42.0	20.930***	62.9	27.9	9.2	36.776**
	일주일 내외	(315)	60.6	39.4		64.1	27.9	7.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2.7	27.3		73.2	21.6	5.2	
	1개월~6개월 이내	(108)	63.9	36.1		68.5	22.2	9.3	
	6개월 이상	(86)	77.9	22.1		75.6	14.0	10.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3.5	36.5	0.787	66.8	24.1	9.0	5.491
	중소도시	(304)	66.4	33.6		68.8	24.3	6.9	
	읍면	(89)	64.0	36.0		65.2	30.3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4.1	35.9	1.036	68.0	22.3	9.7	15.757
	충청권	(104)	63.5	36.5		62.5	28.8	8.7	
	전라권	(90)	62.2	37.8		64.4	30.0	5.6	
	경상권	(219)	65.3	34.7		68.0	26.5	5.5	
	강원/제주권	(41)	70.7	29.3		70.7	26.8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4.0	36.0	0.504	67.2	23.2	9.6	12.495
	충청권	(121)	65.3	34.7		69.4	23.1	7.4	
	전라권	(92)	62.0	38.0		62.0	31.5	6.5	
	경상권	(236)	65.7	34.3		67.8	26.3	5.9	
	강원/제주권	(32)	65.6	34.4		71.9	25.0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9.1	40.9	2.043	67.9	19.0	13.1	10.245
	중층	(444)	65.8	34.2		69.4	23.4	7.2	
	하층	(442)	64.7	35.3		64.9	27.8	7.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4.3	35.7	0.005	67.9	23.6	8.5	9.027
	중위소득 미만	(468)	64.5	35.5		66.5	26.1	7.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5.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58.5	41.5		58.0	31.2	10.9	
성별	남성	(509)	55.2	44.8	4.404*	53.4	34.0	12.6	10.883*
	여성	(514)	61.7	38.3		62.5	28.4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1.7	58.3	33.902***	47.8	41.7	10.4	22.193*
	전문대학(재/졸)	(179)	46.4	53.6		49.2	36.9	14.0	
	4년제대학(재/졸)	(678)	63.7	36.3		61.8	27.9	10.3	
	대학원(석/박사졸)	(51)	68.6	31.4		60.8	31.4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3.6	36.4	29.706***	61.1	28.5	10.4	18.646***
	경험 없음	(283)	44.9	55.1		49.8	38.2	12.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4.9	55.1	37.688***	49.8	38.2	12.0	52.942***
	일주일 내외	(315)	57.8	42.2		55.6	34.0	10.5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8.0	32.0		68.8	22.9	8.2	
	1개월~6개월 이내	(108)	69.4	30.6		59.3	24.1	16.7	
	6개월 이상	(86)	66.3	33.7		62.8	29.1	8.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8.9	41.1	0.245	59.4	29.5	11.1	12.456
	중소도시	(304)	58.2	41.8		56.6	31.6	11.8	
	읍면	(89)	56.2	43.8		52.8	41.6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5.9	44.1	9.418	58.3	29.9	11.8	12.049
	충청권	(104)	61.5	38.5		51.9	33.7	14.4	
	전라권	(90)	55.6	44.4		55.6	35.6	8.9	
	경상권	(219)	61.2	38.8		58.4	32.4	9.1	
	강원/제주권	(41)	78.0	22.0		70.7	26.8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5.2	44.8	8.986	57.4	30.4	12.2	12.951
	충청권	(121)	64.5	35.5		61.2	27.3	11.6	
	전라권	(92)	54.3	45.7		52.2	38.0	9.8	
	경상권	(236)	62.7	37.3		59.3	31.8	8.9	
	강원/제주권	(32)	71.9	28.1		62.5	34.4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5.0	35.0	14.309***	66.4	20.4	13.1	32.381***
	중층	(444)	63.1	36.9		61.0	30.9	8.1	
	하층	(442)	51.8	48.2		52.3	34.8	12.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6.9	43.1	1.152	57.5	30.1	12.4	3.649
	중위소득 미만	(468)	60.3	39.7		58.5	32.5	9.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6.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1.7	38.3	3.701	63.5	25.6	10.9	10.675*
성별	남성	(509)	58.7	41.3		59.9	26.5	13.6	
	여성	(514)	64.6	35.4		67.1	24.7	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4.8	45.2	7.639	62.6	26.1	11.3	16.600
	전문대학(재/졸)	(179)	59.2	40.8		54.7	29.6	15.6	
	4년제대학(재/졸)	(678)	62.4	37.6		65.0	25.4	9.6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76.5	13.7	9.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4.1	35.9	6.372*	67.4	22.8	9.7	17.701**
	경험 없음	(283)	55.5	44.5		53.4	32.9	13.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5.5	44.5	11.107*	53.4	32.9	13.8	39.138**
	일주일 내외	(315)	61.3	38.7		63.2	26.3	10.5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6.7	33.3		73.6	18.6	7.8	
	1개월~6개월 이내	(108)	60.2	39.8		60.2	26.9	13.0	
	6개월 이상	(86)	72.1	27.9		75.6	16.3	8.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1.0	39.0	0.423	62.2	25.2	12.5	6.746
	중소도시	(304)	63.2	36.8		64.8	26.3	8.9	
	읍면	(89)	61.8	38.2		68.5	25.8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0.1	39.9	2.124	64.5	24.8	10.7	15.329
	충청권	(104)	61.5	38.5		62.5	26.9	10.6	
	전라권	(90)	61.1	38.9		60.0	33.3	6.7	
	경상권	(219)	65.3	34.7		63.5	24.2	12.3	
	강원/제주권	(41)	65.9	34.1		61.0	24.4	14.6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0.3	39.7	2.560	62.7	25.6	11.6	10.692
	충청권	(121)	60.3	39.7		66.9	25.6	7.4	
	전라권	(92)	60.9	39.1		60.9	32.6	6.5	
	경상권	(236)	66.1	33.9		64.8	23.3	11.9	
	강원/제주권	(32)	59.4	40.6		62.5	21.9	15.6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9.1	40.9	3.365	62.0	24.8	13.1	4.267
	중층	(444)	64.9	35.1		64.6	23.9	11.5	
	하층	(442)	59.3	40.7		62.9	27.6	9.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0.0	40.0	1.451	63.8	25.6	10.6	0.215
	중위소득 미만	(468)	63.7	36.3		63.2	25.6	11.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7.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7.5	42.5	1.173	60.7	27.9	11.4	6.712
성별	남성	(509)	55.8	44.2		58.7	29.5	11.8	
	여성	(514)	59.1	40.9		62.6	26.3	1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0.4	49.6	14.427**	59.1	33.9	7.0	32.777**
	전문대학(재/졸)	(179)	50.3	49.7		51.4	39.7	8.9	
	4년제대학(재/졸)	(678)	59.1	40.9		62.4	24.5	13.1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74.5	17.6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0.0	40.0	6.961**	64.9	24.3	10.8	23.767***
	경험 없음	(283)	50.9	49.1		49.8	37.1	13.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0.9	49.1	15.704**	49.8	37.1	13.1	44.114***
	일주일 내외	(315)	55.2	44.8		61.3	27.6	11.1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4.5	35.5		67.1	25.1	7.8	
	1개월~6개월 이내	(108)	56.5	43.5		61.1	24.1	14.8	
	6개월 이상	(86)	69.8	30.2		76.7	10.5	12.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0	43.0	7.173*	62.5	25.2	12.2	12.358
	중소도시	(304)	61.8	38.2		58.2	31.3	10.5	
	읍면	(89)	46.1	53.9		56.2	34.8	9.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1	42.9	0.594	59.1	27.9	13.0	13.673
	충청권	(104)	60.6	39.4		62.5	28.8	8.7	
	전라권	(90)	55.6	44.4		61.1	33.3	5.6	
	경상권	(219)	57.5	42.5		65.3	24.2	10.5	
	강원/제주권	(41)	58.5	41.5		53.7	31.7	14.6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6.8	43.2	1.078	59.0	27.9	13.1	16.514
	충청권	(121)	61.2	38.8		60.3	31.4	8.3	
	전라권	(92)	56.5	43.5		60.9	33.7	5.4	
	경상권	(236)	58.1	41.9		65.3	24.2	10.6	
	강원/제주권	(32)	53.1	46.9		56.3	25.0	18.8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9.1	40.9	4.862	64.2	20.4	15.3	16.877*
	중층	(444)	60.8	39.2		63.5	27.3	9.2	
	하층	(442)	53.6	46.4		56.8	30.8	12.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8.2	41.8	0.257	61.8	26.8	11.4	1.663
	중위소득 미만	(468)	56.6	43.4		59.4	29.1	1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8.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6.2	43.8	5.201*	59.5	29.1	11.3	15.714**
성별	남성	(509)	52.7	47.3		54.0	32.4	13.6	
	여성	(514)	59.7	40.3		65.0	25.9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8.7	51.3	9.731*	61.7	31.3	7.0	21.884*
	전문대학(재/졸)	(179)	50.8	49.2		46.9	40.2	12.8	
	4년제대학(재/졸)	(678)	57.8	42.2		61.9	26.5	11.5	
	대학원(석/박사졸)	(51)	70.6	29.4		66.7	19.6	13.7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59.6	40.4	12.470***	61.5	27.6	10.9	9.686*
	경험 없음	(283)	47.3	52.7		54.4	33.2	12.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7.3	52.7	25.495***	54.4	33.2	12.4	37.938**
	일주일 내외	(315)	52.4	47.6		55.2	33.0	11.7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7.1	32.9		68.8	22.9	8.2	
	1개월~6개월 이내	(108)	60.2	39.8		54.6	29.6	15.7	
	6개월 이상	(86)	65.1	34.9		73.3	17.4	9.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0	43.0	1.307	59.0	28.7	12.2	5.804
	중소도시	(304)	56.3	43.8		61.2	27.6	11.2	
	읍면	(89)	50.6	49.4		57.3	37.1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3	42.7	0.752	61.3	27.1	11.6	16.839
	충청권	(104)	53.8	46.2		57.7	27.9	14.4	
	전라권	(90)	54.4	45.6		52.2	37.8	10.0	
	경상권	(219)	55.7	44.3		60.7	28.8	10.5	
	강원/제주권	(41)	53.7	46.3		48.8	43.9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7.4	42.6	1.796	60.7	27.1	12.2	14.830
	충청권	(121)	55.4	44.6		58.7	29.8	11.6	
	전라권	(92)	53.3	46.7		50.0	40.2	9.8	
	경상권	(236)	56.4	43.6		61.4	28.0	10.6	
	강원/제주권	(32)	46.9	53.1		56.3	37.5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0	38.0	6.566*	59.9	24.1	16.1	11.662
	중층	(444)	58.8	41.2		60.8	28.4	10.8	
	하층	(442)	51.8	48.2		58.1	31.4	10.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5.9	44.1	0.061	60.2	29.0	10.8	1.093
	중위소득 미만	(468)	56.6	43.4		58.8	29.3	12.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29.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2.2	37.8	6.287*	60.0	28.2	11.8	9.654*
성별	남성	(509)	58.3	41.7		56.2	30.5	13.4	
	여성	(514)	66.0	34.0		63.8	25.9	1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3.9	46.1	18.411***	53.0	36.5	10.4	21.906*
	전문대학(재/졸)	(179)	50.8	49.2		49.2	38.0	12.8	
	4년제대학(재/졸)	(678)	66.1	33.9		63.7	24.3	11.9	
	대학원(석/박사졸)	(51)	68.6	31.4		64.7	25.5	9.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5.4	34.6	11.905***	62.7	26.1	11.2	10.035*
	경험 없음	(283)	53.7	46.3		53.0	33.6	13.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3.7	46.3	20.544***	53.0	33.6	13.4	23.933
	일주일 내외	(315)	59.4	40.6		59.7	28.3	12.1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9.3	30.7		66.2	23.8	10.0	
	1개월~6개월 이내	(108)	71.3	28.7		63.0	24.1	13.0	
	6개월 이상	(86)	69.8	30.2		64.0	26.7	9.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1.9	38.1	0.718	59.0	27.8	13.2	9.275
	중소도시	(304)	61.5	38.5		61.8	27.0	11.2	
	읍면	(89)	66.3	33.7		60.7	34.8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2.2	37.8	1.650	59.6	27.2	13.2	12.252
	충청권	(104)	58.7	41.3		57.7	29.8	12.5	
	전라권	(90)	58.9	41.1		60.0	31.1	8.9	
	경상권	(219)	64.8	35.2		61.2	28.8	10.0	
	강원/제주권	(41)	63.4	36.6		65.9	26.8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1.3	38.7	3.238	58.3	28.2	13.5	10.384
	충청권	(121)	60.3	39.7		62.0	26.4	11.6	
	전라권	(92)	58.7	41.3		57.6	32.6	9.8	
	경상권	(236)	66.9	33.1		62.7	28.0	9.3	
	강원/제주권	(32)	59.4	40.6		68.8	21.9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0	38.0	1.514	60.6	27.0	12.4	14.812
	중층	(444)	64.2	35.8		61.9	25.9	12.2	
	하층	(442)	60.2	39.8		57.9	30.8	11.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1.8	38.2	0.070	61.8	25.2	13.0	6.807
	중위소득 미만	(468)	62.6	37.4		57.9	31.6	10.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0.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64.7	35.3		61.2	28.0	10.9	
성별	남성	(509)	59.1	40.9	13.793***	54.0	32.2	13.8	26.516***
	여성	(514)	70.2	29.8		68.3	23.7	8.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3.9	46.1	13.945**	54.8	33.0	12.2	15.426
	전문대학(재/졸)	(179)	59.2	40.8		54.2	34.6	11.2	
	4년제대학(재/졸)	(678)	67.0	33.0		63.1	26.1	10.8	
	대학원(석/박사졸)	(51)	78.4	21.6		74.5	17.6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8.8	31.2	19.425***	65.1	25.4	9.5	20.631***
	경험 없음	(283)	54.1	45.9		50.9	34.6	14.5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4.1	45.9	31.868***	50.9	34.6	14.5	39.457***
	일주일 내외	(315)	61.6	38.4		58.7	31.1	10.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4.0	26.0		70.6	21.6	7.8	
	1개월~6개월 이내	(108)	74.1	25.9		65.7	21.3	13.0	
	6개월 이상	(86)	74.4	25.6		73.3	19.8	7.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3.3	36.7	1.519	61.0	27.9	11.1	3.519
	중소도시	(304)	67.4	32.6		62.2	27.0	10.9	
	읍면	(89)	65.2	34.8		59.6	31.5	9.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4.3	35.7	1.887	61.3	27.8	10.9	9.598
	충청권	(104)	65.4	34.6		63.5	26.9	9.6	
	전라권	(90)	61.1	38.9		65.6	27.8	6.7	
	경상권	(219)	65.3	34.7		57.1	29.2	13.7	
	강원/제주권	(41)	73.2	26.8		65.9	26.8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3.1	36.9	3.690	61.1	27.1	11.8	15.511
	충청권	(121)	66.9	33.1		66.1	25.6	8.3	
	전라권	(92)	60.9	39.1		59.8	32.6	7.6	
	경상권	(236)	67.4	32.6		57.6	30.9	11.4	
	강원/제주권	(32)	75.0	25.0		75.0	15.6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5.0	35.0	1.224	61.3	21.2	17.5	12.989
	중층	(444)	66.4	33.6		63.5	27.5	9.0	
	하층	(442)	62.9	37.1		58.8	30.5	10.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5.2	34.8	0.140	60.5	29.4	10.1	8.467
	중위소득 미만	(468)	64.1	35.9		62.0	26.3	11.8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1.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58.6	41.4	7.824**	60.9	28.2	10.9	8.863
성별	남성	(509)	54.2	45.8		57.2	29.7	13.2	
	여성	(514)	62.8	37.2		64.6	26.7	8.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7.8	52.2	23.650***	52.2	33.0	14.8	25.615*
	전문대학(재/졸)	(179)	46.9	53.1		50.3	33.5	16.2	
	4년제대학(재/졸)	(678)	62.4	37.6		64.2	26.4	9.4	
	대학원(석/박사졸)	(51)	72.5	27.5		74.5	21.6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2.6	37.4	17.762***	64.2	25.9	9.9	12.393*
	경험 없음	(283)	48.1	51.9		52.3	33.9	13.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8.1	51.9	28.742***	52.3	33.9	13.8	30.640*
	일주일 내외	(315)	56.8	43.2		59.7	28.6	11.7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8.8	31.2		68.8	24.2	6.9	
	1개월~6개월 이내	(108)	59.3	40.7		62.0	24.1	13.9	
	6개월 이상	(86)	70.9	29.1		70.9	23.3	5.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8.4	41.6	0.334	61.0	27.9	11.1	11.445
	중소도시	(304)	59.5	40.5		59.9	27.6	12.5	
	읍면	(89)	56.2	43.8		64.0	31.5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6	42.4	6.302	63.4	26.0	10.5	26.823*
	충청권	(104)	51.0	49.0		52.9	28.8	18.3	
	전라권	(90)	56.7	43.3		51.1	40.0	8.9	
	경상권	(219)	63.9	36.1		61.2	29.2	9.6	
	강원/제주권	(41)	65.9	34.1		65.9	24.4	9.8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6.6	43.4	4.550	61.8	26.6	11.6	25.721
	충청권	(121)	57.9	42.1		62.8	23.1	14.0	
	전라권	(92)	55.4	44.6		47.8	42.4	9.8	
	경상권	(236)	64.4	35.6		61.9	30.1	8.1	
	강원/제주권	(32)	59.4	40.6		68.8	18.8	12.5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1.3	38.7	1.977	67.2	17.5	15.3	16.533*
	중층	(444)	60.1	39.9		60.4	30.4	9.2	
	하층	(442)	56.1	43.9		59.5	29.2	11.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6.6	43.4	1.953	60.0	28.6	11.4	3.880
	중위소득 미만	(468)	60.9	39.1		62.0	27.6	10.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2.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58.9	41.1		61.3	28.5	10.2	
성별	남성	(509)	55.4	44.6	5.250*	56.8	32.0	11.2	8.998
	여성	(514)	62.5	37.5		65.8	25.1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3.9	46.1	8.111*	58.3	33.0	8.7	24.355*
	전문대학(재/졸)	(179)	51.4	48.6		50.3	40.2	9.5	
	4년제대학(재/졸)	(678)	61.2	38.8		64.2	25.2	10.6	
	대학원(석/박사졸)	(51)	66.7	33.3		68.6	21.6	9.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2.8	37.2	16.757***	65.1	25.8	9.1	18.610***
	경험 없음	(283)	48.8	51.2		51.2	35.7	13.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8.8	51.2	27.288***	51.2	35.7	13.1	53.620***
	일주일 내외	(315)	57.1	42.9		62.2	25.4	12.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8.4	31.6		71.4	23.4	5.2	
	1개월~6개월 이내	(108)	60.2	39.8		50.9	38.0	11.1	
	6개월 이상	(86)	72.1	27.9		76.7	18.6	4.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6	42.4	1.300	60.6	28.1	11.3	7.263
	중소도시	(304)	61.5	38.5		64.1	27.0	8.9	
	읍면	(89)	59.6	40.4		56.2	37.1	6.7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6.9	43.1	3.740	62.7	27.1	10.2	8.457
	충청권	(104)	59.6	40.4		55.8	30.8	13.5	
	전라권	(90)	56.7	43.3		61.1	31.1	7.8	
	경상권	(219)	63.9	36.1		61.2	29.2	9.6	
	강원/제주권	(41)	63.4	36.6		56.1	34.1	9.8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7.2	42.8	3.424	61.8	27.9	10.3	16.302
	충청권	(121)	62.0	38.0		60.3	28.9	10.7	
	전라권	(92)	55.4	44.6		59.8	31.5	8.7	
	경상권	(236)	63.1	36.9		61.9	28.0	10.2	
	강원/제주권	(32)	56.3	43.8		56.3	34.4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4.7	45.3	1.369	57.7	28.5	13.9	15.979*
	중층	(444)	60.4	39.6		63.5	26.4	10.1	
	하층	(442)	58.8	41.2		60.2	30.8	9.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9.8	40.2	0.384	61.6	27.9	10.5	1.253
	중위소득 미만	(468)	57.9	42.1		60.9	29.3	9.8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3.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5.1	34.9	3.078	62.7	27.5	9.9	11.116*
성별	남성	(509)	62.5	37.5		59.9	28.5	11.6	
	여성	(514)	67.7	32.3		65.4	26.5	8.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3.0	47.0	23.304***	52.2	36.5	11.3	33.104***
	전문대학(재/졸)	(179)	54.7	45.3		54.2	33.5	12.3	
	4년제대학(재/졸)	(678)	69.0	31.0		65.8	25.1	9.1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74.5	17.6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8.4	31.6	12.634***	66.2	24.6	9.2	17.958**
	경험 없음	(283)	56.5	43.5		53.4	35.0	11.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6.5	43.5	47.665***	53.4	35.0	11.7	44.294***
	일주일 내외	(315)	56.8	43.2		59.7	29.8	10.5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6.6	23.4		72.7	21.6	5.6	
	1개월~6개월 이내	(108)	72.2	27.8		65.7	20.4	13.9	
	6개월 이상	(86)	83.7	16.3		73.3	18.6	8.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6.0	34.0	0.647	61.4	28.3	10.3	4.489
	중소도시	(304)	63.8	36.2		65.5	25.0	9.5	
	읍면	(89)	62.9	37.1		61.8	30.3	7.9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5.2	34.8	0.721	62.4	27.9	9.7	17.718
	충청권	(104)	63.5	36.5		56.7	27.9	15.4	
	전라권	(90)	64.4	35.6		61.1	25.6	13.3	
	경상권	(219)	64.8	35.2		65.8	26.9	7.3	
	강원/제주권	(41)	70.7	29.3		68.3	26.8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4.0	36.0	1.850	60.7	29.0	10.3	13.879
	충청권	(121)	65.3	34.7		64.5	24.0	11.6	
	전라권	(92)	63.0	37.0		58.7	28.3	13.0	
	경상권	(236)	68.6	31.4		66.9	25.8	7.2	
	강원/제주권	(32)	62.5	37.5		68.8	25.0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3.5	36.5	0.472	62.0	24.8	13.1	5.201
	중층	(444)	66.2	33.8		62.8	26.8	10.4	
	하층	(442)	64.5	35.5		62.7	29.0	8.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5.8	34.2	0.235	63.1	26.5	10.5	1.505
	중위소득 미만	(468)	64.3	35.7		62.2	28.6	9.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4.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x ²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58.5	41.5		60.8	28.2	11.0	
성별	남성	(509)	54.0	46.0	8.179**	56.2	31.6	12.2	18.365**
	여성	(514)	62.8	37.2		65.4	24.7	9.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7.4	42.6	10.065*	55.7	33.9	10.4	19.237
	전문대학(재/졸)	(179)	52.0	48.0		52.5	35.8	11.7	
	4년제대학(재/졸)	(678)	59.0	41.0		63.3	26.0	10.8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68.6	17.6	13.7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1.2	38.8	8.395**	64.2	25.7	10.1	16.296**
	경험 없음	(283)	51.2	48.8		51.9	34.6	13.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1.2	48.8	13.482**	51.9	34.6	13.4	32.739**
	일주일 내외	(315)	57.5	42.5		60.0	28.3	11.7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1.0	39.0		69.7	23.4	6.9	
	1개월~6개월 이내	(108)	66.7	33.3		59.3	28.7	12.0	
	6개월 이상	(86)	68.6	31.4		70.9	18.6	10.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5	42.5	1.910	59.4	27.8	12.9	14.472
	중소도시	(304)	58.6	41.4		62.5	28.3	9.2	
	읍면	(89)	65.2	34.8		65.2	30.3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5	42.5	8.042	61.3	27.1	11.6	8.506
	충청권	(104)	68.3	31.7		59.6	33.7	6.7	
	전라권	(90)	48.9	51.1		60.0	27.8	12.2	
	경상권	(219)	60.3	39.7		60.3	27.9	11.9	
	강원/제주권	(41)	58.5	41.5		61.0	31.7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7.7	42.3	6.320	60.7	27.7	11.6	11.657
	충청권	(121)	66.1	33.9		65.3	28.9	5.8	
	전라권	(92)	51.1	48.9		58.7	30.4	10.9	
	경상권	(236)	60.2	39.8		59.7	27.5	12.7	
	강원/제주권	(32)	50.0	50.0		59.4	31.3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6.9	43.1	0.513	56.9	21.2	21.9	31.095***
	중층	(444)	59.7	40.3		62.6	28.2	9.2	
	하층	(442)	57.7	42.3		60.2	30.3	9.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8.4	41.6	0.003	59.1	27.6	13.3	6.992
	중위소득 미만	(468)	58.5	41.5		62.8	28.8	8.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5.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자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2.7	37.3	3.244	61.6	29.6	8.8	21.926***
성별	남성	(509)	59.9	40.1		54.8	34.6	10.6	
	여성	(514)	65.4	34.6		68.3	24.7	7.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6.5	43.5	15.103**	55.7	37.4	7.0	18.501
	전문대학(재/졸)	(179)	52.5	47.5		54.7	34.1	11.2	
	4년제대학(재/졸)	(678)	65.5	34.5		63.4	27.9	8.7	
	대학원(석/박사졸)	(51)	74.5	25.5		74.5	19.6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6.2	33.8	14.468***	64.7	27.0	8.2	14.929**
	경험 없음	(283)	53.4	46.6		53.4	36.4	10.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3.4	46.6	23.650***	53.4	36.4	10.2	27.246*
	일주일 내외	(315)	60.0	40.0		61.3	31.4	7.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1.4	28.6		70.6	22.1	7.4	
	1개월~6개월 이내	(108)	69.4	30.6		61.1	25.9	13.0	
	6개월 이상	(86)	70.9	29.1		66.3	25.6	8.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3.3	36.7	0.321	60.6	29.5	9.8	8.915
	중소도시	(304)	61.5	38.5		62.5	29.6	7.9	
	읍면	(89)	61.8	38.2		65.2	30.3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2.0	38.0	2.835	62.4	27.8	9.8	18.079
	충청권	(104)	62.5	37.5		57.7	31.7	10.6	
	전라권	(90)	56.7	43.3		56.7	37.8	5.6	
	경상권	(219)	66.2	33.8		64.8	28.3	6.8	
	강원/제주권	(41)	65.9	34.1		53.7	39.0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1.4	38.6	5.892	61.1	28.2	10.7	16.233
	충청권	(121)	64.5	35.5		62.8	28.9	8.3	
	전라권	(92)	54.3	45.7		56.5	39.1	4.3	
	경상권	(236)	67.8	32.2		64.8	28.8	6.4	
	강원/제주권	(32)	62.5	37.5		56.3	34.4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0	38.0	0.809	58.4	24.1	17.5	22.041**
	중층	(444)	64.2	35.8		62.4	30.0	7.7	
	하층	(442)	61.3	38.7		61.8	31.0	7.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3.6	36.4	0.463	62.2	29.0	8.8	0.777
	중위소득 미만	(468)	61.5	38.5		60.9	30.3	8.8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6.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χ^2	도움 정도			χ^2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전체		(1,023)	59.4	40.6	1.793	60.6	28.5	10.9	11.156*
성별	남성	(509)	57.4	42.6		57.2	30.3	12.6	
	여성	(514)	61.5	38.5		64.0	26.8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0.4	49.6	17.264***	50.4	41.7	7.8	32.561**
	전문대학(재/졸)	(179)	50.8	49.2		49.7	38.0	12.3	
	4년제대학(재/졸)	(678)	61.9	38.1		64.3	24.3	11.4	
	대학원(석/박사졸)	(51)	76.5	23.5		72.5	21.6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2.4	37.6	9.981**	63.6	25.8	10.5	14.674**
	경험 없음	(283)	51.6	48.4		52.7	35.7	11.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51.6	48.4	14.414**	52.7	35.7	11.7	27.646*
	일주일 내외	(315)	58.1	41.9		59.7	28.9	11.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5.4	34.6		69.7	23.4	6.9	
	1개월~6개월 이내	(108)	64.8	35.2		57.4	27.8	14.8	
	6개월 이상	(86)	67.4	32.6		69.8	18.6	11.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8.7	41.3	0.553	61.0	27.1	11.9	8.261
	중소도시	(304)	61.2	38.8		61.5	28.3	10.2	
	읍면	(89)	58.4	41.6		55.1	39.3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7.5	42.5	4.224	61.2	27.8	11.1	12.903
	충청권	(104)	57.7	42.3		56.7	33.7	9.6	
	전라권	(90)	63.3	36.7		62.2	30.0	7.8	
	경상권	(219)	61.6	38.4		60.3	27.4	12.3	
	강원/제주권	(41)	70.7	29.3		61.0	29.3	9.8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7.6	42.4	2.842	59.2	28.8	12.0	19.695
	충청권	(121)	58.7	41.3		62.8	29.8	7.4	
	전라권	(92)	64.1	35.9		59.8	32.6	7.6	
	경상권	(236)	62.7	37.3		62.7	26.3	11.0	
	강원/제주권	(32)	56.3	43.8		62.5	25.0	12.5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5.5	44.5	7.367*	59.1	24.8	16.1	10.517
	중층	(444)	64.2	35.8		63.1	27.3	9.7	
	하층	(442)	55.9	44.1		58.6	31.0	10.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8.4	41.6	0.560	60.7	27.9	11.4	2.975
	중위소득 미만	(468)	60.7	39.3		60.5	29.3	10.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7.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55.6	44.4	3.154	59.2	28.6	12.1	10.190*
성별	남성	(509)	52.8	47.2		55.6	30.5	13.9	
	여성	(514)	58.4	41.6		62.8	26.8	10.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9.1	60.9	44.206***	52.2	36.5	11.3	46.394***
	전문대학(재/졸)	(179)	43.6	56.4		44.7	42.5	12.8	
	4년제대학(재/졸)	(678)	59.4	40.6		62.7	24.8	12.5	
	대학원(석/박사졸)	(51)	84.3	15.7		80.4	13.7	5.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0.3	39.7	23.427***	61.8	26.1	12.2	14.846**
	경험 없음	(283)	43.5	56.5		52.7	35.3	12.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3.5	56.5	50.466***	52.7	35.3	12.0	29.730*
	일주일 내외	(315)	49.5	50.5		55.6	30.8	13.7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8.8	31.2		66.7	22.1	11.3	
	1개월~6개월 이내	(108)	63.9	36.1		62.0	26.9	11.1	
	6개월 이상	(86)	72.1	27.9		70.9	18.6	10.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7.6	42.4	2.760	59.0	27.6	13.3	16.736*
	중소도시	(304)	52.0	48.0		62.2	26.3	11.5	
	읍면	(89)	53.9	46.1		50.6	43.8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4.8	45.2	2.070	59.9	27.4	12.7	9.658
	충청권	(104)	61.5	38.5		60.6	28.8	10.6	
	전라권	(90)	52.2	47.8		54.4	32.2	13.3	
	경상권	(219)	56.2	43.8		57.1	30.6	12.3	
	강원/제주권	(41)	56.1	43.9		68.3	26.8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4.6	45.4	1.769	58.5	28.0	13.5	13.316
	충청권	(121)	58.7	41.3		66.1	27.3	6.6	
	전라권	(92)	52.2	47.8		53.3	34.8	12.0	
	경상권	(236)	58.1	41.9		58.1	29.2	12.7	
	강원/제주권	(32)	53.1	46.9		71.9	21.9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8	37.2	4.436	65.7	19.7	14.6	11.276
	중층	(444)	56.3	43.7		59.9	28.8	11.3	
	하층	(442)	52.7	47.3		56.6	31.2	12.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7.1	42.9	1.101	58.7	28.6	12.6	1.457
	중위소득 미만	(468)	53.8	46.2		59.8	28.6	1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8.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x ²
전체		(1,023)	57.6	42.4	2.731	57.3	32.6	10.2	15.651**
성별	남성	(509)	55.0	45.0		52.1	36.0	12.0	
	여성	(514)	60.1	39.9		62.5	29.2	8.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6.1	53.9	19.916***	52.2	37.4	10.4	23.421*
	전문대학(재/졸)	(179)	50.8	49.2		49.7	40.8	9.5	
	4년제대학(재/졸)	(678)	59.7	40.3		58.4	31.1	10.5	
	대학원(석/박사졸)	(51)	78.4	21.6		80.4	11.8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0.9	39.1	12.439***	61.1	29.3	9.6	19.732***
	경험 없음	(283)	48.8	51.2		47.3	41.0	11.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8.8	51.2	16.540**	47.3	41.0	11.7	30.166*
	일주일 내외	(315)	57.5	42.5		60.3	30.8	8.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64.1	35.9		61.5	30.3	8.2	
	1개월~6개월 이내	(108)	59.3	40.7		57.4	30.6	12.0	
	6개월 이상	(86)	67.4	32.6		67.4	19.8	12.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8.6	41.4	1.139	58.6	31.9	9.5	3.985
	중소도시	(304)	56.9	43.1		55.9	32.2	11.8	
	읍면	(89)	52.8	47.2		52.8	38.2	9.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6.8	43.2	1.903	58.7	30.8	10.5	9.851
	충청권	(104)	57.7	42.3		52.9	35.6	11.5	
	전라권	(90)	53.3	46.7		52.2	40.0	7.8	
	경상권	(219)	60.7	39.3		55.7	34.7	9.6	
	강원/제주권	(41)	61.0	39.0		68.3	22.0	9.8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6.6	43.4	2.637	57.7	31.2	11.1	15.013
	충청권	(121)	57.0	43.0		56.2	34.7	9.1	
	전라권	(92)	54.3	45.7		47.8	44.6	7.6	
	경상권	(236)	61.9	38.1		58.5	32.2	9.3	
	강원/제주권	(32)	53.1	46.9		71.9	15.6	12.5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7.2	32.8	10.636**	60.6	27.0	12.4	11.997
	중층	(444)	59.7	40.3		59.9	32.0	8.1	
	하층	(442)	52.5	47.5		53.6	34.8	11.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6.2	43.8	0.918	56.6	33.5	9.9	1.166
	중위소득 미만	(468)	59.2	40.8		58.1	31.4	10.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39.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60.4	39.6		60.5	28.8	10.7	
성별	남성	(509)	57.2	42.8	4.446*	55.6	31.4	13.0	19.890***
	여성	(514)	63.6	36.4		65.4	26.3	8.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6.1	53.9	20.002***	50.4	36.5	13.0	19.708
	전문대학(재/졸)	(179)	52.5	47.5		54.2	33.0	12.8	
	4년제대학(재/졸)	(678)	64.5	35.5		62.8	27.3	9.9	
	대학원(석/박사졸)	(51)	66.7	33.3		74.5	17.6	7.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5.4	34.6	27.904***	63.1	27.2	9.7	10.416*
	경험 없음	(283)	47.3	52.7		53.7	33.2	13.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7.3	52.7	47.099***	53.7	33.2	13.1	39.131**
	일주일 내외	(315)	57.1	42.9		58.4	29.8	11.7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4.0	26.0		69.7	22.1	8.2	
	1개월~6개월 이내	(108)	63.9	36.1		51.9	38.0	10.2	
	6개월 이상	(86)	74.4	25.6		76.7	17.4	5.8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9.8	40.2	0.242	59.5	29.4	11.1	3.807
	중소도시	(304)	61.5	38.5		60.9	28.3	10.9	
	읍면	(89)	60.7	39.3		66.3	27.0	6.7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9.2	40.8	3.257	60.5	28.6	10.9	17.471
	충청권	(104)	57.7	42.3		55.8	29.8	14.4	
	전라권	(90)	57.8	42.2		65.6	30.0	4.4	
	경상권	(219)	65.3	34.7		61.6	28.8	9.6	
	강원/제주권	(41)	63.4	36.6		56.1	26.8	17.1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9.6	40.4	2.694	60.0	28.6	11.4	23.619
	충청권	(121)	60.3	39.7		61.2	28.1	10.7	
	전라권	(92)	55.4	44.6		59.8	34.8	5.4	
	경상권	(236)	64.4	35.6		61.4	29.2	9.3	
	강원/제주권	(32)	59.4	40.6		62.5	15.6	21.9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7.9	32.1	10.442**	57.7	29.2	13.1	9.124
	중층	(444)	63.5	36.5		61.7	29.1	9.2	
	하층	(442)	55.0	45.0		60.2	28.5	11.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0.0	40.0	0.086	60.0	29.4	10.6	1.892
	중위소득 미만	(468)	60.9	39.1		61.1	28.2	10.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0. 국가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의향			도움 정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χ^2	도움됨	보통	도움안됨	χ^2
전체		(1,023)	53.0	47.0	0.343	55.9	32.5	11.6	1.790
성별	남성	(509)	52.1	47.9		54.2	33.4	12.4	
	여성	(514)	53.9	46.1		57.6	31.5	10.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1.7	58.3	12.715**	45.2	41.7	13.0	17.365
	전문대학(재/졸)	(179)	48.0	52.0		50.8	38.5	10.6	
	4년제대학(재/졸)	(678)	55.2	44.8		58.4	29.8	11.8	
	대학원(석/박사졸)	(51)	66.7	33.3		64.7	25.5	9.8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56.9	43.1	16.420***	59.6	28.6	11.8	19.326***
	경험 없음	(283)	42.8	57.2		46.3	42.4	11.3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2.8	57.2	20.643***	46.3	42.4	11.3	35.273**
	일주일 내외	(315)	53.3	46.7		52.7	34.9	12.4	
	일주일~1개월 이내	(231)	57.6	42.4		66.7	22.5	10.8	
	1개월~6개월 이내	(108)	59.3	40.7		60.2	27.8	12.0	
	6개월 이상	(86)	65.1	34.9		65.1	23.3	11.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3.8	46.2	0.507	57.0	30.8	12.2	7.949
	중소도시	(304)	52.0	48.0		52.6	34.9	12.5	
	읍면	(89)	50.6	49.4		59.6	36.0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51.1	48.9	6.547	56.2	30.9	12.8	12.178
	충청권	(104)	59.6	40.4		56.7	29.8	13.5	
	전라권	(90)	46.7	53.3		51.1	42.2	6.7	
	경상권	(219)	58.0	42.0		57.5	32.9	9.6	
	강원/제주권	(41)	48.8	51.2		51.2	36.6	12.2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1.8	48.2	4.601	55.9	30.8	13.3	22.190
	충청권	(121)	52.9	47.1		55.4	33.1	11.6	
	전라권	(92)	47.8	52.2		45.7	46.7	7.6	
	경상권	(236)	58.5	41.5		60.6	30.5	8.9	
	강원/제주권	(32)	46.9	53.1		53.1	31.3	15.6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57.7	42.3	6.019*	62.8	24.1	13.1	13.385
	중층	(444)	55.9	44.1		57.9	32.0	10.1	
	하층	(442)	48.6	51.4		51.8	35.5	12.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53.2	46.8	0.014	56.2	31.9	11.9	1.619
	중위소득 미만	(468)	52.8	47.2		55.6	33.1	11.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여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6.6	93.4	
성별	남성	(509)	8.8	91.2	7.857**
	여성	(514)	4.5	9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3	95.7	1.495
	전문대학(재/졸)	(179)	7.8	92.2	
	4년제대학(재/졸)	(678)	6.6	93.4	
	대학원(석/박사졸)	(51)	7.8	92.2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7.7	92.3	4.803*
	경험 없음	(283)	3.9	96.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9	96.1	22.399***
	일주일 내외	(315)	5.1	94.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4	92.6	
	1개월~6개월 이내	(108)	16.7	83.3	
	6개월 이상	(86)	7.0	93.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8.9	91.1	13.666**
	중소도시	(304)	2.6	97.4	
	읍면	(89)	4.5	95.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3	93.7	4.339
	충청권	(104)	9.6	90.4	
	전라권	(90)	10.0	90.0	
	경상권	(219)	5.0	95.0	
	강원/제주권	(41)	4.9	95.1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7.2	92.8	2.453
	충청권	(121)	6.6	93.4	
	전라권	(92)	8.7	91.3	
	경상권	(236)	5.1	94.9	
	강원/제주권	(32)	3.1	96.9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6.8	83.2	27.657***
	중층	(444)	6.1	93.9	
	하층	(442)	4.1	95.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8.3	91.7	5.266*
	중위소득 미만	(468)	4.7	95.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활동 경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생 교환 (교환 학기)	교사 (교육자) 교환	공동 학위과정	교육전문가 교류	기간간 협력 (파트너십)	χ^2
전체		(68)	32.4	27.9	25.0	13.2	1.5	4.177
성별	남성	(45)	26.7	33.3	22.2	15.6	2.2	
	여성	(23)	43.5	17.4	30.4	8.7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	20.0	40.0	40.0	0.0	0.0	11.295
	전문대학(재/졸)	(14)	21.4	42.9	28.6	0.0	7.1	
	4년제대학(재/졸)	(45)	37.8	22.2	22.2	17.8	0.0	
	대학원(석/박사졸)	(4)	25.0	25.0	25.0	25.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57)	38.6	22.8	24.6	12.3	1.8	8.032
	경험 없음	(11)	0.0	54.5	27.3	18.2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11)	0.0	54.5	27.3	18.2	0.0	11.977
	일주일 내외	(16)	37.5	25.0	25.0	12.5	0.0	
	일주일~1개월 이내	(17)	47.1	17.6	23.5	11.8	0.0	
	1개월~6개월 이내	(18)	33.3	27.8	22.2	11.1	5.6	
	6개월 이상	(6)	33.3	16.7	33.3	16.7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6)	32.1	28.6	21.4	16.1	1.8	7.949
	중소도시	(8)	37.5	37.5	25.0	0.0	0.0	
	읍면	(4)	25.0	0.0	75.0	0.0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36)	36.1	19.4	27.8	16.7	0.0	11.707
	충청권	(10)	20.0	40.0	30.0	10.0	0.0	
	전라권	(9)	33.3	44.4	11.1	11.1	0.0	
	경상권	(11)	27.3	36.4	18.2	9.1	9.1	
	강원/제주권	(2)	50.0	0.0	50.0	0.0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39)	33.3	20.5	28.2	17.9	0.0	15.231
	충청권	(8)	25.0	37.5	37.5	0.0	0.0	
	전라권	(8)	25.0	50.0	12.5	12.5	0.0	
	경상권	(12)	41.7	33.3	8.3	8.3	8.3	
	강원/제주권	(1)	0.0	0.0	100.0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23)	21.7	39.1	26.1	13.0	0.0	13.243
	중층	(27)	40.7	29.6	11.1	18.5	0.0	
	하층	(18)	33.3	11.1	44.4	5.6	5.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6)	32.6	28.3	28.3	10.9	0.0	3.305
	중위소득 미만	(22)	31.8	27.3	18.2	18.2	4.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59.1	40.9	4.154*
성별	남성	(509)	56.0	44.0	
	여성	(514)	62.3	37.7	45.3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4.3	55.7	
	전문대학(재/졸)	(179)	42.5	57.5	
	4년제대학(재/졸)	(678)	64.9	35.1	
	대학원(석/박사졸)	(51)	74.5	25.5	41.604***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5.3	34.7	
	경험 없음	(283)	43.1	56.9	66.43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3.1	56.9	
	일주일 내외	(315)	55.2	44.8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1.9	28.1	
	1개월~6개월 이내	(108)	69.4	30.6	
	6개월 이상	(86)	79.1	20.9	0.04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58.9	41.1	
	중소도시	(304)	59.5	40.5	
	읍면	(89)	59.6	40.4	2.648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1.0	39.0	
	충청권	(104)	53.8	46.2	
	전라권	(90)	55.6	44.4	
	경상권	(219)	58.9	41.1	
	강원/제주권	(41)	56.1	43.9	0.73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59.8	40.2	
	충청권	(121)	57.9	42.1	
	전라권	(92)	55.4	44.6	
	경상권	(236)	59.7	40.3	
	강원/제주권	(32)	59.4	40.6	0.35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0.6	39.4	
	중층	(444)	59.7	40.3	
	하층	(442)	58.1	41.9	1.55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0.9	39.1	
	중위소득 미만	(468)	57.1	42.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른 문 화와 연 어 경험	학문적 발전과 경험	국제적 네트워 킹 및 친구 사 귀기	자립과 적응력 향상	취업 등 을 위한 경력 쌓 기	교육 시 스템 비 교 및 이해	유럽 통 합과 연 계된 경 험	기타	χ^2
전체	(605)	41.5	19.0	12.7	9.3	6.9	5.8	4.6	0.2	11.287
성별	남성	(285)	36.5	20.4	13.7	10.5	7.4	7.7	3.5	0.4
	여성	(320)	45.9	17.8	11.9	8.1	6.6	4.1	5.6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1)	43.1	17.6	9.8	7.8	15.7	3.9	2.0	0.0
	전문대학(재/졸)	(76)	27.6	25.0	15.8	10.5	7.9	9.2	3.9	0.0
	4년제대학(재/졸)	(440)	43.4	18.4	12.5	9.3	6.1	5.5	4.8	0.0
	대학원(석/박사졸)	(38)	44.7	15.8	13.2	7.9	2.6	5.3	7.9	2.6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483)	43.3	19.5	13.0	8.3	5.8	4.8	5.2	0.2
	경험 없음	(122)	34.4	17.2	11.5	13.1	11.5	9.8	2.5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122)	34.4	17.2	11.5	13.1	11.5	9.8	2.5	0.0
	일주일 내외	(174)	43.7	20.1	13.8	8.6	6.3	4.0	2.9	0.6
	일주일~1개월 이내	(166)	44.6	18.1	15.1	5.4	6.0	4.8	6.0	0.0
	1개월~6개월 이내	(75)	38.7	22.7	12.0	10.7	2.7	2.7	10.7	0.0
거주 지역의 규모	6개월 이상	(68)	44.1	17.6	7.4	11.8	7.4	8.8	2.9	0.0
	대도시	(371)	41.5	19.1	13.2	9.7	4.6	6.7	4.9	0.3
	중소도시	(181)	40.9	18.8	12.2	8.8	9.9	3.9	5.5	0.0
	읍면	(53)	43.4	18.9	11.3	7.5	13.2	5.7	0.0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347)	44.4	19.0	13.0	7.8	6.9	4.0	4.9	0.0
	충청권	(56)	44.6	14.3	14.3	10.7	5.4	8.9	1.8	0.0
	전라권	(50)	42.0	12.0	10.0	12.0	4.0	14.0	6.0	0.0
	경상권	(129)	33.3	23.3	11.6	10.1	10.1	7.0	3.9	0.8
졸업 학교 지역	강원/제주권	(23)	34.8	21.7	17.4	17.4	0.0	0.0	8.7	0.0
	수도권	(324)	42.3	20.1	12.7	9.0	7.1	4.0	4.9	0.0
	충청권	(70)	47.1	17.1	14.3	5.7	7.1	7.1	1.4	0.0
	전라권	(51)	37.3	9.8	17.6	11.8	3.9	13.7	5.9	0.0
주관적 계층의식	경상권	(141)	39.0	19.9	9.9	9.9	8.5	7.1	5.0	0.7
	강원/제주권	(19)	36.8	26.3	15.8	15.8	0.0	0.0	5.3	0.0
	상층	(83)	36.1	25.3	18.1	9.6	3.6	4.8	2.4	0.0
	중층	(265)	41.9	17.7	12.5	12.1	5.7	5.3	4.9	0.0
1인가구 중위소득	하층	(257)	42.8	18.3	11.3	6.2	9.3	6.6	5.1	0.4
	중위소득 이상	(338)	42.9	16.3	15.7	9.2	6.2	5.0	4.4	0.3
	중위소득 미만	(267)	39.7	22.5	9.0	9.4	7.9	6.7	4.9	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5.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재정적 부담	언어적 어려움	국제 교류 자체 에 관심 없어서	프로그 램 정보 부족	문화적 적응 문제	비자나 여권 문제	기타	χ^2
전체		(418)	32.5	17.9	16.0	14.8	12.2	4.1	2.4	
성별	남성	(224)	32.1	15.6	17.4	14.3	13.8	4.5	2.2	3.441
	여성	(194)	33.0	20.6	14.4	15.5	10.3	3.6	2.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64)	34.4	17.2	17.2	9.4	12.5	6.3	3.1	12.535
	전문대학(재/졸)	(103)	35.9	20.4	11.7	12.6	14.6	2.9	1.9	
	4년제대학(재/졸)	(238)	30.7	16.8	18.5	17.2	10.9	3.8	2.1	
	대학원(석/박사졸)	(13)	30.8	23.1	0.0	15.4	15.4	7.7	7.7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257)	32.3	19.5	15.6	17.5	9.3	3.1	2.7	10.458
	경험 없음	(161)	32.9	15.5	16.8	10.6	16.8	5.6	1.9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161)	32.9	15.5	16.8	10.6	16.8	5.6	1.9	40.574*
	일주일 내외	(141)	39.0	19.1	15.6	13.5	6.4	3.5	2.8	
	일주일~1개월 이내	(65)	24.6	23.1	12.3	27.7	7.7	1.5	3.1	
	1개월~6개월 이내	(33)	15.2	18.2	24.2	9.1	27.3	3.0	3.0	
	6개월 이상	(18)	38.9	11.1	11.1	27.8	5.6	5.6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259)	34.0	16.6	15.4	14.7	12.4	4.6	2.3	13.754
	중소도시	(123)	34.1	21.1	17.1	13.0	11.4	2.4	0.8	
	읍면	(36)	16.7	16.7	16.7	22.2	13.9	5.6	8.3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222)	31.5	18.0	18.5	14.9	10.4	5.0	1.8	18.025
	충청권	(48)	33.3	14.6	16.7	12.5	16.7	4.2	2.1	
	전라권	(40)	35.0	15.0	7.5	15.0	20.0	2.5	5.0	
	경상권	(90)	32.2	21.1	15.6	16.7	7.8	3.3	3.3	
	강원/제주권	(18)	38.9	16.7	5.6	11.1	27.8	0.0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218)	31.7	18.3	17.9	15.1	10.1	5.0	1.8	13.387
	충청권	(51)	39.2	15.7	13.7	7.8	17.6	3.9	2.0	
	전라권	(41)	31.7	17.1	12.2	14.6	17.1	2.4	4.9	
	경상권	(95)	30.5	18.9	14.7	18.9	10.5	3.2	3.2	
	강원/제주권	(13)	38.5	15.4	15.4	7.7	23.1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54)	24.1	18.5	20.4	20.4	9.3	7.4	0.0	11.370
	중층	(179)	30.7	16.8	14.5	16.8	14.0	3.9	3.4	
	하층	(185)	36.8	18.9	16.2	11.4	11.4	3.2	2.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217)	33.6	17.1	14.3	16.1	11.1	4.6	3.2	3.853
	중위소득 미만	(201)	31.3	18.9	17.9	13.4	13.4	3.5	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기여하는 이점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다문화적 이해와 폭넓은 시야	언어 능력 향상	국제적 네트워킹 기획	학문적 발전	자립과 적응력 향상	유럽 교육 시스템 이해	기타	χ^2
전체		(1,023)	39.9	18.9	17.6	13.2	8.1	2.2	0.1	
성별	남성	(509)	33.4	22.6	18.1	14.7	7.5	3.5	0.2	29.097***
	여성	(514)	46.3	15.2	17.1	11.7	8.8	1.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0.4	21.7	14.8	20.9	7.8	4.3	0.0	30.153*
	전문대학(재/졸)	(179)	33.5	22.3	20.1	10.6	8.9	4.5	0.0	
	4년제대학(재/졸)	(678)	42.5	18.4	17.3	12.5	7.8	1.3	0.1	
	대학원(석/박사졸)	(51)	49.0	5.9	19.6	13.7	9.8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3.4	18.5	17.4	12.0	7.2	1.4	0.1	24.122***
	경험 없음	(283)	30.7	19.8	18.0	16.3	10.6	4.6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0.7	19.8	18.0	16.3	10.6	4.6	0.0	39.777*
	일주일 내외	(315)	41.3	22.2	15.6	10.5	8.6	1.6	0.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3.7	17.7	18.2	13.0	6.5	0.9	0.0	
	1개월~6개월 이내	(108)	48.1	13.0	17.6	14.8	6.5	0.0	0.0	
	6개월 이상	(86)	44.2	14.0	22.1	11.6	4.7	3.5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8.1	19.5	17.9	14.1	7.9	2.4	0.0	8.040
	중소도시	(304)	41.4	18.8	16.4	11.8	9.2	2.0	0.3	
	읍면	(89)	47.2	14.6	19.1	11.2	5.6	2.2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9.9	18.8	18.8	12.1	8.6	1.8	0.0	25.012
	충청권	(104)	44.2	12.5	12.5	20.2	7.7	2.9	0.0	
	전라권	(90)	45.6	17.8	14.4	15.6	4.4	2.2	0.0	
	경상권	(219)	34.2	22.8	19.6	11.9	7.8	3.2	0.5	
	강원/제주권	(41)	46.3	17.1	9.8	12.2	12.2	2.4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9.5	19.0	18.6	13.3	7.9	1.7	0.0	18.753
	충청권	(121)	43.8	14.9	15.7	14.0	9.1	2.5	0.0	
	전라권	(92)	47.8	16.3	14.1	15.2	4.3	2.2	0.0	
	경상권	(236)	35.6	22.5	18.2	11.0	8.9	3.4	0.4	
	강원/제주권	(32)	40.6	12.5	12.5	18.8	12.5	3.1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7	26.3	19.0	15.3	8.8	2.9	0.0	24.570*
	중층	(444)	39.9	17.3	19.8	15.1	6.3	1.6	0.0	
	하층	(442)	43.7	18.1	14.9	10.6	9.7	2.7	0.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2.0	17.5	16.0	14.2	7.9	2.2	0.2	6.182
	중위소득 미만	(468)	37.4	20.5	19.4	12.0	8.3	2.4	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생 교환 (교환 학기)	공동 학위 과정	직업훈련	교사(교육 자) 교환	교육전문 가 교류	χ^2
전체		(1,023)	40.3	19.6	17.0	11.6	11.5	20.418***
성별	남성	(509)	41.1	18.7	12.8	14.5	13.0	
	여성	(514)	39.5	20.4	21.2	8.8	10.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6.5	10.4	28.7	12.2	12.2	31.754**
	전문대학(재/졸)	(179)	31.8	19.0	17.9	15.6	15.6	
	4년제대학(재/졸)	(678)	43.7	20.5	14.9	10.5	10.5	
해외체류 경험	대학원(석/박사졸)	(51)	33.3	29.4	15.7	11.8	9.8	25.490***
	경험 있음	(740)	43.9	20.0	16.5	9.3	10.3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0.7	18.4	18.4	17.7	14.8	39.158**
	경험 없음	(283)	30.7	18.4	18.4	17.7	14.8	
	일주일 내외	(315)	45.7	16.8	17.1	10.5	9.8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3.7	21.2	16.0	6.1	13.0	
	1개월~6개월 이내	(108)	40.7	21.3	13.9	13.9	10.2	
거주 지역의 규모	6개월 이상	(86)	41.9	26.7	18.6	8.1	4.7	12.286
	대도시	(630)	39.8	20.5	14.4	12.4	12.9	
	중소도시	(304)	41.4	19.1	20.7	9.5	9.2	
현재 거주 지역	읍면	(89)	39.3	14.6	22.5	13.5	10.1	10.062
	수도권	(569)	41.3	19.9	15.1	11.4	12.3	
	충청권	(104)	39.4	19.2	17.3	15.4	8.7	
	전라권	(90)	40.0	14.4	22.2	13.3	10.0	
	경상권	(219)	37.0	21.5	19.2	10.5	11.9	
졸업 학교 지역	강원/제주권	(41)	46.3	17.1	19.5	7.3	9.8	10.215
	수도권	(542)	40.4	20.8	15.3	11.4	12.0	
	충청권	(121)	43.0	19.0	14.9	13.2	9.9	
	전라권	(92)	35.9	15.2	23.9	13.0	12.0	
	경상권	(236)	38.6	19.5	19.5	11.0	11.4	
주관적 계층의식	강원/제주권	(32)	53.1	12.5	15.6	9.4	9.4	15.539*
	상층	(137)	35.8	22.6	13.9	14.6	13.1	
	중층	(444)	43.0	19.6	13.5	12.8	11.0	
1인가구 중위소득	하층	(442)	38.9	18.6	21.5	9.5	11.5	5.432
	중위소득 이상	(555)	37.8	20.5	17.3	11.2	13.2	
중위소득 미만		(468)	43.2	18.4	16.7	12.2	9.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8.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정부	대학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기타	χ^2
전체		(1,023)	42.7	33.3	13.6	7.0	3.2	0.1	12.931*
성별	남성	(509)	37.9	35.6	14.1	8.8	3.3	0.2	
	여성	(514)	47.5	31.1	13.0	5.3	3.1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3.9	22.6	13.0	9.6	0.9	0.0	40.800***
	전문대학(재/졸)	(179)	40.8	29.1	18.4	7.3	4.5	0.0	
	4년제대학(재/졸)	(678)	41.0	36.6	12.2	6.6	3.5	0.0	
	대학원(석/박사졸)	(51)	47.1	29.4	15.7	5.9	0.0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2.4	34.5	13.6	6.5	2.8	0.1	3.863
	경험 없음	(283)	43.5	30.4	13.4	8.5	4.2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3.5	30.4	13.4	8.5	4.2	0.0	21.483
	일주일 내외	(315)	44.1	33.0	14.9	6.0	1.9	0.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2.4	33.8	13.0	6.9	3.9	0.0	
	1개월~6개월 이내	(108)	37.0	37.0	13.0	8.3	4.6	0.0	
	6개월 이상	(86)	43.0	38.4	11.6	4.7	1.2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41.4	33.0	15.2	7.0	3.2	0.2	8.586
	중소도시	(304)	43.1	35.2	11.2	6.6	3.9	0.0	
	읍면	(89)	50.6	29.2	10.1	9.0	1.1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2.2	33.6	14.8	6.2	3.2	0.2	11.233
	충청권	(104)	37.5	35.6	13.5	7.7	5.8	0.0	
	전라권	(90)	41.1	32.2	11.1	11.1	4.4	0.0	
	경상권	(219)	46.1	32.4	12.3	7.3	1.8	0.0	
	강원/제주권	(41)	48.8	31.7	9.8	7.3	2.4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2.1	33.4	14.8	6.3	3.3	0.2	11.504
	충청권	(121)	40.5	38.0	13.2	4.1	4.1	0.0	
	전라권	(92)	44.6	29.3	10.9	10.9	4.3	0.0	
	경상권	(236)	44.9	32.2	12.7	8.1	2.1	0.0	
	강원/제주권	(32)	40.6	34.4	9.4	12.5	3.1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9.2	38.0	17.5	10.2	4.4	0.7	32.135***
	중층	(444)	39.4	36.9	14.6	6.1	2.9	0.0	
	하층	(442)	50.2	28.3	11.3	7.0	3.2	0.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0.5	33.9	15.0	7.4	3.1	0.2	4.275
	중위소득 미만	(468)	45.3	32.7	12.0	6.6	3.4	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49.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χ^2
전체		(1,023)	25.1	42.5	25.1	6.1	1.2	4.506
성별	남성	(509)	23.4	43.2	25.3	6.3	1.8	
	여성	(514)	26.8	41.8	24.9	5.8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8.7	33.0	35.7	2.6	0.0	29.474**
	전문대학(재/졸)	(179)	18.4	41.3	32.4	6.7	1.1	
	4년제대학(재/졸)	(678)	25.2	45.0	22.1	6.3	1.3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35.3	15.7	7.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5.7	44.2	22.4	6.1	1.6	14.369**
	경험 없음	(283)	23.7	38.2	32.2	6.0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7	38.2	32.2	6.0	0.0	27.411*
	일주일 내외	(315)	24.1	41.6	27.0	5.7	1.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7.3	48.5	17.3	4.8	2.2	
	1개월~6개월 이내	(108)	24.1	48.1	19.4	7.4	0.9	
	6개월 이상	(86)	29.1	37.2	23.3	9.3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3.8	42.4	26.3	6.0	1.4	5.336
	중소도시	(304)	27.6	43.1	21.7	6.6	1.0	
	읍면	(89)	25.8	41.6	28.1	4.5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3.0	44.8	24.6	6.3	1.2	13.518
	충청권	(104)	26.9	38.5	26.0	7.7	1.0	
	전라권	(90)	31.1	38.9	27.8	2.2	0.0	
	경상권	(219)	25.1	42.0	26.0	5.5	1.4	
	강원/제주권	(41)	36.6	31.7	19.5	9.8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1.6	46.5	24.7	5.9	1.3	23.994
	충청권	(121)	33.1	38.8	22.3	5.8	0.0	
	전라권	(92)	29.3	38.0	29.3	2.2	1.1	
	경상권	(236)	26.7	38.1	27.1	6.8	1.3	
	강원/제주권	(32)	31.3	34.4	15.6	15.6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19.0	46.0	24.8	8.0	2.2	7.605
	중층	(444)	24.5	42.8	25.7	6.3	0.7	
	하층	(442)	27.6	41.2	24.7	5.2	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3.4	46.5	22.9	5.8	1.4	9.218
	중위소득 미만	(468)	27.1	37.8	27.8	6.4	0.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0. 청년의 국제교류 촉진에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장학금 제공	국제교류 사업 확대	비자절차 간소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홍보 강화	기타	χ^2
전체		(1,023)	37.0	29.6	20.8	12.3	0.3	11.530*
성별	남성	(509)	38.3	25.1	23.6	12.8	0.2	
	여성	(514)	35.6	34.0	18.1	11.9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3.5	21.7	20.9	13.0	0.9	11.237
	전문대학(재/졸)	(179)	33.0	31.3	25.1	10.6	0.0	
	4년제대학(재/졸)	(678)	37.5	30.2	19.3	12.7	0.3	
	대학원(석/박사졸)	(51)	29.4	33.3	25.5	11.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7.3	31.4	20.3	10.8	0.3	8.162
	경험 없음	(283)	36.0	25.1	22.3	16.3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6.0	25.1	22.3	16.3	0.4	12.943
	일주일 내외	(315)	36.8	31.7	19.7	11.4	0.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5.5	34.2	20.3	9.5	0.4	
	1개월~6개월 이내	(108)	39.8	25.0	22.2	13.0	0.0	
	6개월 이상	(86)	40.7	30.2	19.8	9.3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5.2	28.4	22.4	13.8	0.2	25.265**
	중소도시	(304)	34.9	35.2	19.7	9.9	0.3	
	읍면	(89)	56.2	19.1	13.5	10.1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7.4	28.6	23.6	10.0	0.4	23.616
	충청권	(104)	38.5	24.0	15.4	22.1	0.0	
	전라권	(90)	34.4	31.1	22.2	12.2	0.0	
	경상권	(219)	37.0	32.0	16.0	14.6	0.5	
	강원/제주권	(41)	31.7	41.5	19.5	7.3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8.2	29.3	22.5	9.6	0.4	17.745
	충청권	(121)	38.8	25.6	16.5	19.0	0.0	
	전라권	(92)	30.4	31.5	23.9	14.1	0.0	
	경상권	(236)	36.9	30.5	17.4	14.8	0.4	
	강원/제주권	(32)	28.1	37.5	25.0	9.4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1.4	26.3	26.3	14.6	1.5	14.411
	중층	(444)	37.6	30.2	21.4	10.8	0.0	
	하층	(442)	38.0	30.1	18.6	13.1	0.2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6.0	28.1	24.1	11.7	0.0	11.561*
	중위소득 미만	(468)	38.0	31.4	16.9	13.0	0.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1. 청년의 국제교류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주체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교육부	외교부	문화 체육 관광부	국무 조정실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기타	χ^2
전체		(1,023)	43.8	30.8	8.1	8.0	5.6	3.2	0.5	20.883**
성별	남성	(509)	44.6	26.5	9.8	10.6	5.7	2.4	0.4	
	여성	(514)	43.0	35.0	6.4	5.4	5.4	4.1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0.0	28.7	7.0	7.8	6.1	8.7	1.7	29.005*
	전문대학(재/졸)	(179)	41.3	27.9	11.2	11.2	4.5	3.9	0.0	
	4년제대학(재/졸)	(678)	45.0	31.3	7.8	7.2	6.0	2.2	0.4	
	대학원(석/박사졸)	(51)	45.1	39.2	3.9	7.8	2.0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5.9	31.9	7.2	7.4	4.7	2.3	0.5	18.702**
	경험 없음	(283)	38.2	27.9	10.6	9.5	7.8	5.7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8.2	27.9	10.6	9.5	7.8	5.7	0.4	37.822*
	일주일 내외	(315)	42.9	36.8	6.3	5.7	5.1	2.5	0.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50.6	28.1	7.4	6.9	3.9	2.2	0.9	
	1개월~6개월 이내	(108)	45.4	23.1	9.3	13.9	6.5	1.9	0.0	
	6개월 이상	(86)	45.3	34.9	7.0	7.0	3.5	2.3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42.4	31.1	8.1	9.2	5.9	2.9	0.5	12.174
	중소도시	(304)	47.4	29.6	6.6	6.9	5.6	3.6	0.3	
	읍면	(89)	41.6	32.6	13.5	3.4	3.4	4.5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3.6	32.3	7.2	8.3	5.3	2.8	0.5	16.454
	충청권	(104)	45.2	23.1	11.5	10.6	6.7	1.9	1.0	
	전라권	(90)	42.2	27.8	8.9	6.7	7.8	6.7	0.0	
	경상권	(219)	43.4	31.5	9.1	6.8	4.6	4.1	0.5	
	강원/제주권	(41)	48.8	31.7	4.9	7.3	7.3	0.0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3.9	32.1	7.7	7.7	5.2	2.8	0.6	17.044
	충청권	(121)	50.4	22.3	8.3	9.1	6.6	2.5	0.8	
	전라권	(92)	40.2	29.3	9.8	6.5	7.6	6.5	0.0	
	경상권	(236)	42.4	32.2	8.5	8.5	4.2	3.8	0.4	
	강원/제주권	(32)	37.5	34.4	6.3	9.4	12.5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0.7	30.7	8.0	16.8	8.0	4.4	1.5	40.658***
	중층	(444)	45.5	29.5	8.6	7.0	7.4	2.0	0.0	
	하층	(442)	46.2	32.1	7.7	6.3	2.9	4.1	0.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5.8	29.4	7.6	8.6	5.6	2.7	0.4	4.366
	중위소득 미만	(468)	41.5	32.5	8.8	7.3	5.6	3.8	0.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전체		(1,023)	24.0	43.2	26.7	5.0	1.1	3.472
성별	남성	(509)	22.2	43.4	27.3	5.7	1.4	
	여성	(514)	25.9	43.0	26.1	4.3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3.5	37.4	35.7	1.7	1.7	47.239***
	전문대학(재/졸)	(179)	16.2	38.0	40.2	5.0	0.6	
	4년제대학(재/졸)	(678)	24.8	46.9	21.8	5.3	1.2	
	대학원(석/박사졸)	(51)	43.1	25.5	23.5	7.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5.3	45.7	23.2	4.9	0.9	17.816**
	경험 없음	(283)	20.8	36.7	35.7	5.3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8	36.7	35.7	5.3	1.4	31.670*
	일주일 내외	(315)	21.9	45.7	28.3	3.5	0.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7.3	45.5	19.9	5.6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26.9	45.4	22.2	5.6	0.0	
	6개월 이상	(86)	30.2	46.5	15.1	7.0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0	42.7	27.1	4.8	1.4	6.955
	중소도시	(304)	23.4	46.7	24.3	4.9	0.7	
	읍면	(89)	27.0	34.8	31.5	6.7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3.2	44.5	26.0	5.1	1.2	11.767
	충청권	(104)	18.3	41.3	33.7	4.8	1.9	
	전라권	(90)	24.4	44.4	28.9	2.2	0.0	
	경상권	(219)	27.9	41.1	24.7	5.9	0.5	
	강원/제주권	(41)	29.3	39.0	24.4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2.1	45.2	26.4	5.2	1.1	12.248
	충청권	(121)	23.1	45.5	26.4	3.3	1.7	
	전라권	(92)	26.1	40.2	30.4	2.2	1.1	
	경상권	(236)	28.8	38.1	26.3	6.4	0.4	
	강원/제주권	(32)	18.8	46.9	25.0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1.2	48.9	23.4	5.1	1.5	12.604
	중층	(444)	22.5	46.8	25.0	5.2	0.5	
	하층	(442)	26.5	37.8	29.4	4.8	1.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2.7	45.6	25.9	4.5	1.3	3.703
	중위소득 미만	(468)	25.6	40.4	27.6	5.6	0.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필요한 지원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거주지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참여 자격 확대	언어 교육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강화	χ^2
전체		(1,023)	37.9	25.7	16.4	16.3	3.6	5.328
성별	남성	(509)	36.7	26.1	14.7	18.5	3.9	
	여성	(514)	39.1	25.3	18.1	14.2	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3.9	31.3	13.0	18.3	3.5	11.789
	전문대학(재/졸)	(179)	34.1	21.8	19.0	20.1	5.0	
	4년제대학(재/졸)	(678)	39.2	25.5	16.5	15.2	3.5	
	대학원(석/박사졸)	(51)	43.1	29.4	13.7	13.7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8.1	26.9	16.8	15.0	3.2	5.569
	경험 없음	(283)	37.5	22.6	15.5	19.8	4.6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7.5	22.6	15.5	19.8	4.6	22.150
	일주일 내외	(315)	38.1	30.2	14.6	13.3	3.8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2.0	22.9	17.3	15.2	2.6	
	1개월~6개월 이내	(108)	28.7	25.0	19.4	24.1	2.8	
	6개월 이상	(86)	39.5	27.9	19.8	9.3	3.5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7.6	25.2	14.9	19.5	2.7	26.609***
	중소도시	(304)	39.8	25.0	20.7	8.9	5.6	
	읍면	(89)	33.7	31.5	12.4	19.1	3.4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38.1	25.1	17.4	16.3	3.0	12.360
	충청권	(104)	32.7	28.8	16.3	18.3	3.8	
	전라권	(90)	38.9	20.0	18.9	17.8	4.4	
	경상권	(219)	37.0	29.7	12.8	15.5	5.0	
	강원/제주권	(41)	51.2	17.1	17.1	12.2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37.8	25.8	16.6	16.6	3.1	5.723
	충청권	(121)	38.0	26.4	18.2	14.0	3.3	
	전라권	(92)	39.1	22.8	18.5	15.2	4.3	
	경상권	(236)	36.4	27.1	14.0	17.8	4.7	
	강원/제주권	(32)	46.9	18.8	18.8	12.5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40.9	20.4	16.1	20.4	2.2	16.515*
	중층	(444)	35.6	29.3	14.4	18.0	2.7	
	하층	(442)	39.4	23.8	18.6	13.3	5.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35.9	27.0	18.0	16.4	2.7	6.881
	중위소득 미만	(468)	40.4	24.1	14.5	16.2	4.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중점 지원 대상의 연령대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9~24세	25~29세	30~34세	χ^2
전체		(1,023)	43.6	47.3	9.1	1.041
성별	남성	(509)	45.2	46.0	8.8	
	여성	(514)	42.0	48.6	9.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6.1	48.7	5.2	30.024***
	전문대학(재/졸)	(179)	46.9	38.0	15.1	
	4년제대학(재/졸)	(678)	43.1	49.9	7.1	
	대학원(석/박사졸)	(51)	33.3	43.1	23.5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3.9	47.0	9.1	0.113
	경험 없음	(283)	42.8	48.1	9.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2.8	48.1	9.2	13.184
	일주일 내외	(315)	47.3	46.3	6.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4.6	47.6	7.8	
	1개월~6개월 이내	(108)	37.0	48.1	14.8	
	6개월 이상	(86)	38.4	46.5	15.1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41.6	47.8	10.6	6.647
	중소도시	(304)	47.7	45.4	6.9	
	읍면	(89)	43.8	50.6	5.6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4.6	46.4	9.0	3.071
	충청권	(104)	39.4	49.0	11.5	
	전라권	(90)	42.2	47.8	10.0	
	경상권	(219)	44.7	47.0	8.2	
	강원/제주권	(41)	36.6	56.1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4.5	46.9	8.7	3.107
	충청권	(121)	39.7	52.1	8.3	
	전라권	(92)	42.4	44.6	13.0	
	경상권	(236)	44.1	47.0	8.9	
	강원/제주권	(32)	43.8	46.9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8.7	48.2	13.1	14.384**
	중층	(444)	43.5	50.9	5.6	
	하층	(442)	45.2	43.4	11.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0.7	48.1	11.2	8.240*
	중위소득 미만	(468)	47.0	46.4	6.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5. 학부생, 석/박사생 및 직업연수생,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9.0	37.0	26.8	5.2	2.0	5.986
성별	남성	(509)	26.9	40.7	25.7	4.7	2.0	
	여성	(514)	31.1	33.5	27.8	5.6	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5.2	34.8	33.9	4.3	1.7	36.223***
	전문대학(재/졸)	(179)	20.7	33.0	37.4	7.3	1.7	
	4년제대학(재/졸)	(678)	30.2	38.5	24.0	5.0	2.2	
	대학원(석/박사졸)	(51)	51.0	37.3	9.8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1.4	39.2	23.5	3.8	2.2	29.613***
	경험 없음	(283)	23.0	31.4	35.3	8.8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0	31.4	35.3	8.8	1.4	52.241***
	일주일 내외	(315)	25.4	39.7	30.2	3.5	1.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3.8	39.8	18.2	4.8	3.5	
	1개월~6개월 이내	(108)	36.1	39.8	19.4	1.9	2.8	
	6개월 이상	(86)	40.7	34.9	18.6	4.7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9.8	36.7	25.7	5.6	2.2	18.254*
	중소도시	(304)	28.3	41.1	24.0	5.3	1.3	
	읍면	(89)	25.8	25.8	43.8	2.2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9.0	39.4	24.3	5.4	1.9	18.699
	충청권	(104)	28.8	30.8	34.6	1.9	3.8	
	전라권	(90)	24.4	44.4	23.3	7.8	0.0	
	경상권	(219)	30.6	32.4	30.1	5.0	1.8	
	강원/제주권	(41)	31.7	29.3	31.7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8.0	39.9	24.5	5.4	2.2	18.113
	충청권	(121)	33.9	33.1	28.9	1.7	2.5	
	전라권	(92)	22.8	44.6	23.9	7.6	1.1	
	경상권	(236)	31.4	30.5	31.4	5.5	1.3	
	강원/제주권	(32)	28.1	31.3	31.3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40.1	32.8	19.7	5.8	1.5	24.058**
	중층	(444)	26.8	41.7	23.4	6.3	1.8	
	하층	(442)	27.8	33.7	32.4	3.8	2.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7.7	40.0	25.8	4.7	1.8	4.735
	중위소득 미만	(468)	30.6	33.5	28.0	5.8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1	40.5	25.5	6.0	1.0	10.206*
성별	남성	(509)	23.2	41.1	28.1	6.9	0.8	
	여성	(514)	30.9	39.9	23.0	5.1	1.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8.7	39.1	28.7	2.6	0.9	19.751
	전문대학(재/졸)	(179)	16.8	43.6	31.3	7.8	0.6	
	4년제대학(재/졸)	(678)	29.2	39.8	24.2	5.8	1.0	
	대학원(석/박사졸)	(51)	31.4	41.2	15.7	9.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4	40.5	24.9	5.1	1.1	5.484
	경험 없음	(283)	23.7	40.3	27.2	8.1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7	40.3	27.2	8.1	0.7	21.811
	일주일 내외	(315)	24.1	42.2	27.9	4.8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0.3	42.9	21.2	3.9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28.7	35.2	28.7	7.4	0.0	
	6개월 이상	(86)	38.4	34.9	18.6	7.0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2	40.5	25.9	6.5	1.0	5.897
	중소도시	(304)	28.3	42.4	23.0	4.9	1.3	
	읍면	(89)	29.2	33.7	31.5	5.6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6.4	42.2	25.1	5.3	1.1	14.508
	충청권	(104)	25.0	33.7	29.8	8.7	2.9	
	전라권	(90)	27.8	43.3	20.0	8.9	0.0	
	경상권	(219)	29.2	37.9	27.4	5.0	0.5	
	강원/제주권	(41)	29.3	41.5	22.0	7.3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5.5	42.8	25.3	5.4	1.1	13.532
	충청권	(121)	27.3	35.5	26.4	8.3	2.5	
	전라권	(92)	27.2	43.5	20.7	7.6	1.1	
	경상권	(236)	30.5	36.0	28.0	5.5	0.0	
	강원/제주권	(32)	28.1	43.8	21.9	6.3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9.2	37.2	21.9	10.2	1.5	9.129
	중층	(444)	25.9	43.2	25.5	4.5	0.9	
	하층	(442)	27.6	38.7	26.7	6.1	0.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7	40.0	25.6	6.7	1.1	1.285
	중위소득 미만	(468)	27.6	41.0	25.4	5.1	0.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7. 학생 및 교직원 단기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1.1	34.5	33.1	8.6	2.6	7.246
성별	남성	(509)	18.5	35.8	32.6	10.0	3.1	
	여성	(514)	23.7	33.3	33.7	7.2	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31.3	40.9	7.0	0.9	25.485*
	전문대학(재/졸)	(179)	15.1	29.6	41.3	11.7	2.2	
	4년제대학(재/졸)	(678)	22.6	35.5	30.8	7.8	3.2	
	대학원(석/박사졸)	(51)	25.5	45.1	17.6	11.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3.1	33.8	30.9	8.8	3.4	14.958**
	경험 없음	(283)	15.9	36.4	38.9	8.1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5.9	36.4	38.9	8.1	0.7	27.973*
	일주일 내외	(315)	20.0	33.7	36.2	7.9	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4.2	34.6	27.3	10.4	3.5	
	1개월~6개월 이내	(108)	25.9	33.3	25.9	9.3	5.6	
	6개월 이상	(86)	27.9	32.6	27.9	7.0	4.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1.6	34.9	32.1	8.9	2.5	2.696
	중소도시	(304)	19.4	34.2	34.5	8.9	3.0	
	읍면	(89)	23.6	32.6	36.0	5.6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19.9	34.4	34.4	8.8	2.5	13.613
	충청권	(104)	21.2	30.8	38.5	4.8	4.8	
	전라권	(90)	22.2	35.6	30.0	12.2	0.0	
	경상권	(219)	22.4	37.0	28.8	8.7	3.2	
	강원/제주권	(41)	29.3	29.3	31.7	7.3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19.4	33.6	35.2	9.2	2.6	15.527
	충청권	(121)	24.8	36.4	33.9	1.7	3.3	
	전라권	(92)	18.5	35.9	32.6	12.0	1.1	
	경상권	(236)	23.3	35.2	29.2	9.3	3.0	
	강원/제주권	(32)	28.1	34.4	25.0	9.4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7	32.8	28.5	6.6	4.4	10.024
	중층	(444)	19.6	35.4	35.4	7.9	1.8	
	하층	(442)	20.6	34.2	32.4	10.0	2.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1.8	32.1	32.6	9.9	3.6	9.142
	중위소득 미만	(468)	20.3	37.4	33.8	7.1	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8.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8	36.4	27.2	7.6	2.1	14.842**
성별	남성	(509)	22.6	35.8	29.7	9.6	2.4	
	여성	(514)	30.9	37.0	24.7	5.6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8	33.9	29.6	7.0	1.7	10.720
	전문대학(재/졸)	(179)	22.3	34.6	32.4	8.9	1.7	
	4년제대학(재/졸)	(678)	26.7	37.6	26.0	7.5	2.2	
	대학원(석/박사졸)	(51)	41.2	31.4	19.6	5.9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7.3	37.8	25.3	7.4	2.2	5.719
	경험 없음	(283)	25.4	32.5	32.2	8.1	1.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5.4	32.5	32.2	8.1	1.8	34.345**
	일주일 내외	(315)	21.9	43.8	25.7	6.3	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0.7	39.8	20.3	6.5	2.6	
	1개월~6개월 이내	(108)	31.5	21.3	34.3	12.0	0.9	
	6개월 이상	(86)	32.6	31.4	25.6	8.1	2.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3.8	37.3	27.5	8.9	2.5	18.936*
	중소도시	(304)	29.6	38.2	26.3	4.6	1.3	
	읍면	(89)	38.2	23.6	28.1	9.0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4.3	39.0	26.9	6.7	3.2	27.466*
	충청권	(104)	26.9	33.7	30.8	7.7	1.0	
	전라권	(90)	27.8	41.1	23.3	7.8	0.0	
	경상권	(219)	28.8	32.4	28.3	9.6	0.9	
	강원/제주권	(41)	48.8	17.1	24.4	9.8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5	38.9	26.9	6.5	3.1	19.475
	충청권	(121)	28.9	35.5	27.3	7.4	0.8	
	전라권	(92)	26.1	40.2	25.0	7.6	1.1	
	경상권	(236)	29.2	31.4	28.8	9.7	0.8	
	강원/제주권	(32)	40.6	21.9	25.0	12.5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6.3	37.2	23.4	11.7	1.5	5.809
	중층	(444)	26.4	37.8	26.6	7.0	2.3	
	하층	(442)	27.4	34.6	29.0	7.0	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7.0	35.1	26.5	9.4	2.0	5.615
	중위소득 미만	(468)	26.5	37.8	28.0	5.6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59. 청소년 및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7	34.7	28.8	7.3	2.4	12.632*
성별	남성	(509)	23.0	33.8	31.8	8.1	3.3	
	여성	(514)	30.4	35.6	25.9	6.6	1.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0	31.3	35.7	5.2	0.9	14.114
	전문대학(재/졸)	(179)	22.3	33.0	34.1	9.5	1.1	
	4년제대학(재/졸)	(678)	27.4	35.8	26.8	6.9	2.9	
	대학원(석/박사졸)	(51)	31.4	33.3	21.6	9.8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4	34.3	28.2	6.6	2.4	5.146
	경험 없음	(283)	22.3	35.7	30.4	9.2	2.5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2.3	35.7	30.4	9.2	2.5	35.598**
	일주일 내외	(315)	24.1	35.9	34.3	4.4	1.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4	35.5	23.8	6.9	4.3	
	1개월~6개월 이내	(108)	27.8	31.5	29.6	8.3	2.8	
	6개월 이상	(86)	41.9	29.1	16.3	11.6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3	33.7	29.2	7.8	3.0	7.485
	중소도시	(304)	26.0	37.2	27.3	7.6	2.0	
	읍면	(89)	31.5	33.7	31.5	3.4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7	35.1	29.0	7.4	2.8	13.019
	충청권	(104)	21.2	31.7	34.6	9.6	2.9	
	전라권	(90)	24.4	42.2	23.3	7.8	2.2	
	경상권	(219)	31.1	32.4	27.9	6.8	1.8	
	강원/제주권	(41)	36.6	31.7	29.3	2.4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6.0	35.6	27.9	7.7	2.8	12.617
	충청권	(121)	25.6	29.8	34.7	8.3	1.7	
	전라권	(92)	19.6	41.3	28.3	7.6	3.3	
	경상권	(236)	30.9	31.4	29.2	6.4	2.1	
	강원/제주권	(32)	31.3	43.8	21.9	3.1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7	29.2	28.5	11.7	2.9	7.307
	중층	(444)	25.2	37.4	28.8	6.3	2.3	
	하층	(442)	27.8	33.7	29.0	7.0	2.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5.4	35.3	27.7	8.8	2.7	5.420
	중위소득 미만	(468)	28.2	34.0	30.1	5.6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0. 청소년 대상으로 제도권 밖의 교육과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4	34.3	29.1	8.2	2.0	25.769***
성별	남성	(509)	22.2	31.8	32.0	11.2	2.8	
	여성	(514)	30.5	36.8	26.3	5.3	1.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36.5	33.0	9.6	0.9	25.856*
	전문대학(재/졸)	(179)	21.8	27.9	34.6	14.0	1.7	
	4년제대학(재/졸)	(678)	27.7	36.0	27.4	6.8	2.1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29.4	23.5	3.9	3.9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7.7	35.3	28.0	6.8	2.3	12.179*
	경험 없음	(283)	23.0	31.8	32.2	12.0	1.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0	31.8	32.2	12.0	1.1	28.309*
	일주일 내외	(315)	23.8	39.7	29.2	5.4	1.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8.6	35.9	25.1	7.8	2.6	
	1개월~6개월 이내	(108)	30.6	24.1	35.2	7.4	2.8	
	6개월 이상	(86)	36.0	31.4	22.1	8.1	2.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5.9	34.0	29.0	8.6	2.5	6.362
	중소도시	(304)	26.3	36.5	28.9	6.9	1.3	
	읍면	(89)	30.3	29.2	30.3	10.1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4.4	36.9	27.6	8.6	2.5	10.404
	충청권	(104)	27.9	28.8	34.6	6.7	1.9	
	전라권	(90)	26.7	33.3	31.1	6.7	2.2	
	경상권	(219)	29.7	31.5	29.2	8.7	0.9	
	강원/제주권	(41)	31.7	29.3	31.7	7.3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5.3	35.4	28.6	8.3	2.4	7.556
	충청권	(121)	27.3	37.2	27.3	7.4	0.8	
	전라권	(92)	23.9	33.7	32.6	6.5	3.3	
	경상권	(236)	29.7	30.5	29.7	8.9	1.3	
	강원/제주권	(32)	25.0	34.4	31.3	9.4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34.3	22.6	8.8	5.8	16.010*
	중층	(444)	26.6	33.8	31.1	7.4	1.1	
	하층	(442)	25.6	34.8	29.2	8.8	1.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5.4	33.7	29.9	8.8	2.2	1.666
	중위소득 미만	(468)	27.6	35.0	28.2	7.5	1.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1.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교교육에서 양질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7	35.0	30.0	5.9	2.4	3.509
성별	남성	(509)	24.8	34.6	31.4	6.3	2.9	
	여성	(514)	28.6	35.4	28.6	5.4	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9.6	30.4	30.4	9.6	0.0	21.402*
	전문대학(재/졸)	(179)	23.5	27.9	40.2	5.0	3.4	
	4년제대학(재/졸)	(678)	26.5	37.5	27.7	5.6	2.7	
	대학원(석/박사졸)	(51)	33.3	37.3	23.5	3.9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4	36.4	27.3	5.4	2.6	11.966*
	경험 없음	(283)	22.3	31.4	37.1	7.1	2.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2.3	31.4	37.1	7.1	2.1	27.903*
	일주일 내외	(315)	24.4	37.5	30.8	4.8	2.5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2.0	35.1	24.7	5.6	2.6	
	1개월~6개월 이내	(108)	25.9	38.9	28.7	2.8	3.7	
	6개월 이상	(86)	36.0	32.6	19.8	10.5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0	34.3	30.3	6.2	3.2	7.668
	중소도시	(304)	29.6	36.2	28.0	4.9	1.3	
	읍면	(89)	21.3	36.0	34.8	6.7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5	35.7	29.2	7.0	2.6	10.521
	충청권	(104)	26.9	36.5	28.8	6.7	1.0	
	전라권	(90)	24.4	37.8	31.1	3.3	3.3	
	경상권	(219)	29.7	32.9	32.0	3.7	1.8	
	강원/제주권	(41)	31.7	26.8	31.7	4.9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5.6	35.6	29.5	6.8	2.4	7.304
	충청권	(121)	28.1	36.4	29.8	4.1	1.7	
	전라권	(92)	21.7	38.0	31.5	4.3	4.3	
	경상권	(236)	30.1	32.2	30.5	5.1	2.1	
	강원/제주권	(32)	28.1	31.3	31.3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0.7	29.9	29.9	5.8	3.6	9.540
	중층	(444)	24.3	37.2	32.2	4.5	1.8	
	하층	(442)	27.8	34.4	27.8	7.2	2.7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7.0	34.8	28.6	7.6	2.0	7.873
	중위소득 미만	(468)	26.3	35.3	31.6	3.8	3.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2. 성인 대상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9	36.3	25.9	8.6	2.3	20.912***
성별	남성	(509)	22.6	34.2	30.1	9.8	3.3	
	여성	(514)	31.1	38.3	21.8	7.4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8	30.4	31.3	8.7	1.7	12.255
	전문대학(재/졸)	(179)	21.8	39.1	28.5	10.1	0.6	
	4년제대학(재/졸)	(678)	27.7	36.6	24.3	8.3	3.1	
	대학원(석/박사졸)	(51)	31.4	35.3	25.5	7.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1	38.0	23.9	7.3	2.7	14.461**
	경험 없음	(283)	23.7	31.8	31.1	12.0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7	31.8	31.1	12.0	1.4	32.636**
	일주일 내외	(315)	23.2	37.8	28.6	8.6	1.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4	40.7	19.9	6.1	3.9	
	1개월~6개월 이내	(108)	31.5	33.3	25.9	6.5	2.8	
	6개월 이상	(86)	38.4	37.2	15.1	7.0	2.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5.6	37.5	25.2	8.9	2.9	14.443
	중소도시	(304)	30.9	35.5	23.7	8.9	1.0	
	읍면	(89)	22.5	30.3	38.2	5.6	3.4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7	39.0	24.4	7.7	3.2	17.628
	충청권	(104)	26.9	31.7	29.8	9.6	1.9	
	전라권	(90)	22.2	38.9	31.1	5.6	2.2	
	경상권	(219)	31.5	31.5	25.6	10.5	0.9	
	강원/제주권	(41)	29.3	29.3	26.8	14.6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2	39.1	25.8	8.1	2.8	20.451
	충청권	(121)	34.7	30.6	23.1	9.1	2.5	
	전라권	(92)	19.6	40.2	31.5	5.4	3.3	
	경상권	(236)	31.4	32.6	25.0	9.7	1.3	
	강원/제주권	(32)	31.3	25.0	28.1	15.6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6.3	37.2	19.7	14.6	2.2	12.007
	중층	(444)	25.0	38.5	26.8	7.2	2.5	
	하층	(442)	29.0	33.7	26.9	8.1	2.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1	37.5	25.2	8.8	2.3	1.037
	중위소득 미만	(468)	27.8	34.8	26.7	8.3	2.4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3. 청소년과 청년 교류 활동 지원금 신청 의향이 있는 기관들에게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5.8	36.8	28.6	7.1	1.7	9.449
성별	남성	(509)	22.2	37.1	31.0	8.3	1.4	
	여성	(514)	29.4	36.4	26.3	6.0	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8	33.0	32.2	6.1	0.9	24.816*
	전문대학(재/졸)	(179)	18.4	31.3	41.3	7.8	1.1	
	4년제대학(재/졸)	(678)	27.0	38.5	25.4	7.1	2.1	
	대학원(석/박사졸)	(51)	31.4	41.2	19.6	7.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7.6	38.0	25.7	6.8	2.0	15.195**
	경험 없음	(283)	21.2	33.6	36.4	8.1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1.2	33.6	36.4	8.1	0.7	39.769***
	일주일 내외	(315)	21.9	41.0	29.5	5.4	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9	39.8	21.2	6.9	2.2	
	1개월~6개월 이내	(108)	27.8	29.6	31.5	9.3	1.9	
	6개월 이상	(86)	41.9	32.6	16.3	8.1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5.2	37.0	28.4	7.1	2.2	6.908
	중소도시	(304)	26.3	38.5	27.3	6.9	1.0	
	읍면	(89)	28.1	29.2	34.8	7.9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4.8	38.3	28.5	6.5	1.9	19.749
	충청권	(104)	17.3	33.7	36.5	9.6	2.9	
	전라권	(90)	27.8	38.9	23.3	10.0	0.0	
	경상권	(219)	30.1	33.8	29.2	5.5	1.4	
	강원/제주권	(41)	34.1	34.1	19.5	12.2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9	38.6	28.2	6.5	1.8	8.445
	충청권	(121)	23.1	33.1	33.1	9.1	1.7	
	전라권	(92)	26.1	35.9	28.3	8.7	1.1	
	경상권	(236)	28.8	34.3	28.8	6.4	1.7	
	강원/제주권	(32)	28.1	40.6	18.8	12.5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32.1	29.2	7.3	2.9	9.413
	중층	(444)	22.1	37.6	31.1	7.4	1.8	
	하층	(442)	28.7	37.3	26.0	6.8	1.1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5.0	37.1	28.6	7.7	1.4	1.307
	중위소득 미만	(468)	26.7	36.3	28.6	6.4	1.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4. 직업훈련 청소년 및 직업훈련 기관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8.6	35.9	26.6	6.7	2.2	10.121*
성별	남성	(509)	24.8	36.3	28.3	8.3	2.4	
	여성	(514)	32.5	35.4	24.9	5.3	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9.6	28.7	33.9	7.0	0.9	18.966
	전문대학(재/졸)	(179)	23.5	33.0	34.1	7.8	1.7	
	4년제대학(재/졸)	(678)	29.4	37.8	24.0	6.2	2.7	
	대학원(석/박사졸)	(51)	35.3	37.3	17.6	9.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0.7	36.5	24.1	6.4	2.4	12.209*
	경험 없음	(283)	23.3	34.3	33.2	7.8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3	34.3	33.2	7.8	1.4	53.835***
	일주일 내외	(315)	25.4	41.3	28.9	2.9	1.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5.5	35.9	18.2	6.5	3.9	
	1개월~6개월 이내	(108)	26.9	32.4	24.1	14.8	1.9	
	6개월 이상	(86)	41.9	25.6	22.1	8.1	2.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7	37.0	27.0	6.7	2.7	9.426
	중소도시	(304)	31.9	34.9	24.0	7.9	1.3	
	읍면	(89)	31.5	31.5	32.6	3.4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7.1	37.8	26.2	6.5	2.5	12.044
	충청권	(104)	31.7	28.8	31.7	5.8	1.9	
	전라권	(90)	32.2	28.9	28.9	10.0	0.0	
	경상권	(219)	29.2	37.0	25.1	6.8	1.8	
	강원/제주권	(41)	31.7	36.6	22.0	4.9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7.3	37.6	26.4	6.3	2.4	11.464
	충청권	(121)	34.7	29.8	27.3	5.8	2.5	
	전라권	(92)	29.3	31.5	29.3	8.7	1.1	
	경상권	(236)	29.2	34.3	27.1	7.6	1.7	
	강원/제주권	(32)	21.9	53.1	15.6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33.6	24.1	13.1	0.7	15.028
	중층	(444)	27.5	38.3	26.8	4.7	2.7	
	하층	(442)	29.9	34.2	27.1	6.8	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9.2	35.5	26.3	6.8	2.2	0.232
	중위소득 미만	(468)	28.0	36.3	26.9	6.6	2.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5.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의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0	38.9	28.2	4.5	1.5	4.188
성별	남성	(509)	24.8	41.3	27.5	4.7	1.8	
	여성	(514)	29.2	36.6	28.8	4.3	1.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41.7	33.9	3.5	0.9	33.304***
	전문대학(재/졸)	(179)	21.8	36.3	39.7	0.6	1.7	
	4년제대학(재/졸)	(678)	28.6	38.9	25.2	5.6	1.6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41.2	13.7	5.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9	40.1	24.3	5.0	1.6	20.642***
	경험 없음	(283)	21.9	35.7	38.2	3.2	1.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1.9	35.7	38.2	3.2	1.1	37.663**
	일주일 내외	(315)	24.1	40.3	28.6	5.4	1.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1.2	41.6	19.0	6.1	2.2	
	1개월~6개월 이내	(108)	29.6	39.8	27.8	1.9	0.9	
	6개월 이상	(86)	39.5	36.0	18.6	4.7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2	39.4	28.1	4.3	2.1	7.592
	중소도시	(304)	28.9	37.8	27.0	5.6	0.7	
	읍면	(89)	25.8	39.3	32.6	2.2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7	40.2	27.2	5.1	1.8	8.068
	충청권	(104)	29.8	37.5	27.9	2.9	1.9	
	전라권	(90)	27.8	37.8	26.7	6.7	1.1	
	경상권	(219)	28.3	37.9	30.1	2.7	0.9	
	강원/제주권	(41)	29.3	31.7	34.1	4.9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2	41.9	27.7	4.6	1.7	11.975
	충청권	(121)	33.1	35.5	26.4	3.3	1.7	
	전라권	(92)	26.1	37.0	28.3	6.5	2.2	
	경상권	(236)	30.9	35.6	28.8	3.8	0.8	
	강원/제주권	(32)	25.0	31.3	37.5	6.3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1.4	40.9	19.7	6.6	1.5	12.600
	중층	(444)	26.1	40.8	26.6	5.2	1.4	
	하층	(442)	26.5	36.4	32.4	3.2	1.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5.9	40.4	27.6	4.9	1.3	2.002
	중위소득 미만	(468)	28.2	37.2	28.8	4.1	1.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6.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31.5	34.9	24.6	7.3	1.7	17.489**
성별	남성	(509)	26.3	35.0	27.5	9.2	2.0	
	여성	(514)	36.6	34.8	21.8	5.4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39.1	26.1	31.3	3.5	0.0	21.786*
	전문대학(재/졸)	(179)	25.7	35.8	27.4	9.5	1.7	
	4년제대학(재/졸)	(678)	30.7	37.0	23.0	7.4	1.9	
	대학원(석/박사졸)	(51)	45.1	23.5	21.6	7.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2.6	35.9	21.9	7.6	2.0	12.368*
	경험 없음	(283)	28.6	32.2	31.8	6.7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8.6	32.2	31.8	6.7	0.7	42.786***
	일주일 내외	(315)	28.6	38.4	26.7	5.4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5.9	32.5	19.9	10.0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26.9	38.0	22.2	9.3	3.7	
	6개월 이상	(86)	45.3	33.7	9.3	7.0	4.7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9.7	34.8	25.6	7.6	2.4	11.872
	중소도시	(304)	34.5	34.9	22.0	8.2	0.3	
	읍면	(89)	33.7	36.0	27.0	2.2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9.5	37.1	23.6	8.1	1.8	16.086
	충청권	(104)	31.7	29.8	29.8	5.8	2.9	
	전라권	(90)	33.3	38.9	23.3	4.4	0.0	
	경상권	(219)	33.8	30.6	27.4	6.4	1.8	
	강원/제주권	(41)	41.5	31.7	14.6	12.2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9.3	36.3	24.4	8.3	1.7	17.050
	충청권	(121)	36.4	33.9	23.1	4.1	2.5	
	전라권	(92)	28.3	40.2	27.2	3.3	1.1	
	경상권	(236)	33.5	31.4	26.3	7.2	1.7	
주관적 계층의식	강원/제주권	(32)	43.8	25.0	15.6	15.6	0.0	19.669*
	상층	(137)	32.8	35.8	16.1	12.4	2.9	
	중층	(444)	28.2	38.3	26.4	6.3	0.9	
	하층	(442)	34.4	31.2	25.6	6.8	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9.4	34.4	25.9	8.8	1.4	6.705
	중위소득 미만	(468)	34.0	35.5	23.1	5.6	1.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7.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총체적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4.8	39.5	27.2	6.2	2.3	8.112
성별	남성	(509)	22.6	38.7	29.3	6.1	3.3	
	여성	(514)	27.0	40.3	25.1	6.2	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5.2	28.7	40.0	4.3	1.7	25.122*
	전문대학(재/졸)	(179)	19.6	39.1	30.7	8.4	2.2	
	4년제대학(재/졸)	(678)	25.1	41.6	24.6	6.0	2.7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37.3	19.6	3.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6.6	40.5	24.5	5.8	2.6	12.550*
	경험 없음	(283)	20.1	36.7	34.3	7.1	1.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1	36.7	34.3	7.1	1.8	38.190**
	일주일 내외	(315)	24.1	42.2	27.9	4.8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4	37.2	22.9	4.8	5.6	
	1개월~6개월 이내	(108)	23.1	41.7	23.1	10.2	1.9	
	6개월 이상	(86)	32.6	41.9	17.4	7.0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0	39.8	26.8	6.2	3.2	9.603
	중소도시	(304)	26.6	40.8	25.3	6.3	1.0	
	읍면	(89)	24.7	32.6	36.0	5.6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3.0	40.9	26.7	6.3	3.0	11.319
	충청권	(104)	26.0	36.5	27.9	6.7	2.9	
	전라권	(90)	23.3	46.7	24.4	4.4	1.1	
	경상권	(219)	29.2	33.8	29.7	5.9	1.4	
	강원/제주권	(41)	26.8	41.5	24.4	7.3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3.2	41.5	26.4	6.5	2.4	16.255
	충청권	(121)	25.6	40.5	26.4	5.0	2.5	
	전라권	(92)	20.7	47.8	25.0	4.3	2.2	
	경상권	(236)	30.5	30.1	30.5	6.4	2.5	
	강원/제주권	(32)	18.8	46.9	25.0	9.4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7.0	35.0	27.7	7.3	2.9	5.073
	중층	(444)	25.9	41.0	26.1	5.4	1.6	
	하층	(442)	23.1	39.4	28.1	6.6	2.9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3.2	40.4	27.4	5.9	3.1	4.228
	중위소득 미만	(468)	26.7	38.5	26.9	6.4	1.5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8. 교육기관(초등, 중고등,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 및 교육정책 관련 기관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6.0	38.2	26.3	7.7	1.8	10.339*
성별	남성	(509)	22.4	38.9	27.3	9.6	1.8	
	여성	(514)	29.6	37.5	25.3	5.8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9.6	30.4	32.2	6.1	1.7	25.559*
	전문대학(재/졸)	(179)	14.0	43.6	32.4	8.9	1.1	
	4년제대학(재/졸)	(678)	27.7	38.1	24.5	7.8	1.9	
	대학원(석/박사졸)	(51)	37.3	39.2	15.7	5.9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7.0	39.6	23.6	7.7	2.0	10.616*
	경험 없음	(283)	23.3	34.6	33.2	7.8	1.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3	34.6	33.2	7.8	1.1	28.849*
	일주일 내외	(315)	23.2	41.9	27.6	6.0	1.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0	39.8	19.9	8.2	3.0	
	1개월~6개월 이내	(108)	25.0	36.1	25.0	11.1	2.8	
	6개월 이상	(86)	38.4	34.9	17.4	8.1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6	38.3	27.5	7.8	1.9	7.710
	중소도시	(304)	27.6	39.8	22.4	8.2	2.0	
	읍면	(89)	30.3	32.6	31.5	5.6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0	40.2	25.8	7.0	1.9	19.315
	충청권	(104)	25.0	37.5	22.1	11.5	3.8	
	전라권	(90)	25.6	36.7	24.4	13.3	0.0	
	경상권	(219)	27.4	36.1	30.1	5.5	0.9	
	강원/제주권	(41)	36.6	26.8	26.8	7.3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2	41.9	25.6	6.6	1.7	14.188
	충청권	(121)	28.9	30.6	26.4	10.7	3.3	
	전라권	(92)	25.0	35.9	26.1	12.0	1.1	
	경상권	(236)	28.8	35.2	28.0	6.8	1.3	
	강원/제주권	(32)	28.1	34.4	25.0	9.4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4.1	40.9	20.4	12.4	2.2	8.093
	중층	(444)	25.9	38.3	27.7	6.8	1.4	
	하층	(442)	26.7	37.3	26.7	7.2	2.0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4.5	40.4	24.3	8.6	2.2	6.757
	중위소득 미만	(468)	27.8	35.7	28.6	6.6	1.3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69. 석사과정생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7.9	32.9	29.4	6.3	3.5	4.733
성별	남성	(509)	25.7	35.2	29.3	5.7	4.1	
	여성	(514)	30.0	30.7	29.6	6.8	2.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9	32.2	40.0	4.3	2.6	40.031***
	전문대학(재/졸)	(179)	18.4	31.3	41.9	6.1	2.2	
	4년제대학(재/졸)	(678)	30.2	34.1	25.2	6.3	4.1	
	대학원(석/박사졸)	(51)	45.1	25.5	17.6	9.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30.4	33.5	25.7	6.6	3.8	20.362***
	경험 없음	(283)	21.2	31.4	39.2	5.3	2.8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1.2	31.4	39.2	5.3	2.8	50.299***
	일주일 내외	(315)	25.4	37.1	28.9	6.3	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4.2	32.9	22.5	6.5	3.9	
	1개월~6개월 이내	(108)	31.5	25.0	27.8	5.6	10.2	
	6개월 이상	(86)	37.2	32.6	19.8	9.3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7	34.9	28.9	6.0	3.5	4.710
	중소도시	(304)	30.6	30.6	29.3	6.3	3.3	
	읍면	(89)	27.0	27.0	33.7	7.9	4.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3	33.9	26.7	7.2	3.9	11.255
	충청권	(104)	23.1	31.7	37.5	3.8	3.8	
	전라권	(90)	28.9	30.0	32.2	4.4	4.4	
	경상권	(219)	28.3	33.3	31.1	5.0	2.3	
	강원/제주권	(41)	29.3	26.8	31.7	9.8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8.2	34.3	27.5	6.8	3.1	9.161
	충청권	(121)	25.6	28.9	35.5	5.8	4.1	
	전라권	(92)	25.0	31.5	32.6	5.4	5.4	
	경상권	(236)	29.7	32.6	29.7	4.7	3.4	
	강원/제주권	(32)	25.0	31.3	28.1	12.5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5.0	26.3	26.3	8.8	3.6	12.169
	중층	(444)	25.2	37.2	27.9	6.3	3.4	
	하층	(442)	28.3	30.8	31.9	5.4	3.6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7.0	33.9	27.7	7.6	3.8	5.356
	중위소득 미만	(468)	28.8	31.8	31.4	4.7	3.2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0.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4.6	36.8	30.7	6.6	1.3	8.115
성별	남성	(509)	22.0	35.4	33.4	7.9	1.4	
	여성	(514)	27.2	38.1	28.0	5.4	1.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0	27.8	40.0	5.2	0.0	32.020**
	전문대학(재/졸)	(179)	16.8	34.6	39.1	8.9	0.6	
	4년제대학(재/졸)	(678)	25.2	39.4	27.0	6.6	1.8	
	대학원(석/박사졸)	(51)	39.2	29.4	29.4	2.0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5.5	38.2	28.8	5.8	1.6	11.092*
	경험 없음	(283)	22.3	32.9	35.7	8.8	0.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2.3	32.9	35.7	8.8	0.4	29.000*
	일주일 내외	(315)	21.9	37.5	34.6	4.8	1.3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1.2	38.5	22.5	6.1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19.4	40.7	28.7	8.3	2.8	
	6개월 이상	(86)	31.4	37.2	24.4	5.8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0	37.8	29.8	6.8	1.6	10.294
	중소도시	(304)	26.3	35.5	29.6	7.9	0.7	
	읍면	(89)	23.6	33.7	40.4	1.1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4.3	37.3	29.9	6.7	1.9	16.450
	충청권	(104)	23.1	35.6	33.7	6.7	1.0	
	전라권	(90)	17.8	46.7	31.1	4.4	0.0	
	경상권	(219)	26.9	34.7	31.1	6.8	0.5	
	강원/제주권	(41)	36.6	22.0	31.7	9.8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3.6	38.6	29.7	6.5	1.7	16.722
	충청권	(121)	29.8	32.2	29.8	6.6	1.7	
	전라권	(92)	16.3	46.7	31.5	4.3	1.1	
	경상권	(236)	26.3	33.1	32.6	7.6	0.4	
	강원/제주권	(32)	34.4	21.9	34.4	9.4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1.9	38.7	27.0	10.2	2.2	10.604
	중층	(444)	25.7	38.3	28.2	7.0	0.9	
	하층	(442)	24.4	34.6	34.4	5.2	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3.8	36.4	31.5	6.8	1.4	1.026
	중위소득 미만	(468)	25.6	37.2	29.7	6.4	1.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1. 청년 교육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8.1	37.1	26.7	6.1	2.1	17.909**
성별	남성	(509)	22.6	39.1	28.7	6.7	2.9	
	여성	(514)	33.5	35.2	24.7	5.4	1.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7.8	29.6	38.3	2.6	1.7	29.291**
	전문대학(재/졸)	(179)	20.7	38.0	33.0	6.7	1.7	
	4년제대학(재/졸)	(678)	28.9	38.3	24.2	6.2	2.4	
	대학원(석/박사졸)	(51)	43.1	35.3	11.8	9.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9.5	39.6	23.1	5.5	2.3	21.007***
	경험 없음	(283)	24.4	30.7	36.0	7.4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4.4	30.7	36.0	7.4	1.4	44.009***
	일주일 내외	(315)	23.8	42.9	27.3	5.1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33.3	39.0	18.6	5.2	3.9	
	1개월~6개월 이내	(108)	29.6	34.3	25.0	7.4	3.7	
	6개월 이상	(86)	39.5	36.0	17.4	5.8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6.2	38.3	28.1	5.6	1.9	6.827
	중소도시	(304)	30.6	36.8	23.0	7.2	2.3	
	읍면	(89)	32.6	30.3	29.2	5.6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8.1	37.6	26.4	5.6	2.3	12.915
	충청권	(104)	26.0	34.6	28.8	7.7	2.9	
	전라권	(90)	30.0	36.7	26.7	5.6	1.1	
	경상권	(219)	27.4	38.8	27.4	5.9	0.5	
	강원/제주권	(41)	31.7	29.3	22.0	9.8	7.3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7.5	37.6	27.3	5.7	1.8	12.606
	충청권	(121)	31.4	34.7	24.0	7.4	2.5	
	전라권	(92)	27.2	37.0	28.3	5.4	2.2	
	경상권	(236)	28.4	37.3	27.1	5.9	1.3	
	강원/제주권	(32)	25.0	37.5	18.8	9.4	9.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32.1	33.6	21.9	9.5	2.9	16.471*
	중층	(444)	25.0	42.6	25.7	5.4	1.4	
	하층	(442)	29.9	32.8	29.2	5.7	2.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6.3	37.5	27.2	6.7	2.3	2.712
	중위소득 미만	(468)	30.1	36.8	26.1	5.3	1.7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2. 국가 간 스포츠 관련 공동행사 지원 프로그램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 치 않음	전혀 필요 치 않음	χ^2
전체		(1,023)	22.7	37.3	30.1	7.0	2.8	5.768
성별	남성	(509)	21.2	38.3	28.7	8.3	3.5	
	여성	(514)	24.1	36.4	31.5	5.8	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31.3	41.7	2.6	4.3	19.019
	전문대학(재/졸)	(179)	17.3	39.1	31.8	8.9	2.8	
	4년제대학(재/졸)	(678)	24.6	37.2	28.3	7.2	2.7	
	대학원(석/박사졸)	(51)	21.6	47.1	21.6	7.8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3.8	39.2	26.8	7.6	2.7	15.093**
	경험 없음	(283)	19.8	32.5	38.9	5.7	3.2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19.8	32.5	38.9	5.7	3.2	32.940**
	일주일 내외	(315)	20.6	38.7	31.1	7.6	1.9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6.0	36.4	28.6	6.5	2.6	
	1개월~6개월 이내	(108)	24.1	40.7	20.4	9.3	5.6	
	6개월 이상	(86)	29.1	46.5	14.0	8.1	2.3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1.4	39.0	30.0	6.2	3.3	10.947
	중소도시	(304)	24.0	35.9	28.3	9.5	2.3	
	읍면	(89)	27.0	30.3	37.1	4.5	1.1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2.1	40.8	27.4	6.7	3.0	18.802
	충청권	(104)	22.1	30.8	37.5	4.8	4.8	
	전라권	(90)	23.3	35.6	31.1	6.7	3.3	
	경상권	(219)	24.7	34.2	32.4	7.8	0.9	
	강원/제주권	(41)	19.5	26.8	34.1	14.6	4.9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1.8	40.6	28.4	6.8	2.4	19.530
	충청권	(121)	27.3	28.9	31.4	6.6	5.8	
	전라권	(92)	21.7	33.7	33.7	6.5	4.3	
	경상권	(236)	23.7	36.0	32.2	6.8	1.3	
	강원/제주권	(32)	15.6	34.4	28.1	15.6	6.3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42.3	16.1	10.2	2.9	21.646**
	중층	(444)	22.5	38.1	30.4	7.2	1.8	
	하층	(442)	21.0	35.1	34.2	5.9	3.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0.4	39.6	29.7	7.2	3.1	4.921
	중위소득 미만	(468)	25.4	34.6	30.6	6.8	2.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정부부처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교육부	외교부	국무 조정실	문화체육 관광부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기타	χ^2	
전체	(1,023)	42.7	31.5	9.3	7.6	5.2	3.3	0.4		
성별	남성	(509)	42.4	27.3	12.2	9.0	5.3	3.3	0.4	17.430**
	여성	(514)	43.0	35.6	6.4	6.2	5.1	3.3	0.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40.0	31.3	10.4	8.7	2.6	7.0	0.0	24.081
	전문대학(재/졸)	(179)	41.9	25.1	13.4	10.6	4.5	4.5	0.0	
	4년제대학(재/졸)	(678)	42.9	33.2	8.4	6.6	5.9	2.4	0.6	
	대학원(석/박사졸)	(51)	49.0	31.4	3.9	7.8	3.9	3.9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43.9	32.7	9.1	6.9	4.6	2.3	0.5	16.003*
	경험 없음	(283)	39.6	28.3	9.9	9.5	6.7	6.0	0.0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39.6	28.3	9.9	9.5	6.7	6.0	0.0	51.402***
	일주일 내외	(315)	45.4	32.7	9.5	6.3	3.2	2.2	0.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42.9	34.2	6.1	8.7	3.9	3.5	0.9	
	1개월~6개월 이내	(108)	40.7	23.1	16.7	5.6	12.0	1.9	0.0	
	6개월 이상	(86)	45.3	40.7	5.8	5.8	2.3	0.0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39.0	34.3	11.4	7.3	5.1	2.7	0.2	38.132***
	중소도시	(304)	49.3	26.6	6.6	6.6	6.6	3.9	0.3	
	읍면	(89)	46.1	28.1	3.4	13.5	1.1	5.6	2.2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41.3	34.1	10.2	6.7	5.3	2.1	0.4	27.941
	충청권	(104)	48.1	24.0	7.7	7.7	7.7	3.8	1.0	
	전라권	(90)	42.2	30.0	6.7	8.9	3.3	8.9	0.0	
	경상권	(219)	42.0	29.2	10.0	10.0	4.1	4.1	0.5	
	강원/제주권	(41)	53.7	29.3	2.4	4.9	7.3	2.4	0.0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42.3	32.7	10.1	6.8	5.7	2.0	0.4	27.111
	충청권	(121)	50.4	25.6	7.4	5.8	5.8	4.1	0.8	
	전라권	(92)	43.5	29.3	5.4	9.8	3.3	8.7	0.0	
	경상권	(236)	40.3	31.4	10.6	9.7	3.8	3.8	0.4	
	강원/제주권	(32)	37.5	40.6	3.1	6.3	9.4	3.1	0.0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8.5	31.4	16.1	6.6	13.1	3.6	0.7	43.995***
	중층	(444)	42.8	31.8	10.4	6.8	5.0	3.2	0.2	
	하층	(442)	47.1	31.2	6.1	8.8	2.9	3.4	0.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43.6	30.8	9.9	7.7	5.4	2.3	0.2	5.937
	중위소득 미만	(468)	41.7	32.3	8.5	7.5	4.9	4.5	0.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4.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원센터나 지원기관의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2.5	40.1	30.2	6.1	1.2	6.334
성별	남성	(509)	21.2	37.7	33.6	6.1	1.4	
	여성	(514)	23.7	42.4	26.8	6.0	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2.6	32.2	40.0	4.3	0.9	20.055
	전문대학(재/졸)	(179)	17.9	38.0	38.0	6.1	0.0	
	4년제대학(재/졸)	(678)	23.3	42.0	26.8	6.2	1.6	
	대학원(석/박사졸)	(51)	27.5	39.2	25.5	7.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3.2	42.8	26.9	5.7	1.4	16.873**
	경험 없음	(283)	20.5	32.9	38.9	7.1	0.7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5	32.9	38.9	7.1	0.7	37.936**
	일주일 내외	(315)	20.0	43.8	32.1	3.2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6.8	40.7	25.5	5.2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23.1	45.4	20.4	9.3	1.9	
	6개월 이상	(86)	25.6	41.9	19.8	11.6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2.5	39.2	30.2	6.5	1.6	4.433
	중소도시	(304)	21.7	42.4	29.6	5.6	0.7	
	읍면	(89)	24.7	38.2	32.6	4.5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1.4	42.7	28.5	6.2	1.2	14.830
	충청권	(104)	19.2	35.6	33.7	8.7	2.9	
	전라권	(90)	23.3	37.8	35.6	3.3	0.0	
	경상권	(219)	24.7	37.4	31.5	5.9	0.5	
	강원/제주권	(41)	31.7	34.1	26.8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0.8	41.9	29.5	6.6	1.1	9.147
	충청권	(121)	22.3	42.1	28.1	5.8	1.7	
	전라권	(92)	26.1	33.7	35.9	3.3	1.1	
	경상권	(236)	24.6	36.9	31.8	5.9	0.8	
	강원/제주권	(32)	25.0	43.8	21.9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3.4	36.5	28.5	8.8	2.9	16.808*
	중층	(444)	20.5	45.5	27.9	5.6	0.5	
	하층	(442)	24.2	35.7	33.0	5.7	1.4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2.2	40.9	29.0	6.7	1.3	1.651
	중위소득 미만	(468)	22.9	39.1	31.6	5.3	1.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5. 한국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들간의 청년 교류사업으로
 일명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2.7	38.0	30.5	7.6	1.2	4.623
성별	남성	(509)	22.0	36.5	32.0	7.7	1.8	
	여성	(514)	23.3	39.5	29.0	7.6	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0.0	31.3	42.6	3.5	2.6	32.988***
	전문대학(재/졸)	(179)	16.8	36.9	39.7	6.7	0.0	
	4년제대학(재/졸)	(678)	23.7	39.7	26.8	8.4	1.3	
	대학원(석/박사졸)	(51)	35.3	35.3	19.6	9.8	0.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3.6	40.7	27.0	7.6	1.1	16.826**
	경험 없음	(283)	20.1	31.1	39.6	7.8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0.1	31.1	39.6	7.8	1.4	49.370***
	일주일 내외	(315)	18.7	43.2	33.3	4.1	0.6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5.5	42.4	21.6	8.7	1.7	
	1개월~6개월 이내	(108)	28.7	31.5	23.1	14.8	1.9	
	6개월 이상	(86)	30.2	38.4	23.3	8.1	0.0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3.3	36.8	30.3	8.1	1.4	5.734
	중소도시	(304)	21.7	41.8	28.9	6.6	1.0	
	읍면	(89)	21.3	33.7	37.1	7.9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2.5	39.0	30.1	7.2	1.2	17.166
	충청권	(104)	19.2	33.7	30.8	14.4	1.9	
	전라권	(90)	22.2	36.7	36.7	4.4	0.0	
	경상권	(219)	23.7	38.8	28.3	8.2	0.9	
	강원/제주권	(41)	29.3	34.1	34.1	0.0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2.5	38.6	30.8	7.2	0.9	11.555
	충청권	(121)	23.1	36.4	26.4	12.4	1.7	
	전라권	(92)	20.7	38.0	35.9	4.3	1.1	
	경상권	(236)	23.3	37.7	29.2	8.5	1.3	
	강원/제주권	(32)	25.0	37.5	34.4	0.0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4.8	34.3	30.7	8.8	1.5	18.786*
	중층	(444)	22.3	43.2	27.7	6.8	0.0	
	하층	(442)	22.4	33.9	33.3	8.1	2.3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3.1	38.0	30.3	7.0	1.6	2.749
	중위소득 미만	(468)	22.2	38.0	30.8	8.3	0.6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6.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참여 의향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χ^2
전체		(1,023)	60.6	39.4	2.978
성별	남성	(509)	58.0	42.0	
	여성	(514)	63.2	36.8	15.2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52.2	47.8	
	전문대학(재/졸)	(179)	50.8	49.2	
	4년제대학(재/졸)	(678)	64.0	36.0	
	대학원(석/박사졸)	(51)	68.6	31.4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66.2	33.8	35.263***
	경험 없음	(283)	45.9	54.1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45.9	54.1	54.416***
	일주일 내외	(315)	57.8	42.2	
	일주일~1개월 이내	(231)	71.0	29.0	
	1개월~6개월 이내	(108)	69.4	30.6	
	6개월 이상	(86)	80.2	19.8	0.5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60.6	39.4	
	중소도시	(304)	61.5	38.5	
	읍면	(89)	57.3	42.7	4.765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61.5	38.5	
	충청권	(104)	60.6	39.4	
	전라권	(90)	54.4	45.6	
	경상권	(219)	58.4	41.6	
	강원/제주권	(41)	73.2	26.8	3.05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60.7	39.3	
	충청권	(121)	62.8	37.2	
	전라권	(92)	55.4	44.6	
	경상권	(236)	59.7	40.3	
	강원/제주권	(32)	71.9	28.1	0.862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62.8	37.2	
	중층	(444)	61.5	38.5	
	하층	(442)	59.0	41.0	0.115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61.1	38.9	
	중위소득 미만	(468)	60.0	4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77. 향후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정부의 지원 필요성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치 않다	χ^2
전체		(1,023)	26.8	39.5	27.6	4.8	1.4	4.086
성별	남성	(509)	24.6	39.7	28.7	5.3	1.8	
	여성	(514)	29.0	39.3	26.5	4.3	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5)	29.6	30.4	33.9	3.5	2.6	19.841
	전문대학(재/졸)	(179)	20.7	36.9	36.3	5.0	1.1	
	4년제대학(재/졸)	(678)	27.3	41.7	24.8	5.0	1.2	
	대학원(석/박사졸)	(51)	35.3	39.2	19.6	3.9	2.0	
해외체류 경험	경험 있음	(740)	28.0	41.5	24.9	4.3	1.4	12.403*
	경험 없음	(283)	23.7	34.3	34.6	6.0	1.4	
해외 체류 기간	경험 없음	(283)	23.7	34.3	34.6	6.0	1.4	21.653
	일주일 내외	(315)	24.1	43.8	27.3	3.8	1.0	
	일주일~1개월 이내	(231)	29.4	42.4	21.6	4.3	2.2	
	1개월~6개월 이내	(108)	30.6	37.0	25.9	5.6	0.9	
	6개월 이상	(86)	34.9	36.0	23.3	4.7	1.2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630)	24.9	39.0	29.8	4.4	1.7	9.290
	중소도시	(304)	29.6	41.4	23.0	4.9	1.0	
	읍면	(89)	30.3	36.0	27.0	6.7	0.0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569)	25.5	40.8	27.8	4.2	1.8	16.881
	충청권	(104)	25.0	36.5	28.8	7.7	1.9	
	전라권	(90)	24.4	40.0	31.1	4.4	0.0	
	경상권	(219)	29.2	41.1	24.2	5.0	0.5	
	강원/제주권	(41)	41.5	19.5	31.7	4.9	2.4	
졸업 학교 지역	수도권	(542)	24.5	41.1	28.8	4.1	1.5	15.612
	충청권	(121)	28.9	38.8	23.1	8.3	0.8	
	전라권	(92)	23.9	40.2	30.4	4.3	1.1	
	경상권	(236)	30.1	38.6	25.4	4.7	1.3	
	강원/제주권	(32)	40.6	18.8	31.3	6.3	3.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137)	24.1	39.4	29.9	4.4	2.2	10.050
	중층	(444)	25.5	42.8	27.5	3.6	0.7	
	하층	(442)	29.0	36.2	26.9	6.1	1.8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555)	25.0	40.7	27.0	5.2	2.0	5.778
	중위소득 미만	(468)	28.8	38.0	28.2	4.3	0.6	

* $p < .05$, ** $p < .01$, *** $p < .001$.

청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FGI 조사

구분	면담조사 내용
도입	인사 인터뷰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국제교류 /해외탐방 경험 여부	Q. 국제교류 또는 해외 탐방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시기 및 유형 언제 다녀오셨나요? 기간은? 어떠한 계기로 다녀오셨나요? Q. 활동 영역 국제교류 또는 해외탐방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점은?
국제교류/해외탐방 참여 동기	국제교류 또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교류/해외탐방 운영 주체	국제교류 또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주관하였나요? 해당 기관/부처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 만족하나요? (만족/불만족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교류/해외탐방 만족도	국제교류 또는 해외탐방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1-5로 표현한다면? 왜 그러한 점수를 매겼나요?
미 참여시 이유	국제교류 또는 해외탐방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없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생성되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에라스무스 +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의향	Q. 에라스무스 +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원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없다면) 그 이유는? (모르는 경우) 간단하게 설명한 이후, 지원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없다면) 그 이유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영역별 수요인식	본인이 지원한다면 어떠한 영역에 관심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면담조사 내용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어떠한 점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나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운영 주체 인식	Q.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어떠한 운영주체가 적절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Q.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대학/공공기관/정부에서 연계 운영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청년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크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국형 국제교류 필요성	Q. 한국형 국제교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필요/불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한국형 국제교류 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지향	Q. 한국형 국제교류 의 궁극적 목표 지향 한국형 국제교류 구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국제교류 운영 기관/단체/정부 적정성(이유)	Q. 한국형 국제교류 의 운영 주체 대학/지자체/정부 가운데 한국형 국제교류 운영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유형 적정성(이유)	Q. 한국형 국제교류 의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한국형 국제교류 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운영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어렵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형 국제교류 운영 절차 과정(이유)	Q. 한국형 국제교류 운영 절차 과정 개별 지원으로 신청하는 에라스무스 + 프로그램 지원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대학/지자체/정부에서 지금까지 모집/운영하는 국제교류 운영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한국형 국제교류 네트워크 주체 범위(이유)	Q. 한국형 국제교류 을 통해 타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어떠한 국가와의 관계 맺기가 필요할까요? -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교류를 통해 타국가 청소년/청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제교류를 통해 타국가 청소년/청년과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요?

세계속의 한국. 청년 국제교류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 국제교류는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서 대학 소속이 없는 청년의 경우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라도 해외 기관 및 시설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등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국제교류 특성 상 국가 관계 등 외부 변수가 많이 작용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유지하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활동 범위는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 확장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교류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갔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제1차 청년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어 청년정책으로서도 국제교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제교류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4년 기준, 코로나19 상황이 전환됨에 따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사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으로서 국제교류는 청년 친화적인 형태의 모델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의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후,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설계,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국형 Erasmus+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3대 정책과제와 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형 Erasmus+ 모델의 비전은 ‘도전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공공외교의 실현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방향으로 도전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격차해소), 촘촘하고 강한 네트워크망 구축(지속가능성), 청소년과 청년 개인의 삶 및 공공외교 주체로서 청년참여 확대(참여와 주도)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는 1. 청소년, 청년친화적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 마련, 3.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참여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이다.

세부 실천과제로 1)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청소년, 청년 국제교류센터 확장을 통한 유기적 국제교류의 장 마련, 3) 참여주체 간 신뢰강화를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설계 운영, 4) 청년 국제교류의 중장기 공동목표 수립 및 국내외 참여자 대상 멤버십 확보, 5)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계 참여 기회 확대, 6)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청소년과 청년주도의 한국형 Erasmus+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Erasmus+ Model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Youth international exchang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a globalized world. However, historically, such programs have been primarily centered around universities, leaving youth outside of academia with fewe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Many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have also been one-off events, such as visits to overseas institutions or cultural heritage sites, rather than sustained engagements. Furthermore, the unpredictabl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xternal variables has made it challenging to maintain continuous exchange programs.

In recent years, the scope of youth activities has expanded beyond national borders, raising the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 As outlined in the "First Youth Basic Plan," youth-led international exchange, particularly focused on global issues, has become a crucial component of youth policy.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however, significantly hindered most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By 2024, with the shift in the COVID-19 situatio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re being restructured to become more youth-friendly, aligning with evolving youth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overseas advancement within youth policy. It explores ways to expand equitabl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xchange, design a sustainable exchange system, and develop youth-led programs. Based on these objectives, the study proposes a Korean version of the Erasmus+ model, establishes strategic directions and goals for its implementation, and outlines three main policy tasks and six specific action items.

The vision of the proposed Korean Erasmus+ model is to "transform the lives of youth and adolescents who embrace challenges, providing them with a platfor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diplomacy." The policy directions focus on: 1)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youth can realize their dreams (gap closure), 2) building a strong and interconnected network (sustainability), and 3) expanding youth participation in public diplomacy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The policy tasks include: 1) building youth-friendly international exchange infrastructure, 2) establishing a sustainable international exchange system, and 3) developing participatory, youth-le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The specific action plans are: 1)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exp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2) expanding youth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s to create organic exchange platforms, 3) designing and operating a multi-layered network to strengthen trust among participants, 4) setting long-term shared goal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securing membership, 5) designing youth-le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based on the youth life cycle, and 6)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youth-led Korean Erasmus+ network to achieve public diplomacy.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일반〉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	--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워크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포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콜로키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기타자료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NYPI Bluenote 통계〉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모형 구축 방안 연구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44)866-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22-7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22-7